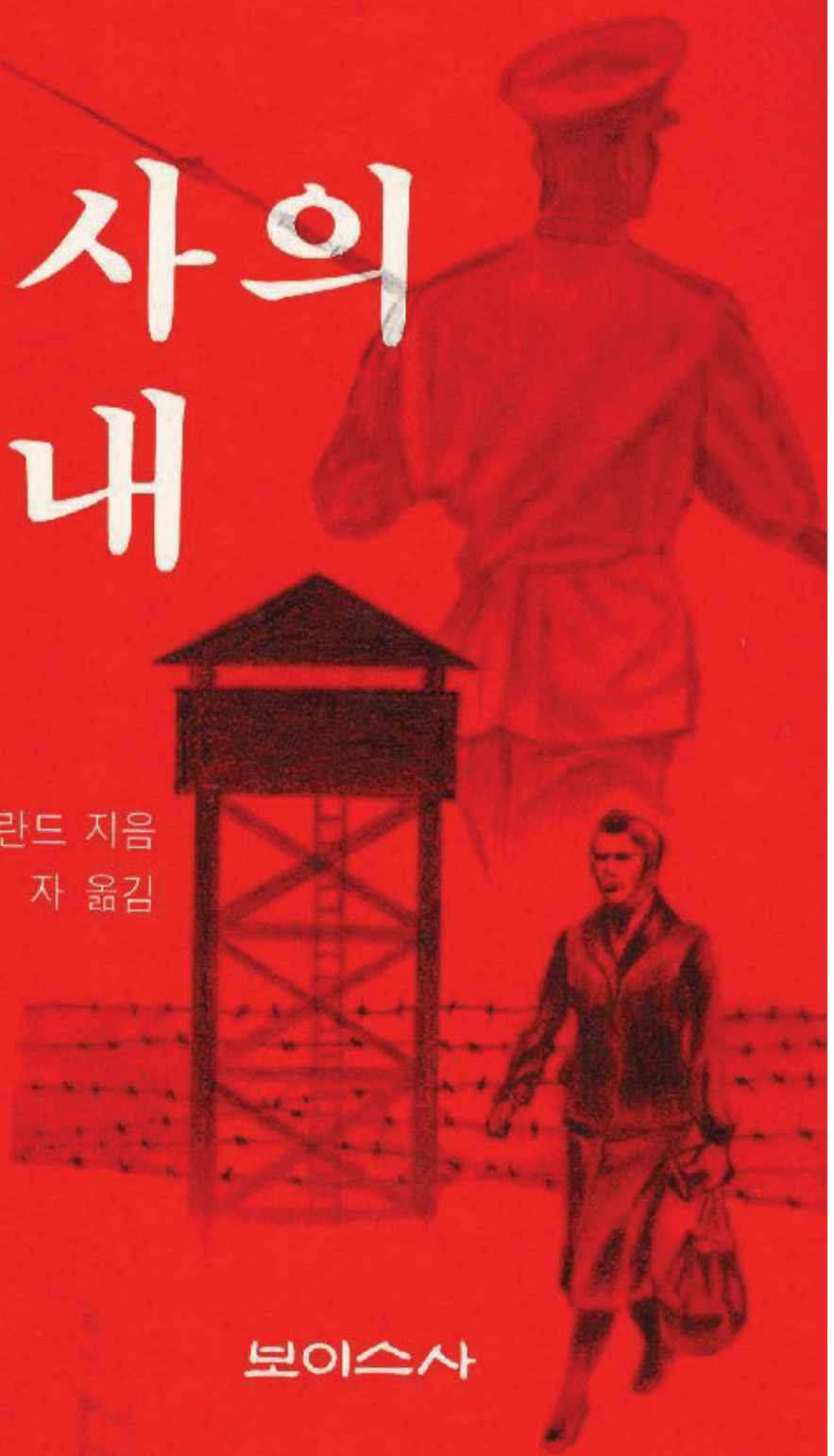


공산권 루마니아의 감옥과 수용소의 온갖 핍박과 고통을
믿음으로 승리한 리차드 범브란드 목사와
사비나 범브란드의 실화

목사의 아내

사비나 범브란드 지음
김 의 자 옮김

보이스사





목사의 아내



사비나 범브란드 지음
김 의 자 옮김

보 이 스 사

Sabina Wurmbrand



THE PASTOR'S WIFE



Translated by
Eujah K. Kwon



VOICE C.P.O. BOX 1779 SEOUL, KOREA
PUBLISHING COMPANY 267-0218 • 267-4395 • 268-6125

Copyright © by Sabina Wurmbrand.

Library of Congress Catalogue Card Number: 79-143216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0-88270-32-4

*Korean Edition by
Voice Publishing Company
C. P. O. 1779 Seoul, Korea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차 례

제 1부

소련군대.....	9
공 포.....	32
리차드의 실종.....	54
나의 구속.....	72
질라바.....	102
나의 개종.....	127
약 속.....	138

제 2부

캐널 수용소.....	149
캐 서.....	178
K 4 수용소; 겨울.....	190
다뉴브강	215
K 4 수용소; 여름.....	227
바라간 평원.....	245
기 차.....	262
터루소	276
돼지농장.....	284

제 3부

다시 집으로.....	300
지하 교회.....	324
반 격.....	350
새로운 공포.....	374
자유를 향해서.....	400
끝 맺음.....	416

제 1 부

소련 군대

1944년 여름, 히틀러의 독일이 불리하기 시작할 때 10만의 소련 군대가 루마니아에 들어왔다. 제 1 중대가 부크레스트에 접근할 때 우리는 제 7 선로에서 그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날은 8월의 마지막 날이었다. 날씨는 구름 한 점 없고 폭풍 잦았다. 총소리도 없었다. 들판 저 쪽 어디엔가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나의 남편 리처드는 전시의 목사로써 루마니아 형무소 막사의 많은 루마니아인들과 알고 지내왔었다. 남편은 그들이 원래 본능적으로는 종교적이지만 너무 오랫동안 무신앙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종교에는 무관한 상태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가서 러시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지상에 계신 천

국이라고 말해줘야 돼요” 하고 리차드가 말했다.

우리가 교외의 베키리에서 내렸을 때 숨어 있다가 나온 그 지역 공산주의자들이 ‘영광스런 붉은 군대’를 환영하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붉은 깃발을 보았다. 그들은 우리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았다. 부크레스트에서는 커다란 공식적인 환영 행사가 준비되었었지만 자유를 찾은 사람들은 얼마 동안은 그 자유에 익숙해지질 못했다.

리차드는 인상적인 젊은이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자신의 믿음의 확실함에서부터 나오는 확신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키에 반 쯤 되는 나는 그의 옆에서 있었다. 이제 전쟁이 끝나서 다시 모두가 친구가 될 수 있으므로 웃으며 서 있었다.

그림자 속에 두 세 명의 루마니아 장교들이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러시아 말 몇 마디를 연습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낮고 낮은 선물인 빵 한 덩이와 한 줌의 소금을 주려고 왔다.

우리는 앞으로 전개될 것을 궁금해 하면서 빈 거리를 바라보았다. 이제 러시아는 우리의 동맹이다. 그러나 또한 약탈과 강간의 맛을 아는 정복 군대이다.

멀리서 죽을 힘을 다해서 페달을 밟고 오는 자전거 탄 소년이 나타났다.

“와요, 러시아인들이 와요!” 하고 그애가 악을 썼다.

공산당들은 열을 지어 섰다. 붉은 기가 뻘뻘스름하게 올라갔다. 수도에서의 축하 행사에 대한 계획을 의논하고 있던 장교들은 뜨거운 햇빛 아래 회생물처럼 서 있었다. 굉음의 오토바이가 다가왔다. 그리고 첫번째 탱크가 들어섰다.

포구에서 빨간 별의 헬멧이 쑥 나왔다. 공산주의자들은 떨리는 소리로 ‘연합군’을 불러대었다. 간이 포장도로가 침입자들의 무게 아래서 흔들거렸다. 거대한 행렬이 속도를 늦추더니 섰다.

선두 탱크가 우리 앞에 우뚝 멈췄다. 철은 더러운 회색으로 흙이 갓고 큰 총포가 하늘을 가리키고 있었다. 환영사가 끝나자 장교 한 명이 몸을 구부려 바치는 빵과 소금을 받았다. 그는 검은 빵을 위험한 물건을 보듯이 뻔히 들여다 보았다. 그리고 웃었다. 그의 옆에 있는 젊은 사병이 나의 눈과 마주쳤다.

“흠, 당신을 무얼 바치려고 가져왔오?” 그가 씩 웃었다.

그날 거리에는 여자들이 거의 없었다. 나는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한 권을 쥐어 주었다.

“빵과 소금과 성경이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술이야!” 그는 너털 웃음을 웃더니 헬멧을 뒤로 제졌다. 그의 좋은 머리결이 햇빛에 반짝거렸다.

“하여튼 고맙소!” 그가 말했다.

쇠바퀴 줄이 길을 파놓았다. 엔진이 검은 연기를 뿜으며 요

란한 소리를 내며 선열이 지나갔다. 우리는 기침을 하고 눈을 감았다. 선로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러시아 군대의 전리품을 보았다. 길가에 굴러 다니는 포도주 통, 닭, 햄, 봉지에 넣은 소세지 등...

군인들은 흥분해서 거리의 가게들의 유리창 속을 손가락질하고 있었다. 부크레스트는 그때 그 사람들 중에는 보잘 것 없는 존재였지만 덩치 큰 러시아인 꼬마들에게는 매우 믿음직한 사람이었다.

리차드는 내려서 그들에게 말을 걸었으나 대답은 오직 “어디에 가면 보드카를 마실 수 있오?” 하는 말들 뿐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려고 집으로 돌아왔다. 불쌍한 그들은 세속적인 영혼의 쾌락 때문에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천국을 잃었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치군의 테러는 결국 끝났다. 사람들은 러시아 군이 와서 진화시키고 평화적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랐다. 새롭고 더 지속되는 폭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짐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나도 우리가 감옥으로 통하고 친구들의 무덤으로 얼룩진 길을 막 출발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는 리차드가 결혼 전에 “나와 함께 살려면 편안할 생각은 말아요” 했을 때 그를 믿지 않았다. 그 당시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거의 상관하지 않았다. 또한 남들에 대해서도 별로 무관한 상태였다. 우리는 아이도 원하지 않았다. 우리는

향락을 원했다. 그러다가 크리스찬이 되었다.

리차드는 노르웨이와 스웨덴과 영국의 전도사업을 위해 일했다. 그는 목사가 되었다. 그는 세계 교회 회의에서 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여러 종파의 교회, 술집, 사창가와 형무소에서 설교했다.

러시아인들이 왔을 때 나는 31살이었고 그때까지 리차드는 잘알려진 설교자이며 저술가였다.

우리는 히틀러의 꼭두각시인 안토베스크 원수가 이끄는 루마니아 파시스트들에게 유태인과 크리스찬이란 사실로 고통받았다. 리차드는 3번 투옥되었었다. 우리는 둘 다 “불법의 종교적 집회”를 열은 죄목으로 군법회의에 회부된 7명 중에 끼어 있었다. 한 루마니아 여인이 경찰서에 와서 장교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나의 유태인 동포들을 감금했어요. 나도 그들과 함께 고통받는 것이 더 낫겠어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구속되어 우리와 함께 하였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에 그런 친구들을 많이 보내주셨다. 그들은 인간의 모습을 한 천사 같아서 밤낮으로 우리가 잘 되도록 기도하고 일하면서 우리 생애의 요소 요소에 나타난다. 하나님은 수백만의 그같은 천사를 갖고 계시어 현재의 우리가 되게끔 하는데 그들을 쓰셨다.

그 한 사람은 안토베스크가 친애하는 그리스 정통파의 영향

력있는 목사였다.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형제라면서 우리의 재판에서 변호해 주었다. 독일인 침례교인 프라이쉬 목사와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교를 위해 큰 일을 했다고 증언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에 모험을 걸고 우리가 무죄라는 사실을 아는 판사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여 우리를 무죄 방면하도록 했다.

매번 리차드가 곤경에 처할 때마다 그를 위해 좋게 말해주는 힘이 되어준 세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솔레임 목사 내외와 그들이 나를 소개한 스웨덴 대사 로터스웨르드 공이다. 그들이 거듭 중재하지 않았더라면 리차드는 감옥에서 완전 나치 지역으로 넘겨졌을 것이다.

안토네스크 원수가 모스크바와 연락을 취하려면 중립국 대사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대사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 한번은 리차드가 유대인 첩포에 걸려서 죄수 노동수용소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 로터스웨르드의 강력한 옹호가 그를 구했다. 그는 셀 수도 없이 많이 우리를 도왔다.

부크레스트는 운이 좋았다. 지방에는 처참한 학살이 자행되었다. 이아시에서는 하루에 일만 일천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했다. 아마 부크레스트에는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구한 이유가 되는 사람같은 10명의 올바른 사람이 있었던 것 같다. 타씨에서는 7명의 소녀가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한 노르웨이 전도사 올라 수녀와 함께 생존했다는 말을 들었다. 다음 대 학살이 있기 전에 어떻게 그들을 부크레스트로 몰래 들어오게 할 수가 있을까? 유대인은 여행이 허용되지

않았다.

경찰에 있는 한 크리스찬 친구가 그들을 구속해서 수도로 보냈다. 우리는 역에 전송나가 그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왔다. 한 젊은이가 그의 여자 친구와 같이 이 지역에 와서 우리와 함께 있었다. 그들은 매우 도움이 되고 위안이 되었다. 특히 젊은이가 그랬는데 그는 우리가 구속되었을 때 목사로써 우리의 일을 대신 담당했다.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고 우리는 뜻을 세워 위협적인 학살로부터 소녀들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끼어들지 않으려고 하여 크리스찬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구원할 수 있었을지도 모를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도록 내버려두었다. 지방 읍에서 유형당한 수만 명을 구출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나의 가족도 체르노비츠의 전방에 살았다. 겨울에 많은 포로들이 눈 위에서 죽어갔다. 굶어죽는 사람들도 있었다. 군인들은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을 학살했다. 부모님과 오빠와 세 자매, 많은 친구들과 친척들이 다시는 오지 못했다. 오늘날까지도 이 생각을 하면 건드릴 때마다 피가 흐르는 통증과 같다.

유태인의 역사는 그런 상처의 사건들로 가득차 있다. 그러한 기억들이 모든 유태인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이것이 그들을 제 정신이 아니게 만들며 이와 비슷한 비극에 통탄하는 나라로부터 온 무리들과 함께 울게 된다.

우리의 단 하나 아들 미하이는 나치정권이 실권했을 때 5

살이었다. 그애는 보통 어린이들보다 숙성하게 자랐다. 공포와 죽음이 각처에 있다. 그애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집회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매일밤 사람들은 걱정을 의논하러 왔다. 그것을 듣고서 일찍부터 잔악과 고통을 깨달았다. 리차드는 늘 그를 가르치고 이야기들을 해주었다.

미하이는 언제나 전도사업으로 바쁘지만 매일 시간을 내어 자기와 놀아주고 이야기해주는 아버지를 존경했다. 한번은 그가 세레 요한이 코트를 들 가진 사람에게 하나도 안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러자 미하이는 “아버지는 코트가 들 있잖아요” 하고 말했다.

“그래, 들이다” 하고 리차드가 대답했다.

“그럼 아빠는 언제나 냄새나는 옷을 입는 이오네스크씨에게 새 것 한 벌을 줄 수 있겠네요?”

리차드는 그러겠다고 약속하자 미하이는 만족해서 잠이 들었다. 그는 언제나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결론으로 끌고 갔다. 그는 자기 아빠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어떻게 주는가에 대해 언제나 주의깊었다. 때때로 리차드에 의해 생긴 개종이 미하이에게 부차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그가 그에게 사탕과 장난감을 가져다주는 개종자들을 좋아하게 된 것이다.

전쟁 중에 우리는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가야 했다. 그곳의 이웃들은 완강한 반-유태적이었다. 유태인에 대한 증

오가 루마니아에 충만했고, 크리스찬까지도, 특히 고위 성직자들이 이를 복돋우는데 한 역할을 했다. 공포에 떨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우리의 안뜰에는 공산당의 지도자로서 모든 것에 반-섬족적인 것의 상징인 코르벨리유 코드레뉴의 큰 초상화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증에는 우리의 가슴에나 마찬가지로 유태인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 우리는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았다. 그러나 리차드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이웃집마다 돌아다녔다.

그는 그리스도인에게 영혼이 구원될 수 있고 믿음은 세속적인 냉소주의나 야만성에 의해 쉽게 당황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구세주에 대한 적절한 말을 찾아 쓰며 하나님의 벌에 대해 불쾌감을 주지 않고 경고했다. 그는 매우 직접적으로 사람을 매혹시키고 다룰 수가 있었다. 그의 푸른 눈은 사람들의 영혼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듯했다.

리차드는 전략적으로 처음에 새 주인을, 다음에는 하나씩 하나씩 이웃을 방문했다. 그들을 웃게 함으로써 시작했다. 3층에 사는 파발레스크씨는 화를 냈다.

“당신네 유태인은 좋은 일이라고는 죽어라고 안하는 사람들이요!”

리차드는 그들의 현관 앞에 서서 간단히 대답했다.

“댁의 재봉틀 참 좋습니다. 저것 어느 회사 건가요? 싱어군요! 계속하시죠. 그건 유태인이 발명한 게 아니던가요? 파발레스크씨, 유태인이 정말 그렇게 쓸모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저것을 갖다 버리시죠!”

총계참 건너편에는 “저놈의 유태인들” 하며 화를 내는 심술궂은 중년의 조제스크 부인이 살았다. 그러나 곧 그녀는 자기가 증오하는 사람들과 걱정거리에 대해서 리차드에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버렸다. 젊은 아들은 난폭하고 또 그 애가 성병에 걸렸을까봐 걱정이 됐다. 리차드는 그에게 말해 보기로 약속했다.

“그가 뭐에 걸렸다 하더라도 요즘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치료법은 유태인이 발명했습시다만.”

그는 그들의 편견을 꺾어 놓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전언을 말했다. 곧 그들은 변화하기 시작하여 우리를 새로운 예절과 사랑을 갖고 대하게 되었다. 코드레느의 초상화는 성구로 대치되고 바깥 세상은 지옥과 같았지만 그 작은 마을은 우정과 평화의 탄 세상에서 살았다.

우리의 새 친구는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경찰이었다. 그는 리차드가 설교하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기 이전까지는 술에 취해서 부인을 때렸다. 그러나 이제 그는 변화하였으며 우리 아들인 미하이를 오토바이에 태워주었다. 오토바이는 그때 진귀한 것이었으므로 미하이는 매우 좋아해 하였다.

공습이 시작됐을 때 우리는 그 도시를 떠날 수 없었다. 유

태인은 여행이 허가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경찰관은 미하이를 태워서 최악의 사태가 지나갈 때까지 지방의 친구네 집에 있도록 데리고 갔다. 검문을 받으면 마하이에게 멋진 루마니아 전통적인 '존 M. 브라드'라는 이름을 주기로 했다. 우리 아이는 무척 무서워했다.

미하이는 잔악함과 고난에 대해 많이 들어왔지만 또한 그 집에서 커다란 선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그는 친구들에게만 둘러싸여 지내며 그들에게서 느낀 사랑에서 훗날 그는 매우 귀중한 많은 교훈을 배웠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의 하나인 아누차는 어느 날 커피마시러 우리 집을 방문했다. 작고 예쁘고 아름답고 명랑한 그녀는 노르웨이 출신이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흐르는 강물같기만 하다.

“저 러시아인들! 모스크바와의 새 협정에 대해 들었어요? 그들이 우리 보리를 다 가져가고 그 담배로 기름을 다 준대요. 어제 한 팔에 팔목시계를 셋 씩 차고 있는 붉은 군대 사람 하나를 보았어요. 그들은 마치 버스포 받는 것처럼 길가에서 시계를 빼앗아요.”

그녀는 웃었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웃을 일이 아니다. 소련 군대는 1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을 약탈했다. 그리고 클레블린에서의 명령으로 공군과 상선과 놀려지는 자본의 반과 모든 차가 러시아로 운반되었다. 상점은 텅텅 비었다. 끝없는 줄이 어디에나 있었다. 그러나 스탈린은 독일이 완전 항

복하면 붉은 군대가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 곧 끝이 나겠지.

“우리 좀 근사한 이야기해요! 사바나, 당신이 숙녀 조합에서 설교한 것을 들었어요. 당신같은 분이 법관이 아니라니 참 아까워요. 아주 훌륭했어요. 그리고 바깥 양반의 설교도 아주 좋았어요. 그런 역사와 예술과 철학이 있으니 두 시간도 긴 것이 아니지요. 우리 노르웨이 사람들은 그런 긴 설교에 익숙치가 않거든요. 그러나 저는 끊이지 않고 계속 설교했으면 하고 바랬어요.”

아누차는 잡담을 좋아한다. 그녀는 곧잘 우리 교회 회보를 더 얻으러 오고 했다. 파시스트는 그것을 금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발행하는데 모두가 애쓰고 있다.

잠깐 동안 우리는 종교적인 자유를 누렸다. 독재자 안토네스크는 모스크바로 소환되었다가 다시 와서 총살당했다. 한 때 유대인과 신교도들에게 폭정을 가하던 정통파 고위 성직자들은 지배력을 완전히 잃었다.

드디어 민주 정부가 섰다. 러시아인들이 기뻐하게도 공산주의자는 몇 개의 관직만을 채웠다. 거의 아무도 앞에 무슨 일이 놓여 있을지 모른다.

“결국 이 나라는 2천만 명의 나라인데 축구장을 채울 만큼 충분한 진짜 공산주의자가 없오”라고 그들은 말했다.

전쟁이 계속되는 내내 우리는 집단 수용소의 유대인, 대 학

살에 의해 고아가 된 어린이, 루마니아의 신교도, 같이 안토네스크 밑에서 억압당하고 나치의 희생물이었던 사람들을 도우려 일했었다. 우리는 헝가리의 유태교인과 다른 억압당한 약소민족 집시에게 첫번째 구조자금을 모았다.

그러나 지금은 새 약소민족이 생겨났다. 사람을 사냥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냥당하게 되었다. 후퇴에서 처진 독일 군대는 스스로 생명을 이어 나가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리는 나치에게 무지막지하게 억압당했다. 그들은 십만 명이나 살상하고 이 나라 전체를 황폐화시켜 도시를 폐허로 만들었다. 친구와 친척들은 화로에 집어던져졌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은 패배해서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다. 남은 군인의 대부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전쟁의 희생물일 뿐이다. 그들은 굶주리고 공포에 떨었다. 우리는 그들을 도우는 일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살인자들을 위해 바보같은 모험을 하는군요” 하고 말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억압받는 자의 편에 서십니다” 하고 리차드는 대답했다.

일요일 오후에 갈색 셔츠를 입고 행진했던 어리숙한 소년들도 마치 동물같이 끌려갔고 나치의 학정에 죽지 못해 참가한 사람들도 있다. 반 유태적인 것이 독일과 루마니아에 성했지만 유태인을 도우려고 생명까지도 내걸었던 작은 집단도 있었다.

왜 히틀러와 그 추종자들 때문에 모든 사람을 증오하는가?
 왜 미워하는 대신에 폭정에 대항한 소수의 사람과 성도들을
 위해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가!

성경은 유태인이 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놓고 있다.
 히브리(Ivri)의 성서적인 의미는 어원적으로는 반대편에 선다
 는 뜻이다. 최초의 히브리인은 아브라함으로 그는 이 말의 진
 정한 의미에 있어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모든 사
 람이 우상을 숭배할 때 아브라함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숭배
 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 이웃보다 더 악하게 되는 길인 복
 수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되돌려 주는 능력
 을 가지셨다.

한 번은 세 독일인 장교가 우리 마당의 작은 헛간에 숨었
 다. 그곳은 눈이 반쯤 덮인 어둡고 작은 차고였다. 우리는 그
 들에게 음식을 주고 그들의 물통을 채워주었다. 우리는 그들
 의 전 날의 잔악행위를 증오하며 또한 우리 자신도 그 희생
 물이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갇힌 야수보
 다 나은 것이 없다고 그들 스스로 느끼게 하려고 그들과 대화
 를 하고 있었다.

내가 어느날 저녁 헛간에 가보았을 때 그들의 통솔자가 말
 했다.

“제 마음 속의 이야기를 말해야겠습니다. 독일군인을 숨겨
 주면 죽는다는 것을 아실텐데요. 그러나 당신은 우리를 숨겨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유태인입니다. 독일군이 부크

테스트를 다시 점령할 때가 꼭 있을 겁니다. 그때 나는 당신이 우리를 위해 한 일처럼 절대로 당신을 위해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해줘야 되겠어요.”

그는 나를 이상한 듯 쳐다보았다. 나는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했다. 나는 뒤집어논 상자 위에 앉으면서 말했다.

“당신은 나의 손님입니다. 우리 가족은 나치에 의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당신이 내 지붕 밑에 있는 한 당신에게 나는 보호를 베풀 뿐만 아니라 손님으로서의 경의도 표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나에게 빚졌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에게 의해 그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경찰로부터는 최대한 보호해 주겠지만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게 보호해줄 수는 없습니다.”

“영터리!” 그가 대답했다.

그는 내 어깨를 두들겼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그의 손에서 이유없는 피가 흘렀다. 그는 사과했다.

“나는 나쁜 뜻에서 그런 것이 아니었요. 유태인이 왜 독일군을 위해 생명의 위험까지 무릅써야 하나 하고 의아했었요. 나는 유태인을 좋아하지 않소. 그리고 하나님도 두렵지 않소.”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말했다.

“구약성경의 성구 ‘이방인을 사랑하라. 너도 이집트의 땅

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나라'가 기억납니다.”

그는 당황한 듯이 보였다.

“그것은 몇 천년 전 일ियो. 당신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고난을 받았다면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오?”

나는 말했다.

“하나님께 있어 1천년은 하루와 같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우리가 전 세대들의 경험을 비망록처럼 간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동안 그 과거의 일들이 쓰여졌고, 우리는 그들을 모르지만 그들은 우리의 감정과 판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하나님은 이방인을 사랑하사는데 좋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맨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들 자신까지도 모두 이방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잠깐만!” 장교가 말했다.

“유대인들은 독일 국민과 인류에 대해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솔직하기 때문에 이 말을 당신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를 유대인에게 죄를 범한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 모두를 용서합니까?”

“가장 악한 죄악도 예수 그리스도 안의 믿음에 의해서 용서받습니다. 나는 용서할 아무 권위도 없습니다. 당신이 후회한다면 예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거죠.” 나는 매우 솔직하게 말했다.

푸석푸석한 눈 위를 저벅저벅 걷는 소리가 바깥 마당에서 들려왔다. 나는 틈새로 내다 보았다. 이웃집의 늙은 귀머거리 문지기였다. 그들 우두머리는 리차드가 그들을 위해 구한(리차드는 담배피는 것을 싫어했다) 담배에 불을 붙여 한 모금 빨고 꾀초는 동료에게 주며 말했다.

“부인, 당신을 이해한다고 말하진 않겠어요. 그러나 당신이 말한 대로 악을 선으로 되돌려주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없다면 서로 죽이는 데 끝이 없을 것 같군요.”

내가 나가려고 일어서자 그들은 일어서서 형식적으로 약간 몸을 굽혀 인사했다. 나는 그들의 세탁물을 쇼핑 백에 넣어가지고 나왔다.

그들은 나중에 국경을 안전하게 넘어 독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들과 같은 러시아 군인 수천 명은 체포된 후 소련 노동 막사에서 몇 년을 일하다가 죽었다. 그곳에는 러시아 기독교인들도 있었다.

그당시에 모든 독일인은 나치 군의 제복을 벗기를 원했다. 언젠가는 얼마나 그 제복을 입고 뱃지와 훈장을 달고 자랑스러워 했던가! 이제는 그것들을 우리가 내놓은 가난한 시민의 복장과 바꾸어 손에 넣기가 얼마나 힘든가!

리차드가 러시아 군인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시작할 때 리차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작정했다.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비나, 조심해요. 만약 집에서 그들과 소련 군대와 부딪치면 어떻게 할 테예요?” 하고 아누차는 물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상관하지 않았다. 리차드는 썬 시계를 취급하는 암 거래상으로 붉은 군대의 병영에 들어갔다. 사람들이 떼지어 빙 둘러쌌다. 잠시 뒤에 그는 성경을 싸게 파는 일로 이야기를 옮긴다.

“당신은 여기에 시계팔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더러 성인이 되라고 왔구려?” 하고 고참병이 말했다.

리차드가 한참 이야기할 때 한 군인이 그의 무릎에 손을 대어 경고했다.

“시계 이야기를 해요. 중대 첩자가 오고 있습니다.”

붉은 군대는 그들로 가득찼다. 그들은 동포가 한 말을 몰래 엿듣고 그 말을 모두 보고한다. 어린 군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다. 그들은 성경을 본 적도 없고 교회에 들어가본 일도 없었다. 이제 나는 왜 러시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지구상의 천국이라고 리차드가 말했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

나는 독일어나 불란서 글을 아는 교육받은 사람 몇 명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사도신경을 설명했다.

“사도신경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 무엇을 생각해라 하는 당칙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자기 스스로의 권리 안에서 한 인격체인 ‘나’

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들은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군대가 가장 느린 트럭의 속도로 움직이고 사람이 그 무리 속에 속해 있으면 사람의 속도도 제일 느린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당신들을 그 무리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사람의 최고의 특권은 그것이 하나님일지라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아 가는 것을 보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 일이 우리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검열관을 속이기 위한 속임수를 쓰면서 우리는 러시아어로 복음서 수천권을 인쇄했다. 붉은 군인들은 무리를 지어 다녔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곤란했다. 우리는 교묘한 수를 썼다. 부대는 기차에 타서 화물을 옆에 싣고 이동했다. 기차가 무기를 옮겨 싣기 위해 측선 위에서 있을 때 우리는 재빨리 복음서를 건네주었다.

붉은 군인들은 가끔 우리의 안쓰는 방에서 잠을 잤다. 한번은 한날 저녁에 모두 군화와 권총을 지닌 채 6명이 묵었다. 나는 집에 이가 끊지 못하게 하느라 고심했다. 특히나 이들은 더욱 짜증나게 만든다. 집에 있는 지 오래되어서 한 시간이라도 시끄러운 막사에서 헤어져 나와 있는 것이 무척이나 기쁜 모양이다. 그런데 이가 가만 있지 않는데.

천진한 얼굴을 한 제복의 두 소년이 우리 집에 왔다.

“우산 사시겠습니까?” 그들은 3개의 흙친 샘플을 내보

이면서 물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사지 않고요, 팔 것이 있습니다.” 리차드가 대답하고서 그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나는 그들에게 마실 우유를 가져다 주었다. 그들 중 더 나이가 들고 머리결이 좋고 겨우 20이 됐을까 한 사람이 나를 쳐다보았다.

“저에게 성경을 준 분이 아니십니까!” 그는 깜짝놀라 말했다. 같은 순간에 나도 그를 알아보았다. “부크레스트로 가는 첫번째 탱크에 있던 사병이시죠?”

그는 아직도 그의 사물함 속에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성경을 다 읽어서 그 중에 의문나는 것들을 마음에 갖고 있었다.

그는 식사 중에 어떻게 그가 동 유럽을 횡단해 싸웠는지 이야기했다. 그의 중대에는 다른 대원들과 같이 신앙없이 자란 유태인이 하나 있었다. “우리 부대의 한 고참병이 이 유태인에게 고약하게 굴었어요. ‘네가 그리스도를 죽였지’ 하면서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유태인에게 완전히 생소했다. 이반은 그 유태인을 우리 집으로 데려왔다. 리차드는 그들에게 성경 처음인 아담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했다. 스탈린은 이제는 그들의 신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주 우리를 보러 왔다. 그리고 그의 연대가 이동해 갈 때 작별선물로 빛나는 새 전기 난로를 물려 주었다. 나

는 리차드를 쳐다보았다. 우리는 그것이 흠친 것인 것을 알았다.

“어머, 예뻐요, 리브만 네 집이 원하는 거랑 꼭같아요” 그 가족은 무일푼으로 오크비즈에서 돌아왔다. 우리는 그 집에 난로를 보냈다. 그 난로는 그리스도의 길을 보여준 데 대한 감사의 뜻에서 흠쳐진 것이었다. 단순한 영혼의 사랑이 이상한 방법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행위에 대해 심판을 내리신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거의 없다. 계속 그리스도의 피가 그런 죄악까지 덮어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

리차드와 그의 루터 교회의 동료, 아그네 솔하임 목사는 전쟁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간이 식당을 시작했다. 접객소라고 해야 할 우리 아파트는 언제나 친구들과 이방인들로 넘쳤다. 많은 사람이 전과자로서 감옥에서 친구 밀리의 열성적인 선교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일요일에는 한번도 12명 이하로 저녁을 같이한 일이 없다.

어린 소녀들이 우리와 함께 일했다. 그들은 몇 번인가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 상담을 요구해왔다. 특별히 한 문제는 나도 확실히 대답할 바를 몰랐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문제이기도 했었기 때문이다.

17세 때 나는 파리에서 살았다. 처음으로 부모님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웠다. 나는 작은 마음에서… 하지 말아라… 해라 투성이인 엄격한 유태 가정에서 자랐다. 그리고 대

학에 와서 내 생애에서의 첫번째 소년이 나를 바꿔놓았다. 그는 나에게 키스하려 했고 나는 저항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소년은 간단하게 물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손과 입술을 만 들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손을 만질 수 있는데 왜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는 것이 잘못입니까?”

선생님도 부모님도 아무도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다. 나는 대답할 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 소년이 마음에 췌 들었다. 그래서 나는 파리의 즐거운 인생에 맞추어 나가도록 신념을 바꿨다. 무신론자는 마음대로 키스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 그의 눈과 그의 손은 죄를 짓는 중개인이었다. 나의 눈과 가슴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것들은 그의 하녀였다.

그리고 언제까지고 도덕심이 억눌린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문제가 자꾸 괴롭힌다.

(왜 여자는 순결을 지켜야 하는가? 이것은 모든 도덕률의 중심이다. 그러나 무슨 목적으로 순결을 지키는가?)

나는 그 이유를 몰랐다. 몇 년 후에야 그 대답을 알았다.

목사의 부인이 보통 성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사람들은 그녀가 그런 유혹을 경험했다고 상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목사 부부도 인간이다. 그리고 과거에 리차

드와 나는 그런 무분별하고 자기 도취에 빠지는 생활을 했다. 그후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몇몇 문제에 대해 불확실하게 느끼면서 귀의했다.

성적인 것은 인간에게는 생명의 원천이고 우리의 결혼생활에서 그것으로 비롯되는 피로는 어떤 때는 굉장했다. 리차드는 매우 인품이 좋고 잘생기고 명철해서 모든 사람의 찬사가 자만심으로 이끌까봐 걱정했다. 많은 소녀가 그를 사랑했고 한 소녀에게는 리차드도 꽤 마음이 끌렸었다. 나는 리차드가 두 여자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아무 말없이 그를 도우려 결심했다. 죄는 흔히 반발적으로 일어나기 쉽다. 그같은 위기에 처한 남편을 가까이서 지켜주는 것은 부인의 의무이다. 그는 아무 말도 안했지만 하루는 피아노로 찬송가를 치면서 “나는 당신이 매 시간 필요하오” 하고 말하며 끝내 울었다. 피아노의 모든 건반이 함께 움직이는 것 같았다.

나는 그를 껴안으면서 “리차드, 당신은 천사가 아니잖아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냥 사람에게요, 그 일은 지나갔어요”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지나갔다. 그러나 리차드가 구속된 후 14년 동안 혼자 남겨졌을 때 나에게도 유혹이 왔다. 그리고 몇 명에게는 외로움에서 거의 굴복했다. 그제서야 나는 리차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공 포

우리 가족은 밤새 아들 하나가 넷으로, 또 딸 셋으로 늘어났다. 부모를 잃은 수천의 유태인 고아들이 집단 수용소에서 돌아왔는데 흔히 따뜻하라고 종이에 싸여져 있었다. 걸칠 거라고는 그것 밖에 없었다. 나는 아이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6 명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들에게 집같은 것을 갖게하는 것은 기쁨이다.

미하이는 즐거워했다. 그는 “엄마는 더 안 낳는다고 하더니 봐요 여기 생겼어요!” 하고 말했다.

그 애들은 사랑스럽지만 너무 야위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꾸만 놀라는 증세가 나타났다.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들의 친척과 친구가 모두 학살당했다.

곧 그들의 패였던 불이 통통해졌다. 그들은 웃고 놀기 시작했다. 러시아 군인들은 그들을 사랑했다. 그 군인들에게는 몇 년간이나 못본 자기 가족이 있다. 러시아인들은 가끔 미하이와 애들에게 길에서 말을 붙여왔다. “사탕 먹으렴!” 하고 그들에게 주기도했다. 그리고 손으로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애들은 웃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그 댓가로 군인들에게 복음서를 주었다.

그 일은 어른들에게는 위험했지만 애들은 안전했다. 그들은 애들을 존중해 주었고 그렇지 않던 군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미하이는 다섯 살 나이에 전도를 시작한 셈이다.

우리 교회 신자들은 밤마다 포스터를 들고 나가 벽과 대문, 버스의 옆면과 기차 대기실 안에 붙였다. 각 포스터마다 성구나 크리스찬적인 전언이 담겨 있었다. 러시아인이 있는 곳에서 일하다가 붙잡힌 친구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우리를 배반하지 않았다. 공산당원이 포스터를 찢자마자 우리는 다시 또 붙였다.

한 사람은 가브리엘라라는 사람으로 매우 아름다웠다. 그 여자는 러시아 군인들에게 아무 어려움없이 접근해서 높은 계급 장교들에게 성경을 주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구속되어서 소련 군대에 의해 루마니아 영창으로 넘겨졌다.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앉아 있는 동안 그녀의 독방으로 한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그녀가 왜 거기 있는가 물었다.

그녀가 설명하자 웃음이 그의 얼굴에 번졌다. “당신을 돕겠오” 하고 그가 말했다. 그러더니 두번째로 초면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녀의 방의 열쇠를 열어주었다. 그리고 결문으로 빠져 길로 나가게 해주었다.

“가요-빨리!”

그녀는 풀려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걸어갔다. 그 사람은 새로 잡힌 경찰서장이었다.

우리는 많은 기적을 목격했다. 친구인 조르게스크 부인은 병이 났지만 의사에게 가지 않았다. 그녀는 약을 쓰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 강경파에 속해 있었다. 그들은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아프지 않을 때 그녀는 러시아인들에게 전도사업을 했다. 그녀는 붙잡혀서 까다롭게 생긴 빨간 얼굴의 사령관 앞으로 끌려갔다. 갑자기 그녀가 마음속으로 소리치자 심한 출혈이 나타났다. 사령관은 피를 보고 뿔뿔해져서 “메리고 나가!” 하고 소리쳤다. 조르게스크 부인은 급히 길가로 쫓겨났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녀는 위기를 모면했다.

“아이구 내 발이야, 빅토리아 가에서 다섯 시간이나 기다려서 겨우 이것을 얻었어요” 아누차는 커피 조금과 소세지 몇 개를 얻었는데 그것은 몇 주일 동안 처음 본 것이다.

그날은 러시아가 ‘해방’ 시켜준 날의 기념일이다. 이틀 동안 가게에는 음식물이 있었다. 곧 선반은 다시 텅텅비고 창문에는 먼지 투성이의 종이 모형 고기와 빈 술병이 진열되었

다. 루마니아는 기근과 직면하게 되었다. 소련의 약탈과 강탈 ('전쟁피해'의 명목으로 앗아갔다)의 최극점이 시들고 작물이 고갈되고 사람들은 기아에 허덕이게 되었다. 사람들은 풀잎과 나무 뿌리로 스프를 만들었다.

세계 교회협의회는 지부가 음식과 옷과 돈을 보내왔고 우리는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 구조자금을 모았다. 솔하임 목사님과 리차드가 운영하는 간이식당은 하루에 2백명을 교회 강당에서 먹였다. 운영의 문제가 어려웠고 공산당 정부는 그 노력을 무산시키려고 했지만 우리에게만 지원해서 일하려는 사람이 많았다.

기근이 가장 심하게 덮친 지역의 어린이들은 부크레스트로 메려와 동포의 집에서 있도록 주선이 되었다. 우리도 6살의 작은 소녀를 받아들였다. 그애는 오이처럼 말라가지고 걸친 옷만 달랑 가지고 왔다. 나는 좋은 음식을 주었다. 처음에는 곡물에 설탕과 우유를 넣어주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그 애는 먹지 않았다. 그애는 농부의 딸로 자기가 아는 유일한 음식인 옥수수 빵같은 마말리가를 원했다. 그애가 우리의 음식을 잘먹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그 애와 매우 오랫동안 이야기해야 했다. 천천히 그애는 체중이 늘어갔다.

우리는 그애를 매우 좋아하게 되었다. 한번은 그애가 말했다. "가을까지는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새 곡식이 추수되자 그애는 자기 부모에게로 돌아갔다.

러시아인들이 부다페스트를 점령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곳의 교회 기관에서 구조기금 일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했다. 리차드는 부크레스트를 떠날 수 없었고 어느 누구도 그 책임을 맡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야 했다.

“가면 안돼요. 그 러시아 군인들은 여자들에 굶주렸어요. 길을 걸어보면 여자들이 목을 잘려도 아무도 아는 척 안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고 아누차가 말했다.

평상시에는 그리 먼 여행이 아니다. 그러나 붉은 군대가 모든 기차와 차를 그들의 사용 목적으로 장악해서 기차역에는 그나마 탈 수 있는 차에 저마다 올라타려고 하여 상상도 할 수 없는 혼잡과 혼란이 있었다. 오랫동안 찾은 끝에 나는 구석 자리를 찾았다. 며칠 동안 우리는 부다페스트로 덜 쾅거리며 갔다. 여자란 나 한 명이었고 온통 러시아 군인이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독일 부대가 집을 부순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모든 것이 폐허였고 버스도 택시도 어떤 교통 수단도 없었다. 나는 연기나는 폐허들 속을 걸어다니면서 찾는 사람은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었다. 독일인들은 많은 사람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추방시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날 거리의 전투에서 학살되었다.

드디어 나는 노르웨이 교회의 지도자인 존슨 목사와 유태인과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다니는 독일교회를 끌고 나가는 히브리 크리스찬인 운갈 목사를 찾았다.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못믿는 것 같았다. 그들은 내가 기근이 최악에 달했을 때

돕기 위해 모르는 곳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천사같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지하실로부터 나오자 음식은 더 귀해졌다. 아무 것도 없었다. 사람들은 전투에서 죽은 말을 고기로 잘라서 먹었다.

교회 건물은 거의가 골조까지 파괴되어 수백 명의 형제가 집이 없게 되었다. 내가 가져간 도움은 대단히 환영받았다.

나는 부다페스트의 적십자 대표이며 구조 사업에 절대로 지치는 일이 없는 랭글리 교수를 만났다. 우리는 내가 떠나기 전에 식사를 함께 했다. 나는 “당신이 하신 일에 그리스도가 그 댓가를 치러주실 것을 빕니다”라고 말했다.

랭글리는 “내가 한번은 전차 값이 없이 전차를 탔는데 어떤 사람이 내 돈을 내주었습니다. 내가 감사하려고 하니 그는 ‘감사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제 내가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을 때 나에게 돈을 내준 어떤 사람의 보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보답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 빚을 갚을 사람은 아닙니다” 하고 그는 대답을 했다.

부다페스트에서 나는 비엔나로 갔다. 보통은 4시간 걸리는 여행인데 지금은 옛새가 걸린다. 나는 기차를 타고 아침 일찍 떠났다. 사람들은 문을 기어올라 지붕에 앉았다. 해외에 나간다는 일은 불가능한 일같았다.

그때 나는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 화물차 쪽 대기에 부크레스트에서 우리와 함께 있었던 오크버즈 피난

민 소녀들이 앉아 있었다. “앉을 자리가 없지만 우리가 만 들어 볼게요” 하며 그들은 웃었다. 그래서 목요일부터 일요일 까지 우리는 지붕에 앉아서 비엔나에 도착했다. 그 도시도 굶 주리고 있었고 아주 심하게 파괴되었다. 나는 많은 모험끝 에 친구와 크리스찬 지도자들과 접촉해서 일을 끝낸 후에 돌아왔다.

몇 주 동안 나는 완전히 집과 떨어져 있었다. 리차드는 나에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을 끔찍히 걱정했오, 당신을 낮 에도 환상에서 보았어요” 그가 책을 열면 내 얼굴이 책상에 보였다. 나무가지가 창유리틀 때렸을 때 그는 내가 온 줄 알고 환상에서 깨어났다. “나는 산속을 걸으며 당신의 이름을 크게 불렀오, 당신의 대답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군요.”

나도 들려서 대답했었다. 나는 어수선한 거리를 헤매며 “리 차드, 리차드” 하고 불렀다. 우리는 그렇게 가까웠다.

나라는 모스크바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지역 공 산당원은 계속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의 우정을 원합니다.” 그들은 말했다.

“신앙의 자유요? 물론이죠. 입헌 군주국으로써 미첼 왕이 있고 전당 내각제도를 한다구요? 왜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서구 세력을 속이기 위해 행해진 것에 불과했다.

소련의 비진스키 수상이 궁전으로 하루 아침에 행진해 들어와 명령을 내릴 때 가면은 벗겨졌다. 군대와 경찰은 해산

시켜야 했다. 왕은 요직에 공산당원을 앉혀야 했고 또 우리는 루마니아에서 교회가 어떻게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 왔는지 알았다.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될는지.

내가 일요일예배를 위해 교회를 정리하고 있는데 솔헤임 목사가 당황한 모습으로 들어왔다.

“이상한 소식입니다. 정부가 숭배자 협의회라는 것을 소집했습니다. 모든 종교가 대표를 보내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는 국회의사당에서 열립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무슨 계획이지요?”

모든 사람이 추측을 하고 소문을 말했다. 많은 목사들은 정부가 말하는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믿었다. 그러나 리차드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일과 똑같잖소? 레닌은 그가 정권을 잡기 전까지는 억압받는 무리들을 매우 강력하게 옹호해주다가 나중에 집단수용소에서 그들 몇 만명을 죽였다고요. 처음에 교회를 승인해 준다고 달래놓고 나중에 쓰러뜨리는 것이지.”

우리는 솔헤임 목사와 상의했다. 그는 선교회 의장이어서 그가 가야 했다.

“우리 가서 말합시다.” 그가 말했다.

정해진 날 아침 우리는 국회의사당에 올라갔다. 거기에는

방청석과 의석이 모두 회교도와 청교도, 정통파 유태교, 주교, 목사, 유태교 목사와 회교의 율법 학자로 꽂차 있었다.

붉은 기가 요소요소에 걸려 있었다. 스탈린은 이 회의의 명예회장으로 정해졌다. 상단에는 고위 공산당원들이 앉아 있었다. 꼭둑각시 수상인 페트루 그로자와 실권을 가진 장관 테오하로 조르게스크도 있었다. 맨처음 대주교의 예배가 있었다. 공산당 지도자들도 성호를 그었다. 그들은 성상과 대주교의 머리에 키스했다.

연설이 시작되었다. 모스크바에 나라를 판 그로자는 어떤 신앙이든지 새 정부는 신앙을 찬성하고 목사에게 돈을 지불하겠다고 말했다. 목사의 봉급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 소식에 흐뭇한 박수가 터져나왔다.

목사와 신부가 대답했다. 그들은 하나씩 하나씩 종교를 인정해줘서 매우 기쁘다는 말을 했다. 교회가 정부를 인정할 수 있으면 정부도 교회를 인정할 수 있다. 한 주교가 모든 정치적 색깔이 역사 속에서 교회와 관련을 맺었던 사실을 역설했다. 이번에는 공산주의자가 등단해서 만족의 뜻을 전했다. 모두가 좋아했다. 이 모든 반가움은 의사당에서 직접 라디오를 통해 세계에 방송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고도 무서운 일이었다. 공산주의는 종교의 말살에 전력을 다한다. 그것의 진면목은 러시아에서 드러났다. 회의 참석자들은 자기들의 가족과 직업과 월급이 어

떻게 될까봐 거짓 선전을 마구했다. 거짓과 정부에 대한 아침을 못하더라도 진상을 말하지 않은 채 묵묵히 있을 수는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거나 마찬가지로였다. 나는 리처드가 격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미 그의 마음 속에 있는 말을 그에게 꺼냈다.

“하나님께 대한 이 치욕을 씻어내지 않겠어요?”

그러나 리처드는 그 후에 생긴 일을 예측하고 있었다. “내가 말하게 되면 당신은 남편을 잃게 되요.”

곧 나는 내 자신의 용기는 아니지만 그 순간 주어진 용기로 대답했다. “나는 겁장이 남편은 필요없어요.”

그는 자기 카드를 들어올렸다. 공산당원들은 기뻐했다. 세계 교회협의회 대표가 그들을 위해 선전을 하려고 한다. 리처드가 연설하려고 오르자 거대한 침묵이 가라앉았다. 그것은 마치 성령이 도래한것 같았다.

리처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일 때, 천사들도 하나님의 예지를 듣기 위해 모인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모든 참석자들의 의무는 왔다 가는 세속적인 권력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구세주 그리스도를 영광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가 연설을 하자 전체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나는 이 선언이 나라 전체에 퍼진다고 생각하니 기쁨이 넘쳤다.

갑자기 종교 장관인 부르드세가 뛰어 올라와 “당신의 발언권을 취소하겠오” 하고 소리쳤다. 그는 앞잡이들에게 강단에서 소리질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리차드는 그를 무시하고 계속했다. 관중은 박수치기 시작했다. 그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부르드세는 으르렁거렸다. “마이크를 꺼라!”

회중이 소리질러 그를 쫓아냈다. “목사님! 목사님!” 그들은 리드미컬하게 합창했다. “목사님! 목사님!” 리차드는 한 무명의 목사에서 목사가 된 것이다. 그 합성소리는 몇 분간 계속되었다. 고함과 박수소리는 마이크 줄이 잘리고 리차드가 하단한 후에도 한참 계속되었다. 그것으로 그 회의는 끝났다. 우리는 소음과 혼란 속을 빠져나왔다.

리차드의 어머니는 집에서 라디오를 통하여 모든 것을 들었다. 방송이 중단되었을 때 그녀는 다시는 아들을 못보는 줄 알았다.

“너희 둘 다 체포되는 줄 알았다. 무슨 일이 날 것이냐?”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되어 물었다.

“어머니, 저에게는 권능의 구세주가 제세요. 그분께서 나를 위해 제일 좋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무런 공무상의 움직임은 없었다. 그러나 곧 공산당의 하수인들이 우리의 집회소를 부수러 왔다. 우리는 금방 더 큰 새 예배당을 열었다. 주마다 거칠게 생긴 청년들이 뒤쪽에 와

서 휘바람을 불고 깔깔거리며 방해했다.

“감사해야 됩니다. 듣는 척하는 군중보다 시끄럽게 구는 사람이 낫습니다.” 솔헤임 목사가 말했다.

우리는 가두 설교 전략을 실천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참가하기를 너무 부끄러워했다. 이 방법이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다. 길에서 한 무리를 만나면 우리는 찬송을 불렀다. 이것은 루마니아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이어서 사람들은 언제나 모여들었다. 그러면 나는 간단하면서도 정곡을 찌르는 설교를 했다.

어느날 오후에는 거대한 말뚝사 공장의 바깥에서 공산당이 나라를 인계한데 대한 반대 집회가 있었다. 나는 거기서 공원들에게 구원에 대해 설교했다. 다음날 경찰이 공장의 군중에게 총을 발사했다. 많은 공원들이 총격을 당했다.

그리고 한번은 대학 계단에서 설교했다. 군중은 운동장을 메꿀 때까지 모여 들었다. 그렇게 많은 군중은 지금까지 본 일이 없다. 사람들은 길가에까지 넘쳤다. 교통이 부크레스트의 가장 큰 길에서 밀렸다. 야유꾼도 없었다. 다만 박수만이 계속됐을 뿐이다.

내가 리차드에게 나의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아누차가 뛰어들어 왔다.

“안나 포커가 대학 운동장에서 연설한다고 온 동네가 야단에 이예요. 그 여자는 루마니아를 스탈린을 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다시 왔대요”

포커 부인은 러시아로 갔던 공산주의자 선생이다. 그녀는 붉은 군대에서 교관이 되었다. 그녀는 유태인이고 피부가 검었다. 내가 그런 공공 장소에서 설교하기 시작하자 소문이 퍼져 자기 남편을 이탈했다는 죄목으로 직접 싸죽인 유명한 안나 포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래서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안나 포커가 왜 그들의 죄를 누우치라고 말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크게 웃었다.

1947년 체포가 시작되었다. 온갖 부정과 폭력의 수단이 쓰인 강제 투표로 공산당이 모든 것을 통치하게 되었다. 반대당의 지도자들, 정직하고 부정직한 경찰의 장들, 그리고 민간인 공무원들이 공포의 물결 속에 숙청당했다. 다음 차례는 천주교 주교와 수많은 신부와 수녀들이었다. 밤새에 그들은 보통 때와 같이 서방에 종교 방송을 만들고 있다가 체포되었다. 수만의 사람들이 감옥과 노동수용소로 사라져갔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산에서 자유의 전사에 가담했다.

러시아인들 밑에서의 초기 혼란 때 루마니아를 떠났던 유태인들은 이제 덩에 걸려들었다. 국경은 폐쇄되었다. 그때까지 수천 명이 소련의 통치 아래서 자유를 찾아 빈털털이로 가진 것을 모두 놔두고 도망갔었다.

아누치는 그녀가 구속당할 유태인 리스트에 올라 있다고 믿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정부에 반대한 죄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 누구든지 외국인과 관련을 맺은 사람은 의심스러

웠다. 심지어는 외국인을 면도해준 이발사까지도 의심했다.

슬픈 작별이었다. 우리는 매우 가까웠다.

우리는 눈물로 포옹했다. 아누차는 “당신들을 국외로 오게 하도록 애쓰겠어요. 우리 자유가 있는 곳에서 다시 만나요.”

리차드는 그날 아파서 침대 신세를 졌다. 그녀는 그가 체포당할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침대에 몸을 굽혀 몇 가지 약속을 하며 그에게 키스했다. 그리고 그녀가 애써서 우리는 다시 만났다. 20년이 걸렸지만 말이다.

공포는 퍼져 나갔다. 비밀 경찰은 갑자기 쳐들어와서 오래 수색했다. 그리고는 진술을 받기 위해 데리고 갔다.

그들은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마시오. 잠깐이면 됩니다” 하고 말했다.

외국 신문기자들은 ‘고기’ ‘생선’ ‘빵’ 이라고 딱지를 붙인 밴스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국민이 음식을 공급받는다고 보도했다. 그들은 밴스 차에 음식이 아니라 죄수가 운송되는 줄을 몰랐다.

우리에게 첫번째 경고가 왔다. 리차드는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복 형사가 걸어들어 왔다.

“리오자느 형사입니다” 하고 스스로 소개했다. 리차드는 그를 쳐다보았다.

“나는 당신에게 비밀 정보를 주려고 왔습니다. 비밀경찰 본부에는 당신에 대한 크고 두꺼운 첩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봤오. 어떤 사람이 당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읍니다. 당신은 많은 러시아인들에게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었읍니까?” 리오자느는 그의 사포같은 손을 박박 문질렀다.

“그러나 우리끼리 협정을 보면 될 듯 싶습니다.”

뇌물을 얻기 위해 그는 정보를 누설하는 것이다. 나도 같이 끼어들어서 우리는 가계약정을 보았다. 돈을 주머니에 채우며 리오자느는 “싸게 한줄 아십시오. 제보자의 이름은...” 하고 말했다.

“그만! 알고 싶지 않아요” 하고 내가 재빨리 중단시켰다. 그 사람에 대해 아무런 반감도 느끼고 싶지 않았다. 아마 어리석어서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당시에 제보자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었는지 알지 못했다.

리오자느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그러시다면” 하고 말하고는 가버렸다.

이 일이 있는 후 금방 리차드는 심문을 받았다. 붉은 군대를 타파했다는 죄목은 없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몇 있어서 그들을 통해 리차드는 3주 후에 풀려났다. 그러나 이것이 집행 유예에 불과하다

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

점점 더 많은 우리의 친구와 우리에게 도움을 주던 사람들이 구속되었다.

나는 내가 처음으로 비밀경찰에 의해 고문받은 사람을 보던 날을 기억한다. 그는 자주빛으로 부풀은 입으로 거의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그는 친절하고 누구나 다정하다고들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의 눈에는 증오와 절망만이 보였다.

공산당들은 뇌물과 위협으로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동조하게 만들었다.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서는 반역죄를 씌웠다. 가장 완강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감옥에 갔다.

한가지 정치적 장애물이 남아 있었다. 우리가 사랑하는 미첼 왕은 전쟁없이는 항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1947년 12월 미국과 영국이 크레물린의 꼭두각시인 그로자를 승인한 후에야 그는 억지로 왕위를 내놓게 되었다. 영터리 법관과 전의 철도원이었던 그로자와 게오르규 데이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었다. 그들은 왕이 양위하도록 명령했다. 궁전은 군부대가 둘러쌌다. 왕은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 바로 그날 ‘루마니아 인민 공화국’이 탄생했다.

나는 “중이 왕이 되자 지구가 진동했다”는 한 격언이 생각났다.

하찮은 기침이려니 하고 그럭저럭 넘겼는데 일주일 안에 나는 기관지염으로 몸져 누웠다. 굶주림과 영양부족과 부다페스트의 모험이 나를 쓰러뜨린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운이 없으면서도 가뿐하게 몸져 누워 있었는데 청하지도 않은 손님이 찾아왔다. 러시아인 여자 의사였다. 그녀의 얼굴은 비극적이었다.

베라 야코브레나 부인은 우리를 약간 알 뿐이다. 그녀는 수많은 목사와 교회 신도가 시베리아의 노동 수용소로 끌려간 곳인 우크라이나의 한 마을에서 왔다. 그녀도 역시 신자였다. 그녀는 내 병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전할 말이 있었다.

“우리는 남녀 모두 숲을 깨끗히 하는 일을 했어요. 우리는 굶어서 죽거나 얼어 죽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야코브레나 부인은 두껍고 흰 상처들이 있는 손으로 나의 팔을 만졌다. 그리고 무서운 기억으로 몸을 떨었다. “매일 사람들은 눈에서의 과한 노동으로 쓰러져 죽었어요.”

그녀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을 들었을 때의 벌은 맨 발로 눈 위에 서 있는 것이었다. 그녀의 일 할당량을 못채웠을 때는 경비원들은 주먹으로 쳐 쓰러뜨렸다. 그녀는 눈 속에 쓰러졌다. 그리고 수용소로 돌아갔을 때 주는 몫은 죽도 받지를 못했다.

울면서 그녀는 혼자 남겨져 이리저리 방황했다. 그리고 죄수들이 총살당하는 철조망 부근의 금지지역을 넘어 들어

갔다. 그때 거친 목소리가 외쳤다.

“여보시오, 당신의 어머니는 신자요?”

놀라서 아코브레나 부인은 숨이 막혔다. “왜 물으세요?” 바로 그 순간에 그녀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비원이 말했다.

“내가 당신을 10분 동안이나 지켜보고 있었지만 쓸 수가 없었오. 내 팔은 건강한테 팔을 움직일 수가 없었오. 그러니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오. 뒤로 돌아가서 다른 길을 찾아보시오.” 그의 목소리는 온화했다.

야코브레나 부인은 그날 이후 그 군인을 다시 보았다. 그는 웃으면서 “이제는 다시 팔이 움직여 집니다” 하고 팔을 들어 보였다.

그녀는 이 수용소에서 10년 이상을 살아 남았다.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려고 돌아온 것이다. 이제 그녀는 소련 군대의 의사이다.

머리가 쭈셨다. 그 기적을 생각하기 보다는 그녀의 고난 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다. 이것이 무슨 의미란 말인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말하러 왔는가 말이다.

그녀가 가려고 일어서자 나는 내 약한 몸으로 겨우 그녀에게 그날 밤 묵고 가라고 권했다. 리차드가 돌아올 때까지만

이라도 기다리라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벌써 문에 가 있었다. 잠깐 그녀는 가만 있다가 말했다.

“저희 남편도 비밀경찰에 잡혀 갔습니다. 벌써 12년째 감옥에 있어요.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그녀는 가버렸다.

12년?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훨씬 후에 나는 이 하나 님으로부터의 전언이 나와 나의 남편이 받을 수 있는 고통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메섹의 초대 교회 신자였던 아나니아를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셨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열 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나라를 떠나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니다. 매일 나가가 어려워졌지만 아직도 돈을 써서 나가는 사람이 수천이나 됐다. 나는 리차드가 정말 나가기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말했다.

“안토네스크의 통치 아래서 한번 투옥되어 2주나 3주 이상 살은 적이 없어요. 공산주의자들이라면 몇년 동안 간혀 있어야겠지. 당신도 붙들려 갈 것이고, 그리고 미하이는... 누가 그애를 돌봐줄까? 그리고 다른 애들은?”

그러자 또 한가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일년 동안 보이지 않던 목사가 집으로 찾아왔다. 리차드가 그를 하나님께 귀의시켰었다. 그는 한때는 알콜 중독자로 술집을 돌아다녔

는데 리차드는 하루 밤에 그와 이야기하고 다투고 그리고 설득했다. 그가 다음날 취기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딴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를 보자 그 일들이 생각났다. 그리고 그와 이야기할 때 몇번이나 다음 말을 했다.

“그때 당신이 내게 말해준 성구 중에서 이것이 가장 감명깊었습니다. 롯에게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너의 인생을 위해 도망가라’는 말이지요.”

그가 돌아갔을 때 리차드가 나에게 물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소? 왜 오랫동안 안보이다가 찾아와서 자꾸 자꾸 ‘당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가라’고 하겠소? 그것은 내가 도망가서 생명을 구하라는 경고가 아닐까?”

나는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는 것이라구?” 하고 반문하며 침실로 들어가서 성경을 펼쳤더니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생명을 잃으려는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찾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였다.

나는 리차드에게 “당신이 지금 떠나면 이것을 다시 설교할 수 있게 될까요?” 하고 말했다.

우리는 그날 밤 떠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 뒤 리차드는 말했다.

“우리가 서방으로 가면 그것이 루마니아의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감옥에 들어간다면 우리 인생 모두 끝이오. 나는 고문당하고 죽을꺼요. 그리고 당신도 투옥되면 전도사업도 끝이오. 슬헤임 목사는 외국인이라서 여기 있을 수가 없으니 미하이는 길에서 공산주의자로 자랄 것이오. 그것이 누구에게든 무슨 도움이 되겠오?”

나는 “우리는 여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마지막 신호가 왔다. 우리는 브르크레스트 근방의 비밀의 집에서 집회를 열고 있었다. 그것은 교회보다 더 안전했다. 우리는 그렇게 축복받은 예배, 그렇게 많은 귀의자들을 처음 가져보았다. 마치 우리 앞에 놓인 일을 아시고 가장 심각한 걱정에 하나님께서 큰 위안을 주시는 것 같았다.

하루밤은 큰 집만 빼고 가진 모든 것을 잃은 부자의 집에서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그 집도 곧 잃을 것이다. 우리는 차례로 망을 보았다. 이같은 비밀기도회는 우리 모두를 감옥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

50여 명이 철야기도를 위해 모였다. 자정이 다 될 무렵 한 여인이 무릎꿇고 큰 소리로 말했다.

“떠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당신, 훌륭한 목자는 그의 양 떼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끝까지 버티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리차드의 문제를 알지 못한다. 우리 모두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다시 말하지 않았다.

새벽이 오자 우리는 차가운 거리를 지나 집으로 걸어왔다. 그때는 1월로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나는 “지금 우리는 떠날 수 없어요” 하고 말했다.

리차드도 동의했다. 우리는 모두에게 “우리는 여기 있을 겁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은 매우 기뻐했다.

이 리차드에 대해 경고 예언을 했던 여자는 14년 후에 그가 돌아왔을 때 역에 꽃을 들고 그를 보러 나왔다. 리차드는 그녀를 기억하고 “당신의 충고를 받아들인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리처드의 실종

“리처드, 지옥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날 우리는 저녁을 친구들과 함께 지냈는데 불가피하게 화제는 공산주의자들에게로 돌아갔다. 우리도 잘 아는 훌륭하고 정직한 한 정치가가 구속되었는데 몇 주일 후에 그는 감방에서 목매달아 죽었다. 무엇이 그를 자살하게끔까지 했는가? 어떤 사람이 말했다.

“그는 지옥을 벗어나려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지옥이란 자기가 한 죄악을 기억하면서 암흑 속에 혼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고 리처드는 대답했다.

1948년 2월 29일 일요일에 리처드는 혼자 교회로 걸어갔

다. 나는 따라가다가 솔헤임 목사를 작은 예배실에서 만났는데 그는 당황하는 것 같았다.

“리차드는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마음 속에 너무 생각이 많아요. 긴급한 약속이 생각나서 여기오는 것을 잊었나봅니다.”

“그러나 그이는 반시간 내에 나를 여기서 보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를 만났나 보죠. 울 겁니다” 하고 솔헤임이 말했다.

솔헤임 목사는 예배를 주도했다. 나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보았지만 그는 그들 아무와도 함께 있지 않았다. 두려움이 내 마음 속에 싹텄다. 오후에 리차드는 나도 아는 한 젊은 쌍을 결혼시켜야 했다.

“걱정마십시오. 리차드를 모르시는군요. 그때 우리가 여름 캠프를 갔을 때 아침에 신문사러 나가서 점심 때 아침 식사에 참석하러 올 수 없다고 전화걸었던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그 생각에 웃음지었다. 리차드는 급한 용무를 생각해내고는 부크레스트로 갔었었다. 그는 다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우리 집에서의 일요일 점심은 보통 여러 사람이 모인 즐거운 일이다. 음식은 그리 많지 않으나 우리는 서로 이야기하고 노래하였으므로 그곳에 오는 사람으

로서는 한 주일의 큰 행사였다.

우리는 리처드를 기다리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오지 않았다. 그 전날 밤 우리는 많은 손님들을 맞았었다. 리처드는 행복하게 이야기했다. 갑자기 한 사람이 말을 중단했다.

“리처드, 슬프게 보이니 웬일이십니까?” 리처드는 전도서를 인용하면서 이상하게 대답했다. “나는 우스개 소리를 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노릇이죠.”

그것은 우리의 문제와는 전혀 판판인 것이었다. 이 말은 그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웃어야 할 어처구니없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솔헤임 목사가 그 오후의 결혼식을 집행했다. 우리는 병원이란 병원은 다 전화해보았다. 나는 그가 교통사고가 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사고 병동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내가 할 바를 결정했다. 내무부 장관에게 가보기로 하였다. 리처드는 구속당한 것이다. 그리고 그를 찾는 일이 몇 시간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년이 지났다. 이 사무실 저 사무실로 돌아다니며 열리는 문을 다 열어 보며 찾아다녔다.

나는 중요한 죄수는 내무부의 지하 감방에 가둔다는 사실

을 알았다. 그래서 구속당한 남편과 아이를 찾는 여자가 하도 많아서 정보국은 질문을 받아들인다. 그 계단은 엄마들과 아이들로 가득차 있다. 그들은 뉴스를 물으며 희망없이 서 있었다. 반대편 벽에는 슬로간이 장식되어 있다. - 우리는 적의 계급에게 무모할 것이다.

여자들은 돌아가면서 질문했다. 사무원은 타이프로 작성한 이름들을 조사해 보는 척했다. 그들은 서류철 캐비닛을 들여다 보았다. 그러나 그들 실종된 사람 모두 아무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리처드가 모스크바로 끌려 갔다는 소문이 들었다(안토네스크와 몇 사람이 그랬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내 인생에서 벗어나갔다고 믿을 수가 없었다. 저녁마다 나는 저녁식을 준비해 창가에 두었다. 나는 그가 오늘 밤은 오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는 아무 죄도 진 일이 없으므로 곧 석방될 것이겠지, 파시스트들도 1주나 2주 안에는 내주었는데 공산주의자들은 파시스트보다 더하지는 않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오지 않았다. 나는 이마를 창틀에 묻고 울었다. 밤이 늦어 잠을 청하려 했으나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아침에 솔헤임 목사와 옛날 우리의 동맹이었던 스웨덴 대사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다. 로이터스바르트씨는 그가 한번 의무부장관인 안나 포커에게 말해보겠다고 하였다.

포커 부인의 대답은 뻔했다.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범브란드 목사는 기근 구조사업을 위해 달라가 가득 든 가방을 들고 출국했다고 합니다. 그는 덴마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사는 수상과 이 문제를 의논했다. 그로자는 포거와 똑같은 말을 하면서 명쾌한 약속을 했다.

“범브란드씨가 감옥에 있는줄 아셨다고요? 그 사실을 증명하실 수 있다면 내가 그를 풀어주겠오.”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자신한다. 한번은 비밀경찰 감방에서 한 사람의 존재가 사라졌다. 아무도 이제는 중개할 수 없다. 누구나가 시도하는 것이지만 이제 남은 희망이라고는 뇌물 뿐이다.

“내 각인 테오하리 게오르게스크를 아니?” 하고 학교 시절 친구인 클라리 마이어가 물었다.

“그의 형이 우리집 근방에 살아서 적당한 가격이라면 그가 감옥 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구나. 너를 위해서 그의 부인에게 말을 해볼께.”

게오르게스크씨는 기꺼이 하겠단다. 모든 것은 완전한 비밀에 붙이는 한도 내에서. 그러나 그의 호가는 매우 높았다. 나는 그가 원하는 대로 마을 변두리의 칙칙한 헛간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웃은 멋지게 차려 입었지만 땅딸막한 사람이었다.

“제가 게오르게 스크입니다. 제가 일을 중개합니다. 제 형에게 한 마디만 하면 다 된거나 다름없습니다. 보증이요? 제 말이 그 보증이죠.”

그가 부른 가격을 구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었지만 나는 구할 수 있었다. 그 돈이 넘겨졌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사기당한 첫 번째도 마지막도 아니다. 우리는 어쩔 수가 없었다. 나는 도둑과 범죄자를 많이 만났지만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매우 전문적인 사기꾼들이었다. 몇 명은 고관들이다. 어느모로나 공산주의자인 자들은 거의 없고 이름 뿐이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아요?” 밤 사이에 우리 집에 온 고위 당 간부가 말했다. “아마 영국인과 미국인이 올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이런 생각으로(그리고 현재로는 현금 보상으로) 그는 도우려 했다. 그는 그 일이 그의 직업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하였다.

세번째 공산당 간부는 학생의 신분으로 그를 아는 한 여자를 통해서 손이 미쳤다. 그들은 교섭을 위장하기 위해서 연인들같이 밀회를 가졌다.

그러나 아무 결과도 생기지 않았다. 쓸데없는 노력을 몇 달간 소모한 끝에 어느 날 저녁에는 한 사람이 집에 찾아왔다. 그 사람은 수염이 덩수룩하고 살구주의 냄새를 풍겼다.

그는 진밀히 말하자고 우겼다.

“저는 당신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말했다. 나의 가슴은 덜컥했다.

“나는 간수입니다. 어느 감옥이냐고는 묻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는 그의 음식을 대주었고 그는 당신에게 소식을 전해주면 돈을 줄 거라고 하더군요.”

“얼마죠?” 나는 말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실패를 맛보았다.

“나는 내 목을 걸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만...” 그가 내놓은 금액은 굉장했다. 그것은 깎여지지가 않았다.

솔헤임 목사도 나만큼 의심스러워했다. 그는 간수에게 말했다. “범브란드 목사님이 자필로 쓴 글을 가져와 보십시오.”

목사는 그에게 기근 구제상점에서 산 막대 초코렛을 주면서 “이것을 범브란드에게 가져가서 그의 서명이 들은 멧세지를 받아서 다시 오시오” 하고 말했다.

이틀 후에 그 사람은 돌아왔다. 그는 모자를 안쓰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막대 초코렛을 샀던 종이를 주었다. 나는 그것을 읽었다.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는 당신의 사랑스러움에 감사하오. 나는 잘있오. 리처드.”

그것은 분명히 그의 자필이었다. 단호하고 아직 아무런

병고도 찾아볼 수 없는 대담하고 명확한 그의 필체이다. 평정을 가장하는 듯한 아무 가능성도 이 글에는 없었다.

“그는 잘 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그의 사랑을 보냈습니다.” 그는 술냄새를 풍기며 말했다.

우리는 그가 계속 소식을 전달해주면 그에게 돈을 주기로 결정했다. 그는 드디어 “좋습니다. 이것을 들키면 12년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고 말했다.

그는 여러가지를 사랑했으므로 그의 자유를 걸고 모험을 했다. 그는 돈을 사랑하고 술을 사랑하고 또 리차드도 사랑했다. 그는 가끔 리차드에게 과외의 빵을 슬쩍 집어 넣어주고 계속 우리에게 그의 글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가 드리는 돈으로 무얼 하실 것입니까?” 내가 물었다.

“취하지요!” 그는 웃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술 문제만을 빼고 그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셨다.

솔헤임과 그의 사랑스런 부인 실지아는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의 친지들로 그들은 리차드를 구하기 위해 나의 용기를 북돋아 놓는데만 주력했다.

한번은 솔헤임 목사와 내가 스웨덴 대사의 초청을 받아 대사관에 갔다. 대사는 리차드가 쓴 쪽지를 보자 그는 재

빨리 수상에게 노트를 썼다.

“당신은 우리가 그가 루마니아 감옥에 있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다면 범브랜드 목사를 석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나는 그것을 손쉽게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자는 외무부 장관 안나 포커에게 그 노트를 건네주었다. 그의 농담이 불발한 것이다. 그녀는 로이터스베르드 경을 불러 호통을 쳤다. 그녀가 범브랜드는 덴마크어로 갔다고 하면 경도 그렇게 믿어야 한다. 그녀는 순전히 국내적인 일에 간섭하는 세력도 없는 대사에게 모욕당하기가 싫었다.

대사는 외교상 호감이 안가는 사절로 낙인찍혔다. 그의 상관은 그가 간섭하게 된 생각에 대해 물었다. 리처드는 엄연히 루마니아 국민이다. 외국인의 전도사업의 일은 하고 있어도 말이다. 로이터스바르드 경은 그의 양심이 무죄가 명백한 사람을 돕도록 그를 부추겼다고 대답했다. 그는 국무성 장관에게 속아왔고 그러므로 그것을 항변하는 것은 그의 의무였다. 대사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정부는 이런 사람에게 언제나 관대한 것은 아니다. 그는 스톡홀름으로 소환되어 외교직을 사임하였다.

그런 일이 있는 직후 그로자는 공석이었던 국민의회의 의장직에까지 올라갔다. 한번은 그로자가 유명한 루마니아 풍자가인 파스트렐을 만났다. 파스트렐은 그로자를 빈정대는 농담으로 놀려대었다.

“나는 명예직에 올랐습니다. 나는 대통령입니다.”

파스트렐은 말했다. “나 같으면 절대로 그런 농담은 하지 않습니다.”

이 신랄한 농담 속에 그의 복수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다. 이것은 유대인만이 아는 비극적인 조크의 정신이다. 말 한 마디로 감옥에 가는 세상이다. 파스트렐은 6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

리차드를 그의 또 하나의 자아로, 루마니아를 제 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솔헤임 목사는 이 나라를 떠나야만 되었다. 그는 우리와 이 나라와 그의 모든 전도사업을 그의 자신과 동일시했다. 그는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가까이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충실한 친구들이 많았다.

정치범 부인은 식량 배급카드를 받을 수 없었다. 그 카드는 일하는 사람에게만 주는데 정치범의 부인은 일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식량카드를 탈 수 없기 때문에 죽어 그 존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리차드가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최고위 당국과 논쟁하지 않았다.

“나와 내 아들은 어떻게 살니까?”

“그건 당신 일이지요.”

미하이는 다시 나의 유일한 애가 되었다. 리처드가 구속되기 전에 우리는 동부 루마니아에서 나치의 대학살로부터 빠져나온 고아애들을 잃었다. 소련은 그들이 합병한 두 지방(베사라비아와 부코비나)에 피난민을 살릴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조만간 애들이 우리 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수백 명의 유대인 고아들이 이 이주를 해야 한다.

이스라엘 공화국이 탄생하려 하는 팔레스티나에 가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고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년과 소녀들을 가게 결정해야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소련에서 그들을 붙잡을 피상한 운명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그들은 터어키 증기선 불불호를 타고 외국의 피난민의 군대에 참가하려 갔다. 몇 주일이 지났건만 도착 소식이 없었다. 매일 매일 리처드는 더 초조해 했다. 흑해로부터 동지중해에 이르는 국제적인 탐색이 시작되었다. 점점 희망은 사라져갔다. 모두들 불불호가 침몰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까지 아무도 모른다. 배는 떠났다가 도착은 하지 않았다. 생존자는 한 명도 없었다.

그 고통은 대단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 애들인양 사랑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들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무하고 얘기하기도, 보기도 싫었다. 사람을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을 드물다.

나의 부활의 신념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어려운 시련에 처했다. 나는 사람이 그의 죽은 아이를 죽은 사람 가

운데 찾지 말고 산 사람 가운데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야 했다. 몇 번이나 나는 이 고통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힘을 주셨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리라.”

나는 신약성경에 매우 자주 나오는 인내라는 단어를 다시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스어로 이 말은 hypomone로 밀에 머문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고통을 참는 것을 뜻한다. 그 결실이 많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뼈아파가신 만큼 주셔서 내 주위에 새 어린 사람들을 주셨다. 슬픔을 잃은 상태로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나는 동정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다.

나의 슬픔 속에서 나는 미하이틀 위로해야만 했다. 그는 몹시도 서럽게 울었다. 나는 그를 껴안고 리차드의 입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들을 그에게 해주었다. 그 이야기는 인간의 위대한 지혜에 대한 책인 「탈무드」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한 유명한 율법가가 집에 부재 중이었던 때에 둘 다 아름답고 율법을 깨달은 두 아들이 죽었다. 그의 부인은 그의 침실에 그 두 아들을 눕히고 흰 천을 씌워 놓았다. 저녁 때 율법 학자가 집에 돌아왔다.

“아이들은 어디 있오? 학교를 몇 번이나 둘러보아도 거기 없는데” 하고 그가 물었다. 그녀는 그에게 차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안식일이 지난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차를

마시고 나서 다시 물었다.

“아이들은 어디 있오?”

“그애들은 멀리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고 말하고 그의 앞에 그가 먹을 음식을 내놓았다.

식사를 마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그녀는 말했다.

“당신이 허락하신다면, 한 가지 여쭙고 싶어요.”

“물어보구려.” 그가 말했다.

“며칠 전에 한 사람이 나에게 보석을 몇 개 맡기고 나서 이제는 다시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것을 돌려줘야 하나요?”

“뭐라구? 당신은 남의 것을 그에게 돌려주기를 주저한단 말이요?”

“아니요, 그렇지만 당신에게 먼저 알리고 돌려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그녀는 그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시체에서 흰 보를 건넜다. “내 아들! 내 아들!” 하며 아버지는 크게 슬퍼했다. “내 아들들, 내 눈의 빛이던 아들!” 어머니도 돌아서서 슬피 울었다.

드디어는 그녀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말했다. “당신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되돌려주는 것을 싫어해서는 안된다고 가르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주시고 찾아가신 것이예요. 주

님의 이름을 축복되게 하세요.”

매우 많은 비극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때에, 나는 역사의 가장 큰 사건 중의 한 사건에서 커다란 기쁨을 발견했다. 유태인이 고향을 되찾으리라는 성경의 제시를 이루어 1948년에 이스라엘이 서게 되었다.

“내가 분노해서 그들을 흐트렸던 나라들로부터 나는 그들을 모으리라” 하고 하나님은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이 유태인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정해놓으신 계획의 일부이며 온 세계가 그 축복을 같이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고 영원히 살아남으리라는 것을 보았다.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구석구석에서 사람을 모으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나라와 대륙에 유태인이 흩어져 있게 될 줄을 몰랐다.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목격한 위대한 사건을 해석하려고 열심이다. 몇년 동안 성경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제 성경이 방금 출판된 것처럼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다음 단계의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에 에스겔, 예레미야와 아모스가 주목되었다.

새로운 대규모의 탈출이 루마니아에서 시작되었다. 나치는 루마니아의 10만 유태인의 반을 학살했다. 러시아에 억류된 동쪽 지방의 유태인들은 길에서 소련의 광산에서 노동하기 위해 모집되었다. 이번에 다른 한 가지는 소련은 유태인 뿐만 아니라 루마니아인들도 잡아간다는 것이다. 그들은 가족

에게 한마디 말도 못하고 이 트럭에 실려 끌려가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었다.

부코비나의 내 고향에서 온 한 젊은이가 말했다.

“나의 형은 추방당할까봐 몇 달 동안 찬장 뒤의 구멍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소련 관리에게 여권을 내주는 대신 내 집과 집안의 물건과 내 돈 모두를 주겠다고 해서 여권을 얻어 떠났습니다. 공산주의는 그런 일이 비밀비재합니다. 그건 모두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는 도둑질일 뿐이죠.”

진상은 정말 그랬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어야만 했다. 이스라엘이 탄생한 직후 안나 포커는 새 나라와의 협정에 조인했다. 그 협정은 유대인들이 현금을 내고 공산주의 천국을 떠날 수 있게 허락해주는 것이다. 루마니아 인민 공화국은 외화가 필요했다. 머리 속에 지식이 얼마나 있나에 따라서 머리당 값을 쳐서 유대인을 팔았다. 과학자와 의사와 교수가 값이 제일 나갔다.

매일 밤 군중들은 여권 사무소 밖에서 기다렸다.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할아버지도, 강보에 쌓인 애기도 길에서 잠을 잤다. 경찰국에서부터 의회 광장에까지 뻗은 줄을 보고 외국인들은 이상스레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줄이 웬일입니까?’

“오렌지를 사려구요.”

“그렇지만 저 쪽 길의 가게에서는 줄 없이도 오렌지를 살 수 있는 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막 나무에서 딴 오렌지를 먹으려고요.”

정부는 “이스라엘 작전”을 비밀에 붙이기를 원했다. 특별 기차가 간이역에서 떠나 어두컴컴한 철로를 지나갔다. 부크레스트 중앙 역에서 떠나는 기차는 하나도 없고 어두운 다음에야 외진 교외 역에서 떠났다. 그러나 기차마다 짹짹 찻다.

밤이 계속 될수록 우리는 눈물로 친구들을 전송하러 갔다.

“예루살렘에서 내년에 만나요!”

이 부르짖음은 유태인 거리와 유태인 교회에서 몇 세기 동안 메아리쳐져온 소리이다. 이번에는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나의 가슴에 커다란 기쁨을 주었다.

출애굽기에는 “섞인 무리”가 유태인과 함께 이집트를 떠났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한번 진실로 증명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유태인인 양 가장하여 가짜 출국 비자를 가지고 공산권을 도망쳤다. 이방인 무리가 떠나는 군중과 함께 피난처를 찾는 것이다.

고위 경찰 간부가 나에게 말했다. “당신이 만약 나에게 돈을 주고 유태인같이 비자를 얻어 이 나라를 떠나는데 도움을 준다면 나는 당신 남편을 감옥에서 나오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한 친구는 이 경찰은 그가 약속한 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 제안은 나에게 새 희망을 주었다. 나는 미하이에게 말했다.

미하이는 이제 10살이었다. 그는 나이에 비해 키가 크고 날카로운 광대뼈와 묻는 듯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에서 그는 “사회적인 추방자”의 자식이 되는 것을 배웠다. 그것은 힘든 일이다. 미하이는 아버지를 존경했다. 아버지가 왜 우리와 헤어져서 감옥에 갇혀야 하는지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가끔 나는 미하이의 신념에 두려움을 느꼈다. 내가 그에게 앞으로의 새 희망에 대해 말했을 때 그는 흥분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의 의기양양하던 것은 사라졌다. 그는 “엄마, 나는 꿈을 꿔어요. 나는 우리 이웃이 그의 모자를 떠들고 두 마리 새에게 들어오라고 청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새 두 마리는 그 주위에서 푸드득거리다가 날아가 버렸어요.”

아이는 이것이 우리 계획에 대한 결과가 아무 것도 없을 거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며칠 후에 우리는 우리를 도우려고 했던 경찰 자신이 구속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들었다. 미하이는 꿀잠 꿈에서 많은 전조를 알았다.

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갔다. 한번은 꽤 많은 유명한 죄수들이 석방되었다. 그들은 앰블랜스를 타고 집에 와서 그들의 상처와 흉터를 보여주고 그들이 당한 고문을 이야기

했다. 그들은 두려움과 필요한 만큼의 효과를 낸 후에 그들은 모두 다시 구속되었다.

나는 울면서 리차드가 지금쯤은 고문을 당하고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나는 그가 변심해서 그의 친구들을 배반할까 두려웠다. 그는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죽겠다고 약속했지만 사람이 참을 수 있는 한도가 있지 않은가?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만약 리차드가 죽는다면 우리는 내세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고 있었다. 우리는 천국의 열두 문 중 한 곳에서 서로를 기다리기로 약속했었다. 우리가 만날 장소를 벤자민 문으로 결정했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의 죽음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 약속을 지키셨다.

나의 구속

8월의 어느날 오후 나는 집에 늦게 왔다. 미하이는 친구와 함께 시골에 가 있어서 순회를 하기에는 자유로웠다. 우리 여자는 간호부나 잡역부로 가장해서 비밀리에 목사의 일을 하였다. 그 시간은 지루했다. 내가 집의 청소를 다 끝내고 부인이 병원에 있는 남자의 여섯 아이를 돌보아주는 것을 끝마쳤을 때는 거의 오후 11시나 되었다. 그는 땅도 돈도 있었지만 모두 다 공산당에게 압수당했다.

나는 붉은 군대의 연례적인 도착 기념행사로 붉은 기로 장식되어 있는 거리를 지나 집에 왔다. 나는 먹기에도 너무 피곤해서 곧장 침대로 가 자기로 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로 떠나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집에 묵고 있는 나의 사촌이 매우 놀라는 것을 알았다. 수상한 사람이 왔었다.

“그는 생활 공간 사무소에서 왔다고 하던데요. 집에 몇 사람을 더 들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나 그가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여기 몇 명이나 있나 알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겠어요.” 나의 친척이 말했다.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했다. 그것은 경찰 수색이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너무 지쳐서 걱정도 되지 않는다. 미하이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것이 일의 전부이다. 나는 남편과 아들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피 주시기를 요구하면서 잠이 들었다.

아침 5시에 그들은 문을 팡팡 두드렸다. 나의 사촌이 문을 열었다. 나는 고함치는 소리와 함께 계단을 저벅저벅 하고 올라오는 군화 소리를 들었다.

“당신의 이름은 뭐요?”

“히틀러입니다.” 정말로 이 좋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내 사촌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뭐라구? 이 사람을 묶어라!”

나의 사촌은 설명하려 했다. 그의 모친은 수염이 덩수룩한 하즈켈 히틀러라는 사람과 결혼했다. 그는 이 이름이 풍기는 끔찍한 암시에도 불구하고 개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스운 사건은 끝이 났다. 그들은 내 사촌이 그의 이름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를 옆으로 밀치고 뚜벅뚜벅 침실로 왔다.

나는 믿음 안에서 자매인 한 여자 손님과 함께 있었다. 우리는 우리 주위의 천을 움켜쥐고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사비나 범브란드요?” 이 집에 들어온 후 계속 소리쳐 대는 책임자인 목이 굵은 사람이 소리쳤다.

“우리는 당신이 여기에 무기를 숨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오. 그것이 어디 있는지 보이시오. 어서!”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도 하기도 전에 그들은 트렁크를 열고 찬창을 열고 마루의 서랍을 비웠다. 책 선반이 우르르 앞으로 쓰러졌다. 나의 친구는 그 책들을 다시 세워 놓으려고 벌떡 일어났다.

“신경쓰지 말아요. 옷을 입으세요.”

우리는 여섯 남자 앞에서 옷을 입어야 했다. 그들은 우리 물건들 위로 마구 밟고 다녔다. 때때로 그들은 소리쳐 의미없는 수색을 계속하기 위해 서로 서로 격려하는 것 같았다.

“무기 감춘 곳을 찾을 수 없잖아요!”

“이곳을 잘기 잘기 찢어버리겠오.”

나는 “이 집에서 우리가 가진 무기는 이것 뿐입니다” 하고 그들의 발 밑에 있는 성경을 집어들었다. “이것들 무기에 대해 전체적인 진술을 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가야겠오.” 굵은 목의 책임자가 소리를 질렀다.

나는 성경을 탁자 위에 놓고 말했다.

“우리에게 몇 분만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동안 그들은 하품하며 서 있었다. 나는 사촌과 그의 어머니를 포옹했다.

“다음 해에 예루살렘에서 만나요.” 그들의 눈은 눈물로 가득찼다.

그들이 나를 밖으로 끌고 나갈 때 내가 마지막으로 한 일은 식기 찬장에서 조그만 꾸러미를 잡은 것이다. 그 속에는 한 켈레의 스타킹과 내의가 있었다. 한 이틀 전에 우리 교회의 한 소녀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나는 그것이 감옥에서 가장 요긴하게 소용이 되리라는 것은 전혀 추측도 못하고 열어보지도 않은 채 한 구석에 놔 두었다.

나는 올드스모빌의 뒤로 밀려 들어갔다. 점정의 오토바이용 안경이 눈 앞에 썩어져서 나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었다. 잠깐 갔다. 몇 분 후에 나는 들어 올려져서 보도 위를 지나쳤다. 나의 발은 묶여진 양처럼 위로 끌려 올라갈 때 계단에 거의 닿지 않았다. 그들이 모퉁이를 돌 때 거칠게 밀어서 나의 정강이가 상했다. 눈가리개가 벗겨졌다. 내 등 뒤에서 약간 밀치는 기척이 있었다. 문이 내 뒤에서 팡 닫혔다.

나는 여자들이 많은 긴 방에 있었다. 그들은 의자에, 마루

바닥에 앉아 있었다.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느라 문이 계속 열렸다. 나는 자유주의적 정치가의 부인을 보았다. 신문에서 본 사회 여성과 얇은 옷을 입은 배우도 있었다. 궁중의 시종 내관도 있었다. 우리는 루마니아의 “사회적인 부패”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위험 인물들이었다.

하루 저녁 사이에 수백 명의 여자들이 그 방으로 꾸역꾸역 들어왔다. 철폐는 공산주의자들이 부르는 8월 23일 자유의 날을 기념해서 거국적인 규모로 이루어졌다. 그날은 러시아 앞에 항복한 날이다.

우리는 둥근 하나의 천장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음식도 음료도 없었다. 각자 모두 자기의 두려움으로 몸을 감쌌다.

얼마나 오래 이럴 것인지? 애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미하이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었다. 그런데 지금은 엄마도 빼앗겼다. 우리의 집과 모든 가진 것들이 압수되었다. 그는 자신들도 위험에 처해 있는 친구들에게 내맡겨져 있을 것이다.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일어나서 그녀의 주먹으로 문을 치며 비명을 질렀다. “내 애들! 내 애들!”

다른 여자들은 남편을, 연인을, 아들을 불렀다. 나의 옆의 여자는 히스테리로 쓰러졌다. 딱 한 여자는 병이 났다. 하나 뿐인 번기가 넘쳐 흘렀다. 문은 더 많은 여자들을 들여보낼 때만 열렸는데 그들은 화난듯이 경비원에게 “나는 아

무 잘못도 한 것이 없어요” 하고 소리쳤다. 여배우는 확신했다. “나는 풀려날 것입니다.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의 무죄가 그들을 구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마치 이것이 1950년이 아니고 공산국가가 아닌 것처럼.

그들 모두가 “진술을 하러 경찰에 가십시오” 라는 말을 들었다. 어떤 사람은 진술하는 데 10년이 걸렸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취주악단의 소리를 들었다. 자유의 날의 시가행진이 행해지고 있었다. 창문은 온통 색칠을 했다. 그러나 행렬이 밑에서 지나가도 우리는 빅토리가라고 불리우는 부크레스트의 중심가의 경찰 구치소에서 있어야 했다.

수천 개의 군화 발이 지나갔다. 구호가 리듬을 맞춰 외쳐졌다.

“8월 23일은 우리에게 자유를 안겨주었다.”

한사람이 운을 맞추어 외쳤다.

“도둑에는 죽음을 반역자는 감옥으로!”

“부끄러운줄 알아라” 하고 사회적으로 부패한 요소들이 중얼거렸다.

새로운 국가가 행진할 때 크게 울려나왔다.

“끊어진 쇠사슬이 우리 뒤에 있다...”

루마니아의 역사 중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슬에 매인 적은 없었다.

기다리는 것 밖에는 할일이 없이 시간은 매우 지겨웠다. 그 방에서 지난 낮과 밤은 무한하고 끝이 없는 지옥의 맛이었다. 드디어 경비원이 검은 빵과 무거운 깡통에 든 멀건 죽을 가져다 주었다. 다음 날 사병이 이름들을 불렀다.

(우리를 내보내 주려고 그러나?)

내 이름은 첫번째 리스트에 있었다. 다시 검은 눈가리개가 씌워졌다. 나는 호송차에 태워져서 후에 라호바 가의 비밀경찰 사령부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가졌다. 나를 조그만 감방에 넣기 전에 한 여자 경비원이 이미 안에 들어 있는 여자들에게 물었다. “누구 이 여자를 알아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나는 그들 속에 끼이도록 허락되었다.

정책상 친구는 같이 두지 않는다. 절대로 위로라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 혼자여야 한다. 심문 단계 동안 서로 믿을 수 있는 친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한 감방에 오래 있게 하지 않는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죄수들을 정탐하라고 심어는 정보원일 수 있다.

젊은 의학대학 학생과 떨어져서 나의 옆 사람은 함부로 잡힌 농부 여자였다. 토지를 공유화하기 위해 폭력이 쓰여졌다. 농장 재산을 빼앗기 위해 보내진 관리와 사나운 싸움이 있었다. 알 수 없는 수의 농부가 임시 재판에 붙여져서 거의 십

만명이 구형을 받았다.

다음 날 나는 독감방으로 옮겨갔다. 나의 방은 철 침대 밖에 없었다. 죄수가 첫번째 찾는 바케쓰도 없었다. 얼마나 나는 바케쓰가 없는 것을 슬퍼했는지 모른다. 그것은 음식이나 따뜻한이나 빛보다 더 의미가 있다. 음식과 자기 이름이 불리는 “신문 공포”로 인한 복통을 경비원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거기서 아침 5시, 오후 3시와 오후 10시에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벽 높다랗게 쇠창살을 쳐서 안전하게 된 창이 하나 있었다. 그 감방은 8월인데도 축축하고 추웠다. 나는 나의 가벼운 여름 의투와 모직 스타킹을 매우 고마워했다.

(나를 부르려면 얼마나 걸릴까? 무엇을 물을까?)

나는 역의 길 건너 카페에서 리차드를 기다리면서 만난 그 경찰관과의 일이 떠오른다. 그는 “지옥이란 어둠 속에 앉아서 자기의 지난 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나는 죄를 하도 많이 지어서 지금 내 눈앞에 어른거린다.

끓인 귀리 음식을 가져다준 간수는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낫다. 가끔 그는 동정어린 말을 한다.

“오늘은 더 진합니다.” 그는 오트밀을 보고 징긋하면서 중얼거렸다. 간단히 그는 아직도 미국인들이 와서 그의 머리 앞에서 정세를 바꿔놓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이다.

한번은 그는 편지를 몰래 내게 주었다. 그러나 나는 그 편지가 그것을 받는 친구를 울가미 씌우는데 사용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다. 그는 자기가 경찰관에게 물어본 이야기를 속삭여줬다.

“왜 감방에 저렇게 사람이 많습니까?”

“당신 일이나 상관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이 더 늘거요”

간수는 기뻐서 씩 웃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다음날 그들은 그를 구속하지요.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는 그를 못보지요. 오늘 심판하는 그 사람들 내일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밤에 나는 철문의 팡팡 소리와 군화의 스치는 소리와 경비원의 음담패설을 안들으려고 내 귀를 막으며 누워 있었다. 문들은 내 가까이에서 열려졌다. 매번 나는 생각했다. 다음 번은 내 차례다 하고. 그러나 그 날이 오기까지 폐소 공포증에 걸린 여러 날이었다.

감방 문이 열렸다.

“뒤로 도시오.”

눈 가리개가 씌워졌다. 나는 그들이 복도를 따라가며 나의 팔을 잡아당길 때 검은 공포를 느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모퉁이를 돌았다.

(나를 끌려고 그러나? 나에게 알리지 않고 어둠 속에서

죽이려는가보다.)

우리는 멈춰섰다. 눈가리개는 벗겨졌다. 나는 큰 방에서 햇빛에 눈이 부셔서 눈이 안보인 채로 서 있었다. 간수에게 이끌려서 진짜 의자에 앉아서 손으로 탁자를 짚어 나를 지탱했다. 큰 떡갈나무 탁자는 잉크로 더럽혀 있었다. 탁자 뒤에 비밀경찰의 파란 드림이 있는 제복을 입은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육중한 중년의 소령은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머리털이 좋고 젊은 중위는 우리 집에 수색을 왔던 사람이다. 중위는 호기심있는 구면의 눈초리로 나를 보았다. 그는 밝고 파란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금발은 누군가를 생각하게 하는 인상이 좋은 모습이었다. 알아차릴 수 있듯 말듯 그는 웃었다.

나는 몸을 떨었다. 그때 알아차렸다. 그는 내가 매우 오래 전에 파리에서 사랑했던 소년같았다. 그 두 사람이 닮은 것은 보통 이상이었다. 나는 나에게 불리한 비난을 들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소령은 피곤한 듯이 인내를 가지고 말했다.

“범브란드 부인, 당신은 국가에 대해 반역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진술을 쓰시죠.”

“그러나 내가 뭘 써야 한단 말입니까? 나는 나를 왜 여기 데려왔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잘 아실 텐데요?”

한쪽 구석에 펜과 종이기가 있었다. 나는 내가 왜 구속당했

는지 모른다는 내용의 몇 줄을 썼다. 그는 그것을 훑어 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죄수를 불렀다.

감방으로 오는 동안 경비원은 계속 눈을 가리우고 소리치면서 나를 밀었다. 문이 내 뒤에서 닫혔을 때 나는 뚫려진 구멍을 통해 그의 눈을 보았다.

“앉아서 경찰이 말한 것을 쓸 때까지 생각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벌을 주겠오.”

고문이다. 들볶고 조롱하고 굴욕을 느끼게 한다. 심문을 쉽게 하려고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 녹음기에서 비명소리가 나오고 복도의 확성기로 들리는 사격조의 총소리, 아이와 이별하는 엄마의 고통, 이 모든 것이 그렇다. 육체적인 고문에 대해서는 나는 그들이 이 감방에서 한 것의 결과를 보았다.

심문에 대답하는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나치 때 그것을 경험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신념에 근거해 행동한다. 그러나 사랑은 진리보다 더 높다. 나는 도둑에게 집의 돈을 숨겨둔 장소를 말하지 않는다. 의사는 총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속여서 위협을 없앨 권리가 있다. 공산주의들의 증오는 이치도 맞지 않는 광기이다. 우리는 목표가 오직 파괴하는 것인 그들을 판단을 그릇치게 할 의무가 있다.

소령과 그의 보조는 다음 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종이에 그가 연달아 체크하는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목적은 리처드에 불리하게 쓰일 정보를 빼내는 것이었다.

소령이 말한 한 가지 말이 생각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위는 그의 조각같은 금빛 머리를 돌려 그의 예전의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리처드의 약점을 찾으려 하고 있다. 그의 심문은 무례했다. 소령은 요점을 말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는 공산주의의 정당성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다. 그들은 자기네가 나의 친구라고 주장했다. 범브란드 목사도 친구란다. 그들은 그를 석방하기를 원하지만 먼저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리처드가 동료들에게 때때로 무어라고 말했는지 물었다. 나는 우리는 정치가 아니라 종교를 토론했다고 대답했다.

소령은 매우 진실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범브란드 부인, 성경은 정치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예언자들은 반역하고 이집트 법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시대의 지배자를 반대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크리스찬이라면 그는 확실히 정부에 대해 확실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나의 남편은 정치에 관심없습니다.”

“그러나 미첼 왕이 이 나라를 떠나기 전에 왕을 알현했지요. 왜 그랬어요?”

“그것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왕을 알현했습니다.”

“그 알현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었죠?”

“두 시간 쯤입니다.”

“그래 그동안 내내 정치 이야기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내가 말했듯이 남편은 정치에 관심없습니다.”

“음, 그럼 무엇에 대해 이야기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입니다.”

“왕은 무어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증위는 코로 킁하고 웃고 빨리 입에 손을 가져갔다. 소령의 눈을 보고 나는 그가 나중에 야단을 듣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소령의 웃음은 전보다 더 진실해졌다.

“범브란드 부인, 당신은 이지적인 여성입니다. 저는 당신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네 부부는 유태인입니다. 우리 공산당이 당신네들을 나치에서 구해주었으니 당신은 고마워 해야 하고 당연히 우리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눈이 좁아졌다. 그는 더욱 느리게 말했다.

“당신의 남편은 반 혁명운동의 죄목입니다. 그는 총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고발하고 그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슴은 덜컹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물론이지. 그리고 내 반응을 보는 것이다. 나는 표정없게 보려고 했다. 그는 계속했다.

“그들은 자기들을 구하려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들이야말로 진짜 반 혁명분자들이죠. 전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던 것을 당신이 말 안하시면 우리는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하세요. 진짜 반 혁명분자들을 공격하면 당신의 남편은 내일 석방될 것입니다.”

소령은 얼굴을 돌려 그의 보조에게 행복한 환상을 나누라고 끌어들이며 웃었다. 그는 격려하는 듯이 말했다.

“당신은 당신 가족이 있는 집에 돌아갈 수 있구요.”

그 생각은 달콤했지만 나는 외면하고 “나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하고 말했다.

밤에 다시 감방으로 돌아와 고문자들로부터 맞은 상처를 들보고 나는 침대끝에 내 발이 닿는 것을 느끼며 생각했다. “가엾은 리차드, 그이의 발은 끝이 침대끝에 덜렁 덜렁 나와 있을 거야.” 그는 키가 크다.

그들은 그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한때 나는 그를 다시 안전하게 하기 위해 뭔가 말하려 했었다. 나는 몸을 떨었다. 나는 그가 살기도 원하고 저항하기도 원한다. 그 두 욕망이 나의 내부에서 충돌한다.

소령은 피곤해 보이고 그의 눈은 흐렸지만 그 안에는 역시 승리의 자만심이 있었다. 그는 탁자 꼭대기를 손가락으로 초조하게 두들겼다. 이번의 심문은 나치에 중심을 맞췄다. 내가 아는 독일인과 그들과의 관계와 나치를 숨겨둔 사람들이

사격당한 사실을 아는지 여부와 내 집에 그들을 숨겨준 이유를 물었다.

나는 나치를 숨겨준 일이 없다고 진실하게 말했다. 나에게 그들은 단지 보통 남자였다. 그들은 궁색했고 우리는 예전에 학대받는 유대인과 집시를 도운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도우려 했다.

“그렇다면 부인하시오. 당신을 놀래줄 것이 있으.”

그는 책상 밑의 단추를 눌렀다. 경비원이 내가 금새 알아볼 수 있는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 스테파네스크는 1954년에 우리와 함께 있었다. 그는 우리가 독일인에게 한 일을 모두 안다. 그는 발을 질질 끌며 앞으로 왔다. 긴장한 눈이 소령에서 그의 보조로, 그리고 나에게로 흔들렸다. 그는 침을 삼키고 눈을 감아 세상을 달아 버렸다.

“자, 스테파네스크, 우리에게 범브란드 부부가 어떻게 나치를 그들 집에 숨겨 주었는지 이야기를 하시오. 당신은 물론 이 여자를 알지요?” 소령이 여송연을 피면서 말했다.

“모릅니다.”

“뭐라구?”

“그 여자를 본 일도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있군.”

“아닙니다. 선생님.”

스테파네스크는 다시 눈을 감았다. 소령은 소리치고 고향

을 질렀다. 그는 얼굴을 스테파노의 얼굴 가까이 대고 허파가 터지도록 소리를 질렀다. 놀란 스테파네스크는 계속 나를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잘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대한 좋은 의도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 그의 눈을 멀게 하셨다. 드디어 소령은 참지 못하고 경비원에게 그를 데려가라고 말했다. 그는 여송연을 비벼 끄면서 나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드디어 그는 자기 가족이 나치의 유태인 학살에 죽은 유태인 여자가 지하실에 나치를 숨긴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것은 그녀 뿐만 아니라 남편의 목숨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그는 붉은 군대에서의 우리의 일에 대해 묻는 것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나는 교묘하게 위험한 질문들을 피했다.

후에 감방에서 누워서 나는 우리 집을 온통 메웠던 그 많은 붉은 군대 소년들을 생각했다. 그들은 정말 단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께서 세째날 부활하셨다는 말을 리차드가 하자 어떤 애는 좋아서 그 방을 춤을 추며 돌아다녔었다.

그날의 사건이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나는 독방에서 강한 신의 존재를 느꼈다. 하나님은 나에게 용기와 기지를 주시어 러시아어 복음서를 인쇄하고 구조자금을 받은 데 대한 질문을 피하게 해주셨다. 짐작에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긴 것 같

왔다.

분필같은 한 조각의 회가 벽에서 떨어졌다. 나는 그것을 들어 감사하면서 담요에 큰 십자가를 그었다.

새로운 심문자는 단단한 머리를 가진 땀을 많이 흘리는 큰 사람이었다. 나는 그가 갈색 철 안에 든 서류 기록을 다 읽을 때까지 잉크로 얼룩진 탁자 앞에 오래 서 있었다.

금발의 중위는 두꺼운 교과서에서 노트를 하고 있었다. 가끔 그는 수줍은 듯 머리를 들어 나를 보았다. 마치 내가 모르는 무엇을 아는 것처럼. 그의 잘생긴 얼굴 모습은 영화에서 다음 순간 무슨 불쾌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는 아이의 얼굴처럼 즐거워하고 흥분되어 있었다.

심문자의 드러난 팔은 짙은 털로 덮혀 있었다. 드디어 심문을 시작했다. 그의 질문은 모두 사적인 것이었다. 나의 가족, 친구와 외국 여행, 파리에서의 학생 시절, 그는 따뜻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웠다.

“자 이제” 하고 그는 딱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형식을 갖춘 지시를 내리는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성적인 기록을 적겠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는 참을성있게 설명했다.

“당신의 성적인 기록말입니다. 있을 텐데요? 당신의 첫 경

험말입니다. 당신이 처음 관계를 가진 남자요. 어떻게 당신을 애무하고 키스했는지 말이요. 그리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가 당신의 몸의 부분을 소유했나요? 어떤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같이 온 다음 사람에게 넘겨졌나요? 그의 포옹은 어떠한지 말하십시오. 그 두 사람을 아니면 세 사람도 좋소. 비교해 보십시오. 다른 연인들과의 관계도 말해 보시오. 말하자면 우리는 매 행위마다 전체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의 정중하면서도 고요한 어조는 얼굴을 때리는 것 같았다.

중위는 나를 보고 있었다. 그의 혀는 입술에 붉은 현 데가 생길 때까지 입술 위를 왔다갔다 했다.

“그것들을 모두 쓰십시오. 우리는 모든 사항을 원합니다. 많은 줄로 압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려 했다.

“그런 일을 물어볼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반 혁명분자나 당신이 좋을 대로 나를 비난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곳은 도덕 재판소가 아닙니다.”

그는 털이 많은 손가락으로 탁자 위를 두드렸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일입니다. 모두들 당신은 성자같은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

읍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진짜 색깔을 보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나를 보았다.

“매춘부같이,” 중위가 말했다.

“나는 물론 당신이 묻는 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알아낼 겁니다.”

그 당돌한 심문자는 노골적으로 음탕한 질문을 나에게 퍼부었다. 음탕한 말들이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는 책상을 간결하게 딱 때리는 것으로 질문마다 끝을 맺었다.

나는 땀에 흠뻑 젖었다. 나의 머리는 뒹뒹 거렸다. 나는 기절하려나보다 하고 느꼈다. 나는 쓰기를 거절했다. 한 시간 후에 그는 그쳤다. 그때까지 중위는 책을 보고 있었다. 그들은 전에도 그랬다. 그것은 지루했다.

“시간문제입니다.” 당돌한 심문자가 말했다. 그는 마지막 칼 자루를 남겨 놓았다.

“당신 남편은 벌써 반역자이고 스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의자 뒤에서 빙 돌아와서 나의 얼굴에 대고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 성생활에 대한 사실을 말하지 않고는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나를 열중해서 쳐다 보았다. 나는 경련을 일으키는 것 같이 떨고 있었다.

신 냄새나는 복도를 지나 다시 감방으로 돌아왔다. 나를 안에 집어 넣기 바로 전에 눈가리개를 벗겨서 나는 처음으로 문의 번호를 보았다. 7 번이었다. 나는 7호 감방에 있다. 그것은 성스러운 숫자이며 창조하신 날의 수이다. 숫대도 일곱 개이다.

나는 침대에 누워 흐느껴 울었다. 잠시 후에 나는 조용해졌다. 내 몸은 어둠 속에 누워 있었지만 나의 영혼은 일어나 감옥의 영내를 벗어났다.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힙니다”라는 말을 기억했다. 내가 “마지막이다”라는 말을 하게 될 시간이 오면 나는 예수님같이 나의 마지막 사랑의 말을 부모님과 친구들과 내 가까이의 도둑에게 하고 싶다. 하나님은 내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나와 함께 제셨다.

“일어나시오!” 붉은 머리의 간수인 미루가 문에 와 있었다. 나는 일어나 벽을 보았다.

“여기는 호텔이 아니요. 편안히 살찌도록 누워 있으려면 누구나 들어오려고 할 것이요. 당신은 감옥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될 것이요.”

미루는 루마니아 말로 “양”이란 뜻이지만 그는 양이 아니었다. 아침의 정규적인 감시 외에도 그는 갑작스러운 체크를

하면서 복도를 돌아다녔다.

“나에게 얼굴을 돌리시오. 보고할 것이 있으면 하시오!”

“스프를 먹을 수저 하나 주시겠습니까?”

“나에게 말하고 싶거든 입을 다물고 있으시오.”

그는 자기가 한 농담에 껄껄 웃었다. 그것이 그를 루마니아 감옥에서 유명하게 만들었다. 그는 전쟁 전에 카페에서 구두 끈을 팔았다고 한다. 그는 정탐자로서 그의 현 위치를 능률적으로 지키고 있다. 그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그의 중요성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한 낮에 기름이 뚝뚝 뜨는 스프가 왔다. 우리는 그것을 모두 마셔야 한다. 그것이 규칙이다. 단식투쟁을 하는 사람은 억지로 먹었다. 두 사람이 잡고 있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입에다 쏟아 부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보통 때보다 약간 걸쭉한 스프를 먹게 된다. 계란 노른자위와 설탕이 ‘환자’의 기운을 돋구기 위해서 보태진다. 그들은 이것이 3일분의 영양이 들어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제로 먹여지는 것에 대한 희망으로 먹기를 거절했다.

나는 우리의 신혼 초에 리차드가 매우 음식을 가리던 것을 생각하고 웃었다. 이제는 집의 음식을 얼마나 좋아할까?

우리 둘다 모세의 두번째 책인 출애굽기의 귀절들을 마음으로 안다. 그 속에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집트의 노예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렸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셨다.

매일 밤 나는 7호 감방에서 그 성구를 암송했다. 어디에 선가 리차드도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을 것을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다.

“이제는 내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됐습니까?” 털이 많은 손가락이 알콜과 담배의 냄새를 풍기며 가까이 왔다.

“우리가 성인의 성생활에 의해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까?”

금발의 중위는 이 무례한 첫번 말에 약간 놀란듯 그의 상관을 쳐다 보았다. 그는 교과서를 다시 보고 다시 노트하기 시작했다. 그는 새로운 ‘프로레타리안 지도자’인 것 같았다. 한 흰한 젊은이가 공장에서 나와서 심문이 행해지고 있는 사이에 공부해 시험을 통과하고 승진을 하려고 한다.

당돌한 심문자는 음탕한 질문을 20분 동안 계속했다. 나는 계속 그가 그런 질문을 할 권리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더니 그는 끊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나는 중위가 계속해 심문할 것으로 추측했다. 그러니 상관이 걸어나갔을 때도 젊은 장교는 계속 공부하고 있었다.

나는 약간 떨면서 그를 보았다. 나의 눈은 초점이 잘못지 않았고 다리가 떨어져 나간 것 같이 느꼈다. 나는 잠이 들지 않았다.

그는 오래 전의 파리에서의 소년의 인상을 매우 많이 풍겼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둘 다 잘 생겼다. 그러나 아름다운 얼굴 밑에는 숨겨지는 것이 매우 많다. 그는 때때로 눈

을 들어 마치 그의 동료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기라도 하는듯이 의미있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3시간 동안 서 있었다. 이것은 보통 당하는 일이다. 그들의 자유시간을 빼앗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죄수를 불러 그녀를 자기들이 공부하는 사이에 서 있게 했다. 죄수가 오면 인수증에 싸인하고 갈 때 또 싸인한다. 공식적으로 시간을 재는 것이다.

나는 피곤했다. 극도의 피로가 검은 물결을 타고 밀려왔다. 그러나 나는 “그가 원하는 것을 대답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힘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 한 조각의 정보도 줄 수 없다. 가장 쓸모없는 ‘성적 기록’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성자가 되는데 아무 방해도 안된다고 하더라도 줄 수 없다.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창부였다. 그러나 그 사실을 우리가 계속 잊고 있을 때 그는 존경받을 것이다.

심문자는 음탕한 말을 툭툭거리며 말했다. “그 여자를 데려가!” 그가 말했다. 그 금발의 중위는 하품을 하며 내가 나갈 때 나를 붙잡았다.

며칠 후 나는 지방의 감방으로 이전되었다. 그곳은 얼음상자 같았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나의 여름 코트와 모직 스타킹은 그 감방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나는 풍족했다.

나는 나의 풍족함을 나누어주려 했다. 외투는 다른 사람의 담요로, 가운으로, 또 심문당하는 사람의 나들이 옷으로 사

용되었다. 나는 스타킹을 얇은 면 옷만 입고 있는 소녀에게 주었다. 눈물이 그녀의 흰 얼굴을 흘러 얼룩졌다.

이 감방의 네 여자가 놀랍게도 정장의 옷을 입고 있었다. 나만이 풍부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더러운 감방의 바닥에 끌리는 사틴의 소매없는 가운은 감방에서 입는 옷에 맞지 않았다.

“우리는 미국 대사관저에서 영화를 보았어요.” 그들 중 하나가 말했다.

“그것은 북극의 꿈에 대한 영화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택시에서 길로 끌려 내려졌지요. 그들은 우리를 비밀경찰 사령부로 데리고 와서 ‘우리는 다 알아. 너희들은 미국의 스파이지?’ 하지 않겠어요?”

심문을 끝까지 받고 굶고 잠도 못자면서 그들은 죄과를 부인했다. 이제 그들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아한 옷은 누더기로 조각이 났다. 줄무늬가 손수건과 타올과 띠 용도로 찢어졌다.

모든 여자마다 내 코트를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만졌다. 그것은 밍크 목도리가 달려 있었다.

“다음번 심문 때 이것을 입으세요.”

“네, 고마워요. 그 짐승들 앞에 서면 내 어깨가 허전한 듯 생각돼요. 이것이 용기를 줄 거예요.”

갑자기 문이 열리자 우리의 가슴은 뛰었다.

“당신!” 경비원이 말했다. 그들은 다른 유태인 이름처럼 나의 이름을 발음하지 못했다. 그것은 범브란드는 독일어에서 나온 이름이어서 W발음이 그들에게 곤란했기 때문이다.

“눈 가리개를 쓰시오.”

냄새나는 복도를 눈 먼채로 걷는 것이 시작되었다. 나는 온통 남자 목소리인 방으로 들어갔다. 조용해졌다. 나는 그들이 나를 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눈이 가려진 채로 나에게 오는 시선을 느낀다는 것은 섬뜩하다. 이제는 무엇인가?

“눈 가리개를 벗으시오.”

밝은 빛이 나를 아찔하게 했다. 새로운 심문실은 길고 창이 없었다. 마치 지하실같이 보였다. 긴 탁자 뒤에 10명의 제복 장교가 앉아 있었는데 그들 중 세 명은 이미 본 사람이다.

“당신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시오?”

“당신이 아시지 않아요? 말해 주세요.”

“앉으시오!” 수염 달린 소령이 말했다.

“당신이 우리 질문에 다 대답하고 협조해 준다면 당신의 남편을 만나게 해줄 수도 있오.”

나는 그들이 정말 그런줄 믿었다. 우리는 아무 죄도 진 일

이 없다. 아마 그가 심판받아서 승소했나 보다고 생각했다. 그때는 너무나 순진했다.

그들은 사진 한 벌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다. 남자와 여자들의 사진이었다. 사병이 그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 올렸다.

“이 사람이 누구지요?”

“이 사람이 누구지요?”

“이 사람을 알지요?”

“이 사람을 알지요?”

많은 사람들 중 나는 한 남자를 알아 보았다. 나는 나의 눈을 계속 무표정하게 하면서 “아니오”라고 대답해 나갔다.

그는 러시아 군인으로 나의 집에서 세례받은 사랑스런 친구이다. 그 사진은 정면의 경관 사진과 사격하는 옆면 사진으로 그리 잘되지 않는 사진이었다. 그는 지금 어디 있을까? 나는 계속 머리를 흔들며 아니오 아니오 하고 대답했다.

그들은 소리치고 으르렁거렸다. 질문, 질문, 질문의 계속이었다. 몇 가지 질문은 대답할 수 없었고 몇 가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은 긴 연속이었고 나는 소리와 눈부신 빛으로 혼란되는 것을 느꼈다. 나의 머리는 빙빙 돌았다.

“우리는 당신이 숨기는 모든 말을 하게 할 방법이 있으. 우리에게 특정한 척하지 마시오. 그건 우리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요. 그리고 당신 생명을 쓸데없이 버리는 것이고.”

반복과 강요는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이었다. 나의 신경은 폭발 직전까지 왔다. 나는 한 시간 전에 감방에 돌아와 있었다. 나는 짙은 요에 누워서 심하게 소리내어 울었다.

“소리내 울면 안되오.”

경비원이 문앞에 왔다. 그러나 나는 그칠 수가 없었다. 나의 눈물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 그들도 울었다. 경비원은 굳은 얼굴로 뒤돌아서서 문을 닫았다.

나는 두 시간 동안 울었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 생각하려 했다. 이 문제에서 저 문제로,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옮겨가며 한 심문을 생각했다. 내가 이름을 말하는 사람은 구속될 것이다. 나는 아무 이름도 말하면 안된다. 나는 그런 연속되는 심문을 더 이상 견딜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다음번 추궁은 새로운 술책을 가지고 했다. 당돌한 심문자가 혼자 웃음짓고 있었다.

“범브란드 부인, 당신은 단지 36살이오. 여자로서 가장 좋은 나이가 당신 앞에 있는데 왜 이렇게 완강하게 그러니까? 왜 우리와 협력하길 거절하시죠? 당신은 이 반역자들의 이름만 말하면 내일이고 당장 풀려날 수 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치에 맞는 말을 해 봅시다. 모든 남자나 여자가 제값이

있는 겁니다. 나이트 클럽에서 웨이터에게 이렇게 물은 이야기 아시죠? ‘이 바의 금발여자 값이 얼마야?’ ‘100프랑이 나 겁니다.’ ‘그러면 갈색은?’ ‘매우 특별합죠. 500프랑입니다.’ ‘그러면 저쪽에 남자와 함께 있는 저 여자는 얼마야?’ ‘안 됩니다, 선생님. 그녀는 그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1,000프랑 아래로는 안됩니다.”

그는 그의 농담에 절절 웃고 손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았다.

“당신은 솔직한 여자입니다. 당신은 당신 값을 부를 수 있습니다. 유다는 그의 두목을 30개 은전에 판 바보입니다. 300개는 나갈 수 있었을텐데, 당신이 뭘 원하는지 말하십시오. 자유? 당신 남편? 그에게 줄 좋은 교구? 우리가 당신 가족을 보살피겠오. 당신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수 있거든요.”

그가 말을 마쳤을 때 그 방은 조용했다. 내가 그 정적을 켰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나는 벌써 내 자신을 팔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분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나는 하늘나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값을 당신이 치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갑자기 피곤해 보였다. 그의 목소리는 좌절로 저절로 떨어졌다. 그는 털이 많은 주먹을 움켜쥐어서 나는 그가 나를 때리려는줄 알았다. 그 손은 뒤로 갔다. 그는 뒷머리를

쓰다듬고 다만 깊게 한숨을 쉴 뿐이다.

10월 23일은 우리의 결혼기념일이다. 그러나 그때의 행복을 생각하는 것이 나를 더 처참하게 만들었다.

겨울이 왔다. 미하이는 쉽게 감기에 걸린다. 그애는 어리고 이리저리 잘 움직이며 잠을 자서 흔히 침대보가 마루로 떨어진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다시 잘 덮어줄 것인가?

미하이는 가끔 외고집이었다. 한번은 우리가 소풍을 갔는데 그는 우리가 먹지 말라고 한 고인 물을 마셨다. 그는 몇 주일 동안 목을 심하게 앓았다. 그리고 그는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그때는 거의 죽을 뻔했다. 이제는 누가 위험을 그만두게 할까? 그것은 그를 사랑하는 수잔 아주머니였다. 그러나 그녀도 그녀의 고민이 있었다. 여러가지 의문과 초조함이 매일매일 나에게 쌓였다.

11월에 형무소장이 감방으로 직접 왔다. 몇 명의 여죄수들이 10분 안에 떠날 준비를 하라는 지시가 내렸다. 어떠한 질문도 해서는 안된다.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는 우리의 빈약한 소지품들을 모았다. 우리는 석방되지 않으면 총살당할 것이다.

사실은 우리는 강제 노동하도록 선고받은 것이다. 위원회가 나를 젖혀놓고 자기들끼리 내가 24개월 동안 일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 기간이 지나자 또 내가 젖야 할 새 선고가 있었다. 나는 “행정 죄수”로 분류된 수천인 죄수 중의 하나

였다. 우리는 재판의 혜택도 못받고 노예 수용소로 갔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가 선고받은 줄을 몰랐다.

그들은 이제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 수용소는 나라 전체를 총망라했다. 노동 책임량을 이행하지 못한 태만자, 집시, 전과자, 목사, 창녀, 부자 부르주아들이 모두 끼었다. 이들은 공산주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 전반으로 재교육을 위해 거기 보내졌다. 수용소는 크고 2십만 명이 상주했다. 남자, 여자, 아이들 할 것 없이 그들 나이는 12살부터 70이 넘게까지 있었다. 그런 방법으로 모든 위성국가에서 '사회주의자 재확립'이 진행되었다.

국가는 하고 싶은 일과 발행하고 싶은 것을 했다. 신문에는 재판과 구형에 대한 아무런 말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직 그런 일을 창안한데 대한 정부에 보내는 축하 뿐이었다. 서방 세계는 십만 명이 실업을 하고 있는데 이 무슨 놀라운 일인가?

서방의 유명한 사람들이 실업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한 나라의 본보기로 루마니아를 지적했다. 이 만족스러운 해결을 같이 나누기 전에 나는 이 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감옥인 이동 감옥 질라바로 옮겨졌다.

질 라 바

트럭이 폭 꺼지면서 비탈길을 내려갈 때 모든 여자는 비명을 질렀다. 불이 꺼졌고 빈 철장의 쟁 소리가 났다. 우리는 불안한 정적 속에서 순서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

“눈가리개를 벗으시오.”

그곳은 창문이 없는 큰 지하실이였다. 벽은 먼지로 번쩍거렸다. 돌로 된 마루는 때로 번들거렸다. 제복의 여자 경비원들이 들었다. 적황색 머리의 남자같이 뺨 벌어지게 생긴 한 여자가 손가락을 흔들면서 경고했다.

“나는 아스프라 경사입니다. 잊지 마시오.”

생긴 것 같이 이름도 역세다. 그녀는 자기 뺨에는 매력적인 양 긴 대식탁 뒤에 동료들과 함께 앉았다. 서기가 대장

에 이름을 기재하고 있었다.

“불필요한 복장은 여기에 있으려면 말겨야 합니다. 옷들을 벗으시오” 하고 목청이 결직한 아스프라가 발표했다.

그들은 나의 여름 코트를 벗겼다. 그러나 얇은 옷과 구멍투성이인 스타킹은 그대로 두었다. 물품 조사가 있었다. 몇 시간 뒤 우리는 천장이 등글게 아치 형으로 된 복도를 걸어갔다. 부패의 냄새가 텁텁한 공기에 걸려 있었다. 철창 뒤에 카키색 작업모를 쓴 안전 부대가 있었다.

나는 질라바가 아주 낯설지는 않았다. 이것은 전 세기에 섬으로 세워진 것이다. 감방은 지하실 깊숙이 있었다. 나는 대 구속이 시작되었을 때 재소자 중에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소년과 와본 일이 있다. 그들은 서류철을 훑어보고 그가 없다고 했다.

나는 리차드가 사라진 후 부크레스트에서 똑같은 8마일 여행을 했다. 나는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도 그의 소식은 하나도 못들었다.

한번은 15살의 여학생들이 심문부의 우리 감방에 함께 있었다. 그들은 비밀 애국집회에 참가했었다. “당신이 질라바의 4호 감방이 어떤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더 많은 소녀가 속삭였다.

아스프라 경사가 무거운 철막대기로 잠갔다.

‘이곳은 4호 감방’

해가 중천에 뗏는 데도 그 감방은 어두웠다. 흐린 천구하 나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높은 천장의 방 양 가장자리에 나무 침대가 나란히 늘어서 있었다. 가운데에 좁은 복도가 생겼다. 저쪽 끝에는 거둬 칠해져서 줄무늬가 진 조그만 창이 있었다. 12개의 눈이 나에게 주목되었다.

“나는 이 감방장인 빅토리아입니다.” 한 목소리가 말했다. 한 손이 흔들렸다. “그녀에게 말석을 줘요.”

그 감방의 가장 어두운 곳에 열린 급식구 옆에 변기 바케쓰가 놓여 있었다. 나에게 주어진 면적은 바로 그 위였다. 그 바케쓰는 50명이 쓰고 있었는데 그들 대부분은 나쁜 음식으로 장에 고통이 나 있었다. 열의 맨 위쪽은 공기가 없고 숨이 막혔다. 여자들은 땀을 흘려 반쯤 벗고 있었다. 사방에 보이는 것은 가는 팔과 굵은 다리와 움푹 꺼진 가슴과 상처 뿐이다. 마치 중세의 납골당 같았다.

몇 사람의 몸에는 고문의 흔적과 흉터가 있었다. 사람들은 문 가까이에, 문 옆에 누워서 공기를 조금이라도 마시려고 했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바닥의 습기가 더 치명적이에요” 하고 내 결의 한 소녀가 말했다.

질라바는 루마니아 말로 습기를 뜻한다. 성은 해자로 둘러싸여 있었다. 작은 교수대같이 보이는 저기 매어 달린 것은 철로의 한 마디였다. 새벽 5시에 철 막대기를 치면 우리는 일어났다. 바케쓰에 줄서졌다. 감방은 얘기소리와 싸움소리

로 가득찼다. 수통이 씻을 물로 가득찼을 때 덜그럭거렸다.

질라바에서의 첫날 밤에 나는 누군가 찬송가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저기 수녀가 있다.”

나의 가슴은 뛰었다.

“여기 질라바에 수녀님들이 계세요?” 나는 물었다.

“네, 그리고 만일 아스프라가 찬송하는 것을 들으면 그들의 손을 등 뒤로 묶어놔요. 저번에는 3시간 동안 그렇게 했어요.”

18살 쯤 되었을 창백한 소녀가 빵 쪽을 씹는 것을 멈추며 말했다.

“그건 아무 것도 아니예요. 저번 때 나 있던 감방 미스레아에서는 종교를 믿는 여자들을 꽁꽁 묶어놓고 그 여자들 얼굴에 가스 마스크를 씌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다른 수녀들이 인접한 감방에 수용되어 있었다. 벽을 통해서 12명의 여죄수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생철 조각을 두드려 들으므로써 통신을 할 수 있었다. 그 소리는 확대되어 간단히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꾸준히 감시 구멍을 통해 들여다보는 경비원들이 있나 살펴야 했다.

감옥의 전신 부호로 내용이 전해졌다. 우리는 우리 쪽 벽의 네 방에 200명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어디

엔가 남자 3,000명이 더 있을 것이다. 그 성은 정원 600명으로 된 곳이다.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오면 세상과는 상관없는 것을 뜻하는 줄 깨닫는다. 씻지도 않고 바느질도 안하고 일도 안하고, 여자들은 음식만들고 청소하는 것을 그리워하며 이야기한다. 그들은 애들을 위해 케익을 구워주고, 먼지를 털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유리창을 닦고, 탁자를 닦는 것을 매우 하고 싶어한다. 우리는 볼 것 조차도 없다. 시간은 지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내가 일이 많다고 불평하던 생각을 하면 그때 미쳤던 것에 틀림없어요.” 나의 옆 사람이 말했다.

엄마는 애들이 집을 떠나 스스로 일하게 되는 즐거움과 할 일이 없으면 비참한 것을 이해한다.

우리는 스포를 타기 위해 11시에 줄을 섰다. 모든 여자는 한 조각의 검은 빵을 받았다. 들어올 음식 생각에 조용해져서 그들은 조용히 기다렸다. 김이 나는 작은 나무통이 감방에서 나가는 순간, 싸움이 터진다. 여자들은 옆의 사람 것이 자기 것보다 크다고 생각해서 빵 한 조각을 두고 싸웠다.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이 쌍년아, 오늘 처음으로 내 차레라는 걸 알잖아.” 욕이 마구 터진다. 그 감방은 악에 반친 비명소리로 울렸다.

문이 확하고 열린다. 간수가 막대기를 휘두르며 들어온

다. 아스프라가 소리친다.

“우리가 너희에게 너무 과분하게 하는 것 같다. 계속 이러면 내일부터 굶을 줄 알아라.”

엎질러진 스프가 마루에 흥건했다. 어두운 침상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경비원이 문을 팡 닫고 가버리면 고탐 소리가 산만하게 터져 나온다. 50명의 여자들이 서로 옴다 그르다 하며 소리치면 아스프라가 다시 와서 큰 소리로 알린다.

“오늘 더 이상 아무 것도 없을 줄 알아라. 내일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가면 췌 소리를 내가며 서로 비난하고 중얼거린다. 내 옆의 소녀가 나의 팔을 쳤다.

“가없으셔라. 먹지 않는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맛이 너무 없어요.”

“이것은 썩은 당근이에요. 국영 채소 신용조합이 여기다 300톤을 쏟아놓지요. 아무도 돼지 먹이로도 이것을 사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몇 주째 먹고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내 피부가 노랗지요. 이것을 우리는 ‘당근병’이라고 불러요.”

그녀의 이름은 엘레나라고 한다.

“능청맞은 큰 여자가 나를 감시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예요? 왜 여기 왔어요?” 하고 그녀가 물었다.

“여기 온 후로 한 마디도 안했어요.”

나는 내 이름과 목사의 아내라는 것을 말했다.

“신자라구요? 성경 이야기를 알아요?” 하고 머리가 흰 농부 여자가 말했다.

“그래요.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는 너무 지루해요” 하고 딴 사람들이 말했다.

그러나 남자같이 생긴 한 여자가 적대시하며 이야기했다.

“너는 여기를 목사관으로 만들려 하는구나.”

그리고 그녀는 화가 나서 뺨뺨해져서 가버렸다.

“엘자 가브릴로를 신경쓸 필요는 없어요. 그녀는 구 당원 이에요. 질라바의 재 교육기관에서 그녀의 사상적인 실책을 공부하게 되어 너무 감사해서 저러는 거예요.”

다른 여자들은 웃으면서 다음 36시간 동안 굶식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까지 잠깐 마음을 편히 가졌다.

그들의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나는 생명의 수레바퀴가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 같이 보일 때 그러한 상태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요셉과 그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들의 얼굴이 흥미로 밝아지자 나는 많은 의미의 몇 가지 이야기를 했다.

“요셉의 아버지가 그에게 여러 색깔의 걸음을 준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속에는 밝은 색의 것 뿐만 아니라 어두운 실

로 잔 것도 있었습니다. 이 둘 다 생명에 속합니다. 그의 질투심 많은 형들은 그를 노예로 팔았지만 요셉은 살아서 이집트 나라 관리인의 집에 관리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수레바퀴는 바뀌어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금 일어나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어 그 나라를 기근에서 구했습니다. 그의 형들은 곡식을 얻으러 와서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이 위대한 이집트의 군주가 그들의 노새를 때앗을까 걱정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혼잡합니다. 우리는 별 것이 아닌 것을 걱정하면서 그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깊은 의미를 못보기가 일쑤입니다. 슬픔은 우리가 좁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큰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말을 알 수 없습니다. 요셉은 마지막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 그를 팔았던 형들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소수의 몇 명만이 듣는 동안 그 감방은 혼잡했고 새장처럼 떠들썩했다. 나는 머리가 붉은 비오리카와 눈이 마주쳤다.

“조심해요” 하고 농부 여인이 속삭였다.

“아스프라가 여기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문제가 생길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비오리카는 침대 사이의 공간에 나타나서 나를 손짓하며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몇 시간 동안 나는 생각을 짜내서 이제 알겠어요.”

나는 그녀가 나의 조그만 설교를 듣고 진상을 밝히려는 줄

알았다.

“나는 당신 이름이 귀에 익었어요. 나는 내가 어디서 이 이름을 들었더라? 하고 혼자 말을 했어요.”

다른 여자들이 쳐다보았다. 나는 여흥을 하는 것처럼 칩대 꼭대기에 나 혼자 앉아 있었다.

“맞아요! 저 여자는 목사예요. 범브란드 목사의 아내예요.” 비오리카는 승리한 듯이 말했다.

그 감방장은 그의 삼촌이 부크레스트에서 정통파 교회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고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그는 성직자 회의에서 리차드의 연설을 들었었다.

“4,000명 중에서 한 사람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같이 말했어요. 다른 사람은 모두 공산주의자들을 찬양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들이 나중에 종교 장관을 해고한 것을 아세요?” 비오리카가 말했다.

그녀는 나에게 몸을 들렸다.

“나는 당신 교회에 가본 일이 있어요. 그 설교는 아름다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그 시간의 주인공이 되었다. 나는 바계쓰 위의 지옥같은 자리에서 내려왔다. 비오리카는 보다 나은 몇 피트 저쪽의 빈 칩상을 주었다. 그곳으로 그녀는 나를 공식 방문했다.

“감방장이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제같은 날은 나는 못참아요.”

비오리카의 권력은 대단했다. 그녀는 아스프라 경사에게 세탁일을 할 사람을 추천했다. 경비원의 더러운 속 내의를 빨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얼마나 천한 일인가? 그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4호 감방의 어둠과 악취 속에서 아무 것도 안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나는 처음으로 한 접시의 물에 끓인 옥수수인 테르취를 받고 먹을 도구를 찾았다.

“순갈을 찾네? 혀로 핏아 먹어!” 하고 가브리엘로 부인이 조롱했다.

나는 얇은 양철 접시에 담긴 묽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을 먹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턱으로 흘려내렸다. 그것을 핏아 먹기란 너무나 동물같아서 나는 아침 테르취를 포기했다.

그러나 구원의 생각에 이르면 왜 천해지기를 바라지 않는단 말인가? 우리의 주님은 가장 천한 자리로 오셨다. 나는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우려 갔던 성서적인 영웅인 기드온을 생각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강물을 ‘개가 핏듯이’ 핏아 마신 사람들만 군인으로 쓰라고 하셨다. 그것은 마지막 굴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다음번 식사가 왔을 때 나는 내 음식을 핏아먹었다. 후에

엘레나가 나무조각을 부서진 유리조각으로 조각 깎아서 스푼 비슷한 것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미스레아 감옥에서 온 여자는 거기서 엄마와 임신한 여자의 영양을 위해 별도의 배급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도 그쳤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자 반수가 즉시 임신했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질투가 나서 소동을 피웠어요.”

우리들 누구도 임신인줄 알 만큼 뚱뚱하지 않았다. 간혹 기아로 배가 부픈 사람은 있었지만, 우리는 곧장 배를 굶기는 것이 공공연한 정책이라고 결정지었다. 그래서 우리는 체념하고 좀 덜 걱정했다. 그런데 당국에서 사람들을 노동 수용소에 보내려고 했을 때 더 나은 음식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지원자가 되게끔 마음을 동요시켰다.

보통 우리는 수녀의 침대에 모였다.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것을 막기 위해 여성동맹에서 했던 여러분의 경험을 모아요” 하고 엘레나의 단적인 스투피안느가 말했다.

그 여자는 크고 당당한 미망인으로써 공산주의가 올 때까지는 여러가지의 많은 유산이 있었다. 그러자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녀는 초를 팔고 한때는 그녀가 자비로운 후원자였

던 교회의 청소를 하면서 살았다. 그녀는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

어느날 아침 교회에서 자기의 초를 놓은 책상 뒤에 서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정통과 신자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성호를 긋지 않고 카톨릭 스타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었다. 그는 초를 샀지만 루마니아 말을 거의 모르는 것 같았다. 그는 유럽을 여행하는 프랑스에서 온 세미나 학자라고 밝혔다. 그는 교회가 억압당하는 것을 보고 매우 실망했다.

스투피안느 부인은 그에게 더 말을 하려고 프랑스어를 연습했다. 왜 바로 그 교회에서도 제단 앞에 경찰의 종교 암살단원이 목사들 괴롭히지 않는가!

다음날 스투피안느 부인은 체포되었다. 그 불란서 사람은 공산당 앞잡이였다. 그녀는 비밀경찰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던가 감옥에 가던가 양자택일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나는 질라바에 일년째 있어요.” 그녀는 말했다. 나이 46에 그의 머리는 희었다.

그곳에는 고요하고 선한 눈빛의 빛나는 두 카톨릭 수녀가 있었다. 그들은 불평하지 않으며 나이든 사람을 돌보았다. 그들은 상처난 몸을 씻어주고 찬송을 부르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에 안락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당신들은 노래부르도록 허락받았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말했다.

“우리는 노래부르도록 허락받았고 그들은 우리를 때리도록 허락받았지요.” 베로니카 수녀가 대답했다.

소피아 수녀는 나이가 더 어리다. 그녀는 그녀의 팔과 목의 멍든 상처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매우 작은 소리로 노래해요. 그렇지만 누가 우리에게 말해주더군요. 그들은 차고 때리고 밟고 한다고요. 그전에 아스프라 경사가 다 고자질해놓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50명이나 되는 여자들을 조용하게 합니까?”

소피아는 교회에서 오르간을 쳤었으며 우리를 찬송부르게 인도했다. 다른 사람은 농부에게 뿌리박힌 구원 군 형식의 운동인 주님의 군대를 위해 쓰여진 노래를 알았다.

거의 모든 사람은 정통파였다. 문맹의 시골 여자들은 목사의 마지막 의식없이 죽는 것을 크게 두려워 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귀신이 되는 걸로 믿었다. 수녀들은 장례의식 예배의 말을 되풀이했고 여자들은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지는 않았지만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

“주님, 잠들은 당신의 종에게 성자의 휴식을 주십시오. 그녀에게 푸른 들판의 휴식을 주십시오.” 수녀들이 영송했다.

푸른 들판, 우리는 땅의 밑에 있다. 우리의 감방 위에는 푸른 풀이 자라고 그 위에서 소들이 키워진다. 먹을 것이 많고 햇볕을 쬐는 그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질라바의 수녀들 중에는 수녀원 원장도 있고 신참자도 있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평수녀도 있었다. 18세 소녀도 있고 60살 여자도 있다. 정부가 그리스 정통과 교회를 말살했을 때 신부와 수사와 수녀들은 교회와 함께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반대했는데, 그때 그들은 투옥되었다. 거기서 그들은 로만 카톨릭 조합원에 참가하였다.

아스프라 경사의 대리는 평범한 얼굴과 그래도 듣기좋은 목소리를 가진 둔하고 느린 게오르게스크 상등병이었다. 그녀는 죄수들을 훈련에 소집했다.

“내가 밖으로 나오시오 하고 소리치면 아무도 남아 있어서는 안돼요. 모두 밖으로 나와야 해요.”

50명의 여자들이 동시에 한 문으로 나올 수 없다. 그러나 게오르게스크와 말싸움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내가 명령을 내리면 당신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그녀는 단조롭게 말했다.

그녀 뒤의 여자들은 콧소리같이 킁킁 거리다가 나중에는 정말 신경질적인 웃음으로 커졌다. 그러나 그 웃음소리는 그녀가 소리치기 시작하자 사그라들었다. 언제나 그녀의 주먹을 맞는 것은 열의 맨 마지막에 있는 나이들고 쇠약한 사람

들이었다.

“당신은 자비심도 없어요?” 하고 내가 소리쳤다.

“자비심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고 했어요!”

“나는 몰라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그러나 그래도 게오르게스크는 약점이 있었다. 그녀는 내가 4호 감방에 있는 한 의학적 처치를 받을 허가를 안해주었지만, 치통으로 고생하는 여자들을 치과의사를 만나게 해주었다. 그녀도 치통으로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치통이 어떤 것인지 안다. 그러나 보통 그 여자 경비원들은 얼마나 목석같은지 모른다.

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에 익숙해왔다. 그러나 그들 제복을 입은 여자들은 꼭두각시로 변했다. 때리라는 명령을 내리면 그들은 때린다. 우리는 야단맞는 도구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좀 늦춰주라는 명령을 내리면 그들은 우리를 무시했다. 그들은 맹목적인 복종을 가르키는 보안 경찰학교를 나왔다. 대부분이 그들은 새 제복만큼 멋진 것을 가져보지 못하고 새 권총만큼 비싼 장난감을 가져보지 못한 농촌 출신이었다. 그들은 루마니아를 지배했고 루마니아는 그들의 세상이었다.

프로테스탄트의 명령자로서의 지위를 과시하는 것은 주로

선생과 교수의 아내와 다른 문화면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배우지 못한 것의 복수가 아니었다. 그들은 '브르조와 지식계층'이 세계 공산주의의 발전을 위협한다는 생각을 주입식으로 교육받았다. 그들은 여전히 당을 믿고 그것의 약속을 믿었다.

감방의 여자 중에서는 샤다가 제일 분별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녀는 젊고 키가 크고 긴 흑발의 머리와 맑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가 구속되기 한달 전에 과학사 학위를 받았다고 했다. 그녀의 경쾌한 목소리는 사물의 표면을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산에서 아르세네스크 장군의 전투원에 참가한 그녀의 오빠 때문에 구속당했다. 그녀가 대학에서 한 발언이 경찰에 보고되었다.

때때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놀라는 듯한 흰동자가 그녀 눈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야기 중간에 끊어졌다. 나는 일전에 죄수들 중에서 이런 일을 본 일이 있어서 이것이 나를 깜짝놀라게 했다.

어느날 저녁 샤다 침대의 주위의 자리가 비워졌다. 어느 여자가 나의 침대에 같이 누우려고 들어왔다.

“당신과 같이 있게 해줘요. 샤다는 이상해요. 그녀가 또 발작할 것 같아요.”

나는 그녀를 보러갔다.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의 긴 손가락은 머리카락을 신경질적으로 비틀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가 소리쳤다.

“난 몰라! 난 기억이 안나. 이 사람을 전에 본 일이 없어...”

비오리카가 통로로 뛰어왔다.

“너무 안됐군” 하고 그녀가 애처롭게 말했다.

“내 책임도 아닌데 왜 애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지를 않지?”

여자들은 겁을 먹고 십자가를 그었다. 샤다는 숨을 가쁘게 쉬고 얼굴이 붉어졌다. 그리고 덮에 걸린 동물처럼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침상에서 뛰었다. 팔은 도리깨질을 하고 검은 머리는 날렸다. 그녀 쪽에 있는 아무나 막 때렸다. 창턱에서 함석 쌓인 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비오리카의 머리에 던졌다. 그것은 잘못 맞고 문에 부딪쳐 소리를 냈다.

머리를 담요 속으로 파묻고 비명과 시끄러운 울음소리가 공기를 채웠다. 썩썩한 두 여자가 샤다와 덩굴었다. 그들은 통로에서 앞으로 뒤로 몸부림쳤다. 비오리카는 쓸데없는 충고로 소리쳤다.

“그녀를 붙잡아! 그녀를 걸러 넘어지게 해.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많은 악마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았다. 마지막에 침착하게도 샤다의 뒤에서 머리의 담요를 벗겨낸 사람은 베로니카 수녀였다. 그들은 마루바닥에 굴러 떨어졌다. 두 여자가 샤다를 꼼짝못하게 붙들었다. 그녀의 몸부림은 끝났다. 그녀는 조용했다. 그들은 의식이 없고 옷이 찢어지고 땀으로 젖은 그녀를 침대로 들어올렸다.

그러자 나의 몸이 슬근거리기 시작했다. 감방의 저쪽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갑고 절도있는 심문자의 목소리였다. 질문을 하고 또 똑같은 질문, 다시 또 반복하고 다시 또...

나는 몸을 떨면서 감방의 저 끝으로 갔다. 침대 속에서 무릎을 가슴에 붙이고 움추리고 있는 창백한 젊은 소녀는 무서움으로 굳어 있었다. 그녀는 자기의 본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몰라요, 나는 거기 없었어요, 제발 나를 때리지 말아요,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아악!”

그녀의 눈은 떠졌다. 그녀는 두려운 기억 속에서 비밀경찰 감방에서의 심문을 재현하고 있었다. 두려움과 기술적인 정확성으로 그녀는 심문자의 가라앉은 목소리를 흉내내고 숨도 쉬지 않고 “몰라요”를 연속했다. 그리고 마치 고문을 당하는 고통인 듯이 숨이 막히고 기침을 하는 소리를 내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한 시간 동안 그 감방은 울부짖음과 호느낌의 심한 불협화음으로 가득찼다. 한 여자 한 여자씩 꺾였다. 악의 힘이 악취를 내뿜는 암흑 속에서 우리를 둘러싸는 것 같았다. 단 하나 있는 전구가 둥근 천장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처음으로 나는 충격으로 감각이 없어진 것 같았다. 그리고 불에서 달구어진 쇠처럼 내 가슴 속에 무언가 뭉클한 것을 느꼈고 나의 심문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리차드는 무얼하고 있을까? 미하이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까? 궁금해 한 그 공포의 밤의 기억이 났다.

나는 기도로 미칠 것 같은 기분을 억눌렀다. 의식적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기도의 말이 샘처럼 솟아나왔다. 수녀들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것이 지옥에서의 가장 안전한 장소인 것처럼 여자들은 우리의 침대 주변에 모여 들었다. 죄수들이 나의 손을 잡으며 내 뒤에서 나를 죄어 들어왔다. 그들은 악몽의 유태인 학살에서 도망치려는 듯이 보였다.

경비원들은 이 비극적인 광경을 전에도 여러번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오지 않았다. 도화선에 성냥을 그은 사다는 아무 것도 들리지 않는 채 고요히 자고 있었다.

흐느끼는 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한 시간 안에 어둠 속에서 들리는 기진맥진한 콧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공포의 느낌은 풀렸다.

오랫 동안 나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깨어 누워 있었다.

“주님, 제가 이 여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신다면, 저에게 그들의 영혼을 당신을 위해 구원할 마음의 지혜도 주십시오.”

바깥에서는 긴 복도에서 경비원의 발자국 소리가 사라져 점점 더 희미해졌고, 어디에선가 감옥 저 깊은 곳에서 큰 문이 닫히며 빈 소리가 울렸다. 나는 다른 감방에서 어떤 여자가 기침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작고 희미한 정글

의 소리가 3천 영혼이 자고 잊어버릴 때 질라바의 큰 건물에 메아리쳤다.

다음날 아침 나는 구 당원인 엘자 가브리로를 대면하게 되었다. 그녀는 전 비밀경찰관이었다가 그 영예에서 추락당했다고 한다. 숙청당한 당의 많은 희생자가 이제는 감옥에 들어와 있다. 엘자는 그녀의 큰 턱을 나에게 내밀며 말했다.

“다시 설교를 해보시지. 그러면 내가 경비원이 올 때까지 문을 두드릴테니까.”

나는 “엘자, 당신은 아직도당을 믿어요?” 하고 말했다.

“물론이지. 나는 내 신념을 바꾸지 않아. 나를 체포한 것은 모두 실수였어.”

“나를 체포한 것도 내 신념을 바꾸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했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맺는 친구가 어떤 것인지 말하러 해요.”

“당신 때문에 이 감방 전체가 벌을 받겠어. 나는 당신과 당신의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고 싶지 않아. 하여튼 하나님도 당신을 많이 도와주지는 못하나 보지.”

“당신이 그렇게 싫어하는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죠? 당신이 ‘나는 책이 싫어’ 한다면 당신은 책이 가진 성격을 알 것이 아닙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것이지요?”

“하!”

그녀는 교과서적인 대답을 할 기회를 즐겼다. 하나님은 과학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미친 분이다. 프로레타리아를 착취하는 사람들의 후원자이다. 그들에게서 쫓겨짜낸 돈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짓는다. 그는 양쪽 편에 모두 멸망의 무기를 축복해준다.

“당신이 부르는 하나님은 확실히 사랑할 수가 없군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다른 분입니다. 그는 일하는 자의 가난을 같이 나눕니다. 그는 압박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병든 사람을 치료합니다. 그분은 사랑을 가르치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고...” 하고 나는 말했다.

“사랑이라구!” 그녀의 목소리가 쇠소리를 냈다.

“나에게 그게 좋을게 뭐야? 내가 말하겠는데, 나는 모두를 증오했어. 내가 얼마나 나를 여기에 넣은 간사한 놈들을 증오했는지 알기나 해? 나는 그들이 모두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 나는 내 온 생명을 당에 바쳤는데 이것이 고작 그들이 내게 하는 것이야!” 그녀는 머리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 눈물 기미가 보였다. 내가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았다.

“기도? 그들을 용서해? 아버지?” 그녀는 말들을 투덜거렸다. “나는 용서를 받아들일 수 없어. 그건 거짓말이야.”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다 똑같애. 미국놈들이 와도 나는 목매달릴거야. 공산당이 계속 있어도 나는 감옥에 갇혀 있을꺼야. 용서라구?”

그녀는 흐느꼈다. 눈물이 떨어졌다. 잠시 후에 그녀는 콧꽃이 앓아 회색 얼굴을 치마 가장자리로 닦았다. 그리고는 나를 뚫어보는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사비나 범브란드, 당신은 교활해. 나는 당신에게 설교하는 것을 그치라고 말하겠어.”

그러나 가브리엘로 부인은 이번에는 경비원을 부른다고 위협하지는 않았다. 이제 나는 4호 감방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여자들은 불란서 말과 독일 말을 배우러 왔다.

“범브란드 부인은 모든 수업은 ‘Dien’ 나 ‘Goff’로 시작해요” 하고 나의 애제자인 화니 마리네스크가 말했다.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해 나에게 오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이 석방됐을 때 유용하리라 생각해서 오는 사람도 있었다. 부크레스트의 동맹 부대에 통역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화니의 남편과 그의 어머니 모두 감옥에 있었다. 그녀는 25살로 조용하고 수줍어하며 짧은 머리와 크고 둥근 눈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아침 점호 후에 마당에서 처음으로 이야기했다. 아스프라와 그의 부하들은 마권 영업자처럼 으르렁대며 싸우고 있었다.

“여기 이 풀잎을 보세요. 여기 밑에서 자라는 것이 신기하지요?”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는 친한 친구가 되었다. 우리의 불란서어 수업은 비누를 칠한 구두 밑창에 글자를 써서 했다. 질라바에는 아무 것도 공급되는 것이 없었다. 종이도 옷도 린넨도 집에서 오는 소포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 DDT는 사방에 뿌려진다. 비누기름을 칠한 구두 바닥에 그것을 묻히면 무슨 쪼개진 조각으로 쓰는 것처럼 간단하게 잘 써진다.

가끔 우리는 수업을 중단해야 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아프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 통증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간격을 두고 와요” 하고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다.

그러나 의사를 본다는 것은 진실로 불가능하다. 오래간만에 의료 노무원은 올 수도 있다. 아픈 사람은 그 여자에게 모여들어 소리치며 도움과 약을 달라고 했다. 그 노무원은 서 녀의 “긴급한 경우”에만 진료소에 가도록 허락했다.

진료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설사에는 설파제를 주고 다른 경우에는 아스피린을 준다.

화니 마리네스크가 쓰러졌다. 그녀는 담요에 싸여 실려 나갔다. 며칠 후 그녀는 돌아왔다. 의사는 장 결핵이라고 진단했다.

“그들은 수술을 한다고 약속했어요.”

그녀는 온화하게 웃으며 속삭였다. 몇 주일 후 화니는 병동으로 옮겨가 거기서 죽었다. 판명된 병은 결핵이 아니라 암이었다. 후에 나는 노동 수용소에서 마리네스크의 어머니를 만났는데 이 비극의 소식을 전해야만 했다.

통로 저편 나의 침대 맞은 편에 아이오니드 부인이 있었다. 그녀의 아들은 아르세네스크 장군의 마키단에 있었다. 그녀의 두 딸도 역시 감옥에 있다. 하나는 미스레이에 있고 또 하나는 우리와 같이 질라바에 있지만 근처의 방에 있다.

엄마는 딸이 운동장에서 걷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철로 덮어버린 창을 끊어서 내다볼 수 있는 작은 구멍을 내었다. 창에 가까이만 가도 즉시 벌을 받는다. 그러나 60세의 아이오니드 부인은 그녀의 어린 자식을 먼 발치로나마 보기 위해 모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녀는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때때로 그녀는 내 침상에 기어 올라와서 자기의 남편과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죄수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리차드에 대해 물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가 항상 목사였는지, 유태인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는지, 그런 사례가 귀하지 않은 지를 물었다.

“그것은 긴 이야기예요. 행복했던 때도 있었지만 그 못지 않게 슬프고 불행했던 때도 있었지요.”

나는 내 자신이 옛날을 회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아이오니드 부인은 층층한 불빛 아래서 주름진 얼굴에 그림자가 지면서 하도 조용히 들었기 때문에 마치 내 자

신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때때로 그녀는 “네?” 하며 중얼거렸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생각해도 이상한 대목에 있어서 조그만 탄성이나 놀라움의 표시를 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첫번째 만남으로 시작된다. 리차드는 27세였고 나는 그보다 4살 아래였다.

나의 개종

나는 범브란드 가족이 사는 부크레스트의 거리로 접어들었다. 나의 삼촌은 그곳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이었고 나는 처음으로 그와 동행했다. 나는 집을 올려다 보았다. 그곳에는 젊은 사람이 나를 뒤로 섬찝 물러나게끔 할 정도로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나의 삼촌을 보자 손을 흔들며 내려왔다. 인사말과 소개가 끝난 후 그는 나에게 왜 그렇게 찌부둥해서 서 있었는지 무뚝뚝하게 설명했다.

“나의 어머니는 자꾸 나에게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어머니는 집안 가계를 전승하고 집이 둘 있고 십만 달러의 지참금이 있는 상속자를 알고 있습니다.”

“매우 좋게 들리는 데요.”

“네, 나는 사업과 유산을 가질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웃었다.

“그 여자는 내가 싫어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우리가 모두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발코니에 나와 있었는데 당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농담식으로 덧붙여 말했다.

“내가 당신같은 여자를 얻을 수만 있다면 십만 달러 같은 것은 상관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다시 파리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나는 부크레스트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우리는 매일 저녁 만났다. 리차드와 나는 모든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우리 둘 다 모두 어렸을 때는 가난했고, 또 종교를 외면한 유대인들이다.

리차드는 처음으로 그의 예리한 머리를 써서 돈을 잘버는 유망한 사람이었다. 그는 돈을 쓰는 것을 즐겼고 우리는 같이 나이트 클럽과 극장을 다니며 인생을 즐기는데 만족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은 무언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하게 했다.

“나는 수월한 사람이 아니요. 나와 함께 있으면 피로움이 많을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딴 것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깊이 사랑에 빠져 있었다. 우리는 유대교 식으로 결혼을 했다. 포도주 잔이 전통적인 방식대로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그것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발 밑에 짓밟혔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행복은 일년도 채 지속되지 못했다. 리차드에게 성가신 기침이 발병한 것이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되어서 의사에게서 돌아왔다. 결핵이었다. 한 쪽 허파에 구멍이 뚫렸다. 그는 즉시 요양원에 가야 했다.

그 당시에 폐결핵은 치명적이라고 판명되는 성가신 병이었다. 나는 리차드가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했다. 내 생애의 가장 나쁜 비극이며 가장 행복스러운 순간에 나를 우롱하는 잔인하고 무서운 제략같았다.

리차드가 산중의 요양원으로 떠났을 때 나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의 어머니는 친절했지만 밤이면 나는 울면서 잠들었다.

나는 2주일마다 기차를 타고 그를 만나러 갔다. 그곳은 아름답고 푸른 나무가 언덕과 골짜기 너머에 있는 장관인 조용한 곳이었다. 리차드는 거의 그곳에 만족하는 것 같았다. 그는 “내 생애에 있어서 처음으로 휴식하고 있는 것이오” 하고 말했다.

그는 감사하고 있으며 몸도 나아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상한 변화가 그에게 왔다.

“나는 옛날을 생각했오. 내가 해를 입힌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어머니, 그리고 당신이 모르는 여러 여자 생각, 나는 내

자신만 생각했었오.”

“그것에 대해 슬퍼하지 마세요. 나도 그런 인생을 산걸요. 그것이 젊음이에요.”

어느 날 나는 그가 그 요양원의 어떤 여자가 준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라티스본 형제들에 대한 것이요. 그들은 유대인을 귀의시키는 법을 발견했오. 내가 인생을 허비하는 동안 남들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것은 그가 나에게 준 가장 큰 충격이었다. 나같은 정통파 유대인 집안은 그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우리는 교회를 지날 때는 교회를 의면해야 했다. 나는 엄격한 유대교의 교육을 받고 자랐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리차드가 그런 일까지도 생각할 것이라는 사실이 나를 몹시 당황시켰다.

나는 내 민족이 어떻게 크리스찬에게 학대당했는 지의 역사를 안다. 유대인이 강제로 세례받은 것과 그들이 종교를 바꾸는 것보다는 수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자식과 자기 자신들이 죽음을 택했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카톨릭 미사를 강제로 듣게 되면 왁스로 귀를 틀어막아 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듣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이는 것들이 그리 고무적인 것이 아

니다. 정통과 교회는 강경한 반 섹족인 경향이다. 루터파 교회도 그렇다.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반 섹족의 단체는 ‘전국 크리스찬 보호협회’라고 불리운다. 그 주된 활동은 유태인 학생들을 때리고 유태인 가게를 습격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과거에나 지금에나, 무엇이 리차드를 크리스찬으로 변하게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아무도 진정으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주지 않았다.

리차드는 천천히 몸이 나았다. 나는 우리가 부크레스트로 돌아가면 가질 좋은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다. 그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생애를 묘사한 신약성경을 발견한 데 대해 이야기하려 했다. 전에 우리는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지금은 리차드는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산 마을에서 몸이 회복됐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 한 목수 노인이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가 리차드가 유태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의 눈은 흥분으로 빛났다. 거칠은 손을 그의 팔에 놓으며 그는 이런 말을 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생애의 종말에 한 좋은 사람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유태인을 원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없으며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을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당신이 있으니 나의 기도에 답해주신 것입니다.”

리차드는 깊이 감동했지만 나의 가슴은 가라앉았다. 우리가 떠나기 전에 목수는 그에게 다 읽은 성경을 주며 “나와 내 아내는 당신이 귀의할 것을 바라면서 이 성경 위에서 몇 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하고 말했다.

리차드는 그것을 읽고 또 그 의미를 읽었다. 나는 내 할 바를 몰랐다. 나는 말할 수 없이 낙심했다.

유태인이 아닌 사람은 유태인의 가슴에 반 크리스찬적인 감정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추측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역사적인 이유로도 누구나 다 반감을 품게 된다. 내가 어린 애였을 때 내가 학교에서 모퉁이를 지나 집으로 돌아갈 때면 큰 여자애 들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 더러운 유태인 제집애!” 하고 내 머리를 잡아당겼다. 그런데 그들은 크리스찬이었다. 그것은 어렸다고 치자. 내가 컸을 때 나치는 독일 내의 유태인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리차드는 내게 예수님 자신은 부정의 희생물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의 입술에서 금지된 이름이 나오는 것을 참고 들을 수 없었다.

“나는 그가 필요없어요.” 나는 말했다.

“당신도 그가 필요없어요. 그건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우리는 유태인이예요. 그건 다른 식의 사는 방법이에요.”

그가 세례받겠다고 말했을 때 나는 이성을 잃었다. “당신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겠어요.

그게 당연해요” 하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종교를 가지더라도 유대인으로서의 믿음을 실천하라고 했다. 그는 얼마 동안 그렇게 했다. 그는 유대인 집회에 갔지만 거기서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교회 안에 들어가 보자고 설득했다. 나는 놀랐지만 호기심도 났다.

그 측은 성자들의 사진으로 가득차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 같이 그들의 반이 유대인이라고 말했다. 십계명은 모세의 유태교 책에 있는 것과 같았다. 시편은 유태교의 다윗 왕의 잠언과 같았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서론과 제시로 가득찼다.

“사실은 그리스도교는 우리의 유태교가 전 세계 각국에 넓게 열려진 것이요.” 그는 나를 이상한 등근 천장의 건물로 데려가며 말했다.

유대인의 가치와 도덕과 예지를 가능케한 사람이 전 세계에 퍼져도 된다는 말인가? 2천년 넘게 1억이 넘는 사람에게 퍼질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 유태교의 성서가 히브리 말에서 여러가지 친의 언어와 방언으로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서는 무식한 농부로부터 파스퇴르, 아인슈타인같은 가장 위대한 과학자에 이르기까지 읽혀진다.

여러 날 동안을 끈기있게 토론해서 리차드는 나의 반대를 꺾어놓았다. 나는 신약성경을 읽었다. 나는 구세주를 찬양하

고 사랑했다. 그러나 나는 간디가 “기독교가 나에게 구세주를 주었고 그것으로 모든 다른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에게 찬성한다. 나는 우리 민족을 괴롭힌 그의 추종자들과 아무 상관이 없기를 바랐다.

리처드는 그렇지 않았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를 받아들임없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오. 그분은 당신에게 오려고 그들을 떠나지 않았오.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유다도 친구라고 하지 않고는 제자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오.”

나의 이성적인 반대는 극복되었지만 아직 감정적인 문제는 남아 있었다. 그것은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강해졌다. 그러는 동안 나의 마음은 “그가 맞다” 하고 속삭였다. 나의 이성과 감정이 반동을 일으켰다. 몇 주일 동안 이런 내면적인 투쟁이 나의 내부에서 격렬하게 행해졌다.

어느날 저녁 리처드는 복음교회에서 유태인들에게 전도하다가 걸어 들어왔다. 그는 나의 손을 붙잡고 그리스도에게 그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곧 그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이 강하고 발랄한 성격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소식은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방을 잠그고 몇 시간이고 혼자 있었다. 그리고 그가 세례받는 날 자살하기로 결정했다.

그날이 왔을 때 나는 혼자 남아 방문을 잠그고 마루 바닥

에 몸을 던져 흐느끼며 울었다. 바람부는 사막의 무서운 허전함이 나의 내부를 지나갔다. 나는 절망에서 크게 소리쳤다.

“예수님, 나는 당신께 가지 않습니다. 나는 리차드가 당신의 것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고함소리에 스스로 충격을 받았다. 나는 거기 오랫동안 흐느끼며 누워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해졌다. 무언가 나를 바꿔놓았다. 생명이 다시 거슬러 흐르기 시작했다.

리차드가 세례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그를 맞으러 역에 꽃을 들고 나갔다. 그는 행복했다. 우리는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밤 늦게까지 앉아 있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조용한 힘에 의한 이 변화로 조용히 움직여 왔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그동안 내내 내 마음만을 탓했었다.

그러나 내가 양보했더라도 나는 아직은 내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 나는 젊었다. 나는 파티에 가서 춤을 추고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했다. 교회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리차드는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 가끔 내 의견에 동의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에 간 파티에서 나는 내 자신이 조금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달았다. 소음과 술과 연기와 농담이 더 싫어졌다. 그리고 대화하는 것은 모두 다 지

루한 것이 아니면 역겨운 것들이었다. 나는 더이상 거기에 있을 생각이 없었다. 나는 “갈 수 없어요?” 하고 리차드에게 말했다.

내가 놀람게도, 그는 일찍 가는 것은 예의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 마음을 훨씬 알면서도 그는 이 구실 저 구실로 나를 거기 머무르게 했다. 내가 그 모든 것에 넌더리가 나고 육체적으로 혼미해질 때까지...

매우 늦어 우리가 집에 갈 때 나는 충동적으로 말했다.
“리차드, 나는 당장 세례받고 싶어요.”

그는 웃었다. “당신 오래 기다렸구료. 내일까지만 기다림시다.”

그는 다음 날 나를 성자같은 복음교회의 아렌시 목사와 나에게서만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같이 보이는 엘리슨 목사에게 데려갔다. 둘다 자기 일을 중단하고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었다. 나는 그들에게서 그들의 전도사업과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기독교 정신을 배웠다.

나는 그러한 것을 나누어 가질 수 있어서 매우 기뻐했다. 내가 세례받은 다음 날 나는 그녀도 구원받을 것을 의심치 않으면서 내 친구인 유태교 여자에게 가서 말했다. 내가 내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녀는 듣기 싫어했다.

“그래... 나는 너를 잃게 되었구나.”

그녀는 돌아서서 울었다. 우리는 그렇게 가까웠다. 이것이

첫번째 교훈이었다.

내가 개종한 후 나는 아이를 가졌다. 우리는 우리의 즐거운 인생이 아이로 인해 방해받을까봐 두려워서 아이를 원치 않았었다. 우리 아들 미하이는 1939년에 태어났다. 벌써 검은 구름은 루마니아에 모여 있었다. 우리는 히틀러의 범위 안에 있어서 곧 유대인들이 뿌리가 뽑힐 것을 알았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아이를 가지는 것이 불리한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미하이를 낳았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그를 낳아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리차드의 어머니는 거의 우리만큼이나 자랑스러워했다. 첫날 밤 그녀는 모든 친척에게 급히 알렸다.

“리차드를 꼭 닮았어요. 그렇게 똑똑하게 생겼어요.”

리차드는 나에게 “그의 검은 눈은 당신을 닮아 매우 예뻐. 그런데 울기만 하니 언제나 똑똑한 말을 할까?” 하며 매우 기뻐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행복했다.

*

*

내가 나의 이야기를 끝낼 때 즘에는 저녁이 다 지나 버렸다. 다른 감방에서는 서로 싸우고 입씨름하는 순서가 계속 되었다. 팔과 움직이는 손이 천장에 그림자를 수놓았고 감방은 여자들이 밤이면 천천히 가라앉는 화난 벌꿀통같이 웅성거렸다.

약 속

남자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다. 군화소리가 멋있게 들렸다. 큰 문이 열렸다.

“일어섯!”

간수들이 문을 통해 들어왔다. 그들 가운데 19명의 군관이 들어왔다. 그들은 감방 안에서 반원으로 섰다. 그들의 깨끗하고 다림질이 잘된 제복에서 훈장이 번쩍였다. 그들이 마주보는 여 죄수들은 길고 끈끈한 머리를 하고 있었다. 아무도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군관들은 우리를 혐오하는 표정으로 바라보았고 한 사람은 손수건을 코에 갖다대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그들은 줄지어 나갔다. 문은 팽소리를 내며 닫혔다.

우리는 질라바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검열을 받은 것이었다.

소란이다. 누구나 다 그 의미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있겠지만 감옥에서 소란은 스프에 콩이 한개라도 더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내가 어떻게 아는지 물어보지 말아요.” 비오리카가 그녀의 친구에게 말했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모스크바에 최후 통첩을 보냈대! 나는 어제 들었지만 그때는 믿지 않았어. 이제 믿든지 말든지 당신들 마음대로야.”

그 ‘비밀’은 눈 깜짝할 사이에 감방 안에 퍼졌다. 각 칩대에서 떠드는 여자들은 끊임없이 주제를 바꿔가며 이야기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석방되어서 국가적인 영웅으로 선포되는 꿈을 꾸었다. 미국인들이 온다!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다시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는 행복했다.

“와서 이 당근 스프를 받으세요, 여러분들!”

김이 나는 스프통에서 나는 악취가 도착도 하기 전에 먼저 맡아졌다. 그러나 여러 노인들은 통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는 너무 약했다. 이 죽음을 가져오는 식사는(우리는 그때는 그것을 몰랐지만) 노동 수용소를 가기 위한 우리의 준비의 일부였다. 약한 사람을 밝혀내는 것이 분명했다. 그 검

열도 이동하기 위한 준비였다. 우리의 운명은 미국과는 상관없이 결정되었다.

“영락없는 노예 노동이다.” 한 젊은 교사가 우리에게 말했다. “그러나 캐널에 가면 하루에 일 파운드 반의 빵과 마카로니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무슨 기쁨인가! 질라바는 온갖 소문으로 넘쳐 흘렀다. 새로 들어온 사람은 캐널의 기적에 대해 뭔가 더 덧붙였다. 백만 달러가 든 거대한 계획이 오랫동안 거론되어 왔었다. 캐널은 남부 루마니아의 황무지 평원을 40마일 지나 흑해와 다뉴브 강에 연결된다.

수십만 톤의 돌이 쏟아져 들어갔다. 특별한 공장이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 세워졌다. 목재는 엄청난 값으로 러시아에서 밀려왔다. 기술자와 서기와 행정관은 벌써 일을 하고 있었다. 완전히 새로운 정부청사가 세워지고 모든 루마니아의 경계는 캐널에 모인다.

노동 수용소에서는 소포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집에서부터 받고 싶은 것은 뭐든지 말해봐.”

“초코렛!”

초코렛은 누구나 가지는 꿈이었다. 캐널에서는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 따뜻한 옷과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단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다. 캐널에서는 아이들과 남편을 잠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종일 볼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고 댄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가게 되지는 않을꺼야” 하고 비오리카가 경고했다.

“한 정치 군관이 일전에 나에게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은 도둑들을 위한 특권이 아니오’ 하고 말했거든.”

질라바가 봄비는 것은 더욱더 심해졌다. 4호 감방은 30사람 치의 공간이 있었는데 1950년 크리스마스 때는 80명이 있었다. 바닥에 누워 몸을 질질 끌지 않고서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속에서 얼마나 냄새가 지독했는지.

하루는 목욕을 하기 위해 밖에 내보내져서 우리는 기뻐했다. 그러나 이 행복은 감옥에서의 기쁨이 그렇듯이 생명이 짧았다. 킁킁한 복도를 따라 우리는 남자 간수에 의해 급히 밀리고 주먹으로 맞았다. 또 그런 갑작스런 운동은 몇 달 동안 누워만 지내온 여자들에게 너무 과중해서 몇 명이 쓰러졌다.

“5분, 5분이요. 옷을 벗고 물을 쓰고 다시 여기로 나오시오, 그리고 아무 말도 하면 안되요. 그렇지 않으면 벌을 주겠요.”

곧장 한 여자가 기절했다. 그리고 그 뒤의 여자가 쓰러졌다.

“내 상처난 발을 밟았어요.” 조그맣게 사과하는 말이 들려왔다.

“당신은 내가 누군지 모르나보죠?”

그러나 우리는 그녀를 안다. 그녀는 이 감방에서 가장 나쁜 밀고자이다. 복도를 뛰어서 숨이 찼지만 70이 다 된 기분상한 여자는 대답했다.

“여보시오, 나는 내 자신도 가까스로 아는데 당신이 누군지 어찌 알겠오?”

격노한 고향소리가 하늘을 찢었다. 중위가 사납게 호르라기를 불었다. 화가 벌겁게 나서 그는 소리쳤다. “목욕없오, 감방으로 돌아가시오. 움직여!”

오즘내 나는 어두운 복도에서 간수들은 닥치는 대로 휘둘러 때리며 욕을 했다.

나는 감방으로 되돌아와서 우리는 옆방에서 들리는 고향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밀고자에게 복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나라의 가장 위대한 자료의 하나였던 전 국민당수의 부인으로 판명된 그 약한 노파를 벌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다. 불쌍한 미할라세 부인! 그녀는 이 웃지 못할 소동에서 우연한 역할을 한 것 뿐인데.

진상은 나중에 판명되었다. 수도관이 터져서 샤워는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상부에서는 목욕시키라는 명령이 내렸다. 물도 없이 어떻게 그 많은 여자를 씻기던 말인가? 간수장은 밀고자에게 말썽을 일으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 것이었다.

미할라세 부인의 독기서린 대답은 감옥 전체에 퍼졌다. 어떻게 우리가 누군지 아는가? 우리의 가족, 재산, 지위도 모두 빼앗겼다. 그러나 애벌레가 나비로 변할 것을 아는가? 아마 4호 감방에서 고통으로 고치를 만들어서 훗날의 성인이 나올지도 모른다.

게오르게스크 상동병은 다음 날 아침에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왔다. “이 리스트에 적힌 사람은 모두 이동 준비를 해야 한다.”

감방 안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기대에 차 있었다.

“누가 그 리스트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가브릴로 부인이 당돌하게 물었다.

“나에게 명령을 내리지 말아!” 그녀는 가브릴로 부인의 웃을 위협조로 붙잡았다.

“여기있다. 이것을 저들에게 읽어주마. 너는 나를 지겹게 하는 것만 골라 하는 구나.”

게오르그스크는 손으로 쓰여진 그 리스트를 힘들게 읽었다. 이름들이 크게 읽혀지자 그 사람들은 감방을 떠났다.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집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질라바보다 더 나쁜 곳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가는 것을 부럽게 쳐다보았다. 떠나는 사람은 동정심에서 남은 사람에게 귀중한 잡동사니들을 주었다.

“이 손수건을 가지시겠어요, 사비나? 그다지 깨끗하지 않아서 어떨는지요?” 아이오니드 부인이 자기의 타월과 테이블 냅킨같은 것으로 쓰던 것을 주었다.

베로니카 수녀는 나에게 긴 검정 주름치마를 주었다.

“가지세요, 가지세요. 나는 또 하나 있어요. 바깥은 굉장히 추울 거예요.” 그녀는 애원했다.

나는 그것을 받았다. 그 치마는 땅에 끌렸지만 내 다리는 따뜻했다. 베로니카 수녀는 나에게 명랑하게 입맞춤하고 바깥에 떠났다. 아마 그녀가 간 곳은 죽음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매일 매일 내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다.

나는 1951년 1월 6일 온통 옛날을 회상하며 침대에 누워 있던 생각이 난다. 그날은 미하이의 생일이었다. 리차드는 그 애를 낳기 전부터 그애가 사내아이라는 것을 결정했고 그애가 나오는 시간도 결정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말했다.

“찰 만큼 다 찾아. 저녁 9시까지 기미가 안보이면 나는 택시를 불러서 당신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겠오.”

“그렇지만 진통도 없는데요?”

“나는 당신이 언제 진통이 올지 결정하오.”

그래서 그는 나를 병원에 데려갔고 그가 다음 날 아침 왔을 때 그는 아들을 보았다. 난산이 끝나고 나는 후산실에 있

었다.

“하나 더 넣읍시다. 나는 들을 갖고 싶소. 그러나 이번에는 더 빨리 아기를 원하오.”

“미안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매우 행복했다. 이제 미하이는 11살이다.

그날 내 이름은 불리워졌다.

나는 4호 감방을 아침 8시에 나와 복도에서 기다렸다. 나의 가벼운 여름 코트는 되돌려 받았다. 게오르게스크와 경비원들은 줄서서 기다리는 여자들에게 우습게 정중했다. 그들은 우리의 운명에 대해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이 없다. 그리고 아마 우리는 뒤바뀐 환경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아직도 미국 군대가 올 것이니까.

하루 종일 우리는 어슬렁거렸고 날씨는 몹시 추웠다. 판감방의 여자들도 함께 있었다. 드디어 우리는 트럭에 올라타고 부크레스트 근방의 이동 수용소인 겐세아로 갔다.

나는 남자와 여자들이 앉아서 일하고 있는 바라크식 오두막을 보았다. 우리는 겨울의 별 아래 얼음으로 딱딱한 땅을 건너게 되었다. 너무도 좋았다. 질라바에서의 몇 달이 끝나고 나는 고개를 들어 작은 달이 구름 사이로 왔다갔다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연인들의 친구이다. 그 옛날 리차드가 길가에서 나에게 키스할 때 달은 얼마나 자주 그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안되었던가?

젠세아는 옛날 독일 군대의 막사로 큰 가시철망이 황폐한 목재 오두막집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고 변소는 바깥에 있었다. 규율은 엄하지 않았다. 문을 드나들 수도 있고 감시 받지 않고 만 막사의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도 있었다. 잠깐 동안 불행은 우리 마을에서 씻겨져 나갔다. 맑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큰 소리로 인사하는 것이 들렸다.

“석방이라구요?” 검은 눈의 홀쭉한 소녀가 신참자의 희망어린 이야기를 듣고 소리쳤다.

“그게 무슨 소리에요? 이곳은 캐널로 가는 출발점이에요. 당신들은 며칠 안에 그리로 떠나게 될 거예요.”

캐널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들렸다. 도로를 따라 노동수용소와 새 도시가 생기고 있었다. 새 해저 항구가 타살에 세워지고 있었다. 카라수 골짜기는 물을 다 빼내야 한다.

세째 날에 나는 사령관 자하리아 미온 대위에게 불러갔다. 그는 20대부터 당원이었던 사람이다. 그의 여윈 몸은 당당한 제복이라는 접질 속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나는 확실히 놀라 보였을 것이다. 그는 해골같은 머리를 하고 웃었다.

“내가 왜 이렇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가 물었다.

“당신같은 부르쵸아 밑에서 감옥에서 굶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가 부당하게 투옥당했었다면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나는 부르쵸아 계층은 아닙니다.”

그는 나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보았다.

“내가 당신에게 제안을 하나 하죠.”

캐넬로 가서 일하는 대신 나는 특혜 억류자로 겐세아에 머물러 비교적 안락함을 누릴 수 있다. 내가 할 일이란 때때로 그에게 죄수들에 대한 비밀을 보고하는 것 뿐이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두 배반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다윗 왕을 배반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둘다 스스로 목매달았습니다. 나는 그런 죽음을 하고 싶지 않으므로 간첩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다시는 자유를 보지 못할 것이오.”

자하리아 이온 대위에게는 그의 어떤 “부르쥬아” 학대자들도 그의 공산주의 동료만치 잔인하지는 않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왜냐하면 공산당들은 나중에 그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 그를 체포해 감옥에서 죽게 했기 때문이다.

부크레스트 근방의 전철(轉轍) 마당에서 우리는 드디어 캐넬로 가는 기차를 탔다. 길고 검은 두바(형무소 호송차)는 정치 죄수 뿐만이 아니라 도둑, 매춘부, 집시들로 꽉 찼다. 우리는 고약한 경비원에게 밀려 미닫이 문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떠나는 것을 기다리며 어두컴컴한 속에 앉아 있었다. 불빛은 높다랗게 붙은 작은 창살문을 통해 들어왔다. 드디어 기차는 남쪽을 향해 천천히 뺨겨거리며 갔다.

나는 반짝이는 물살을 보았다. 강둑의 짙은 녹색의 풀을

보고 우리 고향 근처를 흐르는 프르트 강을 생각했다. 숲속에서 우리는 산딸기를 따서 설탕과 크림과 같이 먹었다.

몇 시간 후에 기차는 멈추어 우리는 피곤하고 몸이 쭈신 채 앞을 다투어 내렸다. 나는 '세르나보다' 라고 쓴 플랫폼의 표시를 읽었다. 그것은 다뉴브 강가의 작은 마을의 이름이다.

수용소는 몇 마일 밖에 있었다. 우리는 깜깜한 겨울 밤에 행진을 시작했다. 드디어 우리는 가시철망으로 둘러싸이고 높은 감시탑이 있는 문 안으로 들어섰다. 탑조등이 똑같이 보이는 막사가 죽 늘어서 있는 위로 비쳤다.

제 2 부

캐널 수용소

우리 그룹이 그 줄의 끝에 있는 막사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모여 있던 안쪽에서 환영 인사의 고향소리가 났다.

“발리아, 그리운 발리아!”

그녀는 뛰어가서 포옹했다. 발리아는 26살 쯤된 집시여자로 재주 좋은 도둑이었다. 집시들은 많이들 도둑질을 하지만 발리아의 업적은 유명했다. 그녀는 멋진 매부리코와 수많은 새까만 머리를 하고 있는 노파인 집시의 지도자의 보호 밑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그녀에게 침대를 주고 음식을 주고 찌르레미들처럼 조잘거렸다.

내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나를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나를 쳐다보는 사람도 없었다. 그때는 늦은 토요일

일 저녁으로 그들은 그날의 일을 마친 뒤 큰 뗏자로 드러누워 있었다. 나는 자리를 찾아 둘러 보았지만 벌써 몇 안되는 침대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마루에 앉았는데 갑자기 옆 침대의 한 여자가 자기 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딸이 체포되었는지 길에서 죽었는지 몰랐다.

“그렇지만 여기서 괜찮은 일은 보르비터(친척이 방문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락하는 것)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옷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미하이틀 만나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밤을 꼬박 지새웠다. 나는 옆치락 뒤치락하다가 새벽녘에 되어 잠시 눈을 붙일 수가 있었다. 그리고 가슴이 뛰어 잠이 깨었다. 어둠 속에서 달아나고 짹짹우는 소리가 들렸다.

“집승이야. 저것이 내 침대 위에 올라왔어.” 내 옆의 여자가 험뻑거리며 말했다.

이제야 나는 매쾌한 동물 냄새를 알 수 있었다. 쥐였다. 잠시 후에 학식있는 사람이 부드럽게 말했다.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귀찮아 하기보다 그들이 우리를 귀찮아 할 이유가 더 많습니다. 쥐들은 여기서 오랫동안 몇 세대에 걸쳐 살았읍니다.”

다른 목소리가 명쾌하게 말했다. “밤에 쥐들을 위해 빵을 조금 남겨놓아야 할 겁니다. 물지 못하게 하려면요.”

마루바닥에서 밤을 보낸 다음 날인 일요일 아침에 나는 휴식과 씻을 기회와 옷을 수선할 기회를 바랬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희망이었다.

수용소의 여자 쪽 전체는 긴 전과 기록을 가진 죄수가 지배했다. 비다블 리나는 그녀가 정치범들을 증오하는 것으로 인하여 수용소 사령관에게 뽑혔다. 형사상 죄수는 빈들거리며 놀고 있는 반면에 정치적인 죄수들은 무릎을 구부리고 마루를 문지르고 닦고 있었다.

“새로 온 사람은 모두 바깥에 모여 목욕탕으로 가야 합니다.” 그녀가 소리쳤다.

우리는 줄을 서서 무장한 간수들의 호위 아래 얼어붙은 진흙 위를 걸어갔다.

교양있는 부인과 아름답게 자란 어린 소녀들 중에는 창녀도 약간 있었다. 그들은 음란한 짓을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비명을 질렀다.

경비원들은 웃으면서 그들의 장화신은 발을 굴렀다. 리나는 머리를 색깔있는 스카프로 싸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 그녀의 작은 코가 돼지코처럼 볼거져 보였다. 그녀는 이상한 소리를 지르며 그들에게 추파를 던졌다.

세상이 빙빙 돌았다. 젖은 마루바닥이 나에게 치명적이었다. 계속되는 여행과 배고픔과 부끄러움이 나를 기절하게 만들었다. 나는 막사로 다시 운반되어서 침대에 눕혀졌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나는 더러운 회색으로 흰 줄들이 있는 포대같은 자켓과 스커트를 버렸다. 내 스타킹은 구멍 투성이었다. 그러나 나는 질라바에서 수녀가 준 긴 주름 치마는 아직도 입고 있었다. 내 검은 머리와 유태인같은 모습으로 나는 이국적인 모습을 풍겼음에 틀림없다.

정치범들은 나를 자세히 보고 내가 정치범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그래서 집시들은 내가 자기네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추측했다.

나는 “나는 분명히 집시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들의 말을 할 수 없어요” 하고 말했다.

사려 분별있게 보이는 매부리코의 노파는 내 팔을 다독거렸다. “알아요. 알아.” 그들은 내 개인 사정으로 내가 인종을 숨기려 한다고 생각했다. 세르나보다에서는 그때부터 나를 집시를 택한 사람으로 받아들였다.

어디에나 집시들은 여기 저기 다니며 산다. 그러나 동구에서 루마니아는 그들이 좋아하는 나라였다. 그들은 이동해 다니면서 남자는 머리를 길게 길러 기름을 발랐고 여자들은 발목까지 오는 스커트를 입고 푸한 속치마를 입었다. 그들은 매력적으로 아름답고 그들 대부분은 손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 훔쳤다.

공산당은 그들 수천 명을 감옥이나 노동 수용소로 보냈는데 거기서도 그들은 계속 훔쳤다. 흰옷이나 누더기도 걸어들 수

가 없었다. 무엇이든지 다 이 속이 넓은 속치마 속에 들어가서는 만나왔다.

캐널에서의 정치범들 중 유독 나만 아무 것도 잃은 것이 없었다. 리차드와 나는 종전할 때 집시들이 나치 캠프에서 나오자 우리는 그들을 도왔다. 이제 그 보상을 받는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남편과 아이와 다시 만나 해외를 여러 군데 여행하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렇지만 15년을 기다릴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들은 점을 잘쳤다. 여자들은 곧 석방될 것이고 집안이 번창하리라는 말을 듣기 위해 빵을 주었다. 집시들은 카드도 없었지만 티무르와 징기스칸 시절의 옛날 방법으로 미래를 예언했다. 그들은 마루바닥에 곡식알을 던져 그들 멋대로 길조를 찾아냈다.

방랑하는 기질 때문에 집시들은 어디에나 정착했다. 감옥에서도 그들은 대가족같았다. 후에 친지들에게 엽서를 내는 것이 허락되었을 때 나는 그들을 대서해 주었다(그들은 아무도 읽거나 쓸 수 없었다). 모든 내용마다 모든 집시 민족에게 “안녕하십니까”로 시작된다.

때때로 사나운 싸움이 터진다. 집시여자들이 서로 때릴 때 자기 애를 장갑으로 쓰고 그애들이 죽을 때까지도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전설이 아니라 실제이다. 그러다가 또 다른 때는 춤추고 언제 그랬느냐 싶게 크게 노래하곤 했다.

시간이 지나자 나는 막사의 모든 사람을, 매춘부까지도 알게 되었다. 때로는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면 진흙탕 속에 빠졌던 그들의 인생을 끌어올리려고 최선을 다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막사를 떠났다. 차가운 바람이 흑해틀 지나 평원을 가로질러 불어왔다. 경비원들은 우리가 이동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자기들은 따뜻한 침대에 있지 못하는 것이 못내 화가 나서 손을 비볐다. 그들은 화가 나면 주먹과 욕으로 감정을 풀었다.

철 감시탑 밑의 문에서 선두 경비원이 소리쳤다.

“죄수와 반 혁명분자 2,000명 차출!”

쌀쌀한 바람이 우리의 얼굴에 불어와 옷 속으로 마구 들어왔다. 열은 끝이 없는 것 같았다. 앞에는 수감자 몇 줄과 그들 옆의 무장한 경비원만 보였다. 뒤를 돌아다 보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도 했지만 용감하게 뒤를 돌아다 보면 줄 그 자체가 꼭 생명이 있는 하나의 거대한 짐승같이 보였다.

그것은 그 모든 몸과 팔과 다리가 모인 것으로 쓰러질 때까지 일을 해야 하는 목적 밖에 없는 맹목적이고 아무 희망도 없는 짐승이었다. 나는 고대의 노예를 생각했다. 그들은 파라호의 노동에서 일한 이집트의 우리 선조들이다.

우리는 남녀 할 것 없이 제방 쌓기를 했다. 나는 나는 손수레에 흙을 채워야 했다. 매번 손수레는 가득 채워져 남자

죄수는 그것을 200야드 지고가서 댐의 벽의 급경사를 올라 가야 했다. 그는 그것을 얹어 비우고 다시 더 많이 지고가기 위해 돌아왔다. 남자들의 작업은 우리보다 고됐지만 첫번째 수레를 채우고 난 후 무거운 흙삽을 들어올릴 때마다 나는 비틀거렸다.

한 부대마다 조장이 있어서 그들은 작업량을 체크했다. 하루의 일 할당량은 8 입방 미터 이상이다. 우리가 천신만고 끝에 규정량을 완수하면 다음 날은 그것보다 더 많이 해야 했다. 그것을 완수하지 못하면 벌을 받았다.

조장은 신입받는 죄수들이다. 그들은 특별한 급식을 받는 외에 보수도 약간 있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은 절대로 손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들은 생과 사를 결정하는 권력을 가지고 지배했다. 리나는 자기 권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말하는 거나 다른 인간적인 교제는 금지되었지만 나는 수레를 채우면서 성경을 인용하고 동료들에게 명랑하게 말을 건넷다. 그는 농부같아 보이는 중년 남자였는데 놀란듯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손수레를 가지고 돌아서 가버렸다. 다른 사람이 오고 다른 수레가 채워졌다. 또 다른 사람이 오고 또 다른 사람이 왔다.

4 번째 사람은 “라코시 백작이 당신의 아름다운 말에 감사하고 당신이 누구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 농부는 몇 세기 동안 합스부르크의 통치하에 있던 형가

리 사람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루마니아의 트란실바니아에서 온 헝가리 귀족이었다. 나는 너무도 놀라서 잠시 동안 삼을 땅에 대고 있었다.

“어서 일해! 무슨 꿈을 꾸고 있는거야!” 그것은 20야드 밖에서 들리는 리나의 목소리였다. “한번 캐서에 가고 싶어?”

나는 미친 듯한 힘으로 파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수레를 들어올려 허둥지둥 가버렸다.

캐서는 피까지 얼어붙게 하는 단어이다. 그것은 캐널 수용소에서는 보통 있는 벌로 6피트 높이와 2피트 반 넓이의 상자이다. 낮에 일한 다음에 그곳에서 밤새 꼼짝 못하고 서 있어야 한다. 다음 날은 다시 일하러 가야 하는데 피곤하기 때문에 일을 빨리 못한다고 다시 그날 밤 또 캐서로 가게 되기 쉽상이다.

우리는 정오에 스프와 커리 약간과 한 파운드의 빵을 받았다. 그것은 질라바보다는 나은 것이지만 우리의 희망을 무참히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먹고 그날이 끝날 때까지 일해야 한다.

잠깐 일을 쉬는 사람들을 둘러보니 내가 백작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옆 사람과 한 사람을 구분하기가 힘들었다. 모두 기우고 누덕누덕한 옷을 입고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무작감한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대학 교수와 주필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 사업가, 고

급 공무원들이었다. 그들과 도둑, 소매치기를 구분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었다.

우리는 4 시간 동안 더 일했다. 햇빛이 사라지자 그 큰 열은 막사로 돌아왔다. 오는 길에 수감자 여럿이 쓰러졌다. 한 사람은 내 옆에서 쓰러졌다. 한 마디 말도 없이 두 건장한 남자가 그를 들어 올려서 어깨에 들쳐메고 갔다. 한 노파는 등짐 지워졌는데 그녀의 뺨뺨한 다리가 구멍투성이의 양말 사이로 보였다. 앞쪽에는 소동이 일어났다.

한 사람이 쓰러졌는데 정신을 되찾지를 못했다. 그는 길 옆으로 질질 끌려갔다. 점점 스며드는 어둠 속에서 툭툭거리며 세 사람이 어깨에 짊어지었다.

문에서 선두 경비원이 다시 소리쳤다.

“죄수 2,000명 복귀!”

어두웠다. 서쪽에는 붉은 기운이 아직도 있었다.

“사람 꼼짝못하게 하는 바람이군” 하면서 경비원 한 명은 그의 커다란 코트를 감쌌다.

나는 뼈속까지 시렸다. 나의 손과 발은 물집이 생겼고 근육이 저마다 쭈시고 내 머리는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열이 펄펄나는 잠기에 걸릴 것이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옆의 선두가 문을 빠져나가기를 바람을 맞으며 기다려야 했다. 탄 노동 장소에서 온 열이 입구에 물려 오래 지체되었다.

드디어 우리가 막사에 들어갔을 때 싸움이 터졌다. 한 매춘부가 자기 침대 매트리스 밑에 감춘 것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이 집시 도둑년들이 그랬어. 나는 매춘부지만 그래도 남의 물건에는 손을 안대.” 그녀가 소리질렀다.

이 말에 집시인 타니아가 대답했다.

“나는 훔치기는 해도 내 남자가 아닌 사람하고 같이 자지는 않는다.”

물다비아 사람인 리자가 소리질렀다.

“그 사람이 누구지? 오빠?” 그리고 그녀의 슬픈 농담에 킁킁대었다.

집시들은 한 방에서 자야 하는 일이 가끔 있다. 남자, 부인, 엄마, 시어머니, 시누이가 같이 자고 또 어떤 때는 한 침대에서 자는 일도 있다. 그러나 리자 자신은 살인자이다. 그녀는 여자 뒤를 쫓아다니는 남편을 질투해서 권총으로 쏘아 죽였다.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지 마.” 타니아가 소리쳤다.

“내가 원하면 내가 훔친 것을 되돌려 줄 수도 있어. 너는 사람 생명을 빼앗았지? 너 그것 다시 돌려줄 수 있어?”

나는 이 지극히 도덕적인 싸움에 귀를 막고 싶었다. 야비한 말들을 주고받은 후에 타니아는 도둑들이 모여 있는 곳으

로 되돌아갔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에게 갈채를 보내며 받아들였고 그녀는 그것에 썩 웃었다.

키가 크고 반짝이는 흑발의 아름다운 타니아는 그들 동료들에게 매우 존경받았다. 또한 그녀를 두려워했다. 그런 맛에 자꾸 하는 그녀의 모험은 그녀에게 검은 손의 타니아라는 이름을 얻게 했다. 그녀에게 반항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집단에서 쫓겨나는 위험에 처한다. 그녀를 놀리는 사람은 누구나 캐서에 들어가야 할 위험에 처한다.

타니아는 적수를 벌주기 위해 경비원에게 진짜 혹은 조작한 죄목을 일러바쳤다. 그녀에 대한 친구들의 충성심은 절대적이고 비장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 기술에 대한 자신에 넘쳤다. 옷가게의 반을 털은 그녀의 떠들썩한 설명은 어린 소녀들이 웃음을 터뜨리게 했다. 그녀는 그들 중 가장 예리한 아이들을 골라 개인 지도를 하고 날카로운 성격 판단을 했다.

여자애들은 그녀의 능력에 따라 거의 신비스러운 동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타니아가 감옥소 밖에서는 언제나 책 같은 것을 읽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번은 주인이 없는 집에 들어갔다가 서가를 발견했다. 그녀는 읽기 시작했고 거기에 열중해 있다가 한참 후에는 손에 책을 든 채로 팔걸이 의자에서 잠이 들었다. 주인이 목장에서 돌아와 보니 그녀가 있었다.

타니아 자신은 자기가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 그녀의 명성에 나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도

득, 매춘부, 깡패의 정부같은 사람들을 빨리 알아낸다. 특별한 죄를 지며 보낸 세월이 그들의 영혼에 깊게 뿌리 박힌다. 그들의 말 솜씨나 행동을 보면 묻지 않아도, 사귀어보지 않아도 즉시 알 수 있다. 그러나 타니아는 별개였다. 그녀는 고상함이 없지가 않았다. 나에게 그녀는 농담조로 말하곤 했다.

“우리 도둑이 도덕이 없다고 믿지 말아요. 도덕적인 바탕에서는 나는 나 외의 다른 깡패가 저지르는 어떤 절도행위도 절대 반대예요.”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가슴의 문을 두드리려고 했다. 나는 그녀를 더욱 잘 이해하고 싶었다. 나는 유태인과 공산권을 피해 나가는 사람들이 루마니아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그녀에게 나가고 싶지 않으냐고 물었다.

“염병할!” 그녀가 나를 꾸짖는 듯이 쳐다보았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 쓰레기더미같은 곳에서 나가서 내 남자 친구와 함께 있는 것 뿐이야. 그를 잡을 수는 없어. 나는 이러저러한 공산당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 줄 거야.”

아무런 망서림도 없이 그녀는 그 건물의 지하실에서의 모험과 그의 용모에 대한 자신과 그의 능력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녀의 부모는 어떠한가?

“응, 우리 부모?” 그녀는 낡은 가구 조각을 말하는 것 같이 말했다.

“그들은 쓸모없는 쌍이야. 내 엄마는 소녀같이 보여서 남자들이 많이 따랐지. 그리고 나를 낳았어. 누가 아버지든지 모두 나가라고 소리질렀었지. 엄마는 결국은 밤마다 두들겨 패는 늙은 고주망태와 함께 살게 되었지. 그리고 애들도 많아.”

타니아는 상대방이 듣기를 그만둔 다음에도 여러가지 음란한 말로 자기 이야기에 양념을 쳤다. 그것은 그녀의 결점 같았다. 나는 그녀를 동정했다. 나는 그녀의 영혼의 한 줄을 건드려 거기서 반응이 일어나기를 바랐다. 그녀가 후회하는 기미도 없이 딴 사람들을 망치는 것을 보는 것은 싫어했다.

그녀의 위대한 사랑의 상대는 그녀의 형부였다. 창녀가 비웃던 것이 거의 맞는 것이었다. 그녀는 방을 6명과 같이 써야했고 침대 하나를 언니와 형부와 같이 써야 했다. 그래서 일이 생겼다. 그녀는 그때 12살이었다.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은 5살에 배웠었다.

또 하루는 그녀는 말을 터뜨렸다.

“그래 알았다. ‘흠치지 말아라’ 그게 바로 경찰이나 다른 놈들이 나를 때리면서 말했던 것이야. 나는 그들에게 너희가 그렇고 그런 도둑이라고 말해. 너희가 땅을 빼앗고 집과 온 나라를 빼앗았지. 그런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해? 여기 호화스러운 사무실에서 살이 쪼아서 말야. 너희가 나에게 흠치지 말라고 할려면 부크레스트의 다리 밑에 가서 여름과 겨울을 거기서 자봐.” 그녀는 거칠게 웃었다.

“그들은 나를 때렸어. 내 앞이빨이 모두 없어졌어. 나는 이 의치를 하고 있어.” 그녀는 나에게 보여주려고 그것을 꺼냈다.

그녀의 눈이 빛났다. 주위에 모였던 그의 예찬자들 멧은 동정해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타니아, 당신은 훌륭해요.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조안나가 말했다.

그녀는 부크레스트의 깡패의 정부였던 솜털도 채 못벗은 소녀였다. 그는 깡패가 왔을 때 그녀를 버리고 가서 지금은 파리에 안전하게 있다. 다른 소녀들이 동의를 해줄 것을 바라며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말했다.

“타니아, 당신은 큰 용기가 있어요. 당신의 정력과 예리함을 가지고 당신 자신을 위한 일을 더 할 수 있어요. 부모가 폐인이기 때문에 당신도 그렇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크게 된 사람들도 많이 그 부모가 쓸모없거나 고아로 자라났어요. 마음을 끈게 바로 잡으면 당신도 크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유명해진다고? 무엇을 해서.” 그녀는 속된 가능성

을 암시했다.

“나를 오해하지마, 나는 도둑질을 좋아해. 이전 내가 하도록 태어난 내 인생이라구.”

나는 용감하게 예를 들었다.

“한 위대한 사람은 사기 공갈로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는 마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너무 감동하고 자기의 선함을 보고 기뻐서 모든 것을 떠나 사도 마태가 되었습니다. 도둑이 성자가 되어 용서받고 온 세상을 통해 오늘날까지 사랑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순교자, 전 세계가 읽는 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사제, 성자, 순교자! 이 모든 말이 어디서 나왔지?”
타니아는 비양거렸다.

범죄자와 정치범(종교적인 이유로 구속된 사람은 다 정치범으로 통했다) 간의 간격은 메워지지 않았다. 언제나 책임량 감시자나 방장으로 되는 사람은 기결수여서 자기보다 훨씬 위의 계층을 괴롭혔다. 도둑들은 그들을 비꼬아 ‘마담’이라고 부르고 복수할 수천 가지 작은 방법을 찾아냈다.

정치범들은 옆 사람과 접촉하려고 원하지도 애쓰지도 않았다. 두 집단 사이에 서서, 즉 집시와 유대인 크리스찬 사이에서 가장 막사의 악한 범죄자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고위층의 숙녀들의 죄를 비난함으로써 나는 여러 쪽에서 배척하는 시선을 받았다.

세르나보다는 유명한 이름의 사람들로 가득찼다. 한가로운 사회의 신문이라면 그들의 근황에 대해 썼을 것이다. 아마도 삼인칭으로, “오늘 아침에 화장실의 줄을 서면서 비스탄더는 X백작 부인이 전의 시종 부인이었던 Y남작 부인과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사람들의 무덤이 파헤쳐져서 금과 보석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파내어졌다는 근래의 여자들 간의 소문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우리는 굉장히 이상한 회합을 보았다. 그것은 바로 파시스트 여자들이로 구성되어 있는 당파였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루마니아를 나치와 동맹맺게 했던 비밀경찰의 지도자의 부인인 코드레느 부인이었다. 그는 유태인과는 악수해본 일도 없고 유태인의 가게에는 들어가본 일도 없다고 한 책에서 떠벌였었다.

지금 코드레느 부인은 공산당들에게 유태인 여들과 같이 갇혀 있다. 그러나 그 편견은 여전했다.

“저 범죄자 처칠, 그는 유태 민족주의자이고 유태교 추종자야.” 그녀는 분노했다.

“그리고 루즈벨트도 확실히 유태인이야. 그놈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거야.”

경비원들은 그 여자들에게 막대했다. 동료 죄수들은 그들을 공격했다. 그러나 그들은 용기가 있었다. 내가 그들에게 이해와 사랑을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 중 한 명이 나에게 접근했다.

“내 친구들과 내가 모든 루마니아의 유대인들을 소탕할 때 당신 가족은 제외시키기로 작정했어요”

그녀는 내가 그 뉴스를 열광해 듣지 않아서 놀랐다.

다른 정치가의 부인들과 정치에 관여했던 여자들은 어떻게 세상이 되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긴 토론을 했다. 한 사람이 나에게 “나는 미래의 계획을 생각하느라 밤을 꼬박 세웠어요. 들어보겠어요?” 하고 말했다.

나는 듣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먼저, 완전한 군대 개혁이 있어야 해요. 모든 제복은 진 파랑에다가 깃털 달린 모자가 있어야 하고…”

“대단히 고맙지만 그 계획을 더 이상 말씀 안하셔도 되겠어요. 모든 제복이 진 파랑이라면 그걸로 충분해요” 하고 나는 말했다.

그러나 바보같고 매우 악해 보이는 사람도 간혹 배울 점이 있다. 한 정통파의 자매가 욕을 하고 야비한 말을 하고 집시같이 도둑질을 했다. 나는 “생각해봐요.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하고 말했다. 그녀는 웃었다.

“한 신부가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나는 두 가지 계명은 틀림없이 지켜요. 나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언제나 나에게 죄를 진 사람을 용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최선의 논리는 아니지만 그녀는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섰
한 점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들어서 기뻐다.

1951년에는 더 많은 공산당 여자들이 수용소와 감옥에 나타
나기 시작했다. 세르나보다에서 나는 혁명을 주도했기 때문
에 구 정권에 의해서 투옥당했던 마리오라 드라고에스크를
만났다. 이제 그녀는 ‘반 혁명분자’로써 자기의 동료들에 의
해서 강제 노동형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공산주의의 이상을 위해서 계속 싸우고 있다.
위대한 막스주의 사회는 곧 온다. 큰 여자들의 감옥소인 미
스레아에서 그녀는 자기의 두 달된 애기를 길렀다. 그녀는 그
애기를 빼앗기고 애기는 국가 고아원에 보내졌다. 그녀는 애
기를 다시 보게 될지도 몰랐다.

그녀와 같이 불쌍하게 생각되는 사람으로는 창당 멤버의 한
사람인 게오르그 크리스테스크가 있었다. 그는 1907년에 그
의 사회주의에 대한 첫 선고를 받았다. 그는 또한 공산당 제
1서기였다. 지금은 72세가 되어 우리와 같이 아침부터 저
녁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들판에서 일하고
있다.

가끔 나는 그의 수레를 흙으로 채워준다. 그는 짐승처럼
수레에 매여 있다. 끄는 것보다 경사면을 밀고 올라가는 것
이 쉬웠다. 나는 리차드가 구속되기 전에 간단하게 말하던
것을 기억해내고 그에게 계속해서 말했다.

“독재 아래서는 감옥이 제일 있기에 명예스러운 곳이지요”

웃음이 그의 얼굴을 비쳤다. 경비원 하나가 그에게 소리 쳐서 그는 수레를 짊어지고 바삐 갔다. 다음 날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나는 속삭였다.

“내가 말해서 당신께 걱정을 끼쳐서 죄송해요”

“아무 말도 마십시오. 한참만에 좀 다른 말을 들었더니 마치 음악소리 같습니다. 이렇게 백발이 된 후에 다른 색깔을 원했던 것처럼 그런 부드러운 목소리를 몹시 듣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가 느낀 환멸에 대해 나에게 이야기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이 공산주의는 내가 찾고 고생한 그 이상이 아닙니다. 내 파가 반항하지 않는 것이 '경예롭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처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지 알았다. 가장 어리고 연약한 크리스찬들이 가장 부자인 나이 많은 숙녀들과 가장 총명한 지식인보다 부름에 응하는 힘을 더 가지고 있다.

머리가 좋고 교육을 받고 기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책과 음악회를 빼앗기면 바람에 내놓은 옥내 식물처럼 메말라 버린다. 가슴과 마음이 빈다.

하루는 크류에서 온 교수 부인인 나일레스크 부인이 말했다.

“당신들은 마음을 바쁘게 유지하고 기도를 하니 얼마나 행

복합까?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시를 생각해 내려고 해도 경비원이 소리치는 바람에 쑥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은 이 영원한 수용소로 도로 와버려요. 나는 집중이 안되요. 나는 내 자신을 갈피를 못잡겠어요”

‘사회’ 여성이 제일 불쌍하다. 인생은 누구보다도 그들에게 심했다. 그들은 물질적인 의미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그 간격을 채울 내면적인 힘도 가장 적었다. 브리지 게임의 루블화와 모자, 호텔, 첫날 밤, 잃어버린 주말과 차의 뒷 자리에서 수다를 떨던 연인들, 그들의 하얀 손이 그런 것처럼 그들의 용기가 사라졌다.

일을 한 후에 여자들은 종교를 믿는 죄수에게 가서 성경에서 기억나는 것을 좀 말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빌기까지 했다. 그 귀절들은 희망과 위안과 생명을 주었다.

우리는 성경이 없었다. 우리 자신은 빵보다도 그것을 더 원했다. 내가 이 사실을 가슴으로 깨닫기를 얼마나 원했던가!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아는 귀절을 매일 반복했다. 밤에도 우리는 철야기도를 했다. 나같은 크리스찬은 그들이 구속당할 차례가 곧 올줄 알고 기억할 귀절을 마음대로 기억했었다. 그들은 부를 감옥으로 가져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싸우고 입씨름하는 동안 우리는 요에 누워서 기도와 명상에 성경을 사용하고 그 성구들을 긴 밤 내내 반복해서 생각했다. 우리는 신참자들이 가지고 오는 것을 배웠고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불문의 성경

이 온 루마니아 감옥을 통해 들었다.

명상은 점점 더 깊어졌다. 첫 단계에서는 명상하는 것이 자기의 진정한 자아가 아니라 자기인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것은 신문과 책과 영화에서 본 것이 뭉쳐서 하나가 된 것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은 대단히 조그맣다.

둘째 단계에서 자신의 최종적인 실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아닌 것과 빌어온 것을 제외해야 한다. 한번 자기 자신이 되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하기가 비교적 쉬워진다. 한 순간에, 한 생각이 과음에 그림처럼 보일 때,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를 알 수 있다.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축복받아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뿐만이 아니다.

나는 리차드와 가끔 이야기했다. 특히 그가 독감방에서 지내는 몇 년 동안 그랬다. 그는 나에게 멧세지를 전달했다. 나는 그가 살아 있고 우리가 접촉한다는 깊은 내면의 확신을 가졌다. 나는 그가 내 생각을 받는다는 사실을 정말 확신했다. 이런 순간들은 그가 투옥당한 14년 내내, 그리고 내가 자유롭게 된 다음까지 계속되었다.

나는 내가 자유롭게 된 몇 달 후인 1953년을 연필로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 리차드가 오늘 나를 보러왔다고, 내가 읽고 있는데 그가 나를 굽어 보았다고.

나는 그도 어느 노예 수용소로 갔으면 어쩌나 하고 언제나 두려워했다.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견딜 수가 있을까?

저술하고 설교하는 데도 그의 온 힘을 기울였었다. 한 여자가 나에게 그가 죽었다고 했을 때 나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나는 캐널의 모든 사람에게 리차드의 소식을 들었는지 물어보고 모두 틀린 대답에 언제나 놀랐지만 누구하나 아무 것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 병자들이 가는 감옥인 바카레스티에서 세 여자가 왔다. 모든 새로운 사람들의 도착은 우체부가 오는 것과 같았다. 우리는 감옥에 있는 우리의 친척의 뉴스를 기대하며 일상적인 질문을 한다. 아무도 리차드에 대해서는 몰랐다.

며칠 뒤에 이 그룹에서 온 한 여자가 나에게 왔다.

“나는 당신이 바카레스티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이야기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고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곳에 잠깐 있었지만 우리는 거기에서도 설교자를 만났습니다.”

바카레스티는 개조한 수도원이었다. 수사들의 방들 사이의 벽을 무너뜨려 더 큰 감방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작은 골방은 특수한 죄수가 격리시켜져 있는 곳에 남아 있었다.

“우리는 목욕실을 쓰려고 총계참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자물쇠가 채워진 방 뒤에서부터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너무 놀랐어요. 감옥의 모든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물었어요. 그렇지만 그건 물론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나를 만나 그것이 리차드인 것을 확신했다. 그는 대단히 몸이 안좋은 것 같았다. 며칠 후 그는 설교하기를 그쳤다. 그녀는 그가 죽었다고 들었다.

남몰래 얼마나 많은 눈물이 내 얼굴을 흘러 내렸는지 모른다. 얼마나 큰 고통이 내 가슴을 찢었는지. 그러나 이 슬픔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자랐다. 나는 계속 기도하고 주님에게 격리된 감방에서도 충실하게 주님을 섬긴 그에게 몇 년의 생명과 건강을 더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했다.

나는 미하이까지도 체포되어서 कै넬로 오게 될까봐 걱정했다. 그는 12살이었고 그애보다 더 나이 어린 아이들도 거기 있었다. 매일 나는 그 나이의 마린모트자라는 소년을 그의 14살난 누나와 함께 보았다. 그들의 아버지는 전의 아이론가드(비밀경찰)의 지도자였다. 그는 반 썬주의와 깊은 정통파 신앙을 다 함께 가지고 있었다. 스페인 내전 중 무정부주의자들이 교회를 모독하였을 때 그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총을 쏘고 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스페인으로 가서 미래의 지도자 프랑코의 편에서 싸웠다.

이 무슨 인간의 마음에 있는 모순인가! 그는 훌륭한 기독교적인 유언을 남겼다.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가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는 교회의 싸움을 생각했다. 그러나 이 보증을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옳은 생각인가!

이제 그의 부인과 아이들은 그들이 그와 같은 민족이기 때문인 이유 하나만으로 투옥당했다. 모르자 부인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공산당이 몰락하면 추방당한 미켈 왕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므로 내 아들 마린이 루마니아의 왕이 될 것입니다.”

모든 아이론 가드운동은 내면적인 모순으로 가득찼다. 그것의 창안자 코르테느는 죄도 없는 유태인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도 살해당했다. 그러나 그의 유언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부활하느냐는 것이다.” 그는 그의 적들에게 교살당했다.

세르나보다 수용소에서 우리에게 엽서를 주어 가족들에게 어느 일요일에 우리를 찾아오도록 초청하라고 써도 된다고 말했다. 나는 그것을 술수인 것으로 의심했다. 우리가 속아서 친구들 이름을 들쳐내면 그들을 감시해서 비밀경찰로 끌고가려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나는 며칠 동안은 나는 누구에게 쓸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내 엽서를 받을 수 있게 아직도 거기 있을까? 하고 나 자신에게 물으며 보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체포당했기 때문이다.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은 엽서를 쓰고 있었다. 각자 대답할 사람이 집에 있을까 의아해 하면서, 그것도 집이 있는 사람에게 한해서다. 믿음을 잃었거나 체포당한 아들이 있을 것이고 감옥에 갇혔거나 다른 여자와 사는 남편도 있을 것이다.

나는 앞으로 벌어질 많은 비극을 보았다. 그러나 그 날이 왔을 때 온 친척들을 만나게 허용되지는 않았지만 아무 비극도 발생하지 않았다.

나는 일요일 날 기상 신호가 울리기 훨씬 전인 5시에 깨었다. 불은 켜져 있고(그것을 끄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바깥은 아직 한밤중인 것 같았다. 창에는 얼음이 끼어 있었다. 나는 아침이 오기를 간절히 바랬다.

드디어 아침이 왔다. 나는 방문자들이 문 옆의 수용소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을 기대하며 그들을 보려고 뛰어 나갔다. 그것은 철망의 세 겹 울타리로 된 캠프와 바깥 지역과 분리된 긴 길이었다.

거기서 나는 내 아들을 보았다. 전보다 키가 크고 여위고 누추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의 옆의 남자는 우리 교회의 목사였다(그때 비극적 사건이 그와 우리와의 사이를 멀게 했지만 우리는 그와 그의 부인이 우리가 곤란할 때 베푼 도움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만약 그가 현재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나는 손을 자주 흔들었지만 그들은 철조망에서 있는 다른 여자들 사이에서 나를 보지 못했다. 나는 내 결의 침대의 여자에게 말하기 위해 급히 막사로 돌아갔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았다. 나의 얼룩지고 누덕누덕한 옷과 괴상한 신발과 가벼운 여름 외투의 잔여물과 벨트인 노끈을 보았다.

“당신 아들이 당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 놀라겠어. 내 브

라우스를 빌려 입으세요, 그래도 그것은 한 벌이라우.” 그녀는 말했다.

타니아는 길고 밝은 집시 치마를 주었다. 발리아는 내 머리에 흰 손수건을 돌려주었다. 스타킹과 더러운 손수건까지도 빌린 것이다. 모두들 나의 새로운 모습의 우아함을 감탄하고 있는 동안 우리 방에 한 법석이 일어났다.

리나는 의기양양해서 환성을 울리며 그 가운데서 있었다. 우리는 벌받은 것이다. 많은 사람이 지난 몇 주 동안 노동 책임량을 완수하지 못해서 방문이 취소되었다.

그들은 부크레스트에서 온 밤을 여행하고 그렇게 간절히 필요한 돈들을 써가면서 와서는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었고 그들이 가지고 온 옷과 음식을 받을 수도 없었다.

방문자들은 30명 쯤으로 그들은 하루 종일 사령관이 마음을 바꾸기를 기대하며 기다렸다. 사령관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우리는 그들을 볼 기회도, 손을 더 흔들을 기회조차도 없었다. 그날 내내 경비원들이 우리를 울타리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다. 감시탑의 총들은 우리를 조준하고 있었다. 때때로 철조망을 지날 수 있는 여자가 “아직도 그들이 있어요” 하고 보고했지만 저녁이 되자 그들은 모두 갔다.

모두가 규정량을 채웠다 하더라도 미하이로 볼 수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굉장히 많은 죄수들이 질라바에서 왔다. 배고픔과 병이 그들을 너무 약하게 해서 계속 증가하는 그

들에게 지워진 짐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엽서를 주었기 때문에 몇 주의 일요일이 지난 후, 미하이는 다시 세르나보다로 왔다. 이번에는 아무 벌도 없었다. 그러나 방문은 알파베트 식으로 진행되어서 내 이름은 언제나 마지막이었다. 내 차례가 오지 않고 그 날이 지나갈지도 모른다. 빌린 옷이 이 여자 저 여자에게로 왔다갔다 했다.

“나 어때요?”

“훌륭해요.”

그들 대부분은 그들이 말할 것을 한 단어 한 단어 반복해서 연습하면서 생각하느라 온 밤을 꼬박 세웠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그 순간이 오자 그들은 너무나 격해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친구나 친척에 대해 물으려 하면 경비원이 와서 중단시켰다. 받을 수 있다고 했던 옷 선물도 이번 명 저 변명으로 거절되었다.

그 만남은 기쁨보다 더 많은 비참함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빌린 것들을 되돌려 주느라고 바삐 돌아갔고 다음 사람은 그것을 책 나뭇잎 채갔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슬프게 쳐다보았다. 아마 두 달 후에나 있을 다음번 방문에나 그들 차례가 될 것이다.

우리는 문 근처의 바로크 막사로 데려가졌다. 그것은 물론 질라바에서 약속받은 대로 하루종일 가족과 지내는 것이 아니

었다. 경비원들이 모조리 듣는 가운데 같은 방에 서서 10야드 거리를 두고 15분간 만나는 것이다.

내가 아들을 보았을 때 나는 내가 수감자라는 것과 내가 어떻게 보이고, 어디 있고 하는 것을 잊고 눈으로 그를 포옹했다. 그는 얼마나 마르고 또 신중한지 모르겠다. 나는 그를 바라보고 그는 나를 바라보고 눈 깜짝할 사이에 15분이 지나갔다. 우리의 감정은 시간을 없애버렸다. 우리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친근하게 무언가 말한다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았다.

나는 우리를 분리시켜 놓았던 공간 너머로 내가 부르던 것을 기억한다. “미하이, 예수님을 너의 모든 가슴으로 믿어라.” 그것은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찬고였다. 감옥에서의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경험에서 그리스도만이 가장 어두운 곳을 비추는 희망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미하이는 다른 수천의 소년 소녀들과 같이 안내도 없이 떠났던 것이다. 공산당은 그것에서 이를 볼 것이다. 탕자가 가진 것을 모두 쓰고 돌아와 그를 돼지같이 만들려는 연장자에게 도움을 청한 우화와 같이 사람들은 돼지에 맞는 생각을 하고 살도록 어린 사람들을 보냈다.

나는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고 엄마없는 아이의 가장 좋은 인도자라고 믿어라” 하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아름답게 보였다. 모든 엄마는 자기 아들이 제일 잘생긴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만남은 조그만 씩에서 나

무가 되듯이 후에 결심을 맺는데 매우 중요했다. 그가 어떻게 나의 말을 받아들였는 지는 내가 석방한 후에야 알았다.

나는 거칠게 어깨를 밀러 경비원들에게 방 밖으로 쫓겨났다. 우리의 바로크 막사에서 모든 사람이 몰려들어 미하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보였는지 물었다. 그러나 나는 머릿만 그냥 흔들었다. 몇 시간 동안 나는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나는 어딘가 딴 곳에 있었지 감옥에 있지를 않았다.

저녁 때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다. 그들은 좌요 위에 누워 크게 울었다.

개 서

밤이면 모든 막사마다 한 여자는 보초를 서야 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했다. 보초를 서는 목적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내 생각에는 자살을 방지하려는 것 같았다) 보초는 발로 서 있어야 했다. 잠을 자면 벌이 잔인했다.

방 한 가운데에 달려 있는 갖없는 밝은 전구는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다. 열을 지어 누운 여자들이 몸을 뒤척이고 돌아누웠다. 크게 코를 고는 사람도 있고 악몽에 소리지르는 사람도 있었다. 모든 얼굴마다 고통과 공포의 흔적을 나타냈다. 그 시간은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절망적으로 웅웅거렸다. 바람이 이 모든 낮선 사람들을 여기에 모아놓은 것 같

았다. 늙거나 젊거나 유행을 따르는 여자이거나 다리 밑의 방랑자이거나 그들은 공통적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나는 어릴 때 어둠을 싫어했다. 그러나 지금은 살인적인 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밤을 기다린다. 어둠이 오면 나는 잠을 잘 수가 없다. 나는 일어나 우리 수용소의, 우리 막사의 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곤 했다. 공산주의자 세계에서 수 천 명 수감자들과 서방에서 평화롭게 잠자는 크리스찬들과 우리를 위해 기도할 것으로 생각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

한번은 내가 깨어 있을 때 보초 자리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날은 타니아의 차례였다. 그녀는 잠자는 데 아무 곤란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무뚝뚝하게 거절했다. 그녀는 “당신은 잠이나 자요” 하고 말했지만 그 뜻은 친절한 것이었다.

후에 내가 여전히 깨어 있는 것을 보고 와서 내 침대에 앉아서 우리는 속삭여 이야기했다. 그녀는 나에게 자기의 도둑질 이야기 중 하나를 했다. 그녀는 4,000명을 수용한 감옥에 있었었다. 그 중에는 구 정권 하에서 바로 그 감옥의 책임자였던 사람도 있었다.

“그녀는 전쟁 중에 공산당 수감자에게 권력이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자기가 맡고 있던 곳 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자 타니아가 말했다. “당신은 하나님에 이르기 전에 성도들이 당신을 죽일꺼요”

그것은 루마니아에서는 보통 말하는 것이다. 성도들에 대

한 외적인 현신은 아무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들이 누구인가를 진정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성도는 우리를 도와고 우리를 위해 중재해주고 우리를 진정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성도는 아무도 죽이지 않는다.

나는 말했다.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두 가지 세계가 있어요.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에서만 하나님의 계율에서 같이 ‘흠치지 말라’고 말하죠. 정신적인 세계에서는 흠칠 수 있는 것은 다 흠치라는 것이 법칙이에요. 무슨 지식이든지, 예절이든지, 기지든지 다 흠쳐요. 물질적인 세계에서 당신이 나의 것을 흠치면 나는 잃어요. 그러나 정신적인 세계에서 나는 아무 것도 잃지 않아요. 나는 당신이 도둑인 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문제는 당신이 무엇을 흠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오늘 흠치면 잃을 거예요. 내일이 아니면 죽을 때가서는 잃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한번 누구로부터 빼앗으면 영원히 가지게 되요.”

아마 그 말씀은 헛되이 내려진 것이 아닐 것이다. 우리들 사이에 “흠치지 말라”는 것이 위의 예외와 함께 우주의 기본적인 법칙이라는 것을 깊이 아는 사람이 있다. 우리 중 어떤 이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내지 말아야지. 그리고 분명히 해야지. 그의 재물 뿐만이 아니라 그의 성스러운 재산인 그의 존재도 나의 것과 구별해야지” 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별같이 임명하셔서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하셨다. 그는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수치와 자만과 존엄과 두려움을 우리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로 주셨고 우리는 그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은 분열과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파괴적이고 혁명적인 힘이 폭발되지 않으면 힘으로 꺾을 수 없는 원소같은 것이다.

그렇게 자주 배가 고팠어도 타니아는 새들을 잊지 않았다. 모든 수감자들은 각자 자기의 침대에서 부스러기들을 조심스럽게 주으며 작은 빵을 먹었다. 모든 부스러기가 쓸모가 있었다. 이것이 유일하고 확실한 또 하나의 몫이었다. 그러나 타니아는 부스러기들은 모아서 참새들을 위해 창문틀 위로 그것을 뿌려주었다.

한번은 그녀가 옆의 사람에게 말했다.

“당신들 크리스찬들은 말 뿐이야. 당신들은 새에게 주지 않잖아.”

그녀와 같이 소녀들이 귀중한 빵조각들을 포기하는 것을 보고 나는 완전히 악한 사람은 없다고 믿게 되었다. 인간성은 그 자체대로 내버려 두어질 때, 적어도 배고플 때 새들을 먹이는 것 같은 일을 하는 좋은 뜻을 보여줄 수 있다.

나는 수천 년 동안 가장 강한 형이상학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인 티벳인들에게 특별히 나타나는 성격의 특징을 도둑들에게서 발견하고 감명받았다.

스반 헤딘은 우리가 유럽에서는 새들을 잡아놓고 먹이기 위해 새를 기르지만 티벳인들은 야생의 새를 위해 바위에 조그만 케이크를 놓는다고 말했다. 스반 헤딘 자신도 실종되었을 때 그 케이크를 먹고 살았다. 지식층 사람의 한 부분으로써 야생적인 인생이 아닌가?

살인한 여자들과 모든 종류의 죄수들 속에서 아무 사육도 없는 선함의 한 조각을 찾을 수 있다.

세르나보다에서 매주 일요일, 우리는 추호도 원치 않는 교육 강연을 억지로 해야 했다. 오후에 방장은 여자 연사가 연설하는 회의장으로 우리를 행진시켜 데리고 갔다. 그녀는 태반이 사실이 아닌,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시작해서 누구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벌을 받을 줄 알라고 경고했다.

“바깥에서 모든 사람은 공산당입니다. 오직 당신들만이 어리석은 신앙의 짓을 고집하므로 우리가 그것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은 지금 권력을 잡고 있고 당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감옥이란 말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은 재교육 기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앞날의 행복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과된 노동 규정량을 채움으로써 여러분은 시민으로서 자유를 되찾는 것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전 음악회가 있다. 우리들 중에는 독일 소수민족

출신인 카바레 가수와 막간 배우가 있었다. 그들은 소련의 승리자를 찬양하면서 독일을 비웃는 공산당 노래를 불러야 했다. 나는 그들의 굴욕적인 행위에 대해서 아픔을 느꼈다. 육체적인 상처는 지나가고 또 몇 시간이면 잊혀진다. 그러나 굴욕은 사소한 것이라도 마음을 시들게 한다.

이제서야 나는 하나님께서 “조롱받고 십자가에 못박히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예전에는 왜 조롱받는 것이 같이 말할 가치가 있나 하고 의아해 했다. 이제는 그것이 상처를 입힐 수 있고 계속 상처를 입힌다는 것을 알았다.

독일 여자는 홀의 끝의 강단에서 있었다. 그녀는 한 때는 통통하고 예뻐할 것 같은 중년 여자였다. 그녀는 노래할 때 손을 어울리지 않게 부딪쳐 소리를 내었고 목소리는 높은 음에서 갈라졌다.

앞줄의 군관들은 야유하며 웃었다. 시든 처녀가 자기 자신을 놀리는 것보다 더 우스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녀의 목소리가 떨릴 때 나의 볼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음의 여자는 아직도 꽤 젊은 여자로서 우리는 나치에서 구해준 소련에게 툭툭 떨어지는 감사의 시를 읽었다.

모국 러시아, 감사합니다.
 그대가 오늘 하신 일에
 영광스러운 붉은 군대가
 우리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졸렬한 시는 그 자리의 방장들에게 큰 환호를 받았다. 누구든 열광하지 않는 사람은 곤란하다. 밀고자들이 사회적으로 썩은 반응을 가까이에서 감시하고 있었다.

나는 이 장난에 참가한 여자들을 욕할 수 없다. 그들은 고통으로 기진맥진했다. 우리들 중 몇 사람이 남들을 위해 한 시간 풀려나는 것이 그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하고 있다. 루마니아의 가장 유명한 종교 작곡가였던 어렐 바란가도 그의 손을 공산주의 찬가를 쓰는 데 돌리지 않았던가? 그는 지금 कै널의 한 막사에 수감되어 있다.

반항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कै널의 거의 모든 막사에서 매주 일요일 계속되는 교육 시간에 영향받는 사람들은 있었다. 얼굴에 던지는 쓰레기는 들러붙게 된다.

나는 그 회합에서 박수치지 않았다. 누구나 “그런척 해. 무슨 상관이야? 매맞는 것보다는 낫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조국이 무참히 당하고 아름다움이 더러움에 짓밟히는 것을 보고는 그럴 수가 없었다. 뒤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어서 나도 그들 중에 묻혔다.

그러나 나는 모면할 수가 없었다. 누군가 나를 일러바쳐 저녁 때 나는 사령관의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눈은 뾰족한 모자 아래서 날카롭게 쳐다보고 있었다.

“범브란드, 나는 당신이 오후의 강연과 재교육 시간에 박수치지 않았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당신의 여기에서의 태도는 재교육에 비우호적인 반 혁명적인 것이었어요.” 그녀는 의

례적인 말을 하고는 입술을 빨았다.

“우리는 지금까지 당신에게 좋게 대해 왔어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방법을 쓰겠어요”

나는 그날 밤 막사로 돌아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나는 경비원의 방으로 걸어 들어가 캐서에 들어갔다. 그곳은 겨우 설만한 좁은 찬장 식이었다. 철문은 공기가 들어오게 구멍이 몇 개 있었고 음식은 바닥의 작은 틈을 통해 들어온다.

몇 분이 지나자 발이 타는 것 같았다. 관자놀이의 피는 천천히 고통스러운 듯이 쿵쿵 소리를 냈다. 나를 몇 시간이나 여기에 둘 것인가? 나는 몇 년이나 이런 상태로 살아 남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이 악의 행위는 전체 세계에 퍼지고 있고 이것은 새로운 몇 십만을 고문할 것이며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 방법이었다. 나는 사람들이 이 상자 속에서 미치게 된 것을 안다. 그들은 이 공포의 생각에 정복당한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빠져나갈까?

리차드는 끊임없이 “마음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거듭한 아토스 산의 수사들에 대해 나에게 이야기했었다. 그들은 매번 십장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했다. 나도 이 기도를 했었다.

그리고 나는 리차드가 매일 밤 나에게 성경의 숫자상의 비

밀을 설명해 주었다. 히브리인도 그리스인도 글자 뿐만 아니라 숫자가 없었다. 성경의 글자는 숫자(a는 1이고 b는 2 등)이고 모든 숫자는 상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나는 수를 세기로 했다.

물방울이 그 상자의 지붕 어디에선가 떨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절망적인 소리였다. 나는 시간이 지나가게 하려고 그것을 썼다.

하나, 하나님은 한 분 계십니다.

둘, 두 계율이 있습니다.

셋은 삼위일체입니다.

넷, 그리스도는 그의 추종자를 지구의 네 귀퉁이에서 모았습니다.

다섯은 모세의 책 다섯입니다.

여섯, 계시록의 짐승의 숫자는 666입니다.

일곱은 성스러운 숫자입니다.

그러나 물이 떨어지는 소리는 계속 났고 내가 15, 16과 아무 의미도 없는 숫자에 달했을 때는 다시 되돌아가서 하나, 둘, 셋, 넷을 세었다.

나는 얼마나 오래 계속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떤 한 순간에 나는 절망을 피하기 위해 크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나는 소리치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잠시 뒤에 그 소리는 저절로 나왔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나의 마음은 안정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완전히 잠잠해졌다. 나의 영혼은 계속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었다.

이것이 감옥에서 살아남는 한 가지 열쇠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더 설명해야 하겠다. 모든 걱정과 슬픔이 있을 때 사람은 마음이 텅 비면 좋겠다고 가끔 원하는 때가 있다. 모든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애쓰지만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더 깊은 심적인 문제로 끌려갈 수 있다. 상처 받은 다리가 쉬기 위해 석고를 씌우듯 고통받고 병든 마음은 건강해지기 위해 휴식이 필요하다.

초기 교회에서는(그리고 그리스 신화에도) glossolia라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말하는 현상이 있다고 알고 있었다. 종교는 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처음에는 음악과 춤, 그림으로 보여졌다. 언어는 불완전한 도구이다. 나는 애플 파이를 사랑한다, 나는 나의 아내를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나는 완전히 다른 세 가지 감정을 한 단어로 나타낸다. 그리고 사랑과 증오 사이에는 한 가지와 다른 것 사이의 마찰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의미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엄마가 아이에게 느끼는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다. 엄마는 무언 중에도 사랑의 감정을 나타낼 수가 있다. 엄마는 말을 하지 않아도 조용한 미소로써도 아이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으며 아이도 그것을 느끼고 매우 행복해 한다.

그렇게 저절로 나오는, 즉 방언의 현상이 있다. 황홀이나 극도의 고통 속에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소리가 나오고 아무 사전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그리고 동료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나온다. 마음은 온통 텅 빈 상태였다. 성경은 “그는 모르는 혀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말하였다” 고 하였다.

캐서에서, 의식의 저 깊은 속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운 것이 나를 미치도록 하는 상태에서 구했다.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이 지난 후 나의 마음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와서 쉬었다. 나는 또한 이 알 수 없는 혀로 말하는 것이 큰 하나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아무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일이 있던 직후의 어느 날, 우리는 캐널 수용소를 공식적으로 순회하는 일본 대령의 검열을 받았다. 그것은 짧고 예리했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늙고 추한 여자들이 출서 있는 것을 경멸하는 눈으로 보면서 세르나보다를 한바퀴 돌았는데 그가 잘 때쯤 되어 한 집시 소녀가 그에게 뛰어 들었다. 그녀의 심중을 밝히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보안경찰의 한 중위를 비밀히 만나고 있다가 지금은 임신 중이었다.

이 사건을 터짐으로 해서 아본은 부크레스트에 보고했고 신문이 행해지고 일어났던 일들이 많이 들춰내졌다. 그래서 여

자들은 세르나보다를 떠나 캐널에서 몇 마일 더 가서 남자들이
과 떨어진 노동단으로 갔다. 그것은 'K4 수용소'였다.

K4 수용소; 겨울

우리는 아침 일찍 다뉴브 강 독에서 일하기 위해 막사를 떠났다. 돌 한 층을 바다 밑 바닥에 깔아야 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무거운 돌을 손수레에 지고 날랐다. 그리고 손수레는 뒤엎어져서 가장자리로 떨어졌다. 이 일을 하면 물이 매우 튀기고 처음 시작한 지 몇 분 안되어서 물에 흠뻑 젖는다. 차가운 바람이 바라간의 평원을 넘어 불어와서 옷을 뿔뿔하게 얼렸다. 그것은 철로 만든 갑옷으로 싸여진 것 같았다. 손가락은 추워서 터지고 부풀어올랐고 무거운 돌 때문에 뭉개졌다.

저녁 때 막사에 돌아오면 우리는 젖은 옷으로 침대에 들어가는 것 밖에 할 수 없다. 옷을 말릴 곳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밤새 걸어 놔두면 없어질 것이 분명하다. 축축한 옷을 그

대로 입고 자면 다음 날 아침도 여전히 축축했다. 옷은 일하러 가는 중에 말랐다가 제시간이 되면 다시 젖어들었다.

우리는 수레를 때리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떨면서 해가 조금만이라도 나와주기를 매우 바랬다. 나는 바지랑대같이 말라서 바람이 나를 통과하는 것 같았다.

둘째 주에는 수레에 돌을 실는 일을 하게 되었다. 다른 여자들은 그것을 끌고가서 다뉴브강에 쏟아넣었다. 드디어 나는 옷이 마른 채로 있었다. 그러나 돌은 날카로워서 언제나 손을 찔었다. 나의 손가락 관절은 까지고 손톱은 깨어져 피가 났다. 어쨌거나 완전한 기진맥진이 고통도 못느끼게 했다. 그러나 나는 꿈 속에서처럼 몇 인치 땅 위에 떠 있는 것 같았다.

돌을 집어 들어올린다. 몸을 두 배로 굽힌다. 200야드를 간다. 돌더미에 쏟는다. 돌을 집는다. 나는 내가 다시 몸을 펼 수 있을까 의아했다.

오후에 차 한 대가 경비원의 허리띠의 높이쯤 닿는 수평선에 나타났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급히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경비원까지도 두려워했다. 불빛이 엔진 덮개 위에서 빛났다. 그것은 매우 광이 나는 새 차였다. 그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한다. 비밀 경찰인 것이다. 죄수 몇 명이 더 심문받아야 한다.

모든 그곳의 여자들은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다. 감방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기를, 그 고통의 밤이 다시 오지 않기를

빌었다.

갑자기 경비원이 소리치기 시작했다. 주인보다 더 야만적이고 악한 노동량 검시원들은 그들의 명령을 반복하며 허둥지둥 지나갔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는 아무도 잡혀가지 않았다. 대신 한 젊은 여인이 경비원에게 넘겨졌다. 바람이 그녀의 여원 골격에 불어 그녀의 면 옷을 돌아가게 했다. 창백해서 그녀는 우리를 쳐다보았다. 우리는 흰 들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었고 썩들어간 눈은 축제에서의 죽음의 가면 같았다.

경비원은 그녀를 앞으로 밀었다. 나는 그녀가 맨발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일을 시작했다. 보기에 딱했다. 그녀는 등을 몇 인치 꼰었다. 그리고 다리가 비틀거리더니 무릎을 꿇으며 쓰러졌다. 그녀는 몸부림쳐 일어나 또 몇 인치 움직였다. 그녀 얼굴이 유령같이 창백한 것은 그녀가 지하 감방에서 몇 달을, 아니 몇 년일지도 모르는 동안을 지하 감방에서 지냈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그날 저녁에 그녀와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여간 그녀는 살아서 수용소로 되돌아갔다. 우리는 감시탑을 지나선두 경비원은 “최수 350명 복귀 보고!” 하고 소리쳤다.

저녁 늦게 부엌에서 토마토를 2시간 동안 깐 후 나는 막사에 와서 내 자리와 내 옆자리 사이에 끼인 그녀가 자리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흰 먼지가 그녀의 얼굴에 덮혀 있었고 그 사이로 눈물이 길을 새겨놓았다. 나는 물을 조금 가져다

가 그녀가 씻는 것을 도왔다. 그녀는 반 장님인 것처럼 눈을 깜박이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조금 기운을 되찾자 만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 들었다.

“불쌍해라. 겨우 30이나 됐을까?”

“제법 사랑스럽지 않아?”

“발에 뭘 찾아줘야 되겠어.”

“그리고 웃도, 저것은 꼭 누더기야.”

독일 배우 중의 한 사람인 크라라 스트라우스는 그녀의 보따리를 끌어서 구겨진 낡은 옷을 내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물도 나왔다. 이 귀중한 것들은 너무 관대하게 주어져서 그녀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는 우리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2년 동안 그녀는 내무부 밑의 독감방에 있었다. 부크레스트의 이 심문 동안 그녀는 심문자가 연달아 심문하느라 10일이나 잠을 못잔 일도 있다. 강한 불빛과 반사경이 그녀의 얼굴에 밤낮으로 쬐여 있었다. 이제 그녀는 팔이 뻗치는 거리 정도의 사물 밖에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단 한 가지 큰 질문만 상관하는 듯이 보였다.

“여기에서는 우리 애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나는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는데 나는 그애들을 2년간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어머니한테 맡겨놓고 헤어졌지만 그분은 70살이 가까웠고 건강이 좋지 않아요. 소식을 들을 방법

이 없어요?”

그녀의 질문은 우리에게 내밀어진 구걸 사발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미하이를 만난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실수였다.

“방의 끝과 끝에서 서로 떨어져 만난다는 뜻이지요, 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녀는 울면서 얼굴을 더러운 베개에 대었다.

다음날 여자 몇 명은 그녀 이야기의 나머지를 알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비워둔 벽 뒤쪽으로 가게 되었다. 그녀는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뤄가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하지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내 빵 조금을 먹게 하고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이제 당신은 왜 그리스도가 최후의 만찬의 빵과 술을 축복하시는지 알겠지요? 보통 사람들은 식사 전체에 대해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모든 것이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어요. 여기선 스프 안에 빵조각이 있을 경우 누구도 콩 스프를 먹었다고 하지 않아요. ‘나는 빵이 든 콩 스프를 먹었다’라고 하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큰 기쁨이에요”

그녀는 갑자기 내 팔 안으로 쓰러지며 흐느꼈다. 잠시 후에 그녀는 조용해졌다.

“우리 어머니도 당신처럼 신자예요. 얼마나 어머니가 보고

싶은지 몰라요. 어머니는 모든 힘을 가지셨어요. 어머니는 우리가 매달리는 바위와 같은 분이셨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듣기만 했어도 됐을텐데...”

그녀는 나에게 나머지 이야기를 했다. 그것은 통속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는 비극적 주제 즉 충성심있는 공산당원의 주제의 변형이었다. 1951년에는 점점 더 많은 당원들이 전의 동료에 의해 구속되어 감옥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혼란을 보는 것은 딱했다. 파시스트들은 경멸과 증오에 빠질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의 영광의 날이 있었다. 크리스찬은 사랑할 수 있다. 그들의 날은 올 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 여성들은 실패했다. 그들은 당을 신처럼 믿었다. 지금은 무구한 사람들의 대학살을 보고 있는 것과 같았다. 그들은 무엇이 오리라 준비하고 있었고 처음부터 우리를 지배하는 권력이 어떤지 알고 있었던 나 자신같은 사람보다 더 고통받고 있다.

불쌍한 헬레나 코리오! 그녀는 문교부에서 지위가 매우 높았고 그녀의 남편도 역시 정부의 높은 지위를 가진 충성스러운 당원이었다. 헬레나는 공산주의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다. ‘프로레타리아 정신’은 그녀의 표어였다. 두 아이는 소련 공산당의 충성심있는 작은 멤버로 키워졌다.

“나는 솔직이 공산주의를 위해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당이 권력을 잡았을 때 루마니아가 천국으로 변할줄 알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조각가와 사랑했다.

“그는 스탈린 흉상의 숫자로 따진다면 일주일 내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그러나 조각가는 귀찮아져서 그녀를 버렸다. 그 사랑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던 헬레나는 비참한 생각이 들었다. 감시받지 않는 상황에서 그녀는 친구에게 말했다.

“그는 산의 유격대를 도운 피짜야. 나는 쓸데없이 내 자신을 반 혁명분자에게 쏘은 거야.”

그 친구 역시 열성적인 공산당이였다. 그녀는 비밀경찰에 조각가를 밀고해서 그는 야만적으로 고문당했다. 너무 고문당해서 그는 미쳤다. 헬레나 자신도 구속당했다. 그녀는 이 남자와 같이 잠을 잤고 그가 반 혁명분자와 접촉하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변명하러 하였는데, 그녀가 감정적이었을 때 그것을 결정했다는 것과 충성스러운 당원이었다는 것을 말한들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녀의 2년간의 악몽은 시작되었다.

드디어 그녀는 법정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 조각가도 그랬다. 10분 동안 피고의 말을 듣고 10년이 구형되었다. 그 남자는 완전히 실성했다. 그는 재판 도중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았다.

가장 나쁜 일은 그녀의 남편과 두 애들이 있다는 것이다. 비밀경찰은 물론 그들을 제외시키지 않을 것이다. 남편은 좋

은 직업을 잃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길에서 친구들에게 외면당했다.

“나는 그분에 대해 매일밤 꿈을 꿉요. 낮에도 그레고리에 대한 환상을 보아요. 그가 법정에 있는 것을 보니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생선 눈같이 죽어 있었어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죠? 우리가 왜 만났죠?”

나는 리차드의 “지옥은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지난 죄를 기억하는 것”이라는 말을 기억했다. 옛날 기억은 불같이 타 아무 방어할 것도 없다. 옛 기억이 되살아날 때 책도 라디오도 여흥도 갈 곳도 없다. 여기서 자기 기만은 없어진다. 새로운 도덕관념에 대한 이론도 도움이 안된다. 여기서는 새 도덕이 낡은 유혹이었다는 것을 안다. 헬레나의 후회는 무서웠다. 그녀가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감옥에 있는 거의 모든 여자가 그와 비슷한 지독한 후회를 느낀다. 거의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신앙이 있었다. 무신론자라고 말하던 사람들도 자기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듣고는 놀랐다. 누구나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틀렸다. 그것은 들 더하기 들은 베틀이 아니어야 한다는 기도같았다.

죄가 쌓이면 불행과 회한만이 생길 뿐이다. 가장 치명적인 후회는 성적인 것 즉 간통과 배반과 유산같은 것이었다. 여자들은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고통이 덜해지기를 바랬

다. 나는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한 다윗의 말을 기억한다. “죄가 덮혀지는 자는 축복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 드러낼 필요가 없고 하나님에 의해 죄가 덮혀져야 한다.

우리 막사에는 부크레스트의 유명한 사업가의 부인인 라드 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전쟁 이전의 사회에서는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그녀의 옛날 친구들은 이제는 화려한 의상과 파티에서의 사교생활이 그들의 선망의 대상이던 명랑한 제내다 라드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멋진 악센트가 초췌한 얼굴에서 나오는 것은 이상해 보였다.

저녁 때 우리가 짚 요 위에 앉아 있을 때, 그녀는 범죄자들과 창녀와 수녀와 농부와 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상한 모임을 보았다.

“당신의 결론이 뭐죠?” 그녀는 자기의 번들번들한 머리를 옛날 멋지게 고대했을 때 하던 몸짓으로 뒤로 넘겼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죠? 나로 말하면, 나는 한 가지 생각 밖에 없어요. 내가 석방되면 나는 여생을 빵 한 조각을 먹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녀와 같은 타입의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녀는 자기의 생활을 낭비하는 것에 대한 깊은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가끔 그녀는 나타내고 싶어하는 내면적 고통을 암시하면서 주저하며 나에게 말했다. 나의 침대 위에 앉아서 또는 방 저쪽에서 나를 쳐다보며 이야기했다. 언제나 나는 미소를 지

어주었다.

몇 주일 후에 그녀는 나에게 그녀의 고민을 이야기했다. 공산당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녀는 작은 아이가 달린 과부가 되어 있었다. 파티는 사라지고 돈은 다 떨어지고 그녀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있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나에게서 없어져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 생각에 흐느꼈다.

“나는 일을 해야 했어요, 내 손은 망가지고 옛 친구들은 나를 피했어요, 그때 나는 재혼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녀는 다시 깨닫지 못한 머리를 가라앉히는 제스처를 썼다.

“그러나 남자들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원치 않아요, 나는 그때 세 살인 불쌍한 제니가 장애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녀의 이마에서 땀이 흘렀다. 그것은 이야기하려는 것과 하지 않으려는 것과의 내면적인 투쟁이었다. 나는 손을 그녀에게 가져갔다. 그녀는 다시 빨리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는 그애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적당히 먹이지를 않았어요, 그것은 아무 것도 몰랐지요, 결국… 그때는 너무 울어댔어요, 나는 그애에게 ‘이것아, 닥쳐!’ 하고 소리치곤 했어요, 그애는 점점 말라갔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는 매우 고통스러워 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고 출산의 진통을 겪는 것처럼 손을 비틀었다. 그녀가 무엇을 숨긴다면 아무 위안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애를 혼자 남겨두고 나갔어요. 재미보기 위해서요. 그와 함께요. 나는 그가 내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메마른 목소리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추운 겨울 밤에 그애가 잠든 후에 나는 창문을 열었어요. 이불을 안 덮고 자는 그애가 감기에 걸릴 기회를 노린 것이지요. 물론 지금은 그것을 알겠어요. 그때 나는 ‘신선한 공기는 아이에게 좋고 너무 먹이지 말아야지’ 하고 나 혼자 말했어요. 나는 죽이지는 않았지만 무시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고백의 마지막 말들을 속삭였다. 어느 누구도 듣고 있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수많은 목소리가, 계속 불평과 싸우는 소리들이 들렸다. 욕들을 하고 음탕한 노래들을 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란 것을 벌써 알았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시키려 했다. 나는 복음의 그리스 기원으로 그리스도는 크리스트스로 이것은 자비를 뜻하는 크레스토스와 거의 같다는 것을 설명했다. 우리는 하

나눔을 다르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자비와 용서가 그분을 대표한다.

“내가 나가게 되면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선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선한 것을 뜻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그러나 정말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아무 죄도 없다고 한다면 거짓말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은 당연히 용서해주세요” 하고 말했다.

제내다는 이야기를 끝냈다. 장래의 남편은 염색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정부가 되어 그가 조금 돌봐 주는 것으로 공장 일을 안하게 되었다. 이것이 그녀의 부르짖어적인 과거와 함께 그녀에게 대한 죄가였다. 그녀는 시기심많은 이웃에 의해 사회적 부패의 근원으로 고발되어서 재판도 없이 2년의 ‘행정 선고’를 받았다.

나는 여러 수용소와 죄수들을 거쳐 다니는 동안 어처구니없고 이유없는 이유로 구속된 사람을 많이 보았다. K4 수용소에는 늙은 사도로 널리 알려진 노파가 하나 있었는데 그녀의 죄는 미친 사람에게 한때 친절했었다는 것이다.

미친 사람은 ‘니콜라이 루마니아 황제’라고 쓰여진 작은 동전을 만들었던 야금가였다. 그는 물론 니콜라이였고 그의 유일한 재미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십시오. 이것을 가진 사람은 내가 왕 위에 오르면 관을 시켜주겠습니다” 하고 설명했다.

비밀 경찰은 이 불쌍한 황제를 구속하여 그의 친구와 안면이 있는 사람을 모두 조사했다. 그들이 동전을 찾을 때마다 그것을 가진 사람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15년이나 20년의 형이 고무 도장을 가진 법관들에 의해서 내려졌다.

“창피해라. 무죄를 증명하지 않았어요?” 헌신적인 당원이었던 헬레나가 물었다.

“나는 다 증명했지요. 그렇지만 누구에게 증명해요? 소녀 때 들은 이야기같이 하나님과 왕은 먼 곳에 계셨어요. 똑같아요? 당신이 그런 운명에 처한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들은 아무 죄도 없거나 놀란 사람들이에요.”

그녀는 비록 종으로서의 생을 지냈지만 영리한 노인네였다. 그녀는 거짓과 진실을 꿰뚫어보는 단순성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들의 새로운 통치자들은 무식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무식한 척했다. 사환들은 비밀경찰의 군관이 되었다. 그리고 무식한 사람의 출세는 정부에 만연되어 전에 철도 노동자였던 게오르그 메이는 당수로 대두되고 있었다. 이런 우스개 소리가 나돌았다.

게오르그 메이는 그가 루마니아의 문맹을 일소했다고 드꿀에게 자랑했다. 그는 “당신의 나라에는 아직도 문맹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드골 장군은 대답하기를 “네, 그렇지만 정부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캐넬의 군관들은 누더기의 더러운 여자들과 사귀는 것을 꿈도 꾸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강요되어 그들이 억지로 우리에게 말을 걸게 되면 그들은 우리에게 똑같은 꼭둑각시같은 당의 표어를 자꾸 자꾸 말했다. 나는 “인류는 마스, 엥겔스, 레닌과 스탈린 4명의 천재를 낳았다” 라고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른다.

플라톤이나 버질이나 에디슨에 대해 물어보게 된다면 그들은 그런 것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할 것이다.

권력층의 우둔함과 관료들의 사나움은 무해하고 순진한 사람들을 감옥에 더 집어넣게 하였다.

언제나 서독제 온도기를 쓴다고 우연히 말한 여자 의사가 있었다. 그것은 러시아의 것보다 훨씬 읽기가 쉬었다. 그러나 이런 반 혁명적인 발언을 했으므로 그녀가 감옥에 온 직후, 충성스런 간호원이면 상관의 못된 발언을 고발했을 것을 고발하지 않았다는 불고죄로 들어온 간호원도 있었다.

쾌락을 즐기는 두 여인 사이의 기묘한 대치도 있었다. 하나는 간단히 캐롤 왕의 정부였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공산주의자 내무부 장관 게오르게스크의 정부였다. 그 둘은 모두 영화를 누리던 날들을 자랑한 실수를 저질렀다. 왕의

정부는 궁궐과 접촉해서 자연스럽게 얽혀들었다. 게오르게스크의 정부는 새 장관이 누린 사치를 너무 자랑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를 체포해서 감옥으로 보냈다. 후에 그도 그의 동료에 의해서 투옥되었다.

나는 일치하기를 거절하는 여러 종교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크리스찬 사이언스의 여인들, 견신론자들, 여호와의 증언을 하는 사람들 등등.

“그것은 토요일이었어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 예수재림론자들을 때리고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이 파의 여자들은 행진해서 일하러 가야 하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들은 매년 거절했다. 그들은 야만적으로 학대를 받았지만 그들의 신념은 조금도 변치 않았다. 정통파와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은 매를 맞지 않으려고 토요일에도 일했지만 재림론자들은 매주마다 수난을 받았다.

많은 여자들이 이른바 성녀 마리아의 출현 때문에 감옥에 오게 되었다. 그것은 부크레스트의 중심가에서 일어났다. 어떤 사람이 교회 창문을 가르키며 소리쳤다.

“저것 보세요. 성녀 마리아예요!”

즉시 수백 명이 그 환상을 소리치기 시작했다. 목사들은 주의를 시켰다. 경찰이 그들을 구속해서 그 많은 사람이 오게 되었다.

경찰은 창문을 흔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즉시 성녀 마리아는 다음 창문에 나타났다. 그래서 그 모든 창문이 흔들렸다. 그러자 성녀는 빅토리아가로 옮겨가서 경찰 사령부의 유리창에 나타났다.

경찰 자신들이(그들은 대부분이 강한 정통과 배경을 두고 있었다) 이 환영을 보기 시작한 것은 집단 구속이 시작되었을 때이다. 그리고 계속되었다.

“거대한 추첨이에요. 어떤 때는 ‘감옥’이라고 쓴 표를 뽑아내고 어떤 때는 ‘자유’라고 쓴 표를 뽑아내죠.” 독일 카바레의 여왕인 클라라가 말했다.

제내다 라드가 말했다.

“내가 원하는 티켓은 ‘서방’이에요. 당신은 무엇이죠?” 하고 나에게 몸을 돌려 물었다.

“나는 오래 전에 표를 뽑았어요. 그것은 ‘천국행’이라고 쓴 것이에요” 하고 말했다.

오후 11시에 막사의 문이 갑자기 열렸다. 6명의 경비원이 목청을 있는 대로 지르면서 걸어 들어왔다.

“모두 일어났!”

“사령관 검열이다!”

철 난간이 찌렁 찌렁 울렸다. 아찔하고 놀란 여자들은 먼

지 낀 담요에서 떨면서 뛰어 나왔다. 우리는 소지품을 모으려고 몸부림치고 서로 다투었다. 마치 이동을 하는 때와 같았다.

어깨가 딱 벌어진 사령관은 마치 군대 행진 사열을 받는 것처럼 정복에 모자에 광나는 구두를 갖춰 신고 있었다.

“여러분! 나는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시오! 외국어란 말이예요. 러시아 말이거나 서반어 말이 아니라 영어나 불어나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여인들이 앞으로 나왔다. 부르조아의 대표적인 교사, 기자, 전 왕실의 여자들이었다. 우리의 이름은 힘들게 적혀졌다. 경비원들은 바보같이 보이지 않으려는 노력에서 까다롭게 굴었다. 이 일은 언제나 낭패였다. 드디어 ‘V가 두 개인 범브란드’는 불어와 독일어를 말하는 사람으로 끼이게 되었다. 우리는 2시간 동안 잠잘 시간을 잃었고 그 시간을 번민의 논쟁으로 계속하였다.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통역자야 바로!” 클라라가 단언했다.

“미국인들이 오는거야.”

“그리고 불란서인도.”

“운 좋은 녀들” 하고 한 창녀가 말했다.

“너희들은 개구리 말 몇 마디 안다고 그런 편한 일을 하겠구나.”

“너 클라라 스트라우스, 불란서어를 한다구? 우리는 독일인 인줄 알고 있었는데.”

“불어 몰라.” 클라라는 과장된 웃음을 웃었다.

“오, 제발 잠잠 잡시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악의와 질투로 어쩔줄 몰랐다. 그리고 거의 새벽이 다 되어서야 나는 불안한 꿈을 꾸면서 잠깐 잠이 들었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하러 평원을 건너갈 때 나의 머리는 가벼웠다.

‘그것이 사실일까? 바깥 바람을 쐬며 따뜻한 사무실에서 통역자로 일하는 것일까? 국제적인 정세의 변동이 일어난 것일까?’ 우리의 들을 파내는 조는 소문으로 가득찼다.

나는 그날 제시카라는 조그만 유태 여인 옆에서 일했다. 나는 그녀를 막사 주변에서 많이 보았다. 그녀는 많은 번민 어린 얼굴들 사이에서 평화를 약속하는 것 같은 고요하고 감미로운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나는 경비원에게 눈을 고정시킨 채 지난 밤에 우리 막사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였다.

“어느 막사에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가끔 그들은 들어와서 누가 외국인인가 물어보았어요. 독일인과 유태인은 이민갈 수 있게 되는 줄 알고 루마니아 이름이 아닌 것을 대었어요. 그러나 아무 의미도 없어요. 고통 주기 위한 방법이에요.”

오래지 않아 나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마음을 기진맥진시키고 뜻을 꺾어놓기 위한 다른 고문의 한 방법이었다. 이 우스꽝스러운 씩씩한 소동의 또 한 편을 위해 몇 번이나 막사는 한 밤중에 침대에서 끌려나왔다.

한번은 운동하는 여자의 이름을 적으러 왔다. 소문은 루마니아에 올림픽에 나갈 선수가 모자란다는 것이다. 달리기나 높이뛰기나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훈련을 한다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걸을 수조차 없었으나 이것을 믿고 받아들였다.

그것이 우리를 재교육을 더 받기 쉽게 만들었다. 여성 합창단이 모집되어서 공산당 노래를 배우고 있었다.

“이 땅의 배고픔을 구제하고…”

“같이 따라 불러요.” 앤 스타네스크가 말했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연극이 공연되었다. 이것은 사회주의를 위해 캐널에 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진정한 행복인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시가 자본주의의 붕괴를 표현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국의 굶주리는 수십 만명을 위해 올라갔을 때 나는 여자들이 정말 우는 것을 보았다.

캐널을 태업시키려는 야비한 미국인의 노력이 무산되자 유망한 젊은 공산당원이 유리같이 짹짹 소리를 내는 소프라노로 노래하였다.

“아버지 스탈린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당에서의 기쁨이 시들지 않으리…”

가장 슬픈 부분은 마지막의 갈채와 박수였다. 적어도 몇 명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박수를 쳤다. 고통받는 사람과 고통을 주는 사람 사이에 사랑과 증오의 관계가 생길 수 있다. 우리를 때리고 조롱하는 경비원을 우리는 애칭으로 불렀다.

“집이 세워지기 전에 축축한 곳은 다 깨끗히 청소해내야 되고 그 속의 벌레들도 없애야 한다.”

우리더러 모두 ‘산적떼’라고 한 경비원은 그가 혼련소에서 배운 이 구호를 반복했다. 그리고 우리는 20대의 명칭한 눈을 가진 여자들을 경계하는 것을 배웠다. 그들은 교육이 계속되는 한 어느 남자보다도 야비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कै널로 배치되어 몇 달, 몇 해 동안 이 황막한 곳에서 죄수 옆에서 보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작업장까지 행진했고 우리가 노동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엄격히 금지되고 있기는 했지만 간혹 그들은 우리와 이야기했다.

얼마가 지나자 그들은 ‘벌레’나 ‘산적떼’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과 같은 순박한 여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는 토지와 가족을 모두 주인에게서 빼앗는 강제집단 농장화의 시기였다. 경비원들이 자기의 친척들이 굶고 체포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회의를 품기 시작했다.

그들은 일에 긍지를 잃었다. 그리고 당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교회에 대한 비난으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는 것으로 변했다. 공산주의에 대한 이런 감정의 격변은 우리 경비원들에게 굉장한 변화를 가져왔다.

K 4 수용소에는 애국학생 그룹에 참가했기 때문에 온 여학생이 몇 명 있었다. 그들 중 15살난 마리아 킬레아는 굉장한 미인이었다. 노예 노동도 마리아의 모습을 꺾지는 못했다. 피부는 투명해지고 검은 눈은 더 생생해지고 연약한 골격은 더 균형이 잡혔다. 그녀는 누구나가 자기를 찬양하고 좋아한다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자신이 있었다.

예전에 나에게 친절을 베풀던 불이 사과같이 빨간 니나는 단 세계에서 온 이 곱게 자란 소녀에게 매우 주의를 기울였다.

“저를 어찌, 불쌍해라! 아직 어린애잖아? 나는 도둑과 살인자를 취급하는데 저 애는 저렇게 싱싱하니.”

어느 날 니나는 나의 크리스찬 친구의 하나인 카린에게 물었다.

“당신은 수녀예요?”

“아뇨, 나는 목사 부인이예요.”

“오, 그들이 당신에 대해 말했어요. 당신의 빵을 나눠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프게 되요. 잠깐 화장실에 가서 창

문에 붙은 오른쪽 선반에 손을 넣어보세요.”

그녀는 화장실에 가서 손을 넣어보니 종이에 싼 것이 집혔다. 샌드위치였다. 만약 니나가 베푼 것을 들켰으면 그녀는 노동 수용소로 보내졌을 것이다.

캐린과 나는 그녀와 함께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어떻게 그녀가 어렸을 때 교회에 갔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소년 공산당에 참가해야 할 때도 계속 따라갔었다. 그녀가 모르는 다음 마을까지 몇 마일을 걸어갔다.

“한번은 돌아오는데 소년단의 지도자를 만났어요. 그녀는 계속 내가 어디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일요일이구나. 교회에 가보지 않았어?’ 하고 물어 보았어요. 나는 벌써 그만둔지 오래 되었다고 말했어요. 당신 일이나 상관하라고 말할 배짱이 있었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는 집에 와서 평장히 울었어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울었지만 베드로와 같이 느끼는 것은 니나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교회에서 멀어져 군대로 들어와서 수용소 경비원이 되었다. 그녀는 더 좋은 말을 쓰려고 이야기한 것을 취소하고 중간에 있는 단어를 없앴다. 그녀는 명령하기 위해 죄수들을 때리고 학대했다. 이제 그녀는 공산주의가 그녀 자신의 마을과 마찬가지로 여러 마을에 해놓은 짓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죄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캐린만을 도운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혼적으로

그녀가 마리아 킬레아를 친구삼고 있다고 추측했다. 그 여학생은 니나가 더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게 된 몇 달 후 그녀가 자기를 위해 한 일을 이야기했다.

“나의 부모님은 아직 돈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재산이 압수당한 뒤에도 몇 가지 남겨둔 것이 있었어요. 나는 니나에게 내가 잘있다고 부모님들께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녀가 갔을 때 아빠는 그녀가 나에게 아스피린, 초콜렛, 모직웨타같은 것을 사다 준다면 그녀에게 돈이나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일은 니나의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녀는 뇌물을 거절하고 수용소에 그 물건을 몰래 들여다 주었다. 마리아의 집을 방문한 것은 니나에게는 의외의 일이었다. 예쁜 것들과 안락한 집과 킬리아 부부의 친절은 그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녀의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은 더욱 흔들렸다.

내가 그녀와 맨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훈련소에서 주입받은 대로 종교에 대한 조롱의 말을 앵무새처럼 되뇌었다. 그녀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러나 우리 공산당원들이 그리스도의 가장 친한 친구예요. 만약 천국이 있고 그리스도가 심판을 내린다면 우리는 가장 그것을 좋아할 거예요. 당신의 남편은 목사이지요. 그

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데려간 것 같아요? 두 세명? 이 삼백 명?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매년 그의 이름을 부르며 죽는 사람들 수천 명을 그리스도가 돌보아주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감사해야 될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는 그녀의 생각보다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막달라 마리아를 죄인으로 만들은 악한 남자도 그녀가 성인이 되게 준비시켜준 것이다. 서울 왕에게 기독교에 대한 증오를 주입시킨 사람은 훗날 바울이 되는 기초도 확립시킨 것이다.

성경은 악이 만연한 곳에 은총이 더 풍부하다고 한다. 그리고 나는 공산당들이 크리스찬을 천국에 보낸다고 우스개 소리를 한다면 자기들의 사악함에 대해 천국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지는 않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것은 그녀가 개심하는 한 단계였다.

니나는 다시 크리스찬이 되었고 그 사실은 비밀에 붙여졌다. 킴 필비와 같은 반역자는 악이 사방에 있고 그가 숨기려 했기 때문에 40년간 몰래 숨길 수가 있었다. 모든 돌 밑에는 딱정벌레가 따로 있는 법이다. 그러나 선함은 무감각한 눈까지도 건드리는 진귀한 나비같은 것이다. 아무도 그것을 지나치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1951년 중 언젠가 니나는 K 4 수용소에서 사라졌다. 오랫동안 우리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 그런데

3명의 새로운 사람들에 의해 유죄를 선고받은 죄수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나나는 그들과 함께 재판을 받아 10년이 구형되었다. 가엾은 마리아는 매우 당황해 했다.

“다 내 실책이에요” 하고 그녀는 울었다.

나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것은 그녀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 것이에요. 그녀는 경비원이었던 때보다 죄수로서 더 큰 기쁨을 느낄 거예요.”

우리는 가끔 나나에 대해 이야기했다. 캐린은 그녀가 자기 앞에 놓인 일을 알았고 마지막에 가서는 매우 확고한 크리스찬으로 되었다고 말했다.

고난은 그녀에게 다른 사람에게 설교할 권위를 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감옥에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것은 훌륭한 대의명분이 되며 하나님은 고난받고 있는 사람에게 준 물한 컵도 보상 안하시는 법이 없으시다. 믿음을 위해 죽은 사람은 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대한 유산을 남겨놓는 것이다.

다뉴브 강

밤새 눈이 내렸다. 우리가 막사 앞에 집결했을 때 큰 눈송이들이 계속 내렸다. 경비탑의 뼈대는 흰 베일 뒤에서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바람이 그쳤다. 모든 소리는 둔하게 사라졌다.

떨어진 부엌의 통풍구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다. 따뜻한 것의 바램은 하나 더 첨가된 역경이었다. ‘정치법’들은 거의 부엌일이 허가가 되지 않았다.

그날 아침 보통 때보다 많은 여자들이 아프다고 보고하려 했다. 수용소의 의사이며 자신도 죄수인 안나 크레체안느는 눈 하나도 깜짝 하지 않았다.

“당신은 아무 이상도 없어요. 일을 해도 됩니다” 라고 그

너는 말했다.

그 투덜대는 목소리를 수감자들은 매우 역겨워했다. 크레체안느는 눈과 비가 오는 바깥에 나가지 않고 안에 있기 위해서 그녀 자신을 팔았다. 그녀는 의료직의 사람에게서는 생소한 것이 틀림없는 의미에서 생과 사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어떤 여자들을 일하러 보냄으로써 그들을 죽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약해서 일하러 가야 된다는 소리를 듣고도 기절한다. 그러나 그녀는 의무성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다. 더 많은 수의 여자가 아픈 것을 허용할수록 그녀의 생존이나 석방의 기회는 줄어든다.

막사에는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의사죄수가 또 하나 있었다. 같이 있는 수감자들은 며칠 간이라도 그녀를 막사 안에 있게 해주려고 온갖 속임수를 다 사용하였다. 그녀는 60살이 넘었고 몇 마일을 걸어 작업장으로 가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의 의술이 크레체안느의 것보다 낫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수용소장은 자기가 의사를 선택한 것에 대해 만족한다. 제 10막사의 의사는 손수레를 끌어야 했다.

아스피린이나 따뜻한 음료나 어떤 종류의 진통제이든 그것은 우리에게 꿈에 불과했다. 치통은 참아야 했다. 수용소는 고된 일로 온갖 여성의 병이 많았다. 그들은 의사 수감자의 팀에 의해 정확한 진단을 받았다. 치료는 또 별개의 문제였다.

우리가 눈 속을 터덜터덜 걸어갈 때 캐린이 말했다.

“크레체안느에 대해 생각하지 맙시다. 그녀는 불쌍히 생각되어야 해요. 나는 그녀의 ‘작업에 무방’ 하는 소리를 들으면 자진해서 군대에 들어간 여의사인 내 친구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녀는 그 증오스러운 옷을 입고 오직 공산당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녀가 첩보원에 의해 배반당하기 전에 그녀는 훌륭한 일을 했어요. 지금 그녀는 감옥에 있어요.”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녀는 성도같은 여자임에 틀림없어요.”

우리는 어두운 하늘 아래서 흰 평원을 더듬거리려 갔다. 입을 틀어막힌 듯한 정적 속에서 작업장으로부터 들리는 두들김 소리가 이상하게 쓸쓸하게 들렸다.

아침 내내 나는 두 덩이의 돌 사이에 손을 쥘었다. 돌을 들어 트럭에 실는 것은 고통이었다. 새로운 나이 지긋한 여자가 나의 고통을 보고 나를 도우려 했다. 그녀는 나에게 감옥에서 화니 마리베스크라는 소녀를 본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네, 나는 그녀를 잘알아요. 내가 그녀에게 질라바에서 불어를 가르쳤고 우리는 친구가 되었어요.” 내가 말했다.

“그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늘나라로 갔어요. 너무 오래 병을 방치해 두어서 암으로 죽었어요.”

그러자 그 여인은 울기 시작했고 나는 그녀가 화니의 엄마라는 사실을 알았다. 경비원 하나가 우리쪽으로 향해서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아이가 죽었다고 해서 작업을 그만두는 일은 허용되지가 않는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비를 비를 걸어가서 돌을 붙들었다. 우리의 상처난 손에서 흐르는 피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슴에도 커다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렸다.

내가 위로의 몇 마디를 할 수 있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우리는 식사가 오기를 기다리며 오정 휴식을 하고 있었다.

“화니는 지금 천국에 있어요. 그녀는 구세주 안의 믿음 속에서 죽어서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천국이요? 말이 쉽지요. 만약 그애가 당신의 딸이었다면...”

그래서 나는 내가 어떻게 나치 치하에서 내 가족을 잃었으며 이스라엘로 가는 배에 탄 고아들을 잃었는지 이야기했다.

“그래도 평화와 안정을 잃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덧없는 존재이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존재예요. 그것이 우리의 위안입니다.”

우리는 멀건 스프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까진 손가락을 들고 같이 앉아 있었다. 우리의 다리와 팔은 너무 힘이 빠져

서 덜덜 떨렸다. 그녀는 자기 이름을 코르넬리아라고 했다.

“따님은 많은 죄수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여 그들을 도왔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왔구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돌을 드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하늘에는 우리가 잃은 사람을 도와주는 위대한 분이 계시요.”

그녀는 조금 위안이 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나의 막사에 왔다. 추운 겨울 밤에는 경비원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몰래 건너올 수가 있었다.

나는 누군가 내 침대에 앉아 내 팔을 건드리는 것을 느끼고는 눈을 뜨고 일어났다. 코르넬리아는 전율하듯 웃었다.

“나 여기좀 앉게 해주세요. 악마들이 당신 곁에 접근하지 못할 꺼예요.”

모든 크리스찬은 주님의 영광을 조금씩은 반사한다. 고난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본다.

“우리 막사는 모두 벌을 받았어요. 나는 그 이전에는 나올 수 없었어요. 이제 우리는 매일 2주일간 저녁 마루를 닦아야 해요.”

그녀는 손을 따뜻해지라고 낡은 가디건에 비볐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불평하러 온 것이 아니예요. 나는 내

가 목숨이 붙어 있는한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 일을, 말하지 않고는 못배길 그러한 놀라운 일을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 섬세한 얼굴은 투명하게 빛났고, 고통과 기쁨이 범벅이 되었다.

“나는 어제 밤에 옷을 입은 채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우리가 일하는 바라간 평원같이 넓은 큰 들판에 있게 되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꽃이 가득한 것이었어요. 공기는 찌르는 듯한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했어요. 그 향기는 마치 꿀짜기에 핀 백합같았어요. 그런데 내 딸이 거기 있는 것을 느꼈어요. 매우 넓은 데도 꼭 집같았어요.

나는 그렇게 많은 풀과 꽃을 한 곳에서 본 일이 없어요. 말벌과 꿀벌의 소리가 들렸고 나비들의 메가 온통 반짝거리며 나를 향해 오고 있었어요. 나는 영혼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지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장엄함이 한곳에 모인 것 같았어요.

한편에 서서 나는 한 여자가 나를 향해 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녀는 마음 속을 부드럽게 들여다보는 것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꿀짜기의 흰 백합 꽃다발을 내 손에 안겨 주었어요. 오, 그 향기는 감미로웠어요. 아직도 그 향기가 나를 떠나지 않아요. 그 들판의 한 가운데에서 솔로몬의 노래의 말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가시 속의 백합과 같이 딸 중의 나의 사랑도 그러하다.’

그리고 나서 깨어보니 내가 여전히 캐널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저 무서운 미친 경비원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5시에 철 막대기를 쳤을 때 나는 일어나서 나의 구세주를 기쁘게 영접하기 위해 목장에서 춤을 추는 것 같이 기쁜 마음으로 작업장으로 갔어요.

나는 아직도 들판의 꽃이 보이고 향기가 맡아지고 그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도요 나는 그 여인을 못 잊을 거예요.”

그 기억은 그녀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간직되었다. 그녀는 조그만 친절, 아름다움, 흔적과 기억들을 그분의 존재의 증명이라고 새로운 눈으로 보았다. 때때로 고난의 골짜기에서 쫓는 기억의 들들은 아름다웠다.

며칠 후에 얼었던 얼음이 풀리기 시작했다. 나는 막사의 처마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잠이 깨었다. 얼음이 덮였던 땅은 진흙탕으로 변했다. 검게 된 눈 조각들은 쌓였던 곳에 아직 있었지만 부드러운 바람이 그것을 침범하고 있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겨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가!

경비원들도 쾌활한 기분이었다. 그들은 소리치며 뛰어오는 개들처럼 우리에게 그리고 그들끼리 짓었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가벼운 산들바람은 기원을 알 수 없는 향기를 지니고 있었다. 아마 바다의 냄새 아니면 봄의 냄새겠지.

나는 다시 강나루의 작업장에서 일했다. 우리는 큰 들들을

집어들리기 위해서 물결에 큰 파문을 일으키면서 다뉴브 강의 부드럽고 검은 물 속으로 들어갔다. 큰 얼음 덩어리들이 뚱뚱 떠 지나갔다. 나의 손과 발은 감각이 없어지고 파랬다. 청명하고 파란 하늘의 큰 조각이 흰 구름 사이로 나타났다.

남자 경비원들은 수용소로 가고 오는 길을 열을 지어 갔다. 여자들이 보는 남자라고는 그들 밖에 없어서 야비한 우스개 소리가 그들 주위에 가득찼다. 오늘은 예전보다 더 심했다. 심술궂은 작은 창녀인 애니 스타네스크가 언제나 이 일을 시작하였다.

“저 피터는 고릴라같은 손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저 등에 검은 털좀 봐! 확실히 그는 발부터 머리까지 털로 덮여 있을꺼야. 누군가 볼 수 있다면 말야!” 제내다가 말했다.

“여기서 그것을 가지는 여자가 있다!” 애니는 입속 가득 있는 금이빨을 보이며 웃었다.

“어억!” 제내다는 세련되게 질색을 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끌릴지는 몰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 우리보다 더 구미가 안당기고 성적 매력이 없는 형제들을 상상할 수 있어? 나는 우리 모두 지독히 냄새가 날 것이라고 확신해.”

이 말에 대한 애니의 반박은 그녀 친구들로부터 웃음을 자아냈다. 더러운 말들이 왔다 갔다 했다. 아무도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지 못했다.

“우리의 작은 성자님은 음탕한 대화를 좋아하지 않으셔!”
애니가 소리쳤다.

우리가 일을 하는 동안 빈둥거리며 담배를 피우고 있던 경비원들은 나를 보며 기분나쁜 웃음을 웃었다. 나는 가만히 있었다. 그것은 물론 책망이었다. 그러나 악의적으로 잡담을 한 것이 아닌 애니는 그녀가 생각한 것보다 나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그날의 마지막에 우리는 힘들고 지친 몸으로 줄을 섰다.

“정열, 정열!” 하고 경비원이 소리쳤다.

우리는 트럭이 기다리고 있는 집합 지점까지 행진해 갔다. 질척한 땅은 강변을 따라 있다. 나는 피터라는 경비원의 눈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느꼈다. 추한 웃음이 그의 눈을 좁혔다. 그는 납작한 코의 얼간이같이 보이는 그의 동료들을 슬쩍 팔꿈치로 찔렀다. 그러자 그는 장화를 휘둘러 나를 진탕에 빠지게 했다. 여자 경비원들은 와 하고 웃었다.

손 하나가 펼치어 나를 끌어내었다. 진흙으로 미끄러운 채로 나는 피터의 손아귀 아래서 몸부림치고 소리질렀다.

“당신이 지금 필요한 것은 씻는 것입니다.” 그가 으르렁거리며 말했다.

“그 여자를 다뉴브 강에 쳐넣어라!” 여자의 목소리가 소리를 질렀다.

나는 다른 남자의 손이 내 몸이 닿는 것을 느꼈다. 한 사

람이 내 손목을 잡고 다른 손이 나의 발목을 잡았다. 나는 발을 버둥거렸지만 공중으로 던져져서 침빙 물을 튀기면서 물이 많은 얇은 곳에 떨어졌다.

나는 놀라고 얼얼했지만 아직 의식은 있었다. 얼음같이 찬 물이 나에게 쏟아져 내렸고 물살이 너무 세게 흘렀기 때문에 나는 바위에까지 휩쓸려 내려갔다. 급류가 내 주위에서 빙빙 돌았다. 득죽에서 고탄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내가 일어나려 할 때마다 급히 흐르는 물이 나를 쓰러뜨렸다. 나는 바위에 상처를 입어가면서 이리저리 뒹굴었다.

두 손이 나의 겨드랑을 붙잡아 끌어내었다. 나를 붙잡은 사람은 발을 헛딛어 물에 주저앉으면서 뒤로 넘어졌다. 그 후 나는 독에 널찍하게 누워 있었다.

누군가 나의 등을 때리며 일으키려고 했다. 나는 힘이 없고 아팠다. 처음으로 내 옆구리에 강한 통증을 느꼈다. 험기증이 다시 나를 눕게 만들었다. 아픈 느낌이 지나갔을 때 나는 잠깐 동안 강의 물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다. 이것이 천국을 흐르는 생명의 물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나는 그때 검고 축축한 수풀을 통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직 천국은 아니었다.

“괜찮아요. 일어나요!”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나를 내려다 보며 서 있었다.

“움직여요, 그렇지 않으면 얼어요.”

농부같은 얼굴을 한 젊은 경비원이 나를 일으켜 주었다. 털이 많이난 피터는 아무 데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긴 치마의 끝을 찌려고 했다.

“가요, 가!”

그들이 나를 밀었다. 나는 떨고 있었지만, 추워서라기 보다는 충격 때문이었다. 열은 몇 백 야드 앞에서 가고 있었다. 여자 경비원이 뒤에서 밀어 나는 절뚝거리며 그 열을 쫓아 갔다.

우리가 주 부대에 끼이게 되었을 때 여자들은 나를 향해 동정어린 눈초리를 던졌다. 우리는 트럭을 기다렸다. 털보 피터는 소리쳤다. “좋지, 차거운 복욕같은 것은 아무 데도 없어.”

나의 옷은 차갑고 끈적끈적했고 신발은 철벽철벽 소리를 냈다. 나는 몸을 움추리며 옆구리의 통증을 걱정했다. 통증은 더 심해지고 있었다. 트럭에 올라서 갈 때 트럭이 진동할 때마다 작열하는 찌르는 듯한 아픔이 나를 지나갔다. 흔들리는 트럭이 나를 매우 아프게 했다.

“저 짐승 피터!” 제내다는 분개해서 중얼거렸다.

어쨌거나 나는 막사로 돌아가서 젖은 옷들을 찼다. 나의 옆구리는 심하게 부었고 피부는 손과 다리가 벗겨졌다. 팔을 들기가 큰 고통이었다. 밤새 몇 분마다 나는 더 편안한 자세

를 찾으려고 했지만 어느 하나도 편하지가 않았다.

아침에 나는 크레체안느 의사를 보았다. 크고 노랗고 보라색이 나는 상처가 아프리카의 지도처럼 옆구리에 퍼져 있었다. 팔을 허리 위로 들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일에 지장없음!” 그녀가 발표했다.

다른 이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에요?”

감독 여자는 눈을 부라리고 있었다. 아마 나의 영향인 것 같았다. 나는 기절할 것 같았다. 나는 “나는 오늘 일하러 갈 수 없습니다. 너무 아파서 갈빗대가 부러질 것 같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털보 피터는 나를 주목하고 있었다. 그는 나의 손목을 잡고 옆에서 끌어 내었다.

“웬 말이야? 어제 규정량을 완수하지 못했으니 일을 해!”

그는 나를 빙 돌려 등에 흠받기를 지웠다. 열로 다시 들어갈 때는 끌려나온 것만큼 그렇게 세게 차임을 당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일하러 갔다.

나는 갈빗대가 두 개 부러졌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우리는 감옥에서 기적적인 치료를 많이 본다.

K 4 수용소 ; 여름

봄이 왔다. 돌 작업장의 길을 따라 자라는 빈약한 풀들 사이로 새 싹이 돋아났다. 오정 때 나오는 스프에 넣어 먹는 미지근한 물 속의 작은 달콤한 풀은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그 평야에는 비가 오고 또 와도 먹을 수 있는 풀은 쓴 잡초보다 귀했다. 그 바람 속에서 오직 거친 풀만이 살아남아서 스프의 맛을 망쳐놓아 손도 안가게 만든다.

풀을 먹는 것은 정치범들이 보다 좋은 것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금지되어 있다. 우리는 경비원들이 보지 않을 때를 틈타 소처럼 풀을 먹었다. 그리고 감시를 하면 더 빨리 석방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를 감시하는 밀고자들을 경계하였다.

개구리도 상당히 재미가 있었다. 그들의 날고기는 굉장한

진미였다. 개구리는 잡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나 모험적인 개구리가 작업장 안으로 뛰어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거기서 즉시 최고의 형벌을 받았다.

많은 개구리들이 강 옆에 산다. 밤이면 우는 소리가 들판 건너 몇 마일 저쪽에서 들린다. 나는 성경에 “개구리같은 영혼들”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했다. 나는 과거에 가끔 이 비유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당 구호를 끊임없이 개꿀대는 공산당이 왔다. “당 만세! 개꿀, 개꿀! 인민 공화국 만세! 개꿀, 개꿀! 제국주의자를 쳐부수자! 개꿀!” 그래서 나는 알았다.

뱀은 혼하지가 않았다. 살치고 파란 풀같은 것은 게걸스럽게 먹어치워졌지만, 일하는 데서 나는 소리가 그들을 놀라 도망가게 하였다. 몇 마리는 쓸데없는 숲을 깨끗이 하고 그곳에 토양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포아풀을 심는 일꾼들에 의해 잡혔다. 한번은 들 고양이에게 입에 풀뱀을 물고 뛰어왔다. 들 팔매와 삼을 이 놀란 동물에게 던졌지만 그것은 먹이를 포기하지 않고 도망갔다.

이 고기나 단백질을 먹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의 빈약한 스프 식사의 결과이다. 감자, 콩이나 양배추는 아무 도움도 안 된다. 비타민 부족증이 흔했다. 거의 누구나 설사로 애타고 피혈병과 이상한 피부병이 생겨났다. 절상과 타박상은 균이 묻어서 지름 4인치의 궤양이 다리나 발에 생겼다. 독은 조직 내부로 파고들어가 기진맥진하게 사람의 정력을 쇠하게 했다.

그러나 우리는 남자보다는 덜했다. 페닌슬라 수용소의 목사와 아이론 가르멘의 특별 감방은 다른 죄수들과 완전히 격리되어 그들은 더 오래 일하고 더 적은 음식을 받았다. 죄수의 재간이나 무모함에 따라 살아남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움직이는 것은 잡아먹었다.

“개는 정말 맛있읍니다.” 이 캠프에서 살아남은 목사가 확실히 말했다.

“그러나 솔직이 쥐는 권할 수가 없군요.”

미디어 수용소에서 노동 집단은 주로 나이가 많은 70대의 남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수레에 붙들어 매어져서 맨발로 일하면서 규정량을 절대로 채울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한번 규정량을 채우면 규정량은 더 올라간다. 그것은 하나의 몰살정책이었다.

자연히 죽지 않는 사람이 쓰러졌을 때는 흔히 맞아서 죽게 된다. “페닌슬라의 무덤은 수용소의 12배래요” 하고 우리는 말했다.

일의 규정량은 공산주의자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성경은 이집트의 유태인은 계속 올라가는 규정량을 채워야 하는 노예였다고 한다. 처음으로 그들은 벽돌을 만들기 위한 짚을 받았다. 그 다음에는 그들 스스로 그것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짚을 공급받지 않고 똑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어야 했다.

바로와 빨갱이와의 차이는 바로가 지구상에 착취 왕국을 시도하지 않았고 그것에 딱지를 붙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든 우리의 소식은 새로 오는 사람들로부터 조금씩 모아졌다. 어느 저녁 우리의 만원인 막사의 문이 20명의 여자들이려고 열렸다. 그들은 모두 길거리에서 잡히고 경찰 수색에 집에서 끌려나온 창녀였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사회 문제를 해소”하는 공산당의 방법이었다.

새로운 무리는 모두 같은 감옥에서 왔고 그들은 우리가 만난 여자들 중에서 가장 질이 좋지 않은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이제 비명소리와 때리기와 비열하고 음탕한 말로 등지를 내리기 시작했다. 작은 수녀들의 집단은 방의 저쪽으로 쫓겨났다. 정치범들은 낙관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설득하려 했다. 창부들은 그들의 어조를 흥내내면서 깔깔거리고 웃었다. 보통 죄수는 쓴 웃음을 지으며 바라보았다. 집시로서는 수녀들의 고민은 자신들의 잡담과 싸움과 노래의 작은 세계에 침범하는 다른 모든 것처럼 그들에게는 무관심한 것이었다.

많은 매춘부들의 입술에는 매독의 상처가 있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컵과 쟁반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의 공기는 냄새가 더 나는 것 같았다. 슬프게도 그들 중에는 마음도 몸과 같이 병들은 사람도 있었다.

쫓겨난 수녀들은 섬마을 주위에 물려 있는 새들처럼 갖없

는 전구의 빨간 불빛 아래 모여 있었다. 메리 수녀는 비오 12세 교황을 언제나 연상시키는 날카로운 코와 둥근 쇠로 된 안경의 금육주의적인 모습과 깨끗한 영혼을 가진 나이많은 수녀였다. 그녀의 어린애처럼 섬세한 기쁜 미소는 그것 자체로 보물이었다.

“육체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그만뒀 주었으면!” 하고 제 내다는 불평했다.

“그녀 자신이 걱정하는 것 같이 그렇지는 않아.”

그녀는 그녀의 작은 무리를 믿음 속에 지키기 위해 매우 고투했다. 그리고 매일 밤 매춘부들은 그들을 못살게 굴었다. 메리 수녀는 클레보의 성 버나드가 한번은 부주의해서 한 여자를 쳐다보았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는 자기가 한 일이 무서워서 얼어붙는 호수에서 목까지 잠그고 서서 그의 육체를 정화했다는 이야기였다.

“뭘 바라고 그랬지?” 매춘부들은 언제나 반 귀로 들었다.

“사람들 겁을 주려고 그랬지 뭐.”

그들은 길길거리고 팔꿈치로 치고 어떤 때는 할퀴기까지 했다. 늙은 수녀는 어린 수녀들이 경비원에게 눈을 드는 것(그들 중 몇 명은 젊고 멋있다)도 그들이 치명적인 위협에 있고 악의를 품는 것도 최악이며 눈을 성자에게로 돌리라고 경고하였다.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게 우습지 않아? 나는 그런 성자 못보겠드라. 나는 성자를 보긴 봤지만 사람들은 그런 속임수를 붙인다구. 주교를 알아요?”

그들은 드디어 주교를 기억해 내었다. 수녀들은 얼굴이 붉어졌다. 빅토리아라고 불리는 여자는 용모에서 풍기는 것처럼 여자 포주였다.

빅토리아는 주름이 많이 달린 장식으로 허리근처를 꼭 맞게 하고 위쪽은 부풀린 옷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그들을 변화시켰는지 아니면 그들이 그녀의 무서운 성격에 영향을 받았는지는 분명치 않았다.

“내가 매주 진찰을 받으러 가면(창녀는 국가가 관리했다) 경찰이 언제나 나를 줄에서 빼냈지. 정말 나는 큰 인물이었지. 지금은 너희들이 웃겠지만 말이야. 그리고 나를 밤이면 주교의 궁전으로 데리고 갔지. 그 늙은 점은 수염장이! 나는 남자애처럼 바지를 입어야 했어.”

그들은 주교가 짓궂었다고 증명했다. 그들은 돈도 많이 받고 이 세상 모두의 의견을 확실케 했다.

“정숙은 거울같은 것입니다.” 늙은 수녀가 시들은 손을 옆 사람의 손에 부드럽게 부비며 말했다.

“숨을 한번 쉬어도 그 표면에는 얼룩이 생깁니다. 악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망치게 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튼튼한 내구성 목재에서 깎아냈음에 틀림없다. 이것은 공격을 부르는 끈질긴 힘이였다.

“당신은 신부들에 대해 모르나 보군요.” 어린 소녀 하나가 이 비웃는 게임에 끼어 들었다.

“나는 그들 몇 명과 관계를 맺었어요. 그들은 여자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들은 전혀 자기들의 영혼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거울이더군요!”

“그래서 성 토마스는 천사가 약속한 정결의 선물을 크게 받아서 다시는 그것을 잃지 않고 다시는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가 생길까봐 여자보기를 피했습니다.”

매춘부들은 웃으면서 궁둥이를 쳤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고 고향을 지르면서 몸둥이를 맘대로 덩굴렸다.

“불쌍한 늙은 놈! 그건 참 좋은 약속이군! 그건 전혀 그가 기도한 것이 아닌데?” 하면서 빅토리아는 그녀의 배를 누르며 신음소리를 냈다. 모두들 다시 비명을 지르며 웃었다. 빅토리아는 그녀의 눈을 썩 닦아내었다.

“오, 우리는 네가 훨씬 다 들여다 보인다.”

누가 훨씬 들여다 보였건 간에, 메리 수녀는 더 깨끗한 것의 설교를 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모두 목주신공을 드립시다.” 그들은 같이 읊었다.

“마리아여, 마리아여, 주의 은총이 있으라.”

매춘부들은 같이 십자가의 성호를 그었다. 그들은 성스러운 모든 것을 조롱했다. 그러나 성호를 긋는 의례는 그들을 안전부절 못하게 했다. 혹은 그것이 그들에게 존경의 시작을 가져다 주었다.

목주신공을 드리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들은 이것을 끝나게 해주었다. 그러나 잘하게 한 것은 아니었다. 마치 성모 마리아가 그들의 정면으로 쳐다본 것과 같았다.

붉은 머리가 전선처럼 곱슬거리는 어린 소녀가 다시 한번 읊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리아에 대한 불경스러운 말이였다. 그러나 이렇게 고탈치고 반대하고 하는 것이 터진 것에 놀란 막사의 창녀들은 빨간 머리의 불경한 말을 쓴 창녀에게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우리는 전에 너희보다 더 날렸어.” 안네 스타베스크가 소리쳤다. 그리고 빨간 머리 얼굴의 여자를 때렸다. 그녀는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갈건지 이야기했다.

“질이 낮은 여자들이 있어” 하고 그녀는 덧붙였다.

매춘부들은 그들의 저질의 정도를 의심스럽게 생각하며 이 분노와 감정 폭발에 의해 잠깐 동안 진정되었다. 이 작은 화년 여자가 자기네와 같은 직업이라는 것을 안테 대해 조금도 당황해 하지 않았다.

안네는 종교가 그녀의 일을 방해하게 하지도 않고, 복음이

나 하나님과 가까운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녀 앞에서 아무도 성녀 마리아를 모욕해서는 안 된다. 그녀는 성모 마리아를 그녀 자신의 어머니로 생각하고 존경하고 옹호했다.

왜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에게는 감감한 사람들에게 이런 깊은 사랑을 불러넣을까?

창녀들은 도덕 기준을 상실한 채 일생을 산다. 그러나 나는 수녀들의 관점에 동의할 수도 없다. 그것은 간단히 인생을 압축해 놓은 것이다. 악한 것 속에 선한 것이라야 힘이 있다.

나는 히브리 말로 '케데사'라는 말은 창녀와 성스러움을 모두 뜻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성스러움이란 자기 영혼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을 인종이나 주위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사랑스럽게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케데사였다. 그러나 그녀는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남자 저 남자를 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에서 좋은 것을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주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은 그들이 더 높은 존재가 되는 것을 도우려 애쓰며 살고 죽는 것을 뜻한다. 사랑을 주는 비열한 방법은 소같이 육체의 한 조각에 집착하는 것이다. 육체는 썩어서 벌레에게 먹힌다. 그러나 정신적인 사랑은 영원하다.

창녀들이 놀린 주교를 나는 알고 있다. 그의 약함 때문에 그는 그를 구속한 공산당들에게 “나는 크리스찬의 생을 살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크리스찬의 죽음을 죽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 여인들이 조롱한 죄인은 이제는 천국에서 성도이다. 그는 고통을 받으며 죽었다.

이 그룹과 같이 온 두 소녀는 다른 제충이었다. 그들은 매춘부들에게 알려져 있었지만 그들에게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방의 저쪽 구석에 침대를 차지했다. 그들은 언니 동생으로 까무잡잡하고 예절을 갖추고 고요한 목소리를 가진 감정이 예민한 소녀들이었다.

슬픔과 신비의 영기가 이 자매를 둘러싸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꼬치꼬치 캐물어 보았는 데도 아무도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그다지 알지 못한다. 스스로 털어놓을 것을 기대했다.

빅토리아는 물을 묻혀 머리를 빗어 내리거나 정맥류의 진행을 보면서 말했다.

“어떤 애들은 왜 섞이는 지를 알지 못해.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은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 걱정을 친구에게 말하지 않으면 친구가 무슨 소용이야?”

그러나 19살인 다이아나와 17살인 프로레아는 빅토리아가 아마 직업적인 습관에서 계속 간청을 해도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런 불손한 태도는 빅토리아를 화나게 했다. 그녀는 통통하고 멧진 발로 다른 사람의 물건과 사람과 생각을

짓밟을 수 있었다. 그리고 외설적인 이야기에 웃고 장황하게 담배피운다. 나는 여자들이 경비원이 버린 담배 궤초를 가지고 싸우는 것을 보았지만 빅토리아는 자기 나름대로 출처가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 자매들은 압박받고 있었다. 만약 다이아나가 경비원이 말하는 나의 이름을 듣지 않았다면 나에게 여전히 신비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나에게 리처드 범브란트를 아느냐고 물었다. 나는 내가 그의 부인이라고 말했다.

“오,” 그녀가 말했다. 그러더니 빨리 “당신은 나를 무엇으로 생각하세요?” 하고 말했다. 나는 무슨 의미냐고 물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속세의 목사라고 말했다. 그는 곧잘 그가 「영혼의 양식」이라고 부르는 리처드의 책을 읽어주었다. 그는 믿음 때문에 병든 아내와 여섯 아이를 남겨놓고 투옥되었다. 다이아나와 프로레아는 가장 순위였다. 둘은 아버지가 감옥에 갔을 때 공장의 일자리를 잃었다. 그래서 가족은 기아에 직면하게 되었다.

실라뷰라는 젊은이가 하루 저녁은 그녀를 영화에 데리고 갔다. 그는 자기가 그녀에게 노동 인가를 받아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식당에 갔다. 식사 후에 다량의 포도주로 그는 그녀를 범했다.

곧 그런 일이 다시 벌어졌다. 이제는 더 이상 노동 인가에 대한 말은 없고 돈을 주었다. 가족을 돕기 위해 그녀는 그 돈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는 친구를

소개해주고 그들을 두고 떠났다. 이번에는 이 남자가 그녀를 범하려 하자 그녀는 화를 냈다. 그러나 그도 간절히 필요한 돈을 꺼내주었고 자기는 실라뷰의 제안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녀는 몸을 팔았다.

나중에는 실라뷰가 계속 대어주는 손님에 대한 수치도 없어져 버렸다. 그녀는 그 삶에 익숙해져 심지어는 공장의 고된 일보다 좋아하게 되었다.

나는 그녀가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미루어 다이아나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말을 그치고 내 얼굴을 살폈다.

“역겨우시죠? 내가 창녀라서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당신은 창녀가 아니라 죄수예요. 그리고 항상 창녀이거나 성인이거나 요리사이거나 목수일 수 없어요. 누구나 자기 자신이지요. 사람에게 붙어다니는 것은 오직 그 자신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것들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말함으로써 벌써 바뀌었다고 믿어요.”

그러나 다이아나는 안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막사의 좁은 침대에 손을 째 쥐고 절망과 죄로 긴장된 얼굴을 하고 앉아 있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사실을 털어 놓았다.

“나 혼자 뿐이라면 그리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동생을 나와 같이 만들었어요. 실라뷰는 그것을 제안했고 나는 나 혼자 그 가족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들을 서로 소개시켜 그 애를 그가 데리고 가게 만들었어요.”

곧 프로레아도 입문했다. 그리고 주된 어려움은 그들을 존경한 15살난 장남으로부터 비밀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도 종교를 믿고 날카롭고 예민한 성질을 지니고 있었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다.

“그는 파리 한 마리도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이아나가 말했다.

그러나 누나들의 사는 새로운 방법, 늦은 귀가 시간과 집 안에 갖고오는 돈으로 인하여 이웃에게 눈치가 채어지고 그러한 사실이 동생에게도 알려졌다. 이 충격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결국 정신병 수용소에 가게 되었다.

오래지 않아 아버지가 석방되고 아버지도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나는 하나님께 나를 다시 감옥에 보내 주셔서 다시는 너희를 보지 않게 해달라고 이 한 가지만 빌겠다”라고 말했다.

눈물이 다이아나의 얼굴에서 그칠줄 모르고 흘렀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어요.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더니 경찰에 고발당했어요. 밀고자는 나중에 이 혼인을 우리 장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군요. 그는 실라뷰였어요.”

그런 배반의 비극 앞에서 무슨 말을 하기란 힘들었다. 나는 결국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한 일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고통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신 곳에서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돼요. 그러나 이 고통과 죄의식이 당신을 빛나는 선함으로 인도할 거예요. 죄인은 쉽게 그리스도의 가슴에 들어가 용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다.

“부끄러움과 고통이요? 그래요, 나는 그것들을 알아요. 그러나 더 말할 것이 있어요. 나는 내가 한 짓을 언제나 싫어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나쁜 생각이 머리속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죠?”

다이아나는 도움을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고 결국은 도움을 받았다. 사람들은 완전한 영혼일수록 고통을 더 느낀다고 한다. 그녀와 같은 영혼이 절망 속에서 이런 색욕이 마음 속에 들어오는데 어디서 피난처를 찾을까 물어오는 것을 보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롭다. 누가 크리스찬 순교자의 딸인 다이아나를 심판하겠는가!

그녀는 가족의 생계를 잇기 위해 죄를 지었다. 아마 제일 큰 죄는 그녀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한 조각의 빵을

보내는 걱정을 안하려는 자유 세계의 크리스찬의 죄일 것이다.

봄의 낮은 길어지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황금빛과 주홍의 황혼이 다뉴브 강물에서 서쪽의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일하러 가는 행진이 즐거움이 되었다. 새기풀과 어수리가 축축한 풀냄새를 풍기며 도랑에서 나왔다. 땅은 검고 물이 흐르게 되었다. 나무는 용감하게 빛나는 새 잎파리를 달았다. 만지고 싶도록 그렇게 작았다.

부드러운 공기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다. 빛, 잎사귀, 풀, 해, 모든 것이 비치고 있었다. 우리도 조금 바뀌지 않을 수 없었다. 새로운 우정이 만발했다.

마리아는 이른 아침의 햇살 속에서 여학생의 꼬는 머리같이 자기 머리를 꼬고 있었다. 자기 자신을 냉소적이고 강하다고 생각하기 좋아하는 교사인 플라 베루가 그녀를 도우며 책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마리아는 흥미로 눈이 밝아져 이번 겨울과 저번 겨울에 대한 질문을 했다.

제내다와 클라라는 떨어질 수 없는 친한 사이로 전시 전의 오페라 밤에 입었던 가운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왕족이 참석한 파티와 모자와 단에 대한 말다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누구나 더 사랑하려 하고 될 수 있으면 상처를 주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규정량 검시원 한 사람의 비난으로 나를 놀라게 했다.

“범브란드는 자기 자신을 지켜서 친구를 사귀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은 모두 친구예요” 하고 나는 말했다.

그 여자는 화가 났다.

“당신과 당신의 똑똑한 말씀 말이에요?”

나는 그것이 사실인가 생각했다. 나는 남들을 도우려 했다. 어떤 여자는 내가 마치 하늘나라에서 온양 과장된 방법으로 반응했다. 또 어떤 사람은 당황해서 내가 흑심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루마니아에서는 크리스찬에게 침투해서 그리스도교를 없애려는 유대인의 음모가 있다고 널리 믿겨지고 있었다. 나는 유대인으로 아마 그 음모에 속한 줄 알았나보다.

그러나 나는 정말로 친한 한 친구를 가지고 있었다. 처음 우리를 맺어준 것은 말이 아니라 침묵이었다. 수녀들까지도 한숨쉬고 불평할 때 그녀는 침묵을 지켰다. 그것은 그 옆 사람의 이야기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했다. 나의 눈은 밤에 옷을 고치려고 앉는 그녀에게 머물렀다.

그녀는 얼굴을 들어 나의 시선과 고요히 마주쳤다. 혹은 작업장에서 일하며 나는 그녀가 가까이 있는 것을 느꼈다. 우리 사이에는 실이 있었다. 그녀는 30대 초반이었다. 작고 검었으며 깊고 친절한 검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정말 확신했어요!”

그녀는 웃으며 도전하는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당신이 우리들 중 한 사람인가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나는 웃으며 매우 즐거운 느낌이 들었다.

“형기가 오래 남았어요?”

“아뇨, 12년 밖에 안남았어요.”

“밖에? 걱정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석방시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여기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다면 여기 머무르겠어요.”

다일 부인은 호자의 아내였다. 그녀는 “크리미아 원조”라는 단체에서 일했었다. 그 기관은 나치의 점령 중 그 지역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것이었다. 파시스트 관련으로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구속되어 투옥당했다.

한번은 K4 수용소의 사령관이 그녀에게 왜 거기 왔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설명하려 했지만 사령관은 크리미아를 들어본 적이 없다.

“크리미아를 말하는 거겠지 당신은 한국을 돕고 있었군요.”

다일 부인은 다뉴브의 한 섬인 아다-카레에서 왔고 그녀는 많은 크리스찬 중에 끼어서 안심했다. 카톨릭 신자와 재림론자와 여호와의 증인과 전신론자는 모슬렘 신앙의 결점을 설명했지만 그녀는 반박하지 않았다.

“마호메트는 알 아인으로 믿음이 깊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말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녀는 대

답했다. 그녀는 주님의 기도에 찬성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마음에 너무 연약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져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인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생활에서도 그녀는 모든 먹는 것을 씻고 돼지기름으로 만든 스프갈다는 의심이 들면 스프를 건드리지도 않았다. 정통파 유태교 여인들은 이 법칙을 따랐다.

“미신같은 편견이야.” 포라가 말했다.

“200년 전에 아마 이유가 있어서...”

그러나 이 여인들의 종교에 대한 헌신은 그들의 존경을 샀다. 죄수들은 그들에게 음식을 같이 나누자고 그러지만 포라에게는 그러지 않는다.

그렇게 많은 종파와 종교를 가지고 우리는 종교적인 논쟁을 했다. 그러나 예전의 악의는 대부분 없어졌고 적어도 여자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이해가 일어났다. 바깥에서는 싸움 없이는 세상을 나뉘가질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막사 번기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나누어 가졌다. 우리는 자매였다.

바라간 평원

캐널 계획에 실수가 있었다. 둑이 더 높이 세워지고 토질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뿌리 작물이 심어지지 않으면 다뉴브 강물이 관개 둑을 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채석장에서 들판으로 가서 한 여름에 땅을 파고 팽이질을 했다.

8월의 해는 바라간의 넓은 평원 전체를 내려쬐었다. 우리는 5시에 일어나서 점호를 하기 위해 서둘렀다. 팽이와 삽이 나누어졌는데 그것들 대부분은 낡은 것이었다. 그리고 긴 뱀 모양의 열이 불기둥처럼 흰 먼지 구름을 끌면서 출발했다.

그녀는 지하교회에서 나의 가장 친한 친구와 협력자가 되어 있었다. 이제는 통솔자의 한 사람이다. 그녀는 나와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규정량을 채워주었다. 우리는

같은 날에 태어난 것을 알았다. 생일날에 선물로 우리는 생 감자를 주고 받았다.

파세리의 넓은 들판이 우리 앞에 수평선까지 떨어져 있었다. 날이 지날수록 더워졌다. 나무는 흐늘거리는 공기 속에서 떨었다. 마차 하나, 사람 하나 나타나지 않았다. 500명의 고투하는 여인들의 줄만이 땅 위에 길게 이어졌다. 우리 뒤에서 경비원들이 지루한 듯 고향쳤다.

“떠들지마!”

“더 빨리 해!”

“야, 당나귀 울음소리로 듣지마. 이건 경비원의 명령이야. 움직여!” 그들은 고향치며 줄을 지나다녔다.

제내다는 “여름을 기다리던 때도 있었지” 하고 말했다.

우리는 이글이글 타는 햇빛 속에서 어쩔어쩔하게 일했다. 그림자 한 조각도 없었다. 나는 용의 말을 기억한다. “노예는 그늘을 간절히 바란다”

여학생인 마리아 킬레아는 우리 옆에서 더러운 땅에 가냘픈 햇빛에 탄 팔로 곡괭이질을 했다.

“너를 그대로 놔둘 수가 없구나.” 제내다가 험뎝이며 말했다.

“내 곡괭이로 해봐, 이게 좀 낫다”

“아니예요. 물집만 새로 만들 꺼예요”

“당신이 써봐요, 범브랜드”

그렇게 우리는 정중하게 다투었다. 여학생과 사회 여성과 목사의 부인이었다. 경비원이 으름장을 놓으며 다가왔다. 그리고 지나갔다. 마리아는 제내다의 즐거웠던 인생을 듣기를 좋아했다. 식사와 경마회와 자선 만찬같은 것을 말이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을 그때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독감방에서 있는 동안 나는 친절한 미소 하나가 그 모든 것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또 다른 100야드를 폭풍이 질했다. 땀과 흙과 먼지가 범벅이 되어 얼굴을 흘러내렸다. 바레리아는 고대의 비극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계속했다.

“독감방에서 나는 꿈을 꾸었어요. 공산당 고문관이 내 목욕조에서 목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군관들도 그렇게 하려고 목욕실의 문에 줄을 서고 있었어요. 나는 발가벗은 남자에게 ‘거기서 나오세요. 거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라고 말했더니 그가 ‘나는 당신들 크리스찬은 마음 속에 작은 샘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더러워서 그곳에 들어가 깨끗해져서 나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는 욕조를 나왔어요. 그의 벗은 몸은 이제는 눈보다 더 희었어요. 그리고 사랑스런 얼굴이었어요. 이제는 나를 때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더니 다른 사람들이 옷을 벗고 탕 속에 들어갔어요. 이 꿈을 꾸다 깬어요. 나는 꿈 속에서 목시를 받았어요. 누구나 크리스찬의 삶에 들어가면 그곳이 그의 이미지가 깨끗해지고 미화되는 곳이라는 것을 발견했죠.

우리는 그를 이해해요. 그는 틀림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죄를 졌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는 영원한 사랑받는 존재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를 기분 좋게 했다. 그리고 그 말에는 다른 사람에게 계속 희망을 갖게 하는 성스러운 사명이 있었다.

넓은 평원에서의 시간은 매우 늦게 지나갔다. 거칠게 숨소리를 내며 혀는 감각을 잃었다. 우리는 한 가지 동작만 할 수 있는 기계 부속품처럼 꼭깡이질을 했다.

“보여?” 목소리가 열 밑에서 났다.

“곧 올꺼야.”

그러나 급수 트럭은 오지 않았다. 불병을 가지고 다니는 경비원들까지도 수평선 쪽을 초조하게 바라보았다. 급수차는 늦게 왔다. 그들은 소리치고 열을 행진시키느라 목이 쉰 채로 한숨돌렸다. 우리는 등을 떨 수가 있었다. 그것은 구원이었다.

“빨리 물을 마시지 않으면 기절할 것 같아요.” 마리아가 창백해 보였다.

“기절하지 마세요. 맛을 꺼예요.”

해는 더 높이 올라왔다.

일을 할 때 나는 미하이를 생각했다. 나는 그의 작은 몸

집과 야위고 눈물많은 얼굴을 그려보았다. 공산주의는 젊음을 빼앗아가기를 좋아해서 그들은 그도 빼앗아갈 것이다. 만약 그들이 그를 친절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나?

캐넌의 어머니들의 입에서는 얼마나 많은 절망적인 기도가 나왔는지 모른다. 나는 고함소리에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한 여자가 기절했다. 경비원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고 그녀를 때리고 있었다. 그녀는 생선처럼 그들의 팔 안에서 퍼덕거렸다.

마리아는 두려워서 흠을 더 빨리 긁어 모았다.

“마리아 저것 봐! 급수차야!”

짐은 점 하나가 멀리서 길을 오고 있었다. 들판은 목마른 목소리들로 웅성거렸다.

“입 다물고 일해!” 경비원이 소리질렀다.

급수차는 아침 내내 햇빛에 나와 있었다. 물은 우리에게 닿을 때 썸이면 신선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끌고오는 말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그것이 마치 지독한 더위를 용해시킬 수 있는 신기루같이 바라보았다.

“나는 찬 얼음물을 12잔쯤 마셨으면 좋겠다.” 제내다가 말했다.

“기름많은 폭찹과 산더미같은 과일, 오렌지, 포도…”

“그만둬!” 하는 고함소리들이 들렸다.

죄수들은 계속 경비원의 눈을 피해 빠져나와 들판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다. 파리와 똥파리가 있는 곳에 생기는 설사 병이 수용소에 허다했다. 많은 사람이 감염되었다. 그들의 수족은 막대기처럼 야위었고 피부는 누렇게 떴다.

우리는 해가 뜬 이래로 아무 것도 먹거나 마시지 못했다. 지금은 정오가 지나 있고 용광로같은 평원 위에 있다. 8 시간 동안 일한 것이다. 경비원 한 명이 오는 급수차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자 또 서더니 돌아섰다.

“급식 트럭이에요” 하고 제내다가 우는 소리를 냈다. 여자들은 화가 나서 증얼거리기 시작했다. 평 죄수들은 연장을 집어던지고 고탄치기 시작했다. 경비원들이 총을 꺼내었다.

소리지르는 여자들의 무리는 그들을 위협했다. 한 명이 한 방에 20명을 죽일 수 있는 기관총을 발사했다. 마리아는 어깨에 얼굴을 파묻었다. 10분 동안 그렇게 대치했다. 여자들은 일을 시작하기를 거부했다.

“물! 물을 달라!” 그들이 되풀이해서 소리쳤다.

총이 우리의 갈비대 속으로 밀고 들어왔다. 우리는 평 죄수들 속으로 들어가 한 무리가 되었다. 팔의 결박과 수갑이 화난 무리를 후퇴시켰다. 나는 마리아를 꼭 붙들었다.

이제 급식차가 그곳에 도착했다. 그러나 우리의 반란 소동을 보고 놀란 마부가 부주의하여 그는 고삐를 잘못 잡아당겨 마차가 바위를 쳤다. 그러자 말이 방향을 바꾸어 잠깐 동

안 마차는 뒤뚱거렸다. 경비원은 소리질러 그것을 구하려 했다. 말이 뒷다리로 섰다.

통들이 넘어졌다. 50파운드의 마카로니가 흐물흐물하게 땅에 엮질러졌다. 분노의 함성이 일어났다. 물, 경비원, 더위 같은 것은 다 잊었다.

여자들은 차단선에 돌격해서 그것을 깨고 마카로니 위에 덮쳤다. 그들은 끈적끈적한 것을 한 움큼 쥐어 입 속으로 틀어넣었다. 그들은 밀리고 밀치고 싸웠다. 다른 여자들은 이 무서운 광경을 공포에 떨며 바라보았다. 자네트는 야윈 몸을 흔들어가며 너털웃음을 웃었다.

“만찬이구나.” 그녀가 험뻑거리며 말했다. 그리고 자기 손을 머리에 대었다. 경비원들은 안심했다. 위험이 지나갔다.

한 시간 후에 호르라기가 불고 우리는 다시 일했다. 그날은 물이 오지 않았다. 오후에 보안경찰의 두 트럭분의 짐이 도착했다. 일을 할 때 나의 눈 앞에 어둠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혀는 매우 크게 생각되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서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했다.

“목이 마르다.”

지옥에는 물이 없다. 나는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십자가 상의 칠언”의 ‘목이 마르다’ 부분의 피치카토를 기억했다. 그는 입술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느끼신 듯한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의 환상을 나타내려 하였다. 나는 그런 환상도

가지지 못해서 부러웠다.

황혼 무렵 우리는 드디어 돌아가기 위해 행진하러 집결했다. 수용소 문에서 한 마일쯤 덜되는 곳에서 우리는 웅덩이의 물을 지났다. 여자들은 저마다 무릎을 꿇고 손을 짚어 썩은 흙탕물을 마셨다. 경비원 한 명이 그들을 제지하기 위해 세워졌다.

다음 날 심문이 시작되었다. 우리의 반역이 일요일에 과외의 벌 노동을 불러들였다.

“이곳은 건강 유원지가 아니예요” 하고 수용소장은 말했다.

“친구들, 파벌 싸움이 절정에 달하고 있어요!” 포라가 우리의 주위를 끌었다.

“루마니아에는 낙관론자와 비관론자 이 두 파벌만이 남았어요. 낙관론자들은 모든 루마니아인들이 시베리아로 수송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관론자들은 걸어가야만 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제는 웃고싶은 사람도 없었다. 여자들은 매일 들판에서 쓰러졌다. 밤이면 질식할 것 같은 막사의 열기에 완전히 기진맥진한 태도로 반쯤 벗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우리는 기상신호가 울릴 때까지 쪽 뺨고 누워본 일이 거의 없다. 잠이 중간에 깨지지 않는 날이 드물었다. 한번은 포라가 내 팔을 흔드는 바람에 깬다.

“그들이 다이아나를 때렸어요. 빨리 와요. 굉장히 심하게 다쳤어요.”

그 소녀는 맨 바닥에 의식이 없는 채로 무겁게 숨을 쉬며 누워 있었다. 코에서 피가 흘렀고 머리카락은 엉키고 끈적 끈적했다. 입술은 퉁퉁 부었다. 우리가 옷을 벗겨보니 몸이 잔인하게 상처입고 있었다.

“이 경비원 놈들! 무슨 놀이를 하고 있는거야?”

포라는 떨고 있었다. 다이아나가 신음하면서 몸을 뒤척이더니 눈을 떴다.

“괜찮아요. …나는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는 그녀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그녀는 몸이 조금 회복하자 창녀 두 명이 그녀를 막사에서 끌어내어 경비원 두 명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고 설명했다. 19살의 그녀는 아름다웠으며 그녀의 수줍음은 그들을 더욱 흥분시켰다. 그녀는 굴복하려 하지 않았다. 드디어 그들은 그녀를 제일 가까운 막사에다 던져놓고 도망갔다.

우리는 우리 담요를 그녀에게 덮어주었지만 그 속에서도 그녀는 떨고 있었다. 포라와 나는 날이 밝을 때까지 속삭여 이야기하며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저애는 매우 지적인 얼굴이에요. 선생이었을 것이 틀림없어요.” 포라는 언제나 동료정신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학생이었었고 일생 동안 선생님을 했다.

“나는 수업을 하는 꿈을 꾸어요” 하고 그녀는 가끔 말했다.

“들러 앉은 얼굴들이 내가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내가 기둥이 있는 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보이고 학교에서 있었던 모든 소리를 들어요.”

그녀는 소설을 써서 작가 연맹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녀는 ‘해방절’ 기념일인 8월 23일 작가들 사이에서 행진했다. 그녀는 시인 미하이 베니크와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서방 세계를 모독하는 책을 출판한 작가들로 판명된 소설가들을 몇 명 알았다. 공산당 선전은 그녀가 쓰는 모든 것이 ‘진보사회주의’에 속한다고 했다. 진보사회주의란 직선적인 선전을 하거나 현세와는 동떨어진 주제를 쓰는 것을 말한다.

포라는 ‘영명하신’ 스탈린을 찬양하는 노래들은 어리석었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보내는 전쟁 찬송가들도 그리 다를 바가 없어요.”

나는 “차이는 하나는 만물의 창조자를 찬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십 만 명을 죽인 병적인 사람을 두둔한 것에 있어요” 하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구속당한 이유를 물었다.

“나는 역사 교과서의 조작에 대한 현명치 못한 발언을 했어요. 그들은 러시아인들이 원하는 대로 역사를 고쳐쓰는 사

람을 선택하고 있어요.”

“시인들은 모두 속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소설가는 대우를 잘해줘요. 우리는 특권이 있었고 높은 보수를 받고 휴일을 즐길 수 있고…”

“그러나 높은 보수는 쓰고싶지 않은 것을 쓰는 데 대한 보증이죠. 예술과 종교는 똑같이 억압당하고 있어요. 그들은 오직 지하에서만 살아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밤이 다가도록 논쟁했다. 죄수들은 잠을 자면서 중얼거리고 찡그렸다. 아버지, 연인들, 친구들의 이름을 중얼거리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제일 많이 들리는 것은 “엄마!” 하는 소리이다. 나이와 계급은 그 의미를 상실하고 절망 속의 영혼이 그 속에서 옛날 부르던 소리를 속삭였다.

이것은 부모들에게 대한 단순한 애착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 존재하는 엄마같은 보호와 영원한 여성의 부드러움에 대한 부르짖음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그의 성모를 말진 복음주의자 세례 요한의 환상을 기억했다. 그것은 그의 발 밑에 해와 달로 옷을 입은 한 여인 즉 하늘나라의 기적을 보게 된 것이다.

나는 수용소 부소장 앞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녀는 심하게 화상을 입은 팔과 크고 광채나는 이를 가진 얼굴이 붉은 여인이었다. 그녀의 제복은 사슬 갑옷처럼 그녀의 행동을 거치

적거리게 했다.

“당신은 죄수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설교했지요. 중단해야 합니다.” 그녀가 경고했다.

나는 어떤 것도 그것을 그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화가 나서 그녀는 주먹을 들어 나를 때렸다. 그러더니 때리던 것을 그치고 바라보았다.

“왜 웃고 있지요?” 분노로 얼굴이 정말 푸르락 누르락 해져서 물어보았다.

“내가 웃고 있다면 내가 당신 눈에서 본 것 때문입니다” 하고 나는 말했다.

“그것이 무엇이요?”

“내 자신입니다. 누구든지 딴 사람에 가까이 가면 그 사람 눈에서 자기를 볼 수 있습니다. 나도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곧잘 화를 내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우기 전까지는요. 그것은 사람이 진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래로 나의 손은 주먹을 쥐지 않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려졌다.

“당신이 내 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 당신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들로 변하는 듯이 표정이 굳어지더니 빠른 어조로

“가보시요!” 하고 말했다.

나는 가끔 빌라도가, 그의 부인이 그에게 정직하고 의롭다고 표현한 예수님의 눈을 들여다보지 않았나 의아해 했다. “그리스도는 빌라도 아래서 고난받으셨습니다…” 하고 크리스찬은 어디서나 말한다. 또한 이 두 이름은 전 세기에 걸쳐 항상 함께 불어다닌다.

나는 계속 죄수들 사이에서 그리스도를 간증했다. 부소장은 간섭하지 않았다.

우리가 들관에서 곡괭이질할 때 마리아는 자기 옆 사람과 자리를 바꾸어 내 옆의 열에서 마주보고 일했다. 한번은 경비원이 거의 눈치채었다. 그러나 마침내 그녀는 옆에 와서 도움을 주었다. 경비원이 우리가 속삭이는 것을 보았다.

“일하시오!”

우리는 격렬하게 곡괭이질을 했다. 그러나 그날 아침 나는 몸이 안 좋았다. 현기증이 나로 하여금 작업을 자주 멈추게 하였고 매번 허리를 곧게 세우려 할 때마다 경비원이 소리쳤다.

“너는 오늘 캐서감이다.”

검은 파상들이 나에게로 밀려왔다. 마리아의 목소리가 먼 거리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나는 정오까지 내 발로 서서 겨우 견디었다. 냄새나는 멀건 스프를 마시고 빵을 조금씩 뜯어먹었다. 그러나 오후에는 기절하고야 말았다.

타는 듯한 해가 하늘에서 빙빙 도는 것 같았다. 그러자 나는 마리아의 얼굴과 어둠의 씬에서부터 조용히 소리치려는 듯이 보이는 그녀의 입의 움직임을 보았다. 경비원이 내 발을 잡고 끌었다. 내가 질식할 때까지 물을 목에다 부었다.

“그 여자는 괜찮아요.”

그들은 마리아에게 “멍청히 서 있지 말고 어서 일해!” 하고 욕을 했다. 그러더니 다리를 딱 벌리고 섰다.

“놀라게 하시네” 하고 그녀가 말했다.

나는 내 자신을 놀라게 했다. 신자에게 있어서 기절에는 특별한 놀라운 것이 몇 가지 있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면 완전히 의식이 상실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영혼의 존재를 별개의 영역으로 의심하게 한다. 이것은 죽음의 생각보다도 더 무서운 생각이다. 조만간 그것이 꿈이 없는 잠보다 더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왜 영혼은 언제나 자기에게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물으면서 의식하고 있어야 하는가? 자기 자신에게 언제나 실존한다고 말해야 한다면 그것은 빈약한 실존이다.

우리는 뿌리가 단단하게 박힌 잡초들을 뜯으면서 일하려 갔다. 무자비한 해는 온통 우리의 힘을 시들여 버렸다. 나는 거의 폭풍이를 잡을 수 없었다.

오후 늦게 먹구름이 수평선 위로 쌓였다. 일이 끝나는 호

트라기가 붙어졌을 때 하늘은 낮고 무거웠다. 몇 주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를 바랬다.

우리는 수용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낡은 화물 트럭이 우리를 도로 데려가기 위해 길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무리지어 들어갈 때 번개가 치고 첫번째 따뜻한 빗방울이 우리의 위를 향한 얼굴에 맞았다. 비는 평원에 벽을 치듯이 왔다. 순식간에 우리는 흠뻑 젖었다.

“사랑스런 물!” 하고 마리아가 소리쳤다. 그러나 사랑스런 물은 마치 거대한 육조가 기울어진 것처럼 계속 내렸다. 천둥의 뇌성이 하늘을 찢었고 번개불이 여자들을 놀라게 했다. 트럭은 브레이크를 전체 미끄러져 섰다. 뒷 바퀴가 진흙탕에 푹 잠겨 있었다.

“자 나오시오, 빨리!”

“나무를 가져와!” 경비원들이 의논하고 결정했으나 거기에는 아무 나무도 없었다.

폭포같이 쏟아지는 기세에 우리는 무릎까지 물이 차 트럭에 등을 대고 밀어 올렸다. 남자들은 보고만 있었다. 바퀴가 진흙 속에서 회전했다.

트럭은 계속 그곳에 있었다. 한 시간 동안 헛 고생을 했더니 경사는 우리에게 걸어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발에서 철벽 철벽 소리가 나고 옷은 들러붙은 채 우리는 빗속을 터

덜터덜 걸어갔다. 경비원은 머뭇거리는 여자들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드디어 창백한 유명들의 누더기진 열이 문에 닿았다.

“65명 복귀 보고!” 경사가 소리쳤다.

축축한 죄수들은 막사로 들어가려고 야단들이었다. 몇 명은 즉시 부엌노동을 해야 한다. 그 나머지는 옷을 말리고 자려 했다.

인간의 마음이란 참 묘하다. 잠들기 바로 전에 내 머리 속에 리차드가 언젠가 한번 말한 적이 있는 농담이 생각났다. 한 사람이 불평하는 것은 무익하다고 결정했다. 그는 미래에 최고가 되기로 했다.

마차에서 바퀴 하나가 떨어졌을 때 그는 “걱정할 것 없어. 택시들은 바퀴가 들인데 나는 세 개를 가지고 있으니 나는 부자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두번째로 바퀴 하나가 또 떨어져 나갔다. “무슨 걱정이야, 손수레는 바퀴가 하나인데 나는 둘이야.” 또 하나의 바퀴가 떨어져 나갔을 때 “썰매는 전혀 바퀴가 없는 데도 잘 나가지” 하고 말했다. 마지막 바퀴마저 잃자 그는 “나는 언제나 썰매 끄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하고 즐겁게 환성을 질렀다.

나는 웃으면서 잠이 들었다.

시간은 그대로 서 있었다. 노예 신분이 우리의 전체 삶이

었고 캐널이 우리의 세계였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절망적으로 받아들이게끔 완전히 지켰다. 외부로부터의 소식도 변함이 없었다. 배고픔과 출서기와 압박, 그리고 영원한 것은 “미국인들이 오고 있어요. 그들은 당신들을 노예살이 시키지 않을 거예요” 하는 것이었다.

낙담은 작업 수준이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작업 능률을 올리려는 이상한 책략이 실행되었다. 20명의 여자가 열에서 뽑혀지고 “당신들은 여기서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으로 당신들은 석방될 것입니다”라는 말을 들었다.

수용소장이 연설을 하였다.

“시원 섭섭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위해 같이 투쟁해왔고 이제 우리 노고의 결실을 나눌 때가 왔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자유입니다. 작별의 선물로 모든 사람에게 과외의 빵 한 덩이씩 더 주겠습니다.”

20명의 영웅들은 붉은 기를 흔들고 공산당 노래를 부르며 트럭 뒤쪽에서 상체를 내밀었다. 그러한 그것은 또 다른 하나의 속임수였다. 그들은 캐널로를 10마일 가서 다음 노동단에서 멈추어 다시 일하게 배치되었다.

K4 수용소에서 노동량에 대한 효과는 전격적이었다. 그러나 이 슬수는 다른 수용소에서도 행해져 곧 우리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 차

어느 날 아침 기상신호 직후에 경비원들이 급히 들어왔다.
“모두 한 시간 안에 이동준비 하도록!”

두 셋으로 가르는 것이 아니다. 전 수용소가 동작이 기민해졌다. 여자들 수백 명이 자기 보통이를 준비해 가지고 병아리들처럼 모여서 서로 다시는 못보게 될 것처럼 친구들을 껴안고 하였다. 경비들의 불안함이 긴장을 더하게 하였다. 그들도 우리보다 좀 더 아는 사실이 없었다.

미국인들이 철의 장막을 뚫었다. 러시아가 베를린을 점령했다! 우리는 총살을 당할 것이다!

“이건 신발두 아니야!” 하고 제내다는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신발이 처음으로 제공되고 있는 중이었다. 그 신발들은 사이즈나 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막사장이 마구 마차에

서 꼬집어 낸 것이었다. 나는 발이 세 개는 들어갈 만큼 큰 신을 얻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 상자와 보통이가 쌓이고 여자들은 기다리면서 줄을 늘어서 있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각자의 생각으로 점을 쳤다. 죄수 생활은 하나의 큰 기다림이고 이번에 우리는 트럭이 출발하기 전에 어두워질 때까지 어슬렁거렸다. 우리는 집합소로 차를 타고 갔다.

K 4에는 아무 소동도 없었다. 철도의 측선은 몇 명의 철도인을 제외하고는 황폐해 있었다. 그들은 전에 이런 것을 실컷 보았다. 기차는 화차와 길고 검은 죄수들이 탄 객차로 이루어져 있었다. 모든 객차는 꺾차 있었고 높이 달린 창문은 철 창살로 덮여져 있고 문은 무거운 미닫이 문이었다. 보기에 유개 화차였다.

“움직여! 다 안으로 들어가!” 기차 경비원은 이 일에 전문가이다. 그들은 쉬운 숫자에 엉성해보였다. 그들은 K4 경비원들이 우리들을 밀어 집어넣게 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거의 설자리도 없었다.

“더 이상 못참겠다!”

“하나님, 우리 질식해 죽어요.”

그러나 40명 수용의 객실이 84명이 될 때까지 자꾸 자꾸 밀려 들어왔다. 큰 미닫이 문이 드디어 닫히고 빗장이 단단하

게 채워졌다. 기차는 우리를 넘어뜨리면서 출발하고 달리면서 걸쇠가 진들진들거리며 소리를 내었다.

우리의 객차에는 의자가 약간 있었다. 그중 하나에 변소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물도 없고 종이도 없었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한 불평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에는 뚜껑도 있었다.

여자들은 밤새 본격적으로 싸우거나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도 울었다. K4 수용소의 바람 새는 막사가 이제는 고향이 되었다. 그리고 소문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의 대사형을 예언하고 있었다. 우리는 기관총으로 총살을 당해서 우리가 이전에 파놓았던 무덤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차라리 그게 낫지 하고 소박한 마음들은 중얼거렸다.

그러나 프로에스티에서 온 자신만만한 여자는 당당한 기세로 아니라고 하였다. 우리는 겐세아 이동 수용소로 들어가 곧 석방될 것이다. 그녀는 안나 포커가 권력을 잃어서 당이 개편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기차는 추측으로 떠들썩했다. 흉악한 안나가 자기 스스로 쓴 맛을 보다니! 그것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누구나 즐거워했다. 우스개 소리를 누가 말했다.

“얼룩말 사이에 있는 것과 공산당 사이에 있는 것과 뭐가 다르게? 얼룩말은 줄이 몸에 있고 공산당은 줄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앉을 공간을 찾기는 힘들었고 눕기는 불가능했다. 우리는 틈틈이 졸다가 벽돌 깨뜨리는 소리에 깨었다. 졸다란 창문 바깥은 어둠 뿐이었다.

천천히 가을 풍경이 나타났다. 소들은 풀밭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빈 바라간의 평원을 오랫동안 본 후에 보는 이 가축들은 희망을 주었다. 나무들은 벌써 잎이 다 떨어지고 검은 가지들은 애원하는 듯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유가 있는 농부들은 검은 땅 위에 분노를 뿌리고 있었다. 세 명의 작은 소녀들이 몇 백 명의 여자를 울게 하는 줄도 모른 채 손을 자주 흔들었다.

기차는 루마니아를 횡단해 북쪽으로만 증기를 뿜으며 갔다. 한 시간 뒤에 간이역에 도착했다. 문이 밀리고 빗장이 덜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경비원 몇 명은 손에 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다른 몇 명은 기관총을 들고 서 있었다. 그러나 제복을 입은 명랑한 청년은 짐승에다 물을 주는 것처럼 그들의 고향소리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빵은 없었다.

기차가 움직이자 사색을 다시 시작했다. 집시들은 언제나처럼 자기들끼리 알아들을 수 없게 지껄였다. 집단 농장에서 온 농부 여자는 벌써 소와 아이들을 잃은 것을 기억하고 슬퍼하는 것을 포기했다.

그곳에는 낯익은 사람이 몇 명 있었다. 매를 맞으면서도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헬레나 코리유와 명랑한 성격의 작은

몹집의 창녀인 안네 스타에스크와 마리아 킬레아가 거기 있었다. 그러나 제내다와 클라라 스트라우스와 크라니 아포스틀과 콜로넬리아 마리네스크는 없었다. 나는 그들이 기차를 탔는지도 몰랐다.

내 결의 아마츄어 정치가는 미국 선거를 논하고 있었다. 우리는 선거가 겨울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투르만이 4년 만기를 채웠고 유럽에서 오랫동안 최고 사령관이던 아이젠하워가 우리를 지원해줄 것이다.

“물론 그가 당선될꺼야. 내 정보는 그가 대통령으로서 특수 권력에게 요청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프레스티에서 온 사람이 소리질렀다.

그것은 선풍적인 화제를 일으켰다. 그 여자는 한 달 전에 젠세아 이동 수용소를 거쳐 왔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에게는 위안이 되고 또 밀어졌다.

나는 이 아이젠하워가 전쟁의 마지막에 공산주의에서 피난 온 십 만명의 사람들을 스탈린에게 넘겨주었다고 말하고 싶었다. 어떤 사람들은 자살했고 어떤 사람들은 교살당했고 어떤 사람들은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죽어갔다. 그러나 나는 가만히 있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원하듯이 그들이 원하는 환상을 꺾 필요가 있겠는가?

기차는 축축한 교외를 매우 느리게 갔다. 그것은 헉헉거리며 삐걱삐걱 소리를 내었다. 서다가 가다가 했다. 기차는 이 틈없는 철로에 오래 서 있었다. 여자들은 차례로 작은 창문에

모여 농가와 농부들이 놓은 화롯불을 감상하고 가을 공기 중의 서리의 쌀쌀함을 맛보았다.

이동하는 흥분은 사라지고 그 흔들거리고 비틀거리는 검은 기차에 꽂차 있는 것에 대한 공포가 불안으로 변해서 불쌍하게도 많은 여자가 앓았다. 통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차 안의 공기는 매우 나빴다.

그곳에는 문학 여성이 많았다. 작가와 비평가와 시인들과 소설가도 있었다. 검은 머리의 수척한 마리아 카페안느는 클류에서 영문학과 불문학을 가르쳤었는데, 마지않아 하는 학생들에게 역설했던 고전 소설의 풍부한 사건들을 들춰내어 이야기함으로써 놀라운 선물을 선사했다. 교실에서의 극적인 순간의 강한 목소리는 낸시에 대한 빌 시케스의 욕이나 보바리 부인의 열정적인 탄성으로 크게 울렸다. “레온, 레온, 목요일까지, 목요일까지!”

그녀의 이야기 중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감상적인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화였다. 조용하고 황폐한 철로에서 있던 날 밤에 세 시간에 걸쳐 한 죄와 벌을 그린 와일드의 소설은 대단한 성공이었다. 살인 장면에서 그녀는 도리안 그레이가 찌르고 또 찌르는 것 같이 주먹질 손으로 손바닥을 거듭 짚었다. 그녀의 청중은 열광하였다(오스카 와일드는 그 시대의 감옥 상태를 불평했다. 그가 만일 소처럼 여행하는 이 여자들을 본다면 무어라고 말할 할까?).

“배운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농부 여인들은 놀라고 즐

거워했다.

“책도 없이 그것을 다 말할 수 있으니 말이에요.”

지식인들도 그만큼 열중해 들었지만 이제는 오스카를 경박하고 속물적이라고 깎아 내리기 시작했다. 논쟁에서 제내다는 와일드가 깊은 종교적 감정을 책 속에 품겼다고 말했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화는 모든 사람의 가슴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려주는 그리스도를 대신한다. 그러나 도리안의 순수함이 무너지자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도리안의 초상을 더 이상 보고 견딜 수 없게 되기까지 찡그려졌다.

누구나가 그러하듯이 도리안도 그것을 그로부터 내몰아 버린다. 어느날 화가가 문을 두드리고 그림을 보자고 말한다. 그러나 도리안은 그것을 보일 도리가 없었다. 그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다. 도리안은 사람들이 그럴 때 그러하듯이 화가를 죽인다. 그는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는 순간 자기 자신의 생명의 의미를 죽인다.

그것은 가장 큰 죄악인 신을 죽이는 사람의 품자이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것을 용서받고 소생한다는 의미이다. 골고다에서 흘린 피는 그리스도의 살인자들까지도 구원했다.

와일드의 화가에 대한 상징은 여기서 계속된다. 그는 그가 그림을 보자고 하면 그의 운명이 죽음일 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왔다. 그의 희생에 의해서 도리안 그레이의 화상은 그 본래의 아름다움을 되찾았다.

이제는 마리아가 놀란듯이 보였다.

“멀리도 미치시는군!” 하고 그녀가 소리쳤다.

“그것은 와일드 자신의 잠재적인 심리의 초상화야. 그는 뚱하고 끔찍하며 우쭐하는 초상이었고 도리안 그레이는 그가 화가로 대신하는 천성을 되찾기 위해 그것을 죽이기를 바랐던 그의 소년시절을 보여주는 것이야. 그래서 그가 나중에 그렇게 한 것이야.”

다른 사람들은 그 책을 계급투쟁의 관념으로 해석했다. 카페안느 부인은 그것이 모든 훌륭한 예술처럼 여러 면을 가지고 애매한 단순한 우화라고 말했다. 그래서 80명의 여자들은 잠시 사형의 공포도 잊고 오스카 와일드에 의해 즐거워져서 기차로 루마니아를 건너갔다.

기차가 섰을 때, 문이 열리고 음식을 담은 그릇이 들어왔다. 검은 빵덩어리들은 새로 구워진 것이고 맛있는 냄새를 풍겼지만 조심스럽게 분배되어야 했다. 우리는 한번에 삼켜버렸다. 어느 지점인가 우리는 도착할 것이다. 음식을 남겨두는 것은 때맞기는 것이라는 것이 감방생활의 법칙이었다. 잠시 동안 차에 실린 여자들은 피부가 나무에 긁혀서 피로운 것도, 몸이 쑤시고 당기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도 잊었다.

이틀 동안 가다 서다 하면서 이 지옥의 변방을 덜거덕거리면서 달려갔다. 그러나 세째 날에는 기차가 더 오래 서 있었지만 빵이나 물이 오지 않았다. 저녁 늦게 되어서야 문이 열렸고 흠어진 경사들이 한 사람씩 보였다. 그는 술을 마셨다. 그는 틀림없이 루마니아 사람 주시카였다. 그는 빵 주머니에

빵이 던져지는 것을 보면서 뒷꿈치를 굴러 딱딱 소리를 내었다.

“너희들 오늘밤 운이 좋아 오늘은 빵에 잼이 한 숟가락씩 들어간다.” 아마 주시카가 인심을 쓰도록 했나보다. 마리아가 대답하듯 물었다. “얼마나 더 가야 되요. 특무상사?”

그는 우쭐해져서 “또 하루” 하고 말했다.

“어디로 가는 거요?”

그는 딸꾹질을 하며 말했다. “물론 총살당하기 위해서지” 그러더니 꺾꺾 웃었다.

미달이 문이 팡 닫혔다. 객차 안은 시끄러운 논쟁이 시작되었다. 울고 흐느끼지 않는 사람은 서로 질문하기 시작했다.

“정말이야? 그러나 그는 술에 취해 있었어!”

“그게 바로 그를 믿을 수 있는 이유지!” 흐느끼는 유태인 여인들은 서로 붙들고 작별의 키스를 교환했다.

“나치 수용소를 나와서 또 이렇다니!”

기차는 고통스럽게도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한 시간 후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꿈을 깨지 못하고 있던 카페안느 부인은 갑자기 물었다.

“사비나, 우리는 한 미친 놈의 희생자예요. 이게 다 뭐예요? 사람들은 그가 더 많이 죽이라고 명령하면서 철 의자 뒤에 무섭게 앉아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외국 대사가 오면 말

은 한 마디도 안하고 종이 조각에 빨간 연필로 그리고 또 그리고 한대요. 자꾸 자꾸 피로와하는 여자 모습을 그린대요.” 그녀는 돌발적으로 치를 떨었다.

“그리고 그가 신인 것처럼 ‘영명하신 아버지 스탈린’ 하면서 모두들 그의 이야기만 해요.”

“사람이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통치자의 희생자가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닐 꺼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그의 자리에 앉으려 해요. 나는 스틸린을 생각하면 바로 왕이 생각나요. 노예 노동, 학살, 공포가 다시 행해지고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려 하고 있어요. 바르가 유태인의 남자애들은 모두 나일강에 쳐넣은 것을 아시죠? 그리고 그에 반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하려는 사람을 그의 가족의 한 사람같이 키웠어요. 시편 제 2편에 하나님은 가끔 웃으셨다는 말이 있어요.”

(몇 년이 지난 후에 나는 하나님의 웃음을 다시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스탈린의 딸이 러시아의 지하교회의 개종자가 될 것이다).

“그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무엇이 사람을 그렇게 악마로 만들까요?”

“가끔 환경이 그렇게 하지요. 환경은 아무 것도 설명하지 않지만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하고 나는 말했다.

그는 경찰관의 서자였다. 그의 엄마는 그의 집에서 종으

로 일했고 그녀는 미래의 스탈린을 배우게 되었다. 그의 법적인 아버지는 술주정꾼으로 그애가 그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를 사정없이 때렸다. 그 후 스탈린은 정통파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곳의 소년은 신학자라기보다는 죄수였고 러시아인들이 그루지아 정통파 교회를 억압했을 때 그가 그루지아인이었던 악조건이었다. 그래서 그는 혁명가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런 혁명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이다.

그날은 무서운 밤이었다. 기차가 설 때마다 저벅저벅하는 장화소리가 멎고 문이 열리고 죽음으로 끌려 나갈까봐 두려워했다. 몇 시간 동안 크리스찬 죄수들은 진정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위로하려 했다. 그러나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

먼 산봉우리는 황혼으로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다시 어둠이 깃들자 여자들은 기진맥진과 슬픔으로 무감각해졌다.

“나와! 모두 밖으로 나오시오!”

빛장이 풀러지고 밤이 역청처럼 까맣게 나타났다. 역도 아니고 축선도 아니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모두 학살당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사실입니까?”

울고 비명지르고 욕하면서 여자들은 정충 뛰어 딱딱한 철로에 떨어졌다. 계단도 없었으므로 나는 무릎에 통증을 느꼈다. 몇 명은 도와주어 내려야만 했다. 경비원들은 겁에 질린

죄수들에게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르며 기관총을 흔들며 서 있었다. 추위와 습기 속에서 오래 기다린 탓이었으리라. 그러나 우리에게 그들은 지옥에서 나온 악마들같았다.

여자들은 얼굴을 주먹으로 맞고 내던져지고, 뺨을 맞고, 총구로 맞았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다.

“줄을 서시오! 줄을 서! 경사 옆에 가까이 대시오!”

그러나 그곳에는 줄을 설 곳이 없었다. 여자들은 미끄러지고 진흙투성이의 득을 비틀거리서 건너 철조망 안으로 들어섰다. 한 젊은 경비원은 그들이 도망가려는 줄 알고 주먹을 휘둘렀다. 카페안느 부인이 휘두르는 주먹을 맞고 옆 사람에게로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지독한 혼란의 한 시간이 지난 후, 몇 백명은 길 옆의 들판으로 베지어 들어갔다.

“다 앉어! 배를 땅에 대고 누워! 일어나!”

우리는 진흙탕 속에서 얼굴을 파묻어야 했다. 경비원들이 욕하면서 우리들을 빙 둘러쌌다.

“하나님,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쏘려고 합니다!” 내 옆의 여자는 이렇게 자꾸 자꾸 뇌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기도와 청원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나는 벌써 다

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걸어! 이 도둑년들아, 다 귀가 먹었니?”

우리는 어둠 속을 매와 위협을 들으며 조용히 행진했다. 보통이를 움켜쥐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숨을 헐떡거리며 걸었다. 나흘 동안 등이 뻣뻣해질 정도로 움직이지 않아서 충격으로 얼얼해 있었다.

“정지! 들판으로 들어가! 모두 다 앉어!”

우리는 다시 무릎을 꿇고 앞으로 나아갔다. 열의 반이 뒤 떨어져 우리는 그들이 뒤따라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우리가 얼마나 행진했는지 나는 모른다. 몇 시간 후에 우리는 전기등의 불빛 아래 단조롭게 뻗어 있는 새 형무소의 높은 벽을 보았다. 철과 나무로 된 무거운 문이 열리고 우리는 5명씩 줄을 서서 들어갔다.

새 형무소에는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경비원들이 다시 배치되었으나 그들도 마찬가지로 매와 욕설을 퍼붓는 같은 일정이었다.

이름과 번호의 검사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감방에 들어갈 때 자정이 훨씬 지나 있었다.

“왜 여기 왔지?” 하고 누구나 물었다. 이곳은 흉악죄를 저지른 살인범들이 갇혀 있는 최고의 치안 감옥이었다. 그 이름은 루마니아에서도 유명했다. 알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다른 감옥이 없기 때문이야” 하고 카페안느 부인이 증언
거렸다. 그러나 안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터루소

나는 터루소의 바느질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다. 여자들은 천장 가까이 창살 유리창이 있는 크고 천장이 높은 방에서 12시간 교대로 일했다.

재봉틀은 오래된 것처럼 보였고 하루에 한번씩은 적어도 망가졌다. 나는 곧 유태인이 싱어 재봉틀을 발견한 것에 대한 리차드의 자만심을 같이 나누기를 그만두었다.

우리는 감방 요 안을 두꺼운 실로 꿰맸다. 재봉틀 발판을 발로 밟으면서 무거운 요를 계속 돌리고 뒤집고 해야 했다. 밤 교대인 여자들은 재봉틀 위에서 잠이 들었다(낮에는 감옥의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감시원들이 줄을 돌아다니며 손바닥과 주먹을 휘둘렀다. 적지 않

은 여자들이 과연 कै널의 생활이 이것보다 못했었나 의심했다.

터루소는 그 나라의 가장 강력한 범죄자들을 수용하고 있다. 살인자, 강간범, 사기꾼, 변태성욕자, 그들 중 몇은 확실히 미쳐 있었다. 내 옆의 재봉틀에는 히스테리에 걸린 여자가 앉았다. 그는 의사를 죽이려고 가위를 가지고 덤볐다. 하루에 몇 번이나 그녀는 전체가 같이 쓰는 긴 의자를 가위로 잘랐다. 그녀는 자기가 자를 때 옆 사람들이 신경을 돌려고 쳐다본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가끔 그것을 한 옆에 내려놓을 때까지 가위를 뺏히 보았다.

가엾은 ‘미친 앤나’는 환상의 세계에 산다. 그녀는 자기가 죽인 의사와 자기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이제는 가상의 연인에게서 온 편지를 비누에 바늘로 자기가 직접 쓴다. 그 편지는 수가 상당했고 내용도 서로 달랐다. 피터의 편지는 고상했고 존의 것은 열정적이었다. 헨리의 것은 수수했다. 이 모두를 그녀의 놀란 감방 동료들에게 크게 읽어주었다.

앤나는 신경질적으로 우는 돌발적인 발작이 있었지만 대부분 환상의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감옥에 있거나 나갔거나 하는 것은 그녀에게는 별 차이가 없었다.

나는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겹게 서로 아는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을 보았는지 모른다. 감방 문이 열리면 언제나 이미 거기 있는 사람의 엄마나 언니나 사촌이 들어

오는 듯이 보였다. 그들은 각각 그 사람은 이미 석방되어 애들을 돌보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차였다. 그 희망이 사라지는 그들의 슬픔은 보기에도 딱했다.

매우 기묘한 만남도 보았다. 어느날 아침 신참자가 자신을 클류에서 온 코르닐레스크 부인이라고 소개했다. 그것은 우연의 일치였다. 그곳에는 벌써 클류에서 온 코르닐레스크 부인이 있었다. 이 대면을 보기 위해 머리들이 침대에서 쭈뼛 나왔다. 둘다 남편이 에밀인 것 같았다. 그리고 둘다 전의 비밀경찰이었다. 그러나 첫번째 사람의 남편은 키가 크고 검은 머리카락이 가문 좋은 멋진 남자였다. 또 한 코르닐레스크 부인은 창백해졌다. 그녀의 남편도 키가 크고 검은 머리카락이 훌륭한 매너를 가지고 있었다.

“미안하지만 3호 감방에도 3 번째 코르닐레스크 부인이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그녀의 남편도 역시 그래요.”

어느 코르닐레스크 부인도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었다. 한 명은 조그맣고 이가 누르고 야위었다. 또 한 명은 키가 크고 다리가 막대기처럼 말랐다. 둘다 결혼제외에 .혹했었다.

격렬한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첫번째 코르닐레스크 부인이 그녀의 얼굴에 따귀를 때렸다. 두번째 부인이 첫번째 부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경비원들이 그들을 떼어놓기 위해 급히 들어왔다.

“그것은 진부한 이야기예요” 하고 내 옆 사람이 말했다.

남자는 모든 옛날 아이론 가드처럼 비밀 경찰에서 도망나 오죠. 집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는 한 여자에서 다른 여자로 결혼하거나 그렇게 약속하면서 살죠. 그리고 그 부인들이 구속되어서 감옥에서 만나요. 나는 내 생전에 기묘한 싸움을 몇번 보았어요.”

전 가족이 산에서 도망자를 도운 죄로 구속되어 친척끼리의 만남도 있었다. 레지스탕스의 지도자 아르세베스크 대령은 인기가 있는 인물이었다고 그의 부하들을 도운 죄로 많은 사람이 체포되었다. 그의 부인은 감옥에 있었다. 그녀는 앞잡이들에게 그녀의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 이 거짓말은 그녀에게 먹혀 들어가 그녀의 정신을 망가뜨려 놓았다.

우리는 아이젠하워 장군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 지도자들 몇 명이 실권하고 당에서 숙청당했다는 것도 들었다. 이것이 자유를 찾게 되는 시작인가?

“꼭둑각시는 아무 소용없어요. 러시아가 모든 것을 맘대로 하는걸요. 스탈린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아무 변동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캐널을 포기한다는 소문이 루마니아 전체에 퍼졌다. 거대한 노동단은 문을 닫을 것이고 기본 계획은 실패했다고 한다.

소문은 사실로 굳어졌다. K 4 수용소에서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수용소가 문을 닫고 있다고 말했다. 군관들은 구속

되고 있었고 캐널의 기술자들은 국가 자금을 도용한데 대한 죄목으로 재판받았다. 그 수만 죄수들을 가둬서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를 석방시켜 주려나? 하는 의문이 누구나의 마음 속에 있었다.

안나 포커가 통할하던 부에서 온 한 젊은 여인이 우리 감방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녀의 독설은 우리 모두를 당황케 했다. 우리는 모두 도둑배들이고 자기는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것이라 한다. 제니 실베스터는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불의의 희생자예요”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주장했다.

“불의라면 공산주의지.” 비밀경찰의 한 준관의 부인인 일레스크 부인이 말했다.

“당은 당신과 같은 사람을 싸 죽여야 돼. 당신은 너무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어.”

“이봐요, 나는 안토네스크 지하 감옥에 있었어. 석방된 지 몇 달 후 공산당이 나를 다시 집어넣더군. 이전 벌써 6년째 감방생활이야. 너의 위협은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어.”

일레스크 부인은 제니와 마찬가지로 끈란거리었다. 그녀의 공산주의에 대한 저주는 끝이 없었다.

“규정량을 초과해서 그 하치들에게 우리의 우월성을 보여

야 되어요. 공산주의 치하든 아니든 우리가 하는 일은 조국을 이롭게 하니까.”

그녀는 착취 공장에서 너무 열심히 일했으므로 일의 규정이 올라가 모두가 고생했다. 그것은 어리석은 방향 태도였다. 그러나 그녀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만큼 고생했다. 그녀는 그런 용기가 있었다. 그녀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남죄수를 고문하는 변태적인 취미가 있는 여자 신문관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첫번째 당 숙청이 끝난 뒤 질라바에 갔다.

“남편과 아들이 그 여자에게 고통과 모욕을 당한 여자들이 그녀에게 머리에 담요를 씌우고 퍼렇게 멍이 들도록 때렸지요” 하고 일레스크 부인이 말했다.

그런 말못할 증오가 존재할 때에도 화해는 여전히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굉장한 힘이 있다. 나는 평화를 지키지 않는 여자가 있으면 감방에서 기도를 인도하기를 거절했다. 나는 마태복음 5장 23절을 인용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길고 모진 싸움을 끝나도록 설득받았다. 그들의 생명은 바뀌었다. 외경서 중에 이런 것이 있다.

“너희는 너희 형제를 사랑으로 바라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긴박한 공포와 의심의 분위기가 터루소 전체를 지배했다. 우리는 벽을 엿듣는 첩보망은 없었으나 공산당들은 그런 것을 그들의 목적을 위해 쓰려했다. 모든 감방에는 스파이들이 감시하고 거짓 내용을 밀고했다. 신용하는 신참자들로부터 얻는 대답들은 나아가 심문에서 쓰여졌다.

감방에 갇힌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이 사형당하리라 확신하고 있었다. 그들은 무모했고 그것이 자기네한테도 돌아오는 것이다. 당분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사형당했다.

질라바에서의 일이었다. 공산당 고위 간부의 딸이며 자기 자신은 크리스찬인 한 소녀는 어느날 저녁 자기가 자정에 총살대에 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형은 빈번히 실행되었고 사형선고는 벌이라는 핑계를 지나 복수의 수단으로 쓰였다.

이 소녀는 한밤의 신랑으로 알려진 사형을 받으러 가기 전에 감방 동료들과 커리죽과 술로 마지막 만찬을 열었다. 조용히 그녀는 음식이 담긴 토기 그릇을 집어들었다.

“나는 곧 다시 이 그릇과 똑같은 흙이 될 거예요.” 그녀는 말했다.

“이것은 전에 무엇이였을까요? 어떤 멋진 젊은 남자의 몸이었는데도 몰라요. 곧 내 몸에서 풀이 자라겠죠. 그러나 죽음에는 이보다 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우리의 영혼을 장엄하게 지키는 것을 위해 죽음이 있는 것이죠.”

그 소녀는 끌려 나가면서 사도신경을 소리내어 외었다. 복도를 지날 때 그 소리는 벽에서 벽으로 메아리쳤다. 그것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모든 단어마다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달랐다. 그녀는 하나님 한 분을 위해 죽음에 임했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다.

몇 주일이 지났다. 터루소에서는 두번씩 점호를 했다. 그러나 셈을 할 수 있는 경비원은 드물었다. 앞줄과 뒷줄의 수를 합할 수 있는 사람은 더욱 드물었다. 그 작업은 몇 시간이 걸렸다. 그 다음에는 감방 점사를 한다. 빗장은 나무 곤봉으로 시험해보았다. 운동장은 몹시 추워서 우리는 매일 아침 잘못 세는 일이 너무 많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했다.

어느 날 점호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러더니 불길한 명령이 곧 떨어졌다.

“모든 소지품을 챙기시오.”

우리는 이동하게 된 것이다.

돼지 농장

지붕없는 트럭을 타고 우리는 페르마 로시에의 집단 농장으로 향해갔다. 우리는 즉시 들판에서 일했다. 땅에는 한기를 가려줄 덩굴 조차도 없었다. 땅은 철같았고 가냘픈 식물은 얼어서 마른 지 오래이다.

일은 그동안 너무 내버려둔 채로 있었다. 내년에는 포도밭이 없을 것이다.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다. 이것은 그들의 일이 아니다. 그들은 쓸데없는 작업을 하는 흉내를 내어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 포도밭은 루마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의 하나였었다. 이 포도밭의 주인은 지금 감옥에 있다. 그러나 강제적인 집단농장화의 희생자는 절대로 큰 지주만이 아니다. 작은 농장주들과 소농들이 가장 심한 타격을 받았다. 체제에 반

대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사정없이 좌절당하고 이제 그들은 말이 없고 무관심하게 되었다. 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이야기했다. 그러자 ‘국가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한’ 죄로 그들은 천명씩 투옥되었다.

토지는 경작이 안된 채로 남아 있었다. 전의 ‘유럽의 곡창지대’ 였던 곳이 흉년이 들었다. 그러자 국가의 해결책은 집단농장에 노예 노동처럼 죄수를 보낸다는 것이었다.

어디나 똑같았다. 들관은 거의 경작이 안되어서 곡물이 거의 없었다. 우리를 감시하도록 명령받은 경비원들은 농부들도 감시했다. 한 사람은 그가 마을에서 첫번 본 사람을 쏘도록 명령받은 일을 이야기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자기들의 자유 의지에 의해서 집단농장에 참가했다.

군관들은 마지 않는 농부들의 집을 수색했다. 언제나 군관들은 농부들이 무기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냈다. 그 무기란 경찰이 넣은 총이었다.

농부의 부인들은 집단농장의 실시자들이 그들이 가진 소, 우차, 농기구들 등 모든 것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내 옆에서 일한 골격이 큰 농부 부인인 마뉴라 부인은 말했다.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남편은 ‘우리 찬송가가 남아 있지 않소? 주님께 찬송하고 우리가 천국에서 가지고 있는 더 큰 재산을 감사합시다’ 하고 말했어요.”

마뉴라 부인은 아끼던 소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 소

의 이야기를 조용하게 했다. 추운 아침이면 목을 쓰다듬어 주었고 그 소의 온기가 그녀의 몸으로 퍼져 나갔었다.

“소는 사랑해주지 않으면 좋은 우유를 주지 않아요. 어느 짐승이나 그렇지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집단농장에서는 사랑으로 행해지는 것이 없었다. 그곳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이 없었다. 하루는 아침에 들판에서 일하는 사이에 기절했다. 착취공장과 집단농장의 일이 나의 버티는 한계를 넘어섰다. 경비원들이 나를 족석 들것에 누였다. 나는 트럭으로 옮겨져서 바카레스티 형무소 병동으로 실려갔다. 가는 길에 나의 머리는 부풀어 올라 메론같은 것이 속에 들어간 기분이었다.

나는 그 감옥을 잘 알았다. 리차드는 옛날에 그곳에서 설교했었다. 나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크리스마스 슈리를 준비하기 위해 꾸러미를 들고 왔었다. 병동 대신에 나는 구석에 더러운 변기 밖에 없는 격리 감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나는 맨 콘크리트 바닥에서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창밖을 내다보니 남자 죄수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나의 방 창문을 지나갈 때 나는 리차드 범브란드란 사람에 대해 들은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첫번째와 두번째 사람은 모른다고 머리를 저었다. 경비원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세번째 사람은 나의 물음에 “범브란드요? 목사님말입니까?” 하고 말했다.

“네, 그분은 저의 남편이에요.”

그는 정통파인이 교회에서 하는 식으로 머리가 땅에 닿도록 인사했다.

“그를 만났었어요” 하고 그는 속삭였다.

“저는 감옥에서의 10년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생활은 그 목사가 나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주었으므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부인을 만나다니 반갑습니다.”

그는 빨리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리차드가 아직 살아 있는지는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머리를 밀으며 하고 손을 등 뒤로 하고 운동장을 돌았다. 그가 다시 나의 창문 가까이 왔을 때 그는 덧붙여 말했다.

“저는 그분을 터굴 오크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거의 죽게 되어 그 감방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다음번 운동장을 돌 때 나는 나의 새 친구가 학교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았다. 경비원이 하품했다. 낮잠을 다 자고 그는 죄수들에게 감방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나는 리차드가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여전한 리차드라는 사실을 알았다.

최고의 존경의 표시에 나는 놀라지 않았다. 루마니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사람에게 대해

깊은 존경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 감방에서 하루를 더 보냈다. 아무 의사도 나를 진찰하러 오지 않았지만 나는 그 선생님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 그곳에 있는 것이 기뻐다. 나는 리차드가 죽었다고 믿지 않았다. 왜라는 것은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의 귀절이 음악처럼 가슴 속에 들린다. 그것은 야곱의 아들 루빈에 대한 것으로 루빈은 리차드의 히브리 이름이다. ‘루빈을 살려 죽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나에게 약속이었다.

48시간이 지난 후 병원 당국은 내가 위급한 상태로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했다. 나는 시트와 담요가 있는 침대에 눕히게 되었다.

흰 가운을 입고 있는 여의사가 병실을 걸어왔다. “주는 것을 모두 먹어야 합니다.”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친절한 목소리는 나를 울게 했다.

마리아 크레진 의사는 방금 의학 학교를 나왔다. 용기와 인내로 그녀는 손이 모자라고 붐비는 바카레스티에서 일해서 환자들의 존경을 받았다.

나는 고약한 피부병이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영양부족에서 오는 괴혈병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나는 먹어야 했다. 이것만이 유일한 치료법이었다. 그녀가 나에게 주사를 주자 그 병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몸의 딱지와 껍양은 없어지기 시작하고 대장염과 설사도 나왔다. 나는 더 명확히 볼 수 있

게 되었다. 비타민의 결핍은 시력에도 나쁜 영향을 주어 많은 죄수들이 밤이면 눈이 안보였다.

나의 옆 침대에는 한 때 건강했던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감옥에 있는 것을 그다지 당황해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곧 석방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이젠하워가 미국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윈스턴 처칠이 영국의 수상이잖아요. 이 두 거물급 군인이 동 유럽을 노예상태로 있게 하지 않을 거예요. 미국인들이 오면 그들은 러시아에게 전쟁보상을 물릴 거예요. 나의 전의 수입을 고려하면, 나는 감옥에 있는 6달 동안 하루에 5,000레이를 청구할 거예요. 그러면 100만 레이예요. 그것이면 여생을 완전히 보낼 거예요.”

나는 하루에 만 레이로 하는 것이 낫다고 제의했다. 그러면 200만 레이가 생긴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이예요. 당신들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은 민족이예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다른 죄수들은 그녀를 백만장자라고 불렀다. 우리는 병실에서 게임을 했는데 그것은 가끔 울면서 끝났다. 우리는 우리가 귀머거리 노파라면 인생이 어떨까 상상하려 했다. 한쪽 끝에서 다음 사람에게로 말을 전해갔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전해져 나중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전해지게 된다. 그것은 웃음과 흥분이 우리를 어쩔줄 모르게 한다. 그러나 한번 웃음이 울음으로 변하면 병실은 슬픔의 절정에 이른다.

많은 사람이 젊었고 그들은 자기들의 젊음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 게임은 실제로 생기게 될 것이다.

바카레스티는 군관에 의해 관리되었다(의술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제급투쟁 정신에 의해서 실시되어야 한다). 어느 날 저녁 때 그는 계복입은 동료들과 함께 병실에 들어와 공산주의의 즐거움에 대한 과장된 연설을 하였다.

“이렇게 좋은 병원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겠는가?” 하고 그가 물었다.

“지구상에 사람이 있는 이상 우리는 생명과 건강을 주는 예수님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하고 나는 말했다.

그는 화가 났다.

“나에게 어떻게 감히 대들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그런 엉터리를 믿지?”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집은 건축가가 지었다는 것을 알고 연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 음식들은 요리사가 준비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모두 해와 달과 비와 모든 과일 같은 신기한 것들이 가득찬 이 세상이라는 연회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고 나는 대답하였다.

그 정치군관은 비웃으며 껄껄 웃고 문을 팡 닫으며 동료들과 나가버렸다. 다음날 아침 경비원 한 명이 나에게 와서

짐을 꾸리라고 말했다. 그날 나는 다시 노동단으로 되돌려졌다.

이번에는 50명이 2,300마리의 돼지를 기르는 국가 돼지농장으로 갔다. 몇년 동안 해온 노동도 힘이 들었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해온 일 중에서도 가장 힘든 일이었다. 음식은 굶어죽을 정도였다. 우리는 다섯시에 잔 누더기 옷 그대로 침대에서 겨우 몸을 끌어내어 돼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춥고 어두운 밖으로 나갔다.

돼지우리는 더러운 물이 무릎까지 찼다. 그 물은 절대로는 법이 없다. 욕지기가 날 것 같은 지독한 냄새가 그곳에서 묻어와서 우리가 있는 곳까지 배었다. 그 냄새는 온몸에 베었다.

우리는 매우 기술적으로 돼지먹이를 우리의 목재 숟가락으로 떠서 먹었다. 우리는 탕자 아들보다 더했다. 우리는 돼지가 먹는 옥수수 껍질로 우리의 창자를 채웠다.

사물들로부터 의미란 것은 없어졌다. 죽음이 목전에 다달았다. 온 세상은 옛날같지 않게 온통 눈물과 절망이었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울부짖음이 나의 마음에서 나왔다.

돼지우리를 깨끗이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려는 것처럼 가망이 없었다. 매일 우리는 배고프고 반쯤 사경을 헤매면서 새로 산더미같이 쌓인 오물을 수레에 실어다

버렸다.

나는 나에게도, 세상에게도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다만 죽기만을 기대했다. 그리고 이런 심리적인 상태에서 나는 오래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행복하게도 이것은 몇 주일이 지나 끝났다. 나는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 나를 데리고 나가셨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입에 가장 쓴 약을 마시고 가장 몸에 단 것을 배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 밖에 주시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가장 높은 사랑을 배운 이 힘든 과정을 통과한 것을 감사하고 있다.

지붕없는 트럭의 뒤에서 나는 흰 주위의 풍경 속에 검은 막사가 모여 있는 돼지 농장이 사라져 가는 것을 보았다. 바람은 찬 금속의 손같았다. 그것은 우리의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눈이 실타래처럼 감기어 땅 위를 스쳐 날게 하였다. 아무도 우리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거나 묻거나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집단농장은 어디나 비슷비슷했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우리는 내가 2년 전에 캐널로 향하기 위해 떠났던 이동 수용소인 겐세아로 갔다.

“이 많은 사람 좀 봐. 옛날보다 더 바쁘구나.” 우리는 검사를 받고 번호를 받기를 기다리는 동안 속삭였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검사가 다 끝나고 막사로 갈 수 있게 된 것은 어두워진

후였다. 이제야 뻗뻗한 다리에 피가 들었다. 비교적 따뜻한 안에는 희망이 얼음이 녹이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스며나오기 시작했다. 갠세아에 있는 백명의 여자들은 루마니아 전역에서 온 여자들이다. 그들은 큰 새 노예 노동 설계를 계획했거나 혹은….

그러나 아무도 이 희망을 소리내 말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너무 많이 남에게 속아서 때때로 우리 자신을 속였다.

둘째날에 갠세아의 사무실에 보안 사령부에서 온 열사람이 사건기록을 맡아 일하고 있다는 소문이 터졌다. 우리의 사건기록! 그들은 부크레스트에서 2년 전에 도착했다. 이것이 정말 자유를 뜻하는 것인가?

나는 막사 안을 둘러보았다. 회미한 불 밑에서 초라한 여인들이 앉아서 낮은 목소리로 소문을 이리저리 뒤집어보고 안의 것을 밖으로 끌어내며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며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음식과 몸의 신냄새가 독기처럼 공기에 스며 있었다. 떠벌이꾼들은 이제 수용소의 한 장비처럼 되었다. 이때나 저때나 그들은 제란 깨뜨리는 소리를 확대한 것 같은 크고 찌지는 소리를 내고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고래고래 소리질렀다. 이 소동이 지나갈 때 여자들은 멍한 눈으로 때때로는 몇 시간이고 기다리면서 앉아 있었다.

세르나보다에서 알게된 몇 명의 집시 소녀들이 거기에 있

었다. 어느날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

“사비나, 사비나!” 그녀는 전쟁 전에 부크레스트에서 여왕처럼 살던 K4수용소에서 온 제내다였다. 그녀도 집단농장들을 돌았었다. 우리는 서로 손을 잡으려 하다가 그만두었다. 우리의 손가락이 동상으로 부풀고 갈라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웃고 견딜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어디서 슬쩍 훔친 남자 바지와 자켓을 가지라고 막 권했다. 나는 이것을 매우 감사하게 받았다.

“그것을 입으니 영락없는 찰리 채플린이야.” 다른 사람들은 효과있게 하기 위해 뒤로 물러나 섰다. “신발까지도 쇠붙이가 있잖아!”

금방 우리는 둘러앉아 생생한 화제를 이야기했다.

“얼마나 오래일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얼마나 오래냐는 말이야?”

그때 경비원이 수용소 사무실에서 질의하기 위해 우리를 데려가기 시작했다. 제내다는 먼저 나간 그룹 속에 끼었다. 그녀는 나에게 “옛날 심문이나 똑같애. 다만 매우 정중한 것이 다름 뿐이지. 그리고 우리에게 대해 물어보는 대신 우리가 자기네를 어떻게 생각하나를 물어보더군” 하고 말하였다.

통상의 세 제복 군관이 종이로 덮인 책상 뒤에 앉아 있다고 제내다가 말했다. 건강에 대한 몇 가지 질문 후에 우리의

체제가 얼마나 즐거웠으며 바깥에 친척이 있느냐는등 보통 묻던 것과는 다른 것들을 물어보았다고 한다.

그들은 물어 보았다. “사회주의 건설에 반대한 잘못을 아는가? 감옥에서의 재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개조의 기회를 준 국가가 옳다는 것을 이해하는가?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이 공산주의 사조를 바꿔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가?”

제내다는 이렇게 말했다. “자연적으로 나는 그들에게 매 순간을 즐겼다고 말했지. 떠벌이 바보 책임자 녀석, 국가의 공로와 이 좋은 농장과 호화판 수용소에 대해 주변 좋게 떠들어대더군. 3년 9개월이 지난 후 나에게 말야.”

모든 죄수들처럼 그녀는 자기가 잘못했고 이제는 사회에서 자리를 얻어 열심히 일하기를 원한다고 최대한으로 전했다.

그 달이 끝나기 전에 몇 그룹의 여자들이 겐세아를 떠나기 시작했다. 언제나처럼 우리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이름이 죽 불려지고, 수용소 사무실로 걸어가서 트럭을 타고 가버렸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희망스러운 신호였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책상 위의 주임은 퉁퉁하고 아기처럼 피부가 분홍빛이었다. 그의 손은 소세지 뭉치처럼 퉁퉁했고 그 책상 위의 물건들을 치웠다. 종교 죄수를 위해 놔

둔 몇 가지 특별한 질문이 있었다.

“범브란드 부인(부인이라고 불렀다), 이 자리에서 당신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그는 이 사무실에 끼어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두 보조자의 감상하는 듯한 미소를 자기 덕분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당신은 정말로 이 교육을 받아들였습니까? 종교의 속임수를 보았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 하나님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받았습니까? 이제는 더이상 그가 필요없다는 것ですよ. 당신이 여기서 석방된다면 당신은 이 근래의 몇 년의 업적에 놀랄 것이고 우리는 다만 시작일 뿐입니다.”

그의 견장의 노란 실은 새것이고 윤기가 났다. 그의 소세지같은 손 밑에 내것이 분명한 서류들로 꽂찬 가죽철이 있었다. 나는 말했다.

“당신이 힘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보지 못한 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서류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기록을 갖고 계시며 당신도 나도 그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여기 있게 하시든지 석방시켜 주시든지 나는 그것을 나를 위해 제일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주임은 그가 칠 수 있는 무엇이랄도 있는 것처럼 두 주먹으로 책상을 째 때렸다.

“안됐습니다, 범브랜드 부인, 안됐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교육을 받는데 실패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는 몇분 동안 화난 척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3일 후 나의 이름은 불러졌다. 주임보다 더 높은 권력층이 나의 운명을 결정했다.

우리는 보잘 것 없는 보통이들을 들고 수용소 사무실 밖에 눈덮인 운동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에도 우리는 석방된다고 확신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가 철조망 쳐진 문을 지나 경비원이 계속 종이장을 나눠주고 있는 것을 떨면서 기다리고 서 있을 때에야 확신이 되었다.

바람은 그의 거친 목소리를 멀리까지 끌고갔다.

“범브랜드 사비나, 1913년 세르나우티 생, 주소…”

나는 나의 석방을 명령하는 서류를 받았다. ‘출감 증명서’가 꼭대기에 써 있었지만 날씨가 너무 어두워 읽을 수가 없었다.

우리가 트럭에 차곡차곡 올라가서 떠날 때 맨 마지막 구리 빛장이 벗겨졌다. 겐세아는 부크레스트에서 몇 마일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도시의 교외 바깥에서 내렸다.

나는 교외를 지나 때가 묻어 반들거리는 작은 보통이를 들고 걸었다. 3년 동안 처음으로 일을 끝내고 집으로 바빠

가고, 가족들을 위해 물건을 사는 사람들을 보았다.

집! 그곳이 내가 가고 있는 곳이었다. 만약 있다면 말이다. 만약 있다면! 집, 가족, 친구, 나는 그들 중 누구에게라도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른다. 미하이는 지금 14살일 것이다. 세월이 그를 어떻게 변해 놓았을까? 나는?

불빛은 나의 눈을 어쩔어쩔하게 하고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냄새가 나의 감각을 놀라게 했다. 나는 전차의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에 귀를 막고 전차들의 깃털 장식에서 떨어지는 파란 불꽃에 몸을 움추리고 싶었다. 사람의 물결이 무관심하게 밀치고 지나가자 실망의 감정이 나를 덮쳤다. 나는 7번 전차 정류장을 바라보았다. 아마 이제는 없나보다. 아, 저기 있다.

나는 공포를 억누르고 전차에 오르자 그때야 돈이 없다는 것이 생각났다. 나는 크게 말했다.

“내 요금을 내주실 친절하신 분 안계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 이상한 요청을 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 머리를 돌렸다. 그리고 왜 그런 요청을 하는지 매우 궁금해 하며 흥분했다. 12명이 즉시 나를 위해 요금을 내주겠다고 나섰다. 그들은 동정에 가득차서 나를 둘러쌌다. 이런 것들이 인생의 한 부분이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감옥에 친구나 친척이 있는 듯 싶었다. 그들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내가 알지도 모르는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만

을 말했다.

우리는 내가 첫번째 구속된 경찰서의 슬픈 기억을 가진 빅토리아 가를 가까이 지나갔다. 아무 것도 변한 것은 없었다. 인류 역사의 4명의 천재—막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의 거대한 초상화는 진창길을 건너가는 군중들을 여전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내가 아는 집의 블록 가까이에서 전차를 내려 계단을 올라갔다. 문은 친구가 열어주었다.

“사비나!” 그녀는 내 손을 자기 입술에 갖다대고 뒤로 물러섰다.

“이럴 수가 있는 것일까?” 우리는 포옹했다. “기절할 것 같아!” 하고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미하이를 부르러 달려갔다. 그가 문을 지나 달려오는 것을 볼 때 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는 키가 크고 창백했다. 그리고 여위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 젊은이이다.

우리가 포옹하였을 때 드디어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불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미하이는 그의 손으로 내 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었다.

“어머니, 너무 울지 마세요”

그 순간 나의 걱정은 사라진 것 같았고 다시는 울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제 3 부

다시 집으로

우리는 다음 날 부크레스트의 큰 공원 키쉬미규를 같이 걸었다. 나는 아들을 다시 발견해야 했다. 나는 성장한 후의 그를 잘 몰랐다. 미하이가 매우 어렸을 때 우리는 거의 그를 두려워했다. 그에게 종교적 감정이 파고든 것 같았다. 나는 그런 알고자 하는 모든 궁금한 일들을 질문했다. 그는 5살에 예민한 복음주의자가 될 정도로 조숙했다. 그가 7살이었을 때 그는 우리의 회중의 한 멤버가 된 한 교수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했다.

그의 좋은 점들이 우리가 없는 동안 친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공산주의 자들에 의해 파괴되거나 않았을까?

나는 그의 성격의 좋은 면을 즉시 발견하고 기뻐했다. 우리는 감옥에 있던 세월과 강제노동의 세월을 이야기했다. 그는 말

했다.

“우리는 밤과 낮이 있고,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있다고 자연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나쁜 점을 인정합니다. 그들을 짐승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나는 아직 의아해 하면서 십자가의 길에 대해 그에게 이야기했다. 그는 주의를 기울여 들었다. 그러다가 그의 눈이 막 봉우리를 피우고 있는 과일나무에 부딪쳤다. 그날은 다른 때보다 일찍 다가온 따스한 봄날이었다. 좋은 날씨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일찍 찾아온 것 같았다. 눈은 아무도 돌보지 않은 화단 속에 드문드문 있었다. 허야신스는 봉우리가 벌어지고 있었다.

내가 말을 끝냈을 때 그는 말했다.

“엄마 아빠 모두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길이라고 택하셨어요. 저도 그것을 택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느껴요. 아름다움이 있고 고난이 없고 수치가 없는 곳이에요.”

그는 인생의 즐거움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작은 기쁨도 매우 소중히 했다. 하나님의 백합은 보기에 아무 돈도 들지 않는다. 그는 “왜 그냥 마당에서 꽃향기를 맡으며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요?” 하고 말했다. 나는 대답했다.

“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실 때 그 옆에 정원이 가

카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만약 정원에서 한 무죄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박히는 비명소리를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니? 바카레스티와 질라바 감옥은 멀지 않다. 사람들은 우리가 꽃을 보고 있는 동안 그 안에서 고문받고 있단다. 그리고 저쪽 길 건너 내무부에서도 말이다.”

그는 조용히 “매우 힘들었어요, 어머니?” 하고 물었다.

“미하이, 우리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자식이다. 우리를 가장 압박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란다. 그것은 우리가 환영의 세계에서 일하게 되어 정신적인 것을 빼앗기는 것이지. 캐널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뒤에 없으시면 이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사람을 혼란시키는지 알 것이다” 하고 나는 대답했다.

“마지막 때에는 캐널같은 곳은 아무 것도 아니란다. 로마 제국도 그랬고, 그리스 공화국도, 첫번째 유대 국가도, 이집트 문명도, 중국 문명도 다 그렇다. 이제 영국도 사라지고 있단다. 모두가 환상의 세계에 속해 있지.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이란다. 어원적으로 ‘다른 쪽에서 온 사람들’인 우리 히브리인의 정신적인 세계에 살지 않고 환상의 세계에 산다는 것이 말이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나의 방에 와서 프르타크의 「카토의 삶」을 읽어 주었다.

폭정자 설라의 궁전은 하도 많은 사람이 고문당하고 살해

되어 사형장보다 나올 것이 없다고들 했다. 카토는 그때 미하이와 같은 14살이었다. 그가 많은 훌륭한 사람들의 머리가 실려 나오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몰래 한숨짓는 것을 보았을 때 카토는 왜 누군가 설라를 죽이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그의 교사는 사람들은 그를 증오하는 것보다 더 그를 무서워 한다고 대답했다. 카토는 그러자 “나의 나라를 구하게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점을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미하이는 책을 내려 놓았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나도 조금은 이렇게 느껴요. 나는 인생을 즐기고 싶지만 때때로 왜 많은 젊은이들은 어떤 일을 하지 않을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해요. 나와 같은 소년은 폭정의 나라를 구할 수 있어요. 이것이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부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예요.”

나는 현대의 환경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우리는 폭정을 죽여도 되지만 폭군을 죽여서는 안된다. 우리는 죄는 미워할 수 있지만 그 죄인은 사랑해야 한다.

미하이는 “어머니, 그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하고 대답했다.

처음 몇 날 동안 나는 죽음에서 깨어난 여자같았다. 나는 자유롭게 되었다! 감옥에서 몇 년 동안 그 모든 문제는 이것 외에는 전부 사소한 것 같이 보였다. 우리는 명쾌하게 말했다.

“여기서 나갈 수만 있다면, 나는 여생을 빵과 물만으로도 행복하게 살거야. 절대로 불평은 한 마디도 안할꺼야.” 그리고 예전의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빵과 물로 산다.

이제 진짜 문제가 생겼다. 크고 작은 걱정거리들이었다. 비참한 곤궁과 배고픔을 각 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충격이었다. 내가 방문한 사람들은 거의 빈털털이로 남았다. 침대에는 낡은 담요가 있었지만 시트와 베게보는 없었다. 오랫동안 그들은 검은 빵을 사거나 집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전기를 조금 쓰는 여유도 없었다.

“우리는 다 팔아야 했어요. 칼, 리본, 카펫, 책까지도 모두요. 안돼요. 그 의자에 앉지 마세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돈의 대부분은 그 조그만 집에 식구와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의 귀한 약값으로 쓰였다.

“사비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조심해. 어디에나 첩보원들이 있어. 교회는 그들 때문에 문제야.” 그녀가 간청했다.

친구들과 모르는 사람들이 연이어 나에게 와서 가장 가슴 아픈 방법으로 감옥에 있는 친척들의 소식을 물었다. 나는 거의 그들을 돕거나 그들의 물음에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들의 질문은 “특사였습니까? 일이 풀립니까? 새 정책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부탁하면 될까요?” 등등의 질문들이었다.

나는 재빨리 관공리에게 부탁하는 것에 대해 알았다. 정부 사무실에 들어선 줄은 식료품 가게에 선 줄보다 더 심했다.

나는 식량 구입 카드가 필요했다. 그것 없이는 빵도 살 수 없었다. 어느 날 아침 4시간을 줄에서 기다렸다. 내가 작은 창문에 닿았을 때 그곳의 소녀가 닦아 세웠다.

“작업카드 어딴어요? 그것 없으면 식량카드를 탈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전 죄수였어요.”

“나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작업카드가 없고 번호가 없으면 식량카드도 안돼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 베푸는 것으로 살아야 했다. 당분간 우리는 여자 친구와 방을 같이 썼다. 그러나 미하이는 이제 젊은 남자이다. 이제 같은 방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았다. 나는 다른 방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날들을 돌아다녔다.

우리의 옛집은 압수당했다. 그 속의 모든 것 가구, 침구, 책들도 그렇다. 그러나 친구들은 우리 집이 있던 건물에서 살았다. 그들은 빈 작은 다락방이 있다고 말했다. 정말 작긴 작았다. 하나는 너비 4야드 길이 5야드인 방이고 다른 하나는 너비 3피트 길이 2피트의 방이었다.

며칠 동안 줄을 서고 서식을 갖추어 나는 이 ‘편의상의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허락받았다. 가구라고는 스프링이 망가진 낡은 침대 뿐이었다. 물도 없고 화장실도 없었다. 겨울에는 혹독하게 추웠고 여름에는 너무 더웠다. 유리창으로는 점

은 벽돌담이 내다 보였다.

미하이와 나는 이곳으로 옮겨와서 여기서 우리는 자고먹고 지냈다. 석방된 제내다가 우리와 함께 있었다. 우리는 침대가 없어서 소파를 같이 썼다. 그러자 마리에타가 왔다. 그녀가 어느 날 우리 집 앞에 왔다. 그리고 거기 소녀처럼 겁내며 눈 밑에 검푸른 줄이 있는 채로 웃으며 서 있었다. 그녀는 줄로 묶은 조그만 꾸러미를 주었다.

“아무 것도 아니에요. 불란서 과자 두 개예요.”

그것은 그녀가 두 시간이나 줄서서 산 것이고 불란서제도 아니었다.

마리에타는 우리 회중의 오랜 멤버였다. 그녀는 사랑스럽고 착한 소녀였지만 그리 밝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약간 그녀를 두려워 했다. 그녀는 간질병 발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보아서 기뻐했다. 그녀는 순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항상 기쁨이었다.

“들어 와 앉아요, 마리에타.” 나는 그녀가 들어오도록 뒤로 물러섰고 문은 미하이의 침대 끝에 부딪쳐 소리를 냈다.

“누추해요.”

그녀는 살짝 몸을 빠져 들어와 우리가 얻은 흔들흔들하는 의자에 앉았다. 뒤가 쓰러져 떨어졌다. 미하이가 마리에타를 도와러 갔다.

“얼마나 아늑해요.” 그녀는 싹 기름으로 감자를 튀기고 있던

스토브를 둘러보며 말했다.

“지붕은 한심하죠” 하고 미하이가 말했다.

기울은 천장은 습기가 뻥 자국으로 더러워져 그 위에 검은 이끼같은 곰팡이가 매일 더 자랐다. 한 사람이 움직이면 우리 모두 길을 내기 위해 움직여야 했다.

마리에타는 우리가 튀긴 감자를 같이 먹었다. 후에 미하이가 침실로 공부하러 간 후 그녀는 나에게 이제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일주일 후면 머리를 덮을 지붕도 없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 그녀와 같이 있던 가족이 그녀더러 나가라고 했다. 친척들이 클류에서 오니 침대가 필요해서….

“마리에타, 보다시피 이진 집이 아니야. 우리가 아래층에서 살 때 허드레 것들을 놔두던 낡은 창고방이야. 그러나 네가 좋다면 여기에 침대를 하나 더 끼울 수 있을꺼야. 어디서 요를 빌릴 수 있을꺼야?”

그녀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다.

“정말이에요? 저 애가 정말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담요랑 접시랑 칼같은 것들이 있어요. 같이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그래서 마리에타는 올테니가의 우리와 함께 살러 왔다.

그날은 석방된 후 일주일쯤 지난 날이었다. 공기는 생기가 넘쳐 흘렀고 전차는 유원지의 것처럼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

고 충충한 회색의 사람들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길을 지나갔다. 그동안 30년간 가장 고약하고 사나운 겨울이었다가 이제 온화하고 따뜻한 햇볕이 우리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다.

갑자기 교회 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저 소리를 듣는 것이 몇 년만인지 모른다. 성당에서 애도하는 깊고 성스러운 음조가 나오고, 다음에 열린 채로 남아 있는 부크레스트의 다른 모든 교회에서 나왔다.

이 도시에는 종이 많았다. 루마니아는 중세기에 터어키에 대항한 기독교국의 요새였기 때문에 이 나라는 수도원과 교회가 많았다. 이제 그 종들이 모두 같이 소리를 내었다. 그러나 사랑스런 소리는 놀랍기도 한 것이다. 사람들은 길에 서서 서로 무슨 일이 났는지를 물었다.

경찰이 공공집회를 금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군중들이 모여 서로 속삭였다. 그러자 빅토리아 가의 확성기가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동무들! 루마니아 인민공화국 노동자 여러분! 소련 사회주의 인민 공화국의 최고회의 의장은 당과 모든 루마니아의 노동자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1953년 3월 5일 소련의 자료회의 의장이며 공산당 중앙 위원회 서기이신 요셉 비사리오노비치 스탈린이 위중한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알려 왔습니다. 인민의 현명하신 지도자이며 교사이시고 레닌의 동료이며 충실한 사도의 생이 끝났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장래 행진곡을 소리높여 불렀다. 종소리는

죽음을 뜻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에게 새 희망의 새벽을 뜻했다. “왜 저들이 저렇게 할까요?” 누구나 물었다.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그다지도 애쓴 전 세계 무신자 협회의 회장의 서거를 알리기 위해 종교적인 의식이 들려왔을 때 특히 그랬다. 스탈린이 임종시에 두려워서 그의 마지막 의식을 갖추고 십자가와 함께 묻힐 것을 애원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백만 희생자의 그림자는 침대에 누워서 자기를 위해 모든 크리스찬이 기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모두들 쑥덕거리는 것이다.

학교와 가게는 문을 닫았다. 미하이는 싸인테아의 특별판을 가지고 집에 왔다.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신문으로 당 기관지였는데 온통 송덕문 밖에 없었다. 모두가 소련과 루마니아의 우정을 찬미하는 거리와 영화와 식당의 슬로건과 극장이었다. 라디오도 똑같은 음조의 트럼펫 연주만이 나왔다.

큰 위험을 지고서 우리는 외국 방송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중 한 방송국에서 이사야 14장 즉 압박자의 죽음을 묘사하는 무서운 장을 읽는 것이 들렸다. “그는 지옥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그는 조롱당하고” 이런 말을 들었다.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음이며 너의 비파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림이여... 너 열

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 장은 승리적이었고 복수심에 불탔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끝나자 미하이가 물었다.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람의 최후의 순간에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큰 변화가 일어난다. 나는 스탈린의 엄마는 선하고 독실한 여자였다고 회상했다. 얼마나 그녀는 그를 위해 기도했던고! 한 주교가 자기 아들의 죄지음에 울던 성모니카에게 “그런 눈물을 흘리는 아들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했다.

이제 그리고 우리는 그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으로 돌아 서방으로 도망친 그의 딸의 간증을 들었다. 스베트라나가 표현한 ‘이해하지 못한 경외로운 제스처’로 죽어가는 스탈린이 무엇을 뜻했다고 알 수 있는가? 스베트라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갑자기 무엇을 가리키는 것처럼 왼쪽 손을 들었어요...다음 순간 가없는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었을까요?” 교황이 스탈린의 영혼을 위해 미사를 열었다. 예수님은 교황보다 스탈린의 영혼을 사랑할 것인가?

또 다른 면은 새 시대에 대한 희망의 시작과 노예 노동수용소와 캐널과 같은 정책의 종말에 대한 기쁨이었다. 모든 소

문이 사실로 나타났다. 캐널은 정말 포기되었다. 4년 후에 그 계획은 실패했다. 그곳에서는 20만 명의 여자와 남자가 노예살이를 했었다. 아무도 몇 천명이 죽었는지 모른다. 수천 만을 잃어서 나라의 경제는 파산했다. 아무 것도 이득은 없었다.

싸인테아에서 우리는 정부가 주 사회 사업의 건설에서 소비재의 생산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읽었다. 생활 수준은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캐널은 실패였다.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최종적인 큰 규모의 조사연구가 기술자들에 의해 실시되었다. 어떤 사람은 바라간 평야에 물이 넘칠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캐널과 관계 시설 모두 공급할 충분한 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분명한 일은 주요한 기술자와 설계자들이 구속되었다는 것이다. 경제적 태업에 대한 사형선고가 있었다. 적어도 두 사람은 즉시 사형당했다. 나머지 30명은 각각 25년 이상을 선고 받았다.

나는 유월절 기도를 했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진실이다. 막사와 노동단이 문을 닫았다. 임시 막사는 무너졌다. 풀과 잡초가 콘크리트를 뚫고 자랐다. 그 크고 빈 평야는 황야로 바뀌었다. 이제는 거칠고 외로운 곳이다. 뱀들은 더이상 먹을 것을 찾지 않고 땅 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무도 이제는 빵조각을 철새를 위해서 놓아두지

않는다. 녹스는 장비가 버려진 야채 밭에 누워 있고 흑해에서 오는 찬바람이 이 세상의 경이의 대상이었던 마지막 흔적을 잠식하고 있었다.

조금씩 조금씩 나는 건강과 예전의 힘을 약간 되찾았다. 다뉴브 강으로 던져졌을 때 상했던 갈비뼈가 고통스러웠지만 의사는 다만 충분히 치료를 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몇 주일간 누워 있을 것을 권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난 것이 기적이라는 말을 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고통을 참고 기다려야만 했다.

어느 날 아침 올테니 가를 걸으며 나는 머리가 많이 빠진 초라한 작은 남자를 보았다. 그는 내가 지나갈 때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내가 손을 코트 주머니에 집어 넣자 작고 접혀진 조그만 인쇄물을 발견했다. 그는 내가 모르는 새에 이것을 밀어 넣고 사라진 것이다.

“주님은 슬픔과 공포와 억압으로부터 휴식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읽고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내 주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증거이다. 아무 것도 배반하지 않는 지나가는 얼굴들에 집어 넣고 스탈린의 손이 미치지 않는 마음들에 넣는다.

새로운 행복과 기쁨이 가슴에 넘쳐 흘렀다. 나는 지하교회의 한 멤버였다.

지하교회는 동부 유럽의 전화번호부에 명칭도 없고 빌딩도 없다. 교회도 없다. 이곳의 목사는 낡은 노동복을 입고 있다. 그들은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도 않았고 종파의 싸움에 대해서도 거의 모른다. 지하교회는 철의 장막 뒤에서도 이름이 없다. 우리가 서방에 닿았을 때에야 나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해외의 몇 사람 중에서 그런 제목을 갖고 있을 줄 알았다.

“루마니아에는 지하교회가 있어요?” 하고 내가 더 이전에 질문을 받았다면 나는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신문의 뜻을 모르고 일생 동안 그것을 이야기한 물리에르의 뮤슈 죠르당처럼 말이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의무를 한 것이다. 우리는 공산주의 법에 아무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고 우리의 태도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다음 12년 동안 이것이 나의 인생이다.

처음에 나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딱한 처지에 낙심했다. 그들은 경찰에 의해 학대받고 간첩에게 유린당했다. 라디오, 학교, 무대, 극장과 출판물 통해 우리의 신념을 말살하려는 캠페인이 유감없이 계속되었다. 나이 먹은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신을 받들 수가 있었으나 젊은이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옛날의 많은 친구들이 직업을 잃을까 두려워 우리 집 근처로 오지 않는 것을 알았다. 다른 사람들은 한 때 내 곁에서 신을 믿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학을 지나오

면서 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을 만나 그에게 인사하러 다 갔다. 그는 동료와 함께 있었다.

“당신은 실수를 하셨습니다. 부인,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그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돌아서 가버렸다.

사람들은 자유스러운 반면에 매우 눌려 있었다. 감옥에서 우리는 상태가 가장 나쁜 때라도 하나님의 손이 작용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고통받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그를 믿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하교회의 주 사업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리고 감옥에 있던 경험으로 이것은 그들의 믿음을 얻기가 쉬웠다.

나는 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했다. 우리의 교회는 두 명의 젊은 루터교회 목사가 운영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그들의 걱정거리를 이야기하는데 상담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고통받은 신자들은 다른 크리스찬에 의해 우상처럼 여겨졌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복음”이었다.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순교자가 진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순교자를 만든다. 나는 나를 과대하게 존경하는 것을 대단히 강경하게 중단시켰다.

내 자신의 의견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았다. 두 젊은 목사는 그들의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은 오직 루터파의 교수에

서 배운 것과 우리 세제와 다른 오랜 세기 전에 쓰여진 책에 근거한, 책으로부터 알게된 것 밖에는 가르칠 수 없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만큼 이 생각들에 그다지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 모든 책이 내가 감옥에서 배운 교훈에 맞게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공산당의 세뇌 방법과 주입 방법은 새로왔다. 그들은 새 대답을 필요로 했다. 그리고 이 대답은 시간이 감으로써 지하 교회에 의해 발견되었다.

“어머니, 저 학교를 그만 두었어요.”

미하이는 밝은 눈과 꼭 다문 입을 하고 하루는 일찍 집에 돌아왔다.

“그만 두었다니 무슨 뜻이냐?”

“다시 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너는 공부를 해야 돼.”

“거기서는 안해요.”

나는 점차로 그로부터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소년 공산당 운동이 전립되어 가장 훌륭한 학생들이 붉은 타이틀 매는 특권을 받게 되었다. 아이들은 그 명예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지시받자 미하이를 추천했다. 그러나 그는 거절했다. 그는 “나는 붉은 타이틀 매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아버지를 감옥에 가둔 당의 표식입니다.”

이 애는 별(유태인 표시)이다. 유태인 여자인 선생님은 무어라 할 바를 몰랐다. 그러나 그녀는 공산당에 협력해야 한

다. 그녀는 미하이로 야단치고 그를 집으로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거의 모든 선생들이 그들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의무와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을 증오했다. 다음 날 미하이의 선생님은 그를 다시 교실로 몰래 들어오게 해서 꼭 쥘안았다.

그날부터 그는 학교에서 가장 보호받는 아이가 되었다. 무신론적인 선전이 교실에서 있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미하이는 그의 교관과 논쟁하기 위해 일어나는 숫자가 늘었다. 그는 가끔 그들의 비꼬임과 빈정거림을 따를 수가 없어서 논쟁에서 질 때가 있었으나 그는 매양 똑같이 일어섰다. 그리고 그가 정치 좌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교사들은 이것으로써 그를 사랑했다. 루마니아는 공산주의에 의해 압박받는 나라가 아니라 엄연한 한 공산주의 국가이다.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미하이는 우리의 친구이며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인 알리스에 의해 돌보아졌다. 일전에 그녀는 중요한 부서의장이었지만 그녀가 당에 입당하기를 거부하자 그는 밀려났다. 그녀는 불어를 가르치고 시험 지도를 해서 근근히 살아갔다. 내가 잠혀간 후 미하이는 그의 알리스 아주머니에게 가서 ‘이제 우리 엄마가 왜주세요’ 하고 말했다.

그녀는 대단히 가난했고 또 그녀의 연로한 아버지를 돌보아야 했다. 그들 셋은 한 방에서 지냈다. 그녀가 데리고 들어오고 싶었지만 들어올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녀는 사랑과 나눌 수 있는 돈으로 그들을 도왔다. 그들은 크리스찬

형제를 위해 배를 굶주렸다.

알리스의 덕분에 미하이는 9살부터 13살까지 그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련을 견딜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왔을 때 그는 “엄마, 나는 엄마 편이고 주님을 사랑해요” 하고 나에게 말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선전은 강력했다. 필립과 강의로 교사들은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열심히 증명해야 했다. 그래서 미하이는 가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질문하는 적이 있었다.

나는 인간은 자연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물으면 안 된다는 리처드의 말이 생각났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기 있고, 또 우리 식구 중의 하나이다. 정신적인 것들은 물질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증명하는 것이다. 천재는 그가 영감 받았다고 이야기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 자신보다 높은 무엇이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의 영적 경험이다.

모든 학교에는 목사를 비웃는 그림과 책이 있는 신없는 코너가 있었다. 미하이는 그 이야기 중 몇 개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행실이 나빠 그들의 형제들을 배반한 목사들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교회는 신적인 면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도 있다고 알게 해주려 했다.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은 이 두 가지 면을 가진다는 것도.

매일 매일 그는 그가 배운 교회의 잘못이나 목사의 타락의 예를 가지고 집에 왔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러나 그들은 목사가 잘못했을 때 느끼는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다. 그들은 죄의 쪽만 보여주는 것이다. 그들은 선한 면을 감춘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룰 수 있다. 우리 안의 신성한 면을 보면 그것을 후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그의 의심을 다음 공격 때까지는 내쫓았다. 크리스찬인 엄마는 누구나 이러한 곤란을 겪을 것이다. 인생은 전장이고 우리가 다져놓은 기초가 낮 동안에 공산당에 의해 점령당했다.

“우리 교수님이 요셉은 좁쌀쟁이 사색가래요.”

“왜 다윗 왕은 결혼한 우리아의 아내를 원했지요?”

나는 대답했다.

“성경은 진실을 감추지 않는다. 그것은 죄와 실수를 저지룰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네가 그 책들을 읽을 때 너는 공산당이 거짓말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않니?”

이 어린애들을 상대로 한 투쟁에서 그들은 모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학교, 라디오, 신문들이 다 그들의 무기이다. 그러나 미하이는 언제나 생생한 기독교의 보기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내가 1951년 कै널에 있을 때 우리 교회의 사람들은 그애를 돕기 위해 그들의 자유까지도 희생했다. 나이 지긋한 부부는 경찰이 찾는 것에서부터 피하기 위해 빙빙 돌아다니며 이틀이나 여행했고 알리스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의 손에 그들 저축의 일부를 주었다.

미하이에게 숙모나 같은 미하일로비치 부인은 내가 구속된 후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인 감자 바구니를 가지고 그녀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몇 백 마일이나 왔다. 그녀의 방문은 항상 정치범의 친지들을 감시하는 간첩에 의해 밀고되었다. 그녀가 집에 닿았을 때는 경찰에 소환되어 다시는 건강을 되찾을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매를 맞았다.

이런 취급을 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하교회의 사람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아이에게 그들 의무를 잊지 않았다. 때때로 그들이 잘 때도 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나를 만나려운 한 여자가 생각한다.

“나의 아이는 비밀경찰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는 집에 오는 사람 모두에 대해 묻는 사람과 정규적으로 만난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아들을 쫓아낼 수도 없고 그가 그들을 보러오는 사람들을 배반하게 내버려둘 수도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당분간 우리와 접촉을 끊으라고 충고했다. 가끔은 한 남자나 또는 가끔 그의 부인이 나의 다락방에 와서 그들이 간첩 짓을 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우리는 밋에 걸렸어요” 하고 한 여자가 말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당신과 미하이틀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협과 경고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나의 남편은 직업을 잃거나 감옥에 갇힐 거예요. 우리는 누가 교회를 가는지, 무어라고 말하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는 아무 해도 없을 것이지만 알아서 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매주마다 비밀경찰의 소환을 피하기 위해 부크레스트를 떠나 이 마을 저 마을로 옮겨 다녔다.

공산당 치하의 집은 언제나 분열되었다. 그들이 무슨 빵을 사고 무엇을 요리하고 누가 방문하는지 그들에게 말해줄 아이나 친척들을 구하지 못하면 그것을 기꺼이 하는 이웃과 동료들이 있었다. 여자애들은 같이 다니는 남자들에 대해 의심 받았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불리한 증거에 쓰이기 위해 서류철로 들어갔다.

이 상황에서 붉은 타이틀 매거나 공산당 뗏지를 단 비밀의 크리스찬들이 몇 십만이 생기는 현상이 생겼다. 지하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국가 고위직을 맡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 밤중에 목사를 불렀다. 그들은 목사가 주재하는 결혼을 비밀스럽게 하기 위해 외진 곳으로 갔다. 그리고 많은 밀고자들이 나에게 와서 그들이 해야 하는 일 모두를 이야기하고 그들의 배반에 대한 용서를 구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우리가 어떻게 감시받는지 말함으로써 후회의 진실성을 입증하십시오. 당신이 명령받는 군관의 이름을 말하십시오. 그들과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 말하십시오.”

그들이 어디 어디에서 정보를 넘겨준다고 하면 우리 중 누군가 그 근처 식당에 앉아서 비밀경찰이 관련된 스냅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다음에 그가 누구를 만나는가 미행했다. 흔하게 그런 일이 생기듯이 비밀경찰의 안전한 사무실에서 모임이 열리면 우리는 그곳을 감시하고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을 사진찍었다.

이것은 위험한 방법이었지만 이 방법으로 우리는 모든 간첩들의 리스트를 얻을 수 있었다. 그 중에는 교회에 대한 간첩질의 통솔했던 시르카느 대령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감시했던만큼 그렇게 가깝게 그를 감시했다. 우리는 그의 주요 간첩들을 하나 하나 벗겨 내었다.

미하이틀 가진 것은 행운이었다. 나의 아들은 믿음이 깊은 것이상이었다. 그는 소년시대의 가장 어려운 나이에 있었고 우리는 그에게 가장 힘든 일을 주었다. 그의 가장 큰 문제는 항상 감시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선생이 말하는 웃기는 이야기와 일어난 이상한 일에 대해 같이 웃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와 함께 살려온 마리에타는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보통 때보다 훨씬 늦게 돌아와서 저녁 내내 거의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요 몇 주 동안 몇 번 매우 늦

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녀는 명랑한 소녀였는데 지금은 명랑하지 않고 다만 조용해졌으며 더 자신이 만족해 있는 것 같았다.

갑자기 그녀는 “일이 있어요…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저, 저는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요” 하고 말하였다.

그녀는 병원에 사촌을 만나러 갔다가 그를 만났다. 그는 절름발이었다. 그의 왼쪽 몸 전체가 공장 일을 하다가 사고로 마비되어서 이것이 그의 말에 영향을 미쳤다. 몇 달 동안 완전히 그는 말을 못했고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많이 나아져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닐 수 있어요. 그는 말을 잘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은 처음에 알아들을 수 없어요. 나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다음 날 저녁 그 젊은이가 우리를 방문했다. 그는 힘들게 세 층계단을 올라왔다. 마리에타가 말한 대로 그의 말을 알아듣기는 힘들었고 그날 밤에는 다른 마을에서 와 마루에서 잠자는 친구 몇이 있었다. 그러나 피터도 잘 곳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병원에서 나온 이래로 어떤 이의 지하실에서 기거했고 지금은 그것도 잃었다.

간질병인 마리에타는 병어리 불구자 피터와 결혼해 우리와 살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의 작은 다락방에서 함께 기거하는 사람은 밤에 머물은 손님들을 제외하고도 4명이 되었다. 그들은 구속된 목사의 부인이거나 낮에는 전의 죄수와 접촉하는

것을 감히 엄두를 못내는 크리스찬들이었다.

그들 중 하나는 경찰 막사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젊은이였다. 거기서 음식이 모자라는 일은 절대 없어서 그는 가끔 빵을 가져 왔다.

지하 교회

미하이는 틀림없이 역사 시간에 배운 것이 아닌 이야기를 가지고 집에 왔다. 히틀러와 나폴레옹과 알렉산더 대왕이 지옥에서 하루를 내어 모스크바의 행진을 보러 왔다고 한다. 탱크의 열이 굴러가자 히틀러가 말했다.

“내가 이렇게 붉은 군대가 썬줄 알았으면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는 건데.”

알렉산더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런 군대를 가졌었다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을 텐데.”

나폴레옹은 러시아신문을 자세히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프라우다지(謠)처럼 말 잘듣는 신문만 있었다면 세상이 워터루에 대해 몰랐을 텐데.”

미하이는 공산주의에 대한 우스개 소리를 모으고 있었다. 그는 국민학교를 마친 후에 더 이상 진학할 수가 없었다. 정치범의 아이에게는 더 이상의 교육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일거리를 찾았다. 리차드의 친구가 그가 피아노를 치는 것을 보고 일자리를 말했다.

“나는 국립 오페라 하우스의 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좋고 머리가 좋은 연수생이 필요합니다.”

이 직업을 얻기 위해 미하이는 16페이지의 질문을 메꿔야 했다. 그는 15세였는데도 지난 20년간 살은 동네의 사람 중 두 사람의 주소를 제공해야 했다.

“비밀경찰이 순회할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할 것인지를 내가 알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지휘자가 경고했다.

형식을 마친 후에 미하이는 대서소를 돌면서 잉크먹으로 망쳤다고 말했다. 그래서 두 개를 다시 쓴 후에 나는 몇 년 후의 검사를 위해 보존해 두었다. 질문들은 직업에 항상 따라다닐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위반하면 일이 날 것이다.

이런 질문이 있다.

“아버지가 구속된 일이 있는가?”

“아버지는 유죄당한 것인지 구속당한 것이 아냐” 하면서 그는 간단히 “아니오” 라고 썼다. 그가 뭐 틀렸나?

그는 직업을 얻어 한 달에 8 파운드를 받았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큰 액수였다. 그리고 그는 식량배급 카드를 얻게 되어 빵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지휘자는 미하이가 청음이 뛰어나서 음을 쉽게 알아낸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그것에 있어서는 40년 일한 나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그는 악기를 수리하는데 숙련공이 되었다. 그래서 19개월 후에 아버지가 정치범이라는 사실이 발각되어 직업을 잃었을 때 그는 부크레스트의 음악가 중에서 의뢰자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일을 잃었지만 개인지도를 해서 벌은 조금의 돈으로 책을 사 공부했다.

나는 우리 식구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별 이상한 직업을 다 가져보았다. 처음은 집단농장 누에재배였다. 마리에타는 이것을 잡지에서 읽었다.

“집에서 누에를 재배함. 수입을 늘리고 사회주의 건설에 공헌함.”

미하이는 쓴 웃음을 지었다.

“마리에타는 본걸 실크로 만든 멋진 이브닝 가운을 입게 생겼네.”

“아니야, 실크는 비싸” 하고 마리에타가 말했다.

미하이는 이 잡지를 집었다.

“그렇지만 생산한 것은 뭐든지 국영 집단농장에 갖다 바쳐야 하잖아? 그럼 무슨 소용이야? 그건 그렇고 누에는 어

디다 질러? 더러운 누에를 식탁 한 가운데에 놓고 내가 밥을 먹어야 한다면 그건 잘못일거야.”

“네 침대 밑에 뒀.”

“아냐, 네 침대 밑이야.”

“누에는 뭐를 먹지?”

“바보같이 그것도 몰라? 뽕나무지.”

“미하이, 너 알리스 아주머니와 살 때 그 옆이 병원이었고 건너 편은 공동묘지였던 것 생각하니?”

“네. 그것은 정말 나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었어요.”

“미하이, 공동묘지는 뽕나무가 수두룩하단다. 적어도 우리는 누에를 먹일 수는 있을꺼야.”

그래서 우리는 100개의 작은 유충이 든 상자와 누에 재배 집단농장에서 온 지시사항이 적힌 종이를 가지고 누에 기를 곳을 만들었다. 미하이가 지시사항을 크게 읽었다.

“누에가 나방으로 변할 때가 되면 그 고치에서 실을 만들어 감는다.”

“나는 누에가 나방으로 변하는 줄 몰랐네. 어머니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어느날 누에가 점질을 벗어버리고 날아갈 거예요.” 그는 종이쪽지를 열심히 들여다 보았다.

“고치가 붙었을 때 몇 백 야드의 비단 실이 나온다. 여기

가 좀 어색하지 않아요?”

우리는 미하이가 뚫어는 공기구멍으로 상자 안을 들여다 보았다. 벌레들은 정확히 말해 보기가 좋지 않았다. 그것은 갯빛이었고 3인치쯤 되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끝없이 먹는다. 누에의 인생은 계속 먹는 데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고치를 풀어 비단실을 낸다. 이것으로 실패를 감을 수 있다.

처음에 미하이는 공동묘지에서 뽕나무를 가져오는 것을 스스로 도왔다. 그러나 묘지지가 그를 보고 쫓아냈다.

“밤에 몰래 들어가서 해야 되겠다.”

다음 날 저녁 종이 바구니로 무장해서 그는 공동묘지 울타리를 건너갔고 그렇게 며칠을 공급했다.

“죽은 사람은 뽕나무를 먹지 않아요.” 미하이가 말했다.

나는 천국같은 예루살렘에서는 생명의 나무가 치료의 목적으로 자란다는 계시록의 말을 기억했다.

“병든 영혼도 그곳에 잠들 수 있다는 것이 거기서 증명되어서 나는 안심이에요” 하고 마리에타가 말했다.

누에는 4,000년 동안 사람 손에 의해 재배되어온 손이 많이 드는 벌레이다. 그들은 화씨 78도보다 높은 온도를 싫어했다. 그들은 밝은 것을 좋아하지만 너무 밝은 것은 안좋다. 점질을 벗으면 귀찮게 하지 않을 것이다.

“쉬!” 미하이가 종이를 인용하면서 소리내었다.

“어린 벌레는 번할 때마다 소리에서 떨어져 있어야 돼.”

한달 쯤 뒤에 공동묘지를 몰래 가서 가져오는 것이 계속 된 후에 우리는 100타래를 가졌다. 이것은 집단농장에 가져다 주니 이틀분의 먹을 것을 살 돈을 주었다. 그렇지, 이틀분의 먹을 것이면 감지덕지이지. 나는 집에 다시 100개의 새로 깐 유충을 가져왔다.

“싫어요” 하고 미하이가 투덜댔다. 그러나 몇 달간 우리의 누에 농장은 번성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유충이 터지려는 것처럼 창백하고 부푼 것을 보았다. 미하이는 쇼팡의 장례행진곡을 휘파람불어 누에재배에 대한 책을 찾아보기 위해 도서관으로 갔다.

“그건 혼한 것이라요. 목마르게 해서 그렇대요.”

“퉁퉁하기만 한대?” 하고 말했다.

“그래요. 책에 붓는다고 나와 있더군요.”

예수님은 부종이 걸린 여자를 치료하셨지만 그가 누에를 치료하는 기적을 행하려는 기미는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내버렸다.

나는 속옷 등을 꿰매고 재봉틀질하는 작은 방직 회사로 옮겼다. 그래서 내가 버는 돈과 미하이가 얻는 돈으로 우리는 살았다.

그 해는 국제 청년 축제의 해였다. 소년 공산당들과 세계 각지에서 동조자들이 부크레스트에 왔다. 그리고 이 축제가 시작하기 전의 세 달 동안 가게 안은 아무 것도 없었다. 빵과 다른 먹을 것을 사려는 줄이 굉장했다. 끝없이 기다린 끝에 사는 것은 버터 한 조각과 밀가루 몇 온스였다.

축제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상점은 물건들로 꽂혔다. 3주 동안 우리는 전쟁 이래로 루마니아에서 보지 못한 여러 일들을 보았다. 미하이는 “국영 채소가게 안에서 대추야자 상자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금박에 싸인 초콜렛도 있었어요” 하며 들어왔다.

그리고 축제가 끝난 후 몇 달 동안 식량의 부족은 예전보다 더욱 심했다. 그들은 외국 방문자들을 속이기 위해 선전을 하는데 그동안 보유했던 모든 것을 다 써버렸다.

미하이는 외국에서 온 젊은 공산주의자들이 우리의 젊은이를 감시하는 어두움에 물들었다고 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온 젊은이들에게 현명치 못한 발언을 한 많은 루마니아인이 비밀경찰에 밀고되었다. 미하이가 아는 한 사람도 체포되었다.

정말 추하고 거짓 투성이다!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나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을 망치는 이 악랄한 제도를 증오했다. 농부들은 한때 자기네들의 것이었던 땅에서 흠치지 않으면 안되었다.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탄압당하고 권리를 강탈당했다. 부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명에

스며들었다.

큰 국영 상점의 경영자들은 100만 파운드 가치의 물건을 가진 암시장의 우두머리들이다. 거짓말과 감시가 우리 생명을 채웠다. 그것은 공산당을 향한 증오가 쓸데없고 나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가장 고통받아온 전의 죄수들에게 떨어졌다. 오직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만이 승리할 수 있다.

미하이는 공산주의자가 얼마나 미움받는 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두 친구가 버스에서 만났다. 꺾속말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수상 게오르규 데이를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물었다. 그의 옆 사람이 입술에 손을 가져다 대었다. “미쳤어? 사람들이 들어” 하고 말했다. 그들은 버스를 내려 공전을 걸어 들어갔다. 첫번째 사람이 다시 또 물었다. “정말 너의 생각은 어때?”

500 야드 저쪽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쉿!” 하고 옆 사람이 말했다. “그들이 듣겠다.” 마지막에 아무도 없는 완전히 들 뿐인 곳으로 갔다. “이제 네 생각을 말해” 하고 첫번째 사람이 말했다. 그 옆사람이 대답했다. “나는 그를 가장 훌륭하게 생각하고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 핑계와 방법은 진실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 기도와 크리스찬 형제를 믿는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리차드가 감옥에 있는 몇 년 동안 나와 제내다의 진정한 일이었다.

정직하고 훌륭한 목사들이 많이 구속되었으므로 지하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들 아내들의 일이 되었다. 우리 12명은 ‘독학의 목사’였다. 사람들과 이야기함으로써 설교하는 법을 배웠다. 여자들은 방방곡곡에서 부크레스트까지 상담을 하고 교회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기 위해 왔다. 곧 우리는 전 시간이 이 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다.

서방은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있느냐를 놓고 아직도 논쟁하고 있었다. 동쪽 유럽에서 이 문제는 스스로 해결되었다. 공산주의 치하인 곳은 어디나 목사들이 투옥되어 그 부인들이 그 대신 목사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에 의해 목사로 임명받은 것이다.

지하교회는 그 도시에 셀 수 없이 많은 비밀집회소를 가지고 있었다. 흔히 지하실이나 우리의 다락방같은 곳이다. 어두운 밤에 창문에 불빛이 내비치고 사람들은 층계를 올라와 특별한 노크를 한다. 우리는 공간에 너무 꽉차고 덥게 밀집해 있어서 창문에 램프의 불빛을 타게 할 충분한 공기가 없었다. 램프의 불빛은 꺼져버렸고 그러면 그 방은 어둠에 싸인다.

당에 대해서 공산주의자의 지하실을 쓰는 술수는 우리의 밤의 회합에 가끔 참가한 그레그 목사와의 대화 중에서 착안되었다. 그는 인가받은 교회의 목사였는데 공산당은 그가 술을 마시는 줄 알기 때문에 인가를 주었다. 술주정꾼 목사는 공산주의 선전을 잘한다. 그들은 그가 버티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그들의 눈에 흙을 집어넣기 위해서라도 술을 마

신다는 것을 몰랐다.

그레그 목사의 가슴은 우리와 함께 있었다. 그는 굉장한 도움을 주었다. 그는 국가에 의해 지정받은 목사의 한계를 벗어 비밀 목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했다. 많은 목사가 이런 일을 했다. 바깥에 보이는 교회와 지하교회와의 엄격한 구별이 없었다. 그 둘은 서로 섞여 있었다.

학정 아래서 종파간의 장벽은 더욱 무너져갔다. 카톨릭이나 정통파나 루터파이거나 우리는 믿음의 순수한 요소로 남게되었다. 마치 1세기의 교회와 같았다.

그레그 목사와 나는 그 제략에 대한 여러가지를 의논했다. 우리는 둘다 레닌이 이 세계를 정복하는 계획을 세워놓은 책인 「무엇을 완수할 것인가?」를 읽었다. 그것은 실재하는 모든 불세비키들이 한 의자에 앉아 있을 1903년에 쓰여진 것이었다. 정말 그들이 함께 앉아 있는 그림이 있었다.

레닌의 첫번째 계획의 하나는 적의 기관에 침투하는 것이다. 이것은 적어도 그 사업의 한 법칙이다. 공산주의자들이 루마니아에서 권력을 잡은 후 우리는 그들이 부르쥬아 장관들과 반 공산주의 단체에 직접 침투했다. 세미나와 목사의 임무에 그들은 침투했다.

이제 그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공산주의 조직에 침투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하교회가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처음에는 우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인 것 같았다. 그러나 그레그 목사는 대답했다.

“그리스도는 성전을 강도소굴이라고 불렀지만 그분의 죽음과 부활 후에 사도들은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비정상적인 환경이 이상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도둑놈을 잡기 위해서 반은 도둑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는 주저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도덕적으로 주저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공산주의 단체에 끼게 되면 그들이 잘못했다고 비판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배경을 가진 사람은 꼭 자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들은 한달 안에 제거될 것입니다.”

그레그 목사가 말했다.

“그들 몇 명은 좋은 배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쉽겠죠. 그들이 소년 공산당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거기서 다음에는 경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경찰로 그 다음에 당에 입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러시아인들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그리고 비밀집회에 온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것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예배에 오는 사람들은 열정적이고 도우려 애썼지만 내가 그들과 어울릴 때 나는 마음 속으로 그들을 두 집단으로 가른다.

대부분은 거짓 역할을 하는 데 몸서리를 칠 것이다. 내가 공산주의자들에게 그들더러 침투하라고 하면 나올 대답을 나는 알고 있다. 그들은 이유가 되지도 않는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두번째는 작은 사람들로 위대한 영혼 구제자 사도 바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는 유태인과 그리스인 둘 다 구원시킴으로써 그 자신도 유태인이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그룹에서도 몇 명만 선택받아 우리의 비밀결사에 참가할 수 있다. 그들은 모두 그들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하교회를 보호하지 않고 내버려둘 수 없다고 동의했다.

혼자 온전하기 위하여 많은 크리스찬이 형무소에 가는 것을 허락하는 이기심은 허락되지 않는다. 우리의 멤버 백명 꼴에 한 사람 꼴로 우리가 하고 있던 일을 알았다. 그것이 우리의 안전한 방법이였다.

그레그 목사는 아이들이 이 위험한 모험을 하게 되면 부모들이 반대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학교다닐 때 부모님들은 스테판 대왕에 대해 곧잘 이야기하셨어요. 한번은 그가 부상을 입고 그의 성문 앞에 와 셧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거기 누구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절니다. 당신의 아들 스테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너는 내 아들이 될 수 없다. 그애는 자기 군대가 아직 싸움터에 있는데 그곳을 떠나오지 않는다. 그애는 거기서 싸운다. 나는 다른 아들은 모른다’라

고 말했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그들은 몸바친 여성들이지요.”

“나는 여기오는 어머니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공산당이 리차드가 죽었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나는 간단히 슬퍼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나는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이 정신은 하루 하루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이 나라를 위해 죽은 것에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면 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자로 죽으면 얼마나 더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레그 목사는 씩쓰레한 미소를 지었다.

“죽는 것은 적어도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순교에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제내다가 말했다.

“그래요 많아요 자유를 희생하거나 생명을 희생하는 것보다 그의 고결함을 희생하는 것이 더 높은 것이지요.”

그는 일어나서 초라한 옷에서 빵조각을 털어냈다.

“그런 것들 아무 것도 포기하도록 사명받지 않고 한 세상 산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마리에타는 시골에서 올라온 예쁜 친구가 있는데 나는 그녀를 트루디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녀가 몇번 우리를 방문했을 때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가 감방에 있을 때 매를 맞기 전에 경비원은 ‘너는 순교자가 되고싶지? 지금 고통받아라’ 하고 말했답니다. 정말 우리는 그랬어요. 그러나 가장 어려운 때일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기쁨이 있었어요. 초대와 크리스찬같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것이 있어요. 트루디, 당신은 여기서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그녀는 갈색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트루디는 조용하고 지적인 소녀이다. 그녀는 일을 하는데 당황하지 않았다. 접시나 문을 닫을 때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그녀의 크면서도 그녀의 흉하지 않은 손발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믿게 하여 사람들의 용기를 돋구어준다. 그녀는 대가족의 장녀였다. 수년 동안 그녀는 그들을 보살피고 정신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우리가 청년 공산당에 입당할 소녀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비밀경찰을 위해 일하고 있는 시르카스 대령은 그의 부하에게 집에서 일을 도울 소녀를 아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는 그 도시의 제일 좋은 지역에 큰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부인은 사치스럽고 어리석지만 친절합니다. 이 일을 하겠다면 우리를 많이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얼굴도 변하지 않았다. 그

러나 갈색의 눈은 광채를 뱉다. 나는 계속 말했다.

“그들은 아무 것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 부하는 그의 부인에게 부탁했는데 그 부인의 친구가 우리 예배에 와요. 그녀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무얼 하면 되나요?”

“아무 것도 없어요. 먼저 이 집을 벗어나서 여러 사람을 알게 되지요. 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그들의 고민을 털어놓는 것을 보았어요. 토마쥬 부인이 어제 정맥류를 보여주는 것 좀 보세요.”

트루디는 웃었다.

“마치 당신이 간호원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녀는 잠시 동안 생각하더니 승락했다.

어느날 아침 그레그 목사는 나에게 요한복음서에서 12 제자가 대제사장의 궁전을 침투한 그 비슷한 것을 암시한 흥미가 가는 귀절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제자 중의 한 사람이 대제사장 가야바를 잘 알아서 예수님이 심판받으시던 바로 그날 이 제자는 성전 경내에 들어갈 수 있었고 베드로도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젊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 비밀스런 일을 반대했다면 이 일을 그들에게 시작하라고 말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

러나 젊은이들은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

나는 소년 공산당에 입당하도록 몇 명의 소녀를 보냈지만 그레그 목사에게 그들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 공식 교회의 목사는 회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끊임없는 압력을 받기 때문에 그에게는 알리지 않는 것이 그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우리는 끊이지 않는 감시에 의한 비극을 보았다. 한번은 우리 방에서 미하이의 엘리스 아주머니가 물었다.

“성경은 만물이 선을 위해 함께 일했다고 하지만 선이 무엇이지요? 알고 싶어요. 간첩들이 섬기는 것인가요? 나는 요즘은 입을 열기가 두려워요.”

처음에 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나는 그들이 한 끔찍한 것 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질문이 나를 괴롭혔다. 밤에 침대에 누워 나는 여기에도 정신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간첩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계속 조사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천사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말한다. 그러나 천사들은 보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 간첩들은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목 대상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여 준다.

나는 내 자신의 탐지 제도를 가졌다. 경찰관들이 신자인척 하면서 우리 방에 기도하러 왔다. 처음에 나는 한번씩 보고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는 나를 울테니 가에서 불러 세웠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범브란드 부인 아니십니까?”

“네, 그렇지만 저는 어디서 뵈었는지…”

그의 레인 코트는 상당히 새 것이었고 그는 너무 초조해보였다. 그의 눈은 슬쩍슬쩍 결눈질을 했고 나이는 30대 가량 된 것 같았다.

“세르나보다에서이죠. 저는 4 번 갱에 있었습니다. 내가 미디어 봉으로 이동되기 전까지 한달의 며칠 동안 당신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를 크게 도와주셨었지요. 당신이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당신의 그리스도를 위한 설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찬사를 더 늘어 놓았다. 나는 걸으면서 그의 캐널 수용소에서의 시절에 대한 질문을 했다. 그의 대답은 애매했다. 나는 이 사람이 거기에 없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나는 그를 추궁할 수 없었다.

그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살아나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물었다.

그는 “아시다시피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감옥에서 귀의했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는 캐널에서 그를 어린 시절의 믿음으로 되돌아가게 한 그리스도에 대한 산만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결국은 그가 우리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나는 그가 음침한 계단을 올라오게 하였다.

그는 나의 정치적 느낌과 선동할 수 있는 나의 친구들의 정

치적 감정에 대해 물었다. 그래서 나는 나대로의 질문을 했다.

“당신은 성경을 많이 읽으십니까?”

“네, 꽤 자주요.”

“우리에게 좀 읽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 내 성경책을 주었다. 그곳에는 미하이와 제내다, 마리에타, 피터와 방문한 한 여자가 있었다. 그는 시편 몇 구절을 자기 자신의 신자인채 하는 말을 덧붙여서 읽었다.

“자 이제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내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시작하기를 기다리면서 그의 주위에 꿇어 앉았다. 그는 몇 마디 중얼거리더니 그만 그쳤다. 그는 얼굴이 붉어진 채 긴 침묵이 있었다. 그는 말할 바를 찾지 못했다. 그는 이제 그의 직업을 모두 알았다는 것을 알았다. 말을 꺼낸 것은 제내다였다.

“당신이 하는 것은 대단히 틀린 일이에요” 하고 화가 나서 말했다.

“그것이 당신을 타락시켜도 당신이 좋다면 맘대로 하시죠.”

리차드는 우리가 개종한 연도인 1938년 나에게 성경을 선물했다. 매장마다 노트를 위한 빈 공간이 있었다. 우리는 초기에 될 수 있으면 같이 모여 읽고 공부했고, 나는 나의 생각과 영적인 경험과 덧붙일 말을 썼다. 그래서 나는 귀중한 말과 기억이 가득찬 책을 가지게 되었다. 나의 노트 중의 대부분

분은 나만이 아는 기호로 썼는데 그것이 의심의 소재가 되었다. 그러나 내가 구속당한 후에 미하이는 그것을 안전하게 감추어 놓을 수가 있었다.

내가 성경을 열어 노트에 기록하는 리차드의 생각들을 읽었을 때는 마치 그가 방 안에 나와 함께 서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가 나를 굶어보며 격려하고 위안시키는 그의 실재의 가장 강력한 느낌을 가졌다. 나는 속기로 이런 그의 방문들을 적어 놓았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성경을 열으니 그때에 다시와 있는 것 같았다.

성경은 30년 이상 써서 낡고 해졌지만 그것은 나의 재산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예배의 인도자께서 그것을 몰래 빼돌렸다.

성경은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그때도 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듣기 위해 우리 집에 왔었다. 나는 어디의 지하교회든지 무턱대고 갈 수 없었다. 나는 감시받고 이 도시를 떠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하이는 비밀히 하는 곳이나 공개적인 회합이나 다 참가할 수 있었다. 30명의 젊은이들 중에서 가장 큰 집을 지니고 있는 사람의 집에서 모였다. 그들은 문에서 묵묵하게 서로 인사를 주고 받았다. 그리고 레코드판이 돌아간다. 팝송의 가락이 나오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춤추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잠시 후 이 녹음기는 꺼진다. 누군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기도를 하고 또 판을 좀 더 크게 틀고, 이웃들이 들으라고 파티를 하는 소음을 낸다.

“에밀은 올해에 벌써 생일이 세번 지났어요.” 미하이가 웃었다.

“그리고 그애 여동생은 두번 결혼식 했구요. 다음번에는 소풍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교외로 녹음기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회를 연다. 그 지점의 모든 길에 망보는 아이가 배치되어 있어서 누가 다가오면 경고 싸인을 했다. 이 모든 것은 예배에 큰 긴장감을 주었다. 모든 사항, 즉 장소와 시간, 암호가 미리 계획되었다.

가는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갖고 갔다. 그것은 자유 세계의 예배와는 매우 다른 것이다. 설교자는 누구나 이것이 그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설교한다. 그 말들은 감옥과 죽음을 뜻할 수도 있어서 그 말에는 무게가 있었다.

우리의 목사의 대부분은 공인된 교회의 회원들이었다.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비웃는 통제와 직면하고 있었다. 그들은 비밀 목사로서의 임무를 이행했다. 그것이 그들이 젊은이들에게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며 그리스도에 대해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다. 교회에서 말해

지는 모든 말은 보고되기 쉽다.

미하이는 가장 근래에 우리에게 우스개 소리를 했다.

“건설부 장관이 모든 새로 짓는 집은 이웃이 서로 감시할 수 있도록 특별히 벽을 얇게 지으라고 명령했대요.”

그것은 그냥 우스개 소리일까?

집회에서 나는 가끔 나의 감옥과 कै널에서의 생활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 처음에 나는 그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조금씩 조금씩 미하이가 나를 말하게 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어떻게 맞고 살기 위해 어떻게 풀을 먹었는지를 그가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물었다.

“어떻게 어머니는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부정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견디었어요?”

나는 그에게 히브리 말의 특수성을 이야기함으로써 대답을 대신했다. 히브리 말은 놀랍게도 어떤 미래의 사건들은 완료 시제로 묘사된다(요즘은 완료시제가 말하고 있을 때 완결된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불려진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과 그분의 고통을 예언하는 저 위대한 이사야 53장에서 그 저자는 이것을 미래의 일이 아니라 과거에 속한 일처럼 이야기한다. 그 글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800년 전에 쓰여졌다.

예수님이 그의 막중한 고통의 예언을 읽었을 때 그 고통은

벌써 시작되었다. 그는 그때는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경시당했다. 이것이 그의 현재이며 미래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히브리어로 과거의 사건인 것처럼 읽었다.

이제 그것이 내가 고통받는 중에 느낀 것이다. 나는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다.

기쁨은 크리스찬 정신의 영원한 현재이다. 나는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천국같은 곳에 있었다. 내가 지나온 역경은 어디갔나? 나의 마음의 신성 불가침한 부분에 과거로 속해 있다. 나는 오래 전에 고난받고 살았으나 현실은 주님께 가까운 기쁨 속에 있다.

이미 지나갔다는 이 확실함이 나를 살려 주었다. 재화는 우리 모두에게 오지만 한번 그것이 지나가면 그럭저럭 지낼만하다. 그것이 히브리인의 이상함이다. 이제 우리는 지나간 것들을 경험한다.

몇 년이 지난 후 나는 이것을 리차드와 함께 의논하였다. 독감방에서 그는 그와 똑같이 느꼈다고 말했다. 나는 그것이 우리 사이의 영혼 교류의 하나의 보기가 아닌가 한다.

트루디가 비밀경찰 간부와의 면담과 여러가지 형식절차를 거친 후 시르카스 대령의 집에 들어가게 된 한 달후에 그녀가 나에게 급박한 전갈을 보내왔다. 그녀는 더 이상 우리 집에 올 수 없었지만 어떤 집에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해 놓았다. 교사인 탄다우어 부인이 그것을 전해 주었다.

내용은 나쁜 것이었다. 그녀는 시르카스가 우리 집회에 자주 오는 N. 목사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전화에서 들었다고 한다. “그가 도움이 될거야” 하고 그가 말했다.

우리에게 비난을 들은 목사는 우리에게 그가 긴 구형선교로 위협당했었다고 말했다. 그의 건강은 나빠지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감당해 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그는 시르카스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목사는 아직 그를 위해 아무 것도 한 것은 없었다.

매우 깊이 수치를 느끼며 N. 목사는 부크레스트를 떠나 지방으로 내려갔다. 그러자 트루디는 같은 기간에 시르카스가 언급한 한 여학생의 이름을 주었다. 처음에 그녀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 나는 그녀의 손에 내 손을 갖다 놓았다.

“진실해요. 우리는 그들이 당신에게 가하는 압력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밀고를 하도록 강요받기 전에 우리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무슨 일이 생겼나 우리에게 알려준 진실한 친구에게 신세를 졌어요.”

그녀는 앞으로 쓰러지면서 내 옆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그냥 길을 걷고 있었는데 차 한 대가 가까이 와서 나에게 ‘우리는 경찰이다, 타라!’ 하고 말했어요. 그들은 나를 어디로 데려간 것이 아니고 몇 시간 동안 그냥 여기 저기 차를 몰고 다녔어요. 그들은 계속 일주일에 한번씩 우리 집과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하는 일을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가족에게 생길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응낙한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매우 치명적인 것은 아무 것도 보고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나는 그렇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몇 번이고 트루디는 귀중한 정보를 빼들었다. 그러나 그녀의 가장 멋진 전술은 대령의 집을 그가 잡으려 하는 바로 그 사람의 비밀 피난소로 바꾼 것이다. 이제 그는 공산주의의 성직자 정치에 통달해서 그 특권을 누리기 시작했다. 그는 가족을 일요일이면 산이나 바다로 데리고 떠났다. 신임받는 트루디가 그 집의 지기 노릇을 했다. 시르카느 부인은 그녀를 ‘나의 작은 보물’이라고 불렀다.

란다우어 부인을 통해 전갈이 왔다.

“왜 여기 시르카느네 집에서 집회를 안가지죠? 그들은 며칠 간 떠나서 큰 집에 몇 명 밖에 없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누가 크리스찬을 감시하는데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사람의 집에서 크리스찬이 비밀 집회를 연다고 의심할 수 있을까? 나는 해롭지하다고 생각했다. 조금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6명의 지하교회의 지도자가 하나씩 하나씩 간격을 두고 지정된 지역에 도착했다. 우리는 트루디에 의해 대접받았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지나갔다.

그때부터 우리는 시르카느가 집을 비울 때면 그 집에서 정기적으로 만났다. 트루디는 그녀의 이중 역할을 잘해 나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런 이중 일을 하는 것을 배웠다. 그들은 적군가와 당을 찬양하는 노래를 해야 했다. 그들 대부분은 성공해서 몇 사람은 고위직까지 올랐다.

우리는 30년 동안의 억압 동안 꾸준히 생명을 유지해온 러시아의 지하교회로부터 교훈을 받았다. 전쟁 중에 우리로부터 소련이 뗀 지방인 베사르비아에서 온 형제가 그곳 크리스찬이 어떻게 저항하는가를 말해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알았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실패하는 적도 있었다. 노동자들에게는 이중 생활의 긴장이 너무 힘에 겨웠다. 다른 사람은 너무 무모해서 그 값을 치루었다.

우리 교회의 한 남자는 몇 층으로 된 큰 건물의 국영 서점의 주인이었다. 그는 물론 팔 성경이 없었지만 성경의 원문과 귀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책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이것은 많이 팔렸다. 이 성공이 그 주인을 너무 자극했나보다.

8월 23일 '자유의 날'에 그의 창문 진열장애는 책을 읽을 줄 아는 군중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웃고 박수치면서 자꾸 모여들 때 비밀경찰은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이 수수께끼를 푼 사람은 시르카느 대령이라고 나중에 트루디가 말했다. 군중 속을 헤치고 들어가 그는 막스, 엥겔스, 레닌과 스탈린의 초상화를 검열하였다. 거기에는 웃을만한

아무 잘못된 것도 없었다. 그후 그는 사진의 뒤에 빅토르 위고의 걸작의 염가판의 광고 포스터가 눈에 띄었다. 두 단어가 큰 검은 글자로 쓰여 있었다. 레 미제라블!

그는 그 주인을 구속하고 갈대를 자르는 작업의 다뉴브 강 입구의 노동 수용소로 보냈다.

반격

내가 석방된 지 몇달 후 내무부의 한 관리가 침침한 계단 위로 찾아왔다. 그는 검은 머리를 가운데 가르마를 타고 쩡쩡 울리는 목소리의 뚱뚱한 남자였다. 그는 종이가 가득한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내가 진정한 엄마였느냐는 것이다.

내가? 그러나 어떤 엄마인가? 내가 전혀 내 애를 돌보지 않았던가? 그가 교육을 잘받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를 직업을 얻게 해서 좋은 보수를 받게 하고 국가보상과 식량배급 카드를 얻게 하였는가?

나는 물론 그랬다. 그래서 왜 이름을 바꾸지 않았느냐? 어떻게 나 자신을 엄마라고 할 수가 있느냐고 그는 소리질렀다. 나는 조용히 앉아서 그를 쳐다 보았다. 말을 덜하면 할수록 그

는 더 빨리 요지를 밝힌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이혼이었다. 그는 결국에는 나의 남편과 관계를 두고 있어서 무슨 이득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다시는 보지도 못할 반 혁명분자라고 말이다. 나같은 지식여성이 그런 국가의 적과 이혼하는 것은 상식이라는 것이었다.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에 할 것이다. 이 맹목적이고 우둔한 결합으로 얼마나 오래 내가 국가에 대항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위협하고 구슬리고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이 어찌리라는 것을 상세하게 이야기했다.

“사랑? 흥! 사랑이라구!” 그는 비웃었다. 그것은 다 쓰레기같은 것이고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새 남편과 내 아이에게는 새 아버지이며, 반 혁명분자에게는 사랑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나의 집에서 감히 이런 말을 하다니! 그러나 나의 최선의 방어는 침묵이었다.

“나는 남편과 행복한 때만을 위해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결합되어 있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와 이혼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반 시간 동안을 또 꾸짖고 얼르고 하였으나 나는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도 조용히 있는 사람은 반박할 수 없다. 결국 그 사람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물

러났다.

“조만간 당신은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그가 소리를 내며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의 다음번 회생자에게로 사라져 갔다. 그 사람에게서는 나보다 조금 운이 있을는지 모른다.

죄수의 부인을 이혼하게 하려고 하는 온갖 노력이 기울여졌다. 첫번째로 죄수는 그가 이혼당했다는 사실을 알면 저항하는 힘이 소멸되고 심지어는 살려는 의욕마저 없어지고 만다.

두번째로 그 방법은 부인들이 공산주의적인 삶의 방법에 뛰어들는데 도움을 준다. 한번 이혼이 성립되면 여자는 그의 남편을 잊으려고 조급해 하고 이것의 가장 쉬운 방법은 공산당에 뛰어드는 것이다. 나는 이혼한 여인들이 사랑했던 애들의 아버지인 정치범들을 조롱하면서 공산당 구호를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것을 안다.

세번째로 아버지 없는 아이들은 국가의 보호에 맡겨져 어릴 적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받는다.

이혼하기 위해서는 “네!” 한 마디만 필요하다. 그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해준다. 며칠 후에 그 남편은 감방 동료들 앞에서 그 소식을 들을 것이다. “당신 아내가 당신과 이혼하기로 결심했오”

그 사람은 생각할 것이다. ‘나를 누가 돌보아 주나? 저들이

원하는 것을 수락하지 않고 싸인하여 석방되지 않는 내가 바보지! 그러나 그가 수락한다고 해도 당분간 그의 아내가 몇 남자의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몇 년 동안 석방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가정과 가족이 파괴된다. 어떤 책도 내가 석방된 후 목격한 많은 비극을 담지 못할 것이다.

감옥에서 여자들은 곧잘 이렇게 말했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남편과 싸웠다니 내가 얼마나 바보였었고. 나가게 된다면 착하고 사랑스런 아내가 되어야지?”

그러나 바깥에 나와서 그들은 태도를 바꾼다.

“내가 왜 그와 이혼을 안하지? 그는 일평생 감옥에 있을거야. 내가 어떻게 배급카드도 없이 애들을 먹여 살리고 직업을 어디서 구해? 남편은 정말 아무 상관도 안하고...” 그래서 그들은 내무부에 이혼을 승락한다.

나는 이런 여자들에게 우리는 남편이 어쩔 것이라는 것을 위해 사랑해서는 안되고 그런 사람 자체를 위해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결혼생활의 행복한 순간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유혹을 견디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너무 번번히 실패했다. 압박은 너무나 심했다.

그러나 때때로 나는 가벼운 농담으로 사람들이 결혼생활의 문제에 새 빛을,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나는 옛날 유태인의 이야기를 기억했다.

한 남편이 당황해서 율법학자에게 와서 그의 아내가 결혼 3개월만에 아이를 낳았다고 불평하였다. “분명히 나를 배반했어요” 하고 그는 말했다. 율법학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지요. 당신은 아내와 3개월 살았읍니다. 그녀도 당신과 3개월 살았읍니다. 당신들은 같이 3개월 살았읍니다. 그러면 9개월이 됩니다. 모두 다 순리에 맞는 일입니다.”

가끔 나는 결혼을 수습하기 위해 이런 조그만 것을 절충하는데 의지한다. 혹은 여자들이 감옥에 있는 남편과 결혼을 마음먹고 있다고 와서 말하면 나는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준다.

한 부부가 이혼하기를 원하면 그들은 각각 심판관 앞에 오는데 대부분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질문한다. 그는 두 사람으로부터의 대답을 적어놓고 심판날이 오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선고하지만 먼저 그 부부가 그 심판관이 적어논 것을 읽어야 했다.

아내는 읽는다.

“사랑하는 님, ...우리가 이혼해야 되는 이날 나는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의 아름다움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품에 안기고 당신의 남편이 되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당신 곁에 가기 위해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어요. 우리의 첫번째 키스를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심판관은 그들이 나눈 행복했던 순간과 기억들을

묘사해 놓는다. 남편이 그 비슷한 글을 읽는 동안 여자는 결혼생활의 즐거운 때를 회상하며 현재의 충들은 나중에는 깊은 감사로 끝을 맺는다. 그들은 평화스럽게 집에 간다.

누구나 아름다운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 결혼생활의 파탄에 이르거나 우정이 깨지는 일이 없다. 너무들 기억을 하지 않는다.

제내다와 나는 한 젊은 여인을 잘 안다. 그녀는 모라 델라로 남편은 정치범으로 감옥에 있고 아이가 둘이었다. 7년간 그녀는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 그녀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게 되었다. 아이들은 공산주의 선전에 몰들어서 자랐다. 드디어 감옥에서 소식이 왔다. 그녀는 자기 일은 하나도 말하지 않은 채 소포를 보냈다.

11년 후에 그는 석방되었다. 그는 그의 가족들의 행방을 찾았다. 딸 하나 아들 하나인 애들은 12살과 13살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당신을 몰라요” 하고 아이들은 냉정하게 말했다.

“아버지라구요? 우리는 벌써 아버지를 얻었어요.”

그는 모라를 다시 구하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그녀는 그와 이혼하고 딴 남자와 결혼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남편을 파멸시켰다.

나는 가끔 그가 길에서 무섭고 상처난 얼굴로 있는 것을 본

다. 그러나 그는 나를 피했다. 몇 년 후에 그는 오랜 세월 동안의 감옥생활과 그녀에 대한 실망과 충격으로 인해 죽었다. 제내다는 이렇게 말했다.

“감옥에서의 일은 덜한 비극이야. 이 세대와 이 세대가 낳은 세대는 공산주의가 우리에게 한 흔적들을 짊어질거야.”

때때로 나는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도와준다. 내 자신이 그들을 알기 때문이다. 리차드가 감옥에 있는 14년 동안 나도 몇 번은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사건은 나의 석방 후 1년쯤에 있었다.

우리 집회에 오는 한 남자가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 나는 그때 43세로 혼자였고 애들이 아버지를 가장 필요로 하는 어려운 단계에 아들을 도와야 했다. 세월은 놀라운 속도로 지나갔다. 그리고 리차드의 소식은 전혀 없었다.

그는 내 또래의 독신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미하이는 그를 매우 좋아했다. 유태인 크리스찬인 그는 나이 많은 그의 부모와 함께 단칸방에서 지냈다. 우리는 서로 방문하고 때때로는 그가 미하이를 영화에 데리고 가거나 공부를 도와주었다. 미하이는 집에서 책으로 매우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그는 친절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신사였다. 여기에 한 여자가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쳐갔다. 어떤 때는 그는 이야기하면서 나의 손을 잡았고 간절히 바라는 눈으로 나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손을 뺄 수가 없었다. 교회나 법이, 즉 세상에

서 간통 죄라고 부르는 그러한 일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과 나의 마음에는 그것은 간통이었다. 다행스럽게도 그레 그 목사가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그런 문제에 빠질 때 친구가 해주기를 내가 바라는 대로 그는 나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감사하는지 아시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는 보기도문 감정과 진실성을 가지고 이야기했다.

“저는 당신과 리차드를 오랜 세월 동안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죄를 짓든 안짓든, 믿음을 지키든 잃든간에 나는 똑같은 방법으로 당신을 보살필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가 당신의 행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람됨을 알기 때문이죠. 묻는 죄를 용서하십시오. 당신과 폴 사이는 어떤 관계입니까?”

잠시 동안 나는 잠자코 있었다. 그는 계속 말했다.

“나도 그같은 시련이 없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그는 저를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도 그를 사랑합니까?”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가봐요.”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리차드가 잘하던 말이 기억납니다. ‘이성의 방해 앞

에는 어떤 감정도 저항할 수 없다. 머뭇거리면, 생각할 시간을 자기에게 주게 되면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에게 미칠 수 있는 모든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다시는 만나지 마십시오.”

나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약간 어려웠지만 풀을 매 주마다 피했다. 그러자 그는 나를 만나려는 노력을 그쳤다.

후에 나는 그레그 목사가 그에게도 감옥에 있는 리차드를 상기시키며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서야 나는 기다림과 믿음의 세월을 얼마나 가깝게 배반하려 했는지 알았다.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다른 유혹들도 많았다. 14년은 긴 세월이다. 몇 번은 욕을 당할 뻔한 적도 있었다. 때때로 그것은 지나가는 육체의 연약함이다. 성욕은 무모한 힘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가혹하게 비판받을 수 없다. 사람은 남의 연약함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이해도 가져야 한다.

어느날 아침 내가 교회에서 유리창을 닦고 있는데 마리에타가 엽서를 흔들며 뛰어 들어왔다. 눈물이 그녀의 볼에서 흘러내렸다. “거기서... 거기서 온 것 같아요...”

그녀는 말을 계속할 수 없었지만 나의 옆 축축한 바닥 위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조그만 엽서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바실 게오르스크로 사인이 되어 있었다. 크고 들쭉날쭉하고

예쁜 필적은 틀림없이 리차드의 것이었다. 나의 눈은 번쩍 뜨였다.

나는 정치범은 10줄 이상은 쓸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아내와 가족이 살아 있는지도 모르는 채 몇 년 동안 떨어져 있는 후에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나는 보았다. 이 사랑스럽고 그렇게 오랫동안 꿈꾸어 오던 편지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된다.

“시간과 거리는 작은 사랑은 깨버리지만, 큰 사랑은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와서 병자 감옥인 터굴 오크나에서 며칠 날에 와서 만나자고 썼다. 곧 그 소식은 지하교회 전체에 퍼졌다. 그 내용은 모든 나라의 사람이 가슴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은 믿음의 부적이 되었다.

감옥에서 그들은 리차드의 이름까지도 빼앗았다. 그는 바질 게오르스크였다. 경비원은 그의 신분을 알지 못하게 되어 있다. 비밀이 새어나가면 외국에서 물어올 것이다.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했다. 그러나 그때는 1948년이였다.

이제 후르시초프는 러시아의 최고 권력을 향해 걸어가고 있고 큰 변화가 오리라는 조짐이 보였다. 스탈린이 죽은 후 1954년 내내 우리는 서방이 우리를 위한 일을 무언가 할 줄 알았다. 그러나 1955년 제네바 정상회담으로 루마니아 대표가 미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는 그 소식에 놀랐다. 수만 명의 정치범이 이 나라의 감옥을 채우고 있다. 아무도 루마니아가 그들을 석방하기 전에 미국에 의해 환영받으리라고는 생

작하지 않았다.

그러나 회원국을 종교적이고 정치적 자유가 있는 나라로 한정하는 유엔 헌장이 무시되었다 하더라도 정상회담은 감옥에 약간의 진보를 가져왔다. 우리는 음식이 좀 나아지고 약을 쓸 수 있게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특사가 있으리라는 소문이 있었다. 면회가 더 많이 허용되었다.

리처드의 엽서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뉴스였다. 그러나 그렇게 그를 보고 싶어했던 나 자신은 갈 수가 없었다. 매주 나는 경찰서에 있어야 했다. 그들은 내가 부크레스트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금지령을 중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하이가 나 대신 갔다.

터굴 오크나는 카르파티아 산맥의 다른 쪽의 작은 마을이었다. 기차는 이 산을 돌아 몇 백 마일을 갔다. 나는 미하이와 알리스 아주머니가 함께 가도록 했다. 그러나 그녀도 리처드를 만날 수 없다. 면회자로 허용되는 사람은 아내와 아이들 뿐이었다.

나는 뒤에서 기다렸다. 그들은 이틀 동안 가 있었는데 그 시간 내내 나의 머리에는 걱정이 왔다갔다 했다. 그들이 그를 보았을까? 리처드가 따뜻한 옷과 음식을 받을 수 있게 허가가 되었을까? 그는 감방 병동에 있으니까 매우 아플 것이다. 그는 일어나 미하이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

그들은 12월의 저녁에 되돌아 왔다. 우리는 그들이 계단을 오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분을 보았어요. 그분을 보았어요.” 알리스는 문을 들어 서기도 전에 소리를 질렀다. 이어서 “살았어요. 그는 건재해요” 하며 그들은 어깨에 손을 얹고 들어왔다.

“미하이!”

“어머니, 아버지는 안녕하시고 우리에게 곧 돌아오실 것을 알고 계시다고 엄마에게 전해 달라셨어요.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한 기적을 일으키셔서 나를 보게 해주셨으며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를 모두 같이 있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울었다. 나는 그들에게 마실 뜨거운 것을 주고 그들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마리에타와 피터도 거기에 있었다. 우리는 정말 기분이 명랑했다. 병어리 불구자, 간질병 환자 죄수의 아내와 아들은 기쁨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 알리스의 뺨은 붉게 상기되었고 그녀의 가냘픈 손은 이야기하면서 흥분으로 떨렸다.

“몇 시간을 눈 속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정문을 통과하게 하였고 우리는 철조망으로 병동 건물과 차단된 곳에서 있었어요. 죄수들은 큰 양철 막사로 들어가 그곳에서 면회자를 만났어요. 그들을 보기가 딱하더군요. 죄수들이 지나가는 중에서 리처드를 보았어요. 당신은 그를 잊지 않았겠죠. 그가 키가 크잖우. 나는 몇 번이고 미친 사람처럼 손을 흔들었지만 그는 나를 보지 못하더군요. 우리는 혼잡했고 누구나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러나 미하이는 그와 이

야기하는 것이 허용되었어요.”

그들은 돌아올 때 기차가 없어서 작은 마을의 농부 친구와 함께 머물렀다.

미하이는 아버지를 보고 처음에는 너무 격해서 말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무 행복해서 신경쓰지 않았다. 그가 음식과 옷을 남겨놓고 올 수 있도록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이 충격 때문이라는 것은 나중에 가서야 알 수 있었다. 그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가 창살 뒤에 덩수룩한 머리와 피골이 상접하여 있는 것을 본 것이 충격이었다.

미하이는 그곳에서 준비했었던 말을 시작하면서 말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엄마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다시 못 만나면 천국에서 만날 거라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안의 말이다. 리차드는 웃으면서 물었다.

“너는 먹을 것을 충분히 먹니?”

“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지 않아요?” 라고 미하이는 대답했다.

듣고 있던 정치군관은 이 말에 씩 웃었다. 그는 이 말이 내가 다시 결혼한 것을 뜻하는 줄 알았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거의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리차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미하이, 아버지로서 내가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선물은 너에게 이 말을 해주는 것이다. 언제나 기독교의 가장 높은 덕을 찾되 그것은 모든 것에도 올바른 정도를 지키는 것이다.”

나는 리차드의 엽서를 내 성경의 갈피 속에 넣었다. 때때로 나는 이것을 보면서 100번째 읽는다. 감옥에서 그는 이런 압축된 편지를 쓰는 것에 통달했다. 그가 많은 뜻을 압축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감방 동료들이 와서 부탁했다고 그가 나중에 말했다. 그들은 그가 뭐라고 말했나 서로 묻고 리차드의 말은 널리 퍼졌다. 그 결과는 많은 죄수가 이 말로 엽서를 시작한 것이다. “시간과 거리는 작은 사랑은 꺼버릴 수 있지만 큰 사랑은 더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망의 전갈이 널리 멀리 퍼지고 있었다.

1956년은 전 공산권이 반항적인 분위기로 시작하였다. ‘5개년 계획’은 아무 데서도 채택되지 않았고 먹을 것은 전만큼 부족했고 임금은 계속 낮았다. 스탈린이 죽은 후 생겨났던 희망은 사라졌다.

2월에 12차 전당대회에서 후르시쇼프는 스탈린과 그의 업적을 비난하는 그의 비밀 발언을 했다. 러시아인들은 이것을 출판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머지 않아 동부 유럽의 모든 나라가 모스크바에서 불어오는 해빙의 따뜻한 산들바람을 느끼게 되었다.

점점 더 빨리 비 스탈린화의 조짐이 보였다. 막강한 힘의 경찰과 비밀경찰은 그 규모가 감소되었다. 100만 달러 상당

의 무역 제약이 경제를 구하기 위해 서방 나라들과 조약되었다. 집단농장화는 느슨해졌다. 여러 공산권 나라에서 당 지도자를 놓고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일은 수백 명의 정치범들이 특사라는 명목으로 매일 석방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 중에 리차드가 끼리라고는 감히 기대하지도 않았다. 우리에게는 암시도 없었고 소식도 없었다. 그는 아직도 12년의 감옥생활이 남았다.

1956년 6월의 따뜻한 아침에 나는 친구들을 방문하기 위해 외출했다. 그런데 돌아와보니 그가 와 있었다. 그는 나를 겨안았다.

그날 저녁은 웃음과 눈물과 부크레스트 전체에서 온 친구들의 인사로 가득찬 저녁이었다. 자정이 훨씬 지난 후에 우리는 이웃에서 요물 빌려다가 그의 잠자리를 마련했다. 리차드는 너무 키가 커서 그의 발자리에 방석을 놓아야 했다.

그는 잠을 자지 않았다. 제내다와 내가 잠들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조금 지난 후에 그는 일어나서 조용히 미하이에게로 가서 한참 들여다보고 정말 그가 그곳에 있는지 확인하였다.

리차드는 감옥에서 매를 맞고 마약을 맞고 하였었다. 그는 몸에 18개의 고문상처가 있지만 말하지 않았다. 의사는 그의 폐가 온통 결핵을 치료한 흉터로 덮여 있다고 하면서 8년 반

을(그 중 3년은 지하의 독감방에서) 좋은 치료를 받지 않고 살아 남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다. 리차드는 이제 병원에서 제일 좋은 침대를 차지하고 있다. 모든 석방 죄수들에게 친절과 자비가 베풀어졌다. 그들은 루마니아에서 가장 특혜받은 그룹이었는데 그것이 공산당을 화나게 하였다.

리차드는 계속 움직여야 했다. 전국 각지에서 온 형제들이 그를 보러 왔다. 그래서 그는 비밀경찰이 꼬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옮겨다녀야 했다.

그가 나아진 직후 우리는 20주년 결혼기념일을 축하했다. 리차드는 나에게 선물할 동전 한 푼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예쁜 공책에 성귀와 사랑의 시를 매일 저녁 나의 앞으로 썼다. 미하이와 다른 친한 친구들도 그 안에 몇 가지씩 썼다. 그래서 결혼기념일날 나에게 주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선물은 내 것으로 오래가지 않았다.

정치적 해빙이 첫번째 밀러들 때 리차드는 설교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오랫동안 학정은 교회를 더 가깝게 하여 그는 처음에 그곳 목사가 그의 오랜 친구인 시류의 정통과 성당에서 설교해 달라고 부탁받았다.

“한 가지 문제는 생각해야 될 대교구 주민이 있다는 것이요. 성호를 굶도록 유념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리차드는 말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한 나는

정통파 교회의 성호를 긁겠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시뷰에 갔다. 그는 아직도 약했고 그들은 그가 설교하는 동안 앉아 있을 것을 준비했다. 그들은 대주교의 성좌를 가져오기로 했다. 소문은 대주교가 설교한다고 났다. 그런데 대신 이 사람이 왔다. 사람들은 ‘유태인이야’ 하고 말했다.

리차드는 성호를 그었을 뿐 아니라 십자가와 그 의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정치적 내용이 없는 설교였다. 흔히 첩자가 교회에서 행해지는 말들 다 보고해서 비밀경찰이 신자보다도 더 그 속의 뜻을 간파하는 일이 있다.

다음 번에 리차드가 클류 대학에서 설교할 때, 신앙부의 높은 한 사람이 들으러 왔다. 이 사람은 리차드의 강연이 ‘선동’ 이라고 보고했다. 루터파의 주교는 할 수 없이 리차드가 루마니아에서 설교하는 권리를 빼앗아야 했다. 그는 그 허가를 6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다. 신앙성의 대표는 루터파 목사들의 다음번 집회 때 증오가 서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범브란드는 끝이야. 끝났어!” 그리고 걸어나가 버렸다.

몇 분 후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날카로운 소리와 외장창 깨지는 소리가 났다. 그 사람은 길을 가던 차에 치이고 벽에 부딪쳐 무참하게 깨졌다.

리차드는 비밀리에 설교를 계속했다. 그는 이곳 저곳을 다녔다. 그는 작은 교회와 지하 집회에서 간단하게 설교하고 누가 지방 경찰서에 신고하기 전에 빨리 그곳을 떠났다. 그는 집에다 어디에 간다는 말을 알리지 않고 다녔기 때문에 나는 항상 공포 속에 살았다.

미하이는 아버지를 ‘유령 목사’라고 불렀지만 그것을 우스개 소리로 알지 않았다. 어느 순간에 리차드는 체포될지 모른다.

그 해가 다 지나기 전에 폴란드와 헝가리의 봉기는 잠깐 타올랐다가 그쳤다. 해빙은 생명이 짧았다. 그러나 리차드의 석방과 10월 혁명 사이의 4달간은 집행유예였다. 시뮬에서의 한 작은 신학교에서는 새 목사를 양성하도록 허가받았다. 미하이는 그곳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는 이제 18살로 강철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는 리차드가 떠날 때의 애하고는 전혀 달라졌다. 그는 그때 육체적인 곤경 외에도 정신적인 강한 고난을 넘어야 했다. 모든 회의와 공산당들의 사상 주입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크리스찬으로 남았다.

리차드는 그의 믿음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미하이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이고 저는 저예요. 우리는 만사에 모두 똑같지 않아요. 저는 저대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미하이는 15살 이후에 학교교육없이 고등학교 점정시험을 통과했었다. 이제 그는 목사의 직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리차드는 “네가 이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확신하느냐? 나는 엄밀히 말해 그것을 권하지 않겠다.”

“왜요?”

“요즘 신학교가 가르치는 것은 대부분 파괴적인 것이다. 거기서는 하나님이나 성령을 향한 사랑을 가르치지 않고 성도를 따르는 최선의 방법도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을 분석 비평하고 하나님 말씀의 힘을 들춰낼 것이다. 그것은 너의 영혼에 독이 될 것이다. 교수 몇 명은 성도이지만 다른 사람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미하이는 결정을 보았다. 그가 크리스마스에 집에 왔을 때 나는 심한 충격을 받았다. 가족기도에서 리차드가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신 복음을 읽었다.

“오,” 미하이가 나중에 말했다.

“저는 그 뜻이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예수님은 과학적인 기준으로 보면 구약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배경이 없어요.”

“그래?” 나는 울면서 말했다.

“그것에 감사하자꾸나.”

미하이는 초기의 이러한 경솔을 극복했다. 우리가 그와 대화를 나누어 결국 그는 그의 교수가 가르치는 공산주의 정신의 주입을 거부했다. 이것이 그를 곤궁에 들게 하였다.

그의 이상은 그때 인도에서 목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인도의 종교와 힌두의 풍습을 공부했다. 나는 그가 요가의 법칙에 따라 몇 분이고 거꾸로 서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약간 두려워 물었다.

“너는 하나님이 다리를 서라고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니?”

그의 논리에 따라 그는 국교도 따르지 않던 설교자들인 영국의 부르스와 스펀의 연구를 시작했다.

공산당들은 이 학교를 서방 세계를 속이기 위해서 계속했지만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은 매우 적었다. 400명이 응모했을 때 학교 당국은 놀랐다. 그들은 소년들에게 계속 들어오기를 주장하면 아버지가 일자리를 잃을 거라고 알렸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물러났다. 1965년에 클류의 루터파 신학교는 5명 밖에 남지 않았다. 부크레스트의 칩레파 신학교에는 6명이 남았다.

그러나 3년 동안 미하이는 계속했다. 그곳에는 좋은 도서관과 훌륭한 교수가 몇 명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2번째로 체포되었을 때 집에 있지 않았다.

우리는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1958년부터 새

로운 공포의 물결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모두 어떻게 속고 있었는지 훤히 알았다. 많은 사람은 정말 공산 주의자들이 서방 세계의 제도같은 것에 흥미를 갖는 줄 알았다. 사람들은 지난 몇 년 동안 그 속임수에 깜빡 속았었다.

1958년 7월 일련의 법이, 이제까지 위성국가에서 볼 수 있던 것보다 더 지독한 것이 공포되었다. 사형죄는 조그만 위반에도 적용되었고 가을부터 효력이 있다. 대규모의 체포가 다시 생겼다. 수천 명이 다뉴브 강가를 깨끗이하는 것 같은 새로운 노예 노동계획에 보내졌다. 정부를 비판하는 젊은이들은 잘대숲 사이로 보내졌다.

정부의 서열에는 새로운 숙청 바람이 일어났다. 사회적으로 의심이 가는 출신 성분을 가진 사람은 '해빙' 때 일자리를 찾았다가 이제는 물러나야 했다. 법이 그들과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그의 자식들을 묶었다.

종교에 대한 압박은 다시 새로와졌다. 후르시초프의 명령에 따라 '미신의 흔적을 일소하기 위해서' 전 동부 유럽을 통해 목사가 구속되고 교회는 폐쇄당했다.

이제 우리의 다락방은 지하교회의 중심부 그 이상이었다. 더 이상 주목을 피할 수 없었다. 매일 저녁 리차드는 '저를 필요로 하는 죄수가 있다면 저를 감옥에 보내주시시오' 하고 기도했고 나는 여기에 주저하면서 아멘을 했다.

1959년 1월의 어느 화요일 저녁, 우리 교회의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왔다. 2주일 전에 그녀는 리차드의 설교 사

본을 빌려 갔었다. 그것은 동사되어 루마니아 전역에 퍼져 나갔다. 그것은 엄격하게 말해서 법을 위반하는 일이다. 경찰은 그 여자의 집을 급습해서 그 사본을 가져갔다.

우리는 동시에 리차드의 친구라고 자칭하는 젊은 목사에게 탄핵받았다는 사실을 공산당의 밀고자를 통해서 알았다. 그 목사는 감옥에 보낸다는 위협에 리차드를 탄핵했을 것이다. 어쨌든 그는 그를 탄핵하였고 그의 동기를 심판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그를 좋아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1월 15일 수요일 1시에 경찰은 문을 난폭하게 두드리고 우리가 침대에서 나오기도 전에 우리의 오두막에 들이닥쳤다. 불이 켜졌다.

“당신이 리차드 범브란드요? 다른 방을 좀 봅시다. 거기에서 있으시오.”

우리의 좁은 다락방 집은 찬장을 열고 서랍을 뒤집고 마루에 종이를 던지는 사람들로 가득찼다. 리차드의 책상에서 그들은 타이프로 친 설교 내용과 낡은 성경과 노트를 발견했다. 모두 압수당했다. 그리고 그들은 리차드와 미하이그나에게 성구를 써준 결혼기념일 선물을 찾아냈다.

“그건 가져가지 마세요. 그건 사적인 거예요. 당신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들은 그것을 가져갔다. 책임자는 리차드를 끌어내서 수

잡채웠다.

“무고한 사람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창피하지도 않아요?” 하고 나는 말했다.

리차드는 내쪽으로 왔다. 그들이 그의 팔을 잡았다. 그는 “아내를 포옹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난 이 집을 떠날 수 없오” 하고 말했다.

“하게 해” 하고 책임자가 말했다.

우리는 비밀 경찰이 우리 주변에 서 있는 데서 숨어앉아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찬송가를 불렀다. 손이 리차드의 어깨에 얹어졌다.

“가야겠오. 새벽 5시가 다 되었오.” 책임자가 말했다. 그러나 그는 리차드에게 조용히 이야기하였고 그의 눈은 광채가 났다.

나는 그들을 따라 계단을 내려갔다. 리차드는 머리를 돌려 “미하이와 나를 밀고한 목사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주시오” 하고 말했다. 그들은 그를 차 안으로 밀어넣었다.

차가 떠나기 시작하자 나는 “리차드, 리차드!” 하고 소리내 울었다. 나는 그를 부르고 울면서 얼음이 언 길 위로 차 뒤를 쫓아 뛰어갔다. 차는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나는 정신없이 숨을 헐떡이며 서야 했다.

다락방은 그대로 문이 열린 채로 있었다. 나는 울면서 마

루에 쓰러졌다.

“주님, 남편을 맡아주십시오. 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지만 당신은 자물쇠 채워진 문을 통과할 수 있으십니다. 당신은 그 주위에 천사를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를 되돌려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 앉아 기도했다. 새 날이 밝을 때까지 그리고 나는 내가 뭐를 해야 하는지 생각했다. 알리스가 나를 보러 왔다. 나는 그녀에게 “그들은 다시 리차드를 찾아갔어” 하고 말했다.

새로운 공포

맨 처음으로 미하이에게 말해야 한다.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많은 비극을 거쳐왔다. 그리고 그 소식은 대학의 첩자에게 숨겨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퇴학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직접 내가 시유에 갈 수 없었다. 그들은 나를 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알리스가 기차를 타고가서 신학교 근방의 공원에서 미하이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감히 다른 학생들에게 물어보지 못했다. 그녀가 왔다는 것을 그들이 보고하면 그 소식이 누설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미하이가 지나가기를 바랄 수 밖에 없었다. 공원은 매우 추웠다. 눈이 나무가지에 달려 있고 의자에 쌓여 있었다. 저녁무렵 그가 왔다.

“네, 나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곧 가야겠다고 전해주세요. 그들은 어머니도 잡아갈 거예요.”

“그러나 너의 공부는 어떡하고? 거의 3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진짜 ‘인간의 어부’가 세워놓은 것을 배반하고 파괴하는 것은 학위있는 목사일 때가 많아요. 학위없는 것이 나아요 하여튼 나는 곧 학교에서 쫓겨날 거예요. 그들이 좋은 시기에...”

알리스가 다락방에 돌아온 것은 매우 늦은 시간이었고 나에게 그들이 나눈 대화를 이야기했다.

나는 리처드가 또 6년 동안 사라지기 전에 그를 한번 더 보았다. 재판에서였다. 친척들은 참가할 수 있었다. 당은 1948년의 창당기보다 좀 더 형식적이 되었다.

“우리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은 감옥에 넣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법부가 있고 판사들이 있습니다” 하고 그들은 세계에 공표했다.

판사석에는 5명이 앉아 있었다. 그 위에는 게오르규 메이의 초상화가 있고 다른 살전 당 간부들의 얼굴도 있었다.

인민의 적들이 한 문을 통해 나오고 재판은 금방 금방 진행되었다. 논고가 있고, 변호가 있고, 구형이 정해졌다. 목사, 농부, 집사, 신문기자들이 운반기 위에서 서 있는 것처럼 움직여 지나갔다.

한 청소부는 술에 취해서 소리쳤었다. “게오르규 메이는
늙은 바보야. 그는 다시 칙칙폭폭을 운전해야 돼”(메이는 전
에 기차 운전사였다).

이 모욕은 그의 변호사가 관용을 베풀기를 청할 때까지 법
정을 뒤흔들었다. “2년” 하고 재판장이 말했다.

청소부가 나갔다. 다음에 리차드가 들어왔다. 나는 그 뒤
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았고 그도 그랬다. 우리는 그냥 서로
바라다보았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을 것이다.

미하이는 나중에 그 재판은 1951년에 있었던 그의 옛날 비
공개 재판의 재심이라고 나에게 말했다. 특사는 취소되고
옛날의 선고가 다시 효력을 발생했다. 그는 나가면서 머
리를 돌려 우리에게 마지막 명랑한 웃음을 지어 보냈다. 이
것은 몇 분도 안되는 사이에 일어났다.

서기가 나에게 다가와서 종이 한장을 쥐어주었다. 그것에
는 범브란드 1909년 출생 등등... 25년이 구형되어 있었다.
5년이 더 늘었다. 후에 우리는 벌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도 발견하였다. 우리의 모든 재산은 한번 더 압수당하는 것이
다. 이것은 모든 정치범의 가족에게 다 해당되었다.

우리는 아무 돈도 없었다. 그래서 두 명의 세무 관리가 와
서 이 문제를 놓고 우리와 논쟁했다.

그들은 1953년 내가 석방된 이후로 모은 귀중한 것들을 가지

고 가버렸다. 그들은 우리에게 침대와 책상과 의자 두 개를 남겨놓고 갔다. 우리는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음 6년 동안 그들은 자꾸자꾸 와서 돈을 요구하고 물건을 압수해갔다. 겨울이나 여름이나 나는 우리의 보잘 것 없는 것들을 가지고 관리와 다투었다.

대단한 공포의 시기였다. 매일 친구들이 체포되었다. 거의 모든 친지들이 다시 감옥으로 되돌아갔다. 밤과 낮은 우리에게 있어 더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교회가 폐쇄되고 남자들은 유죄당했다는 무서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왔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동안 후루시초프는 미국을 방문했고 1960년 5월에는 파리에서 정상회담이 있었다.

우리는 탄다우어 양의 집에서 전망을 이야기했다.

“이 회의가 끝나면 당신 남편은 석방될 거예요, 사비나, 그들은 협정을 맺을 거예요. 감옥문은 열립니다!”

그러자 전화가 울렸다. 경찰이 우리 다락방에 있다는 이웃의 전화였다.

“오늘 오지 마세요. 확실히 체포될 거예요. 벌써 그들은 알리스를 잡아갔어요.”

알리스는 아마 내가 아는 여자 중에서 가장 남을 생각하는

자비로운 여성일 것이다. 그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모두 남을 주었다. 그녀는 정치범의 아이들을 보살펴주었다. 아이들은 길가에 나가 그것을 떠들며 다닌다. 이것이 그녀의 죄였다.

그녀는 심문 도중에 친구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끔찍하게 매를 맞았다. 그녀의 이는 매를 맞아 빠지고, 뼈는 부러졌다. 그리고 8년 동안 투옥되는 선고를 받았다.

경찰은 그날밤 우리 다락방을 2시간 동안 수색했다. 알리스 말고도 그들은 우리 집에 들른 한 소녀를 체포했다.

우리는 나중에 그 못쓰게 된 집으로 왔다. 옷과 종이는 다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침대는 모두 들춰져 있었고 심지어 요속까지 찢고 들여다 보았다.

“그들이 뭐를 가져갔는지 아세요? 루마티스 치료법이에요” 하고 미하이가 말했다.

토마쥬 노부인은 독일 의사가 쓴 루마티스 치료법의 책에서 직접 손으로 베껴 썼었다. 그녀는 나에게 이것을 빌려주겠다고 했다.

“매우 진기한 책이에요. 나는 이것을 하루 밖에 빌려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돼요.”

나는 그녀에게 그것을 비밀경찰이 가져갔다고 설명하느라

고 힘들었다. 그녀가 충분히 납득한 것 같지는 않았다.

매시간 매일을 알리스와 체포된 친구들로부터 소식을 들으려고 애쓰면서 지냈다. 그러나 성공은 드물었다. 그들은 감옥의 바닥없는 우물로 들어가 사라졌다. 우리가 이 일이 알리스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안 것은 알리스가 구속된 지 한참 후였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모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았다. 미하이에게 할아버지같은 트리후 씨는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친국같은 단순성과 깊이를 가진 서정시를 쓰는 시골 사람이었다. 그리고 아마 가장 훌륭한 종교음악가일 사람인 나일레스크도 그랬다. 그는 아내와 네 아이를 남겨 놓았는데 그들은 집에서 길로 쫓겨났다.

그리고 아르메뉴 목사도 그랬다. 나는 서방의 사람에게 그의 이야기를 했다. 그들은 내가 농담하고 있는 줄 알았다. 그는 성경 원문에 근거해서 설교했다가 20년 구형을 받았다. 너희들의 등지를 오른쪽에 틀라...”

“오!” 하고 그들은 말했다. “왜 왼쪽은 아니야? 이건 제국주의적 선전이야.”

한 밀고자가 이 설교를 보고했다. 이것은 그의 구속을 위한 허위극이다. 아르메뉴 목사는 아내와 5명의 아이를 남겼다. 그들은 바라간으로 추방되었다. 어느날 아르메뉴 부인은 지치고 안색이 이상해서 우리 집에 왔다. 우리는 그녀를 안에 들였다. 그녀는 아무 걱정도 하지 않았다. 그렇기는 커녕

불명암고 모든 것을 감수하는 그녀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모두를 도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섯이 되었다!

우리 모두 아르메뉴 목사를 밀고했을 거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지하교회 집회에 왔다. 아르메뉴 부인은 이렇게 속삭였다.

“그냥 놔두세요. 강요받아서 그랬을 거예요.”

그녀는 용서하고 잊기를 바랬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그를 책망했다. “왜 그랬어요?” 하고 그는 이렇게 변명했다.

“그들은 나를 몇 개월이나 괴롭혔습니다. 하여튼 나는 진실이 아닌 것은 하나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내가 보고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 의무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정권 편이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구속합니다.”

“아니죠, 물론 아닙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 형제가 이 정권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대신 당신 자신이 그렇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가슴은 차가웠다. 나는 목사들과 친구들과 심지어는 주교들까지도 리처드의 구속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들이 설교하는 원칙보다 그들 자신을 더 사랑했다. 나는 나의 남편을 붙들어간 사람에게 향하는 증오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면서 나 자신과 싸웠다. 나는 기도했

지만 평온할 수는 없었다.

그러자 마리에타가 어디선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의 그림을 잘라왔다. 나의 눈은 벽에 걸어놓은 그 사진에 머무른다. 그땐 때마다 나는 그분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한다.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한 일을 모르니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목이 마르다” 라는 말씀도 기억한다.

배반자들은 용서를 얼마나 목말라 할까? 나의 슬픔 속에 주지 않고 있던 용서들.

그 생각으로 내 마음에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 나는 어떤 때는 성자들까지도 자기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크다는 것을 알았다. 루터파의 밀러 주교는 다른 사람이 배반자로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약한 성도로 보여질 것이라고 자주 말했다. 그는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를 약한 주교로 생각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나는 사랑을 베풀기를 결심하고 그 댓가로 아무 것도 바라지 않기를 결심했다.

1960년의 겨울에는 눈이 일찍 왔다. 길에는 눈이 깊게 쌓였고 누구나 피할 수 있으면 나가지 않으려 했다. 미하이는 구멍에 낡은 카페트 조각을 걸었지만 바람을 막을 수는 없었다. 바람은 문 밖에서 우는 소리를 냈다.

“밖에 앉아 있는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도 더 따뜻하지 않아” 하고 말했다.

카페트가 빛을 차단했고 외풍이 있는 메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은 다섯 사람이 있으므로 밤이면 공기가 몹시 텅텅했다.

지하교회 일로 바쁘지 않을 때면 나는 리차드의 집행유예를 얻어볼려고 정부의 이 사무실에서 저 사무실을 방황했다. 외풍이 심한 복도에서 관리를 보기 위해 긴 의자에 앉아 기다리면서 수많은 복잡한 형식서류를 채웠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다.

어느 날 두 명의 세관원이 우리 집 문을 세계 두드렸다. 미하이가 문을 열어 나를 불렀다. 그들은 더 많은 돈을 원했다. 내가 지불할 수 없으면 그들은 내가 현금을 구했을 때 채청구하기 위해서 가구들과 가사용구들의 목록을 만들 것이다.

그들은 의자, 탁자, 칼, 축음기 부속(이것은 미하이가 음악 기계류를 수선하던 때 남은 것이다) 을 적었다. 침대들은 우리가 지킬 수 있었다. 그것들은 어쨌든 움직이기에 너무 많이 부서졌다.

“카페트는 갈색이고 작고,” 첫째 사람이 말하고 잡아당겼다. 그것이 창문에서 떨어지자 차거운 바람이 소리를 내며 들어왔다.

“창문에 달린 것으로 치는 것이 낫겠어. 여기서 사람들이 잠을 자잖아.”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제자리에 되틀려 놓았다. 나는 그들에게 감사했다. 그러나 그것은 실수였다. 그들

은 자기들의 의무를 기억했다.

“삼일 안에 지불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가져가겠
오.” 그리고 그들은 가버렸다.

다음 날 아침을 나는 바로 그 공무원을 만나기 위해 갔었
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그는 판지 벽의 간막이 방에
앉아 있었다.

“아직도 청산하지 못했던 말인가?” 그는 화가 났다.

“다음에 당신이 어떻게 하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란 말
이요? 법관은 깐깐합니다. 즉시 지불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산 압수요. 댄 것은 없오. 지불할 수 없다구요? 그러면
끝이요?”

나는 계단을 걸어 내려왔다. 눈물이 불로 흘러내리는 것
을 막을 도리가 없었다. 기침하고 떨면서 나는 차거운 거리에
나서기 전에 복도에서 잠깐 멈추었다. 누군가 나의 팔을
붙잡았다. 검은 양복을 입은 키가 크고 안경 쓴 사나이가 나
를 따라 내려왔었다. 나는 그가 새로운 위협을 할 다른 관
리인줄 알았다. 그는 주위를 재빨리 둘러보았다.

“당신이 당한 처지를 압니다. 이것을 받으세요” 하고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온 길로 급히 되돌아가 사라졌다.

나는 그가 내 손에 미끄러뜨려 넣은 접은 종이를 보았다.
‘그들을 몇 주간 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으로 걸어오면서 나는 손이 얼은 지도, 신이 더럽혀진 지도, 기운이 없는 지도 물랐다. 나의 가슴은 고요했다. 그 친절하고 자비스럽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를 보여준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미하이는 생각이 깊은 질문을 하고 나서 그가 세무서 사람이며 지하교회의 친구 중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너무 위험스런 일이어서 만날 수 없었지만 리차드가 구속되어 있는 동안 그때부터 그는 매달 자기의 적은 봉급에서 얼마를 보냈다.

미하이는 지체없이 그의 신학교에서 퇴학당했다. 우리의 친구 밀러 주교는 미하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뮐러 박사는 그의 루터파가 우리들에게 경멸당했는데 그것은 그가 공산주의자들에게 공개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가 고위 관리들의 모든 토론을 지하교회에 보고한다는 사실을 물랐다. 그는 또한 은밀히 크리스찬 순교자들의 가족을 보호하고 도와주었다.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공공연히 말할 수 있다.

미하이는 대학의 건축과 공학부로 진로를 정하기로 했다. 그는 정치범의 아들이기 때문에 물론 허가가 안된다.

“몇 달 안에 발각나고 말 거예요. 그러면 쫓겨나서 또 다른 데 입학할 수 있어요.”

나는 집에서 일함으로써 약간의 돈을 벌려고 하고 있었다.

나는 낡은 뜨개질 기계를 구했다. 문제는 내가 일을 하고자하면 그 기계는 하고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에게 그것을 준 친구는 곧 그 자신도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기술자여서 나로부터 수선 부탁을 받지 않고는 하루도 그냥 지나치는 적이 없었다. 나중에는 “참을 대로 참았어요” 하고 말했다.

“무슨 뜻이시죠?”

“버리자는 겁니다. 부속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 이를 어찌?” 내가 짠 스웨터는 모양이 좀 이상하기는 했지만 잘 팔렸다.

“내가 좀 돌아보지요. 싼 것으로 다른 것을 구해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일주 후에 그는 양말만드는 조금 더 간단한 기계 한 쌍을 가지고 왔다. 이제 아르메뉴 부인과 나는 바빠졌다. 바늘이 문제였다. 자주 부러졌는데 바꿔 끼울 것이 루마니아에서 쉽게 얻어지지 않았다. 모든 보급품은 공장으로 들어갔다. 그 기술자는 몇 개를 가져오려고 해보았다. 그러나 고용주는 바늘이 없어지면 찾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투옥당할지 모르는 모험을 하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양말 생산은 어떤 때는 몇 달이고 중단되었다.

우리는 양말을 암거래했다. 아무도 국가의 허가없이 물건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양말을 공장 문에서

아니면 도매기 시장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팔았다. 군중들이 있어서 안전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팔았다.

결국 우리는 그 일을 포기했다. 60년 대에는 서방과의 경제 장벽이 완화되었다. 루마니아는 서방의 기계와 실제적 기술을 도입했다. 나일론 양말이 나타나자 나의 것은 사라지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것에 대해 기뻐다.

이후에는 외국어를 가르쳐서 돈을 벌었다.

“사비나 범브란드 동무?”

검은 우비를 입은 젊은이가 어두운 후에 문간에 왔다.

“내가 범브란드입니다.”

“내일 9시 내무부에 출두하십시오. 이 카드를 경비원에게 보이고 여기에 쓰인 방을 물으시오.” 그는 나를 차갑게 쳐다보았다. “안녕히 주무시오” 하고 그는 계단을 쿵쿵 내려갔다.

이것보다 더 놀라게 하는 소환은 없다. 내무부를 찾아가는 사람은 보통 무한정한 기간 그곳에 머무르게 된다. 누가 나를 밀고했을까? 그날 밤 우리는 슬펐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세면도구와 따뜻한 옷을 샀다. 그들 모두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나는 떠났다.

그 사무실은 카페트가 있고 커튼이 쳐져 있고 아름다운 여

비서가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웠다. 레닌의 천연색 초상화가 표구가 잘되어 있었다. 책상 뒤에 그랜드 피아노 크기의 뚱뚱한 40쯤 된 남자가 민간인 복장으로 앉아 있었다.

“앉으시오, 범브란드 동무.” 그는 팔걸이 의자를 가르켰다. “당신의 신청에 흥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오라고 했오. 당신과 가족에 대해 나에게 이야기해보시오. 걱정할 것 없어요. 이 벽 밖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죠? 미하이... 그의 공부는 잘되 나갑니까?”

나는 그의 취지를 알아차렸다. 그것은 나를 이혼하라고 설득하는 또 하나의 시도였다. 압력을 가해서 실패하면 다음에는 정중함으로 나온다. 그는 온순하고 자신만만했다.

“나는 남편을 사랑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겨도 그와 계속 살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입니다.”

“조그만 제안 하나 합시다. 당신은 아이가 교육을 마치기를 원하죠? 당신은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살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매우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당신의 신분증을 주기만 하시오. 48시간 안에 우리는 당신의 처녀적 이름을 뒤에 적어 되돌려 보내주겠습니다. 이혼같은 무거운 말을 잊어버리시오. 이것은 국가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간단한 형식 절차입니다. 이 일은 지성적인 일이 아닙니까?” 그는 연필가지고 장난치던 것을 멈추었다.

“물론 당신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원하면 하고야 맙니다...”

나는 그 정치 군관을 쳐다보았다. 눈을 들여다 보았다.

“어느 날 당신이 감옥에 있다고 가상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 아내가 당신과 이혼하는 것을 원하시겠어요?”

이 말에 그는 발짝 일어서서 고함을 질렀다.

“여기가 어딘지, 내가 누군지 당신은 모르오? 감히 나에게 그런 질문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거요?” 그는 연필을 벽난로 안으로 던졌다.

“나가시오, 나가요!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을 잊지 마시오! 알았오?”

나는 작은 가방을 집어 들고 대답없이 문으로 갔다.

“알았오?”

그러나 그도 알았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나를 리차드와 이혼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대신에 그들은 리차드가 죽었다고 나에게 말했다. 이것은 두 번에 걸쳐 일어났다.

첫번째는 두 명의 누추한 젊은이가 문 앞에 와서 자기베들은 전의 죄수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이 정말 그런 줄 믿었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들이 감옥에서 리차드를 본 것을 설명하기 시작할 때 나는 기를 울려 놓으려는 사람과 대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불쌍한 범브란드 목사” 하고 둘 중에서 더 대답한 사람이 말했다.

“우리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는
마지막이 있기 전에 매우 우울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
도 안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젤라 형무소에서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거죠? 그가 자살했다는 말을 하시
려고 합니까?”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발을 잃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그가 자살했더라도 누가 그를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교활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더 이상 바보같은 거짓
말은 세상에 없다.

“불쌍한 범브란드 목사. 그는 정말 진정한 성도였죠. 누
구나 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고 그가 말했다.

“이제 그만 가주세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요.”

“범브란드 부인, 우리는 얼마나 유감인지...”

“제발 가주세요.”

그들은 죄스럽고 부끄러워하는 듯이 보였다. 아마 그들은
다만 식량배급 카드나 일자리의 약속을 위해 이것을 하는 것
일 것이다.

두번째는 리처드가 죽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그러
나 나에게 직접 그런 것은 아니다. 수수한 옷차림의 한 남
자가 친구의 집에 찾아왔다. 그들은 이 슬픈 소식을 범브

란드 부인에게 직접 발설하기를 원치 않았다.

“친구 분이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범 브란드 목사가 몇 주일 앓은 후 죽어서 감옥 안에 묻혔다고만 말했다.

나는 지겨운 인터뷰가 또 없게 될 것임으로 기뻐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리처드의 이름은 온 나라에서 사람들의 입에 올랐다. 그는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의 안전을 기원하지 않고는 자지 않으려 했다. 이것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 석방 죄수들은 크리스찬 가정으로 보내져서 사람들에게 그가 자기 손으로 죽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믿지 않았다.

그후 미하이는 그의 학부에서 쫓겨났다. 그는 공산당의 가르침과 실천 사항에 동의하기를 거절했다. 이제 그들은 그에 관한 모든 것을 발견했다. 그의 시간, 그의 친구들까지도. 그들은 모든 크리스찬에 대한 서류철을 해놓았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 밀고하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인생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미하이는 교회가 너무 깊게 침해당해 있다고 말했다.

“어머니, 저는 이 말을 하기 싫지만 어머니는 너무 마음이 연약해요. 모든 사람을 우리 집에 오게 하시죠? 그들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만 말하고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밀고자들 때문에 역경에 처하게 된다구요”

나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가 말을 계속했다.

“저는 그들이 엄마와 저를 구속할까봐 두려워요. 그들은 내가 엄마의 비밀 일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적어도 위험을 알고 인생 안에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시류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끌려가서 밀고하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죽도록 얻어맞은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유 파티를 결성하려고 하던 브라소프의 아이들에 대해서도 생각해요. 그것은 어린애같은 놀이였어요. 그들은 일기를 계속쓰고 집회의 기록까지 해서 보존했어요. 그러나 공산당들도 놀기를 좋아했죠. 그들은 지금은 모두 감옥에 있어요. 아마 죽도록 맞았을 거예요.”

나는 알리스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사랑스럽고 유순한 여자이다. 손과 발을 모두 묶이고 이는 맞아서 빠져 긴 의자에 뻗은 그녀의 모습, 리차드도 역시 첫번째 구속 때 끔찍하게 고문당했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전혀 말하지 않았었다. 지금은 어떻게 고문받고 있을까?

우리는 몇 군데 지하교회 집회가 경찰에 의해 말살되었지만 몇 군데는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밀고자가 아무 문제없이 일할 수 있게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 대항한 새 노력을 시도하였다.

우리의 집회는 양적인 면에서 증가했다. 한번에 50내지 60명에 달했다. 우리는 집회 속의 사람이 혹시 대학교수나 당원같은 서열을 가지고 있거나 않은가 특별히 조심해야 했다. 다른 멤버들이 그를 감시하였다. 그리고 의심가는 사람이 있으면 모이는 멤버를 믿을 수 있는 친구들만으로 끌어내렸다.

밀고자들을 알아내는 한 가지 방법은 거짓말 뉴스를 뿌리는 것이다. 한 친구의 집에서 집회가 열린다는 말이 의심하는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만든다. 수수하게 웃을 입은 배회자가 그 집 가까이 보이면 우리는 그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보통 우리는 우리의 정보가 그의 귀에 안들어가게 했다.

“미안하지만 그 집은 비어 있다네. 우리는 당신에게 말할 시간도 없이 마지막으로 장소를 바꿔야 했습니다” 하고 우리는 웃었다.

알려진 밀고자는 소중하다. 그를 피어낼 수 있다. 그러나 그를 교회 밖으로 끌어낸다 하더라도 즉시 그 자리는 모르는 사람으로 채워진다. 그러므로 친하게 지내라는 것이 법칙이다.

가끔 우리는 구속당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정보를 통해 밀고자를 추적해 내었다. 심문자들이 묻지 않는 질문은 그들이 묻은 질문보다 우리에게서 더 중요한 적이 많다.

우리의 회원 중의 한 사람은 러시아의 복음서를 은밀히 그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심문받는 중 그것에 대해 질문받지 않았다. 우리는 그 이유를 추측한다. 그의 동료 화가가 밀고자인 것이다. 그는 협박과 으름장의 그물에 걸린 크리스찬이었다. 그는 계속 일하고 우리와 함께 사랑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계속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

이렇게 해서 지하교회는 계속되었다. 한쪽으로는 세리와 비밀경찰의 비바람을 피하기 위한 투쟁이었으며 다른 한편에는 지하교회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있었다. 우리는 위험스럽게 살았다.

11월에 나는 클류로 여행했다. 그곳에서는 리차드가 많이 도왔었던 금지된 종교단체인 주법의 군대의 지도자에 대한 공개재판이 열렸다. 그 군대는 대개 시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 몇 백명이 재판날 클류에 왔다. 그들은 군법회의 소의 문 밖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날은 비가 몹시 내렸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군법회의에 회부된 사람들에게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주목받고 밀고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루마니아 전역에서 왔다.

죄수 호송차가 도착하자 군중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 앞으로 몰렸다. 더럽고 거친 죄수복을 입은 죄수들은 법정으로 떠밀려 들어갔다. 아내들과 가족들은 따뜻한 옷과 음식 보따리를 끌어안으며 그들을 크게 불렀다.

“뒤로 물러서! 뒤로!”

군인들은 총을 휘둘렀다. 두 명의 젊은 군인은 쓸려는 것처럼 덜거덕 소리를 냈다. 공포의 순간이었다. 군관 한 명이 건물 안의 누군가에게 “증원하라고 전화해!” 하고 소리쳤다. 총을 장대처럼 사용하면서 경비원들은 군중들을 마당으로 길가로 밀어냈다. 그러자 여자들과 아이들은 다시 문에 가까이

가려고 했다. 고함소리가 났다.

“우리도 같이 잡아가시오. 우리는 그들의 형제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믿습니다.”

길의 저 끝에서 차 한 대가 총을 갖춘 군인들을 가득 싣고 나타났다. 사람들은 뛰어가 문 안으로 흩어져 들어섰다. 그러나 차가 지나치는 순간 그들은 다시 동요하고 정문을 밀었다.

경찰은 결국은 이런 데모에 대해 전혀 준비가 없은 채 가까운 친척만 들이기로 동의했다. 아내들과 아이들 조금만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 나머지는 경비원에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도록 설득시키면서 하루종일 문 밖에서 있었다. 밤늦게 군중은 전보다 더 커졌다.

법정은 그 모든 재판을 한 자리에서 급히 해버림으로써 더 이상의 소란을 피하려 했다.

황혼 때 죄수는 다시 감방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한 군관이 나타나서 선고문을 내일까지 알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지방이 아닌 곳에서 온 사람은 그들에게 동정하는 그 지역 사람들의 집에서 밤을 지냈다. 어느 부인도 남편에게 마지막 말을 할 기회나 귀중한 보따리를 줄 기회가 없었다.

나는 구속된 남편의 부인 여럿과 함께 지하교회의 회원의 집에 묵게 되었다. 우리는 그 밤을 그들 죄수를 위한 기도로 보내기로 했다.

“형량이 무거울 거예요” 하고 한 부인이 한숨지었다.

그것은 주님의 군대를 따르는 사람들의 첫번째 공판이 아니었다. 20살부터 60대의 사람까지, 그들은 몇 년 동안 추적당했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법정으로 갔다. 감금된 사람의 목록이 문에 붙여지고 슬픈 표정을 한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몰렸다. 나의 친구의 구형량은 8년이었다. 나는 빗 속을 기차역까지 걷고 다시 부크레스트로 돌아가는 기차를 기다려 타기 위해 앉았다.

나는 한 비밀의 크리스찬의 집으로 급히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트루디가 거기 있었다. 시르카스의 집으로 우리를 불러들이고 그의 전화를 도청하던 능력있고 명랑한 트루디가 아니라 웃지도 않고 수심에 찬 트루디였다. 그 순간 나는 그들에게 발각되었다고 생각했다.

“무슨 일이지?” 하고 내가 물었다.

다른 사람은 다 나가서 우리는 자유로이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것은 같은 나이의 그녀의 연인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들은 아직 집을 살 돈이 없어서 트루디는 당분간 그 위험한 위치를 지키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에게 애정의 증거를 보이라고 조르고 있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를 이렇게 멀리 하지는 않을거야.”

그녀는 그를 잃는 것이 무엇보다도 두려웠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다른 많은 소녀들과 마찬가지로 트루디에게

도 순결성의 문제가 생겼다. 순결을 지킬 것인가, 순결을 잃을 것인가? 30년 전 파리에서의 소녀시절을 되돌아보고, 리차드를 기다리는 동안의 많은 경험과 그 문제에 대해 그렇게 오래 생각한 30년을 되돌아보니 그 해답을 알 수 있었다.

왜 순결을 지키느냐를 묻는 것은 왜 사느냐를 묻는거나 마찬가지로 옳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자연의 커다란 선물이다. 삶이 시작된 이래로 중국이나 그리스 신화나 어디서나 위대한 종교에서 인간 앞에 놓여진 이상은 순결성 즉 깨끗한 여성의 꿈이었다. 북음은 한 처녀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잔다르크는 프랑스를 구하기 위해 처녀여야 했다. 성녀 메레사의 일생을 읽으면, 그녀의 그 덕 때문에 그녀를 사랑한다. 스피노자나 베토벤이 순수하지 않았다면 그런 높은 차원의 작품을 나오게 할 수가 있을까?

왜 순수해야 하느냐를 묻는 것은 왜 정직해야 하느냐를 묻는 문제와 같다. 물으면 당신의 영혼의 일부가 드러난다.

전 세계의 문학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두 인물이 있다. 「피어 쿤트」에 나오는 슬베이지와 피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그레첸이다.

피어 쿤트는 악당이고 술주정꾼이지만 그는 순수하고 헌신적인 소녀를 만난다. 피어는 그녀가 그를 기다리리라고 확신한다. 20년이 지나 피어는 더욱 나빠졌지만 아직도 그는 순수한 소녀를 알았던 일을 기억한다. 그녀의 이미지는 계속 그의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가 그녀에게 돌아갔을 때 그는 늙

었지만 그녀는 그를 구원할 수 있게 한 사람이다.

그레첸이 교회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파우스트의 눈에 띄었고 그녀는 눈을 들어 그를 보지 않았다. 정신을 못차리는 순간에 악마들에 의해 물들어 그녀는 그와 죄를 저지르게 되지만 그것을 감옥에서 속죄한다. 그리고 다시 순수함을 되찾는다. 그녀는 천국에서 그를 그리워하고 그녀의 그 생각이 그를 구원시켰다.

왜 여자는 순결을 지켜야 하는가? 이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인류에게 영감을 줄 수 있고 인간성을 더 높게 인도하기 때문이다. 나는 가장 순결한 여인들이 가장 깊게 다는 사람을 돕는 순결성의 가치를 감옥에서 알았다.

우리는 이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양 산다. 매번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빛과 사랑 앞에 내어놓는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실수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

탈무드는 하나님은 정숙하지 못한 죄만 빼고 모든 죄에 대해 인내하신다고 말했다. 이것을 생각한 그 율법학자는 하나님을 물랐다. 그 반대가 진실이다. 이것처럼 예수님이 쉽게 용서하는 죄가 없다. 예수님은 거의 억제 불가능한 성욕의 충동을 아신다. 그래서 그는 간음한 자를 경멸하지 않으셨다. 그는 이 죄를 최선을 다해 경계하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그 죄를 저지르면 예외없이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가슴에 지켜 주신다. 우리는 오늘은 실패하나 내일 성공할지 모른다. 하나님의 인고에는 제한이 없고 교회가 이해 못하고 용서하지 않

는 죄는 없다.

나는 트루디같이 젊은 사람들에게 한편의 실제적인 충고를 줄 수 있다. 성적인 생각이나 죄스러운 성욕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그 결과는 흔히 기대한 것의 반대로 나타난다. 육욕은 거대한 힘이다.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그 굴레가 조여질 뿐이다.

이것은 성공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다.

네가 싫은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라. 그것은 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와서 머무를 것이다. 그러나 아름답고 순수한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라. 건전한 생각과 시간과 정력을 쓰는 종교적이고 사회적, 정치적, 박애적인 일이나 교육적인 일에 몰두하라. 어떤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책임을 네 자신이 떠맡는 것이 그리스도같이 너를 만들 것이다.

새로운 이상은 큰 추방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패하면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3 일만에 성자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 안토니오는 30년이 걸렸다.

1962년에는 따뜻한 바람이 모스크바에서 불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스럽게 냄새맡았다. 새로운 '해빙'의 대화가 있었다. 우리는 외국에서 더 많은 편지를 받게 되었다. 루마니아가 소련이 통제하는 시장인 코메론에서의 탈퇴를 시도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특사의 소문까지도 있었다.

사람들은 더 자유롭게 농담했다. 후루시초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케네디씨, 나는 어떡합니까? 나는 세뇌도 해보았고 감옥에도 들어보냈지만 그 우둔한 크리스찬들은 아직도 교회에 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그만두게 할 수 있을까요?”

케네디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교회에 있는 성상을 당신의 초상화와 바꿔 놔 보시죠.”

자유를 향해서

공산당 축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혹시 죄수 석방에 대한 소식이 있나 기대하면 라디오를 주의깊게 들었다. 나는 밤에 그 생각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1962년 5월 1일 노동절, 아무 일도 없었다.

8월 23일 자유의 날, 아무 일도 없었다.

11월 7일 러시아 혁명의 날, 몇백 명의 범죄자들은 석방되었다. 정치범에 대한 소식은 없었다.

조그만 조짐들은 계속 늘어가기 시작했다. 상당한 무역거래가 유고슬라비아와 이루어졌다. '러시안 연구기관'이 '외국어 연구기관'의 한 부분이 되었다. '러시아 서점'은 '국제서점'이 되었다.

1963년 가을에는 서방에서 오는 방종의 러시아말 전파 방해가 그쳤다.

8월 23일에 얼마나 소식을 기다리며 라디오 곁에 앉아 있었는지 모른다. 아무 소식도 없었다.

1964년 초에 아무 통보도 없이 정치범 약간이 석방되었다. 우리 친구 몇 명도 있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것이 무슨 뜻이죠?” 하고 물었다. 그들은 몰랐다.

“경비원이 들어와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몇 명이나 불렀느냐고요? 80명 가량이요.”

80명! 꽤 많다. 그래서 우리는 특사가 진행 중이라고 확신했다. 1956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5월 1일에 있으려나? 그러나 그 날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어느 날 아침 내가 우리 다락방에 있을 때 마리에타가 숨이 턱에 닿아서 들어왔다.

“알리스가 돌아와요!”

4년이 지난 지금에 알리스가 돌아온다! 우리는 외투를 후딱 입고 밖으로 뛰어가 전차에 뛰어올랐다. 그곳에 마르고 높고 그러나 웃고 있는 그녀가 있었다.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는가, 그러나 그녀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전혀 아무 것도. 등에 걸친 누덕누덕 기운 흰 옷처럼.

“내일 뒷뚱 가져다 줄게” 하고 내가 약속했다.

“당신 자신도 아무 것도 없잖아?”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호화스럽게 살아요. 우리 다락방 집을 보셔야 하는 건데” 하고 미하이가 웃으며 말했다.

“카페트를 벽에다 걸었지요” 하고 마리에타가 말했다.

“창문에다가도요?”

“물이 흐르고.”

그것도 천장에서 직접 흐르는 것이지.”

다른 많은 여자들에 비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가 하고 나는 생각했다. 우리는 사랑에 둘러싸여 있었다. 어느 곳에서나 사랑은 지하교회라는 커다란 나무의 수액처럼 은밀히 흐르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었다.

밤 내내 나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아침에 우리는 몇 가지를 챙겨서 알리스가 잠깐 사촌의 집으로 가져다 주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집에 오기를 바라는 충분한 이유도 있으면만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났다.

몇 주일마다 말시아라는 친구가 우리 다락방으로 달려와 “특사야! 다음 주에 있대요. 이번에는 정말이야” 하고 말한다.

곧 그녀는 특사양이라는 별명이 붙여졌다. 말시아는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했고 그녀의 남편은 공직에 있었다. 그래서 그녀의 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다. 진짜 특사가 왔을 때 우리는 모두 모르고 있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들의 물건을 사러 나갔었다. 그 날은 따뜻하고 청명한 6월의 한 수요일이었다. 내가 집에 왔을 때 나는 신문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한 친구가 일하러 가는 길에 이것을 가져다 놓은 것이다.

일면에 그렇게 크지 않게 특사라는 소식이 있었다. 그것은 모든 정치범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읽고 또 읽었다. 기사는 무엇을 감추는 듯한 귀절들로 핵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감금당했다가 석방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들을 너무 어리석게 보이도록 만든다. 그리고 모스크바가 보고 있었다.

나는 급히 친구의 방으로 갔다. 몇 명이 벌써 그 소식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작년처럼 일반 죄수들만이야” 하고 란다우어 부인이 말했다. 그러나 특사 양도 거기 있었다.

“아니예요. 내가 그렇게 자주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5분도 채 못되어 한 이웃이 뛰어왔다. 오늘 아침 켈라에서 석방된 옛날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었다.

“당신 남편이 오늘 나올 사람 명단에 있대요. 그가 운동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군요. 그는 오고 있어요.”

그녀가 가고나서 나는 감자를 벗기려고 해보았다. 그러나 나의 가슴은 너무 빨리 뛰어서 나는 앉아야 했다. 몇 시간이 지났다. 노크소리가 또 들렸다. 아래층에 살고 전화가 있는 친구인 아이오네스크씨가 웃으며 서 있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누가 이 마을이 아닌 곳에서 당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밀으로 내려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리차드였다. 그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내 자신이 자꾸 자꾸 무너지는 것 같았고 소리가 바다처럼 내 귀에서 철썩대었고 어둠이 나를 덮어 눌렀다.

내가 눈을 떴을 때는 걱정스런 얼굴들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정신이 났어요.”

“기절했었어요.”

그들은 미하이를 데리고 왔다. 그는 웃으면서 전화에 대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리차드는 클류의 친구들 집에 있었다.

“나는 아직도 아내와 애가 있는지 모르겠오. 내가 찾아나서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가 말했다.

그는 건강하고 자유롭게 되었다. 그는 될 수 있는한 빨리 집에 오고 있다. 질라는 서부의 수백 마일 떨어진 곳이다. 그는 클류에서 기차를 탈 것이지만 그날은 아니다. 그의 첫 번째 지하 집회는 벌써 그날 저녁 약속이 되었다.

오후 내내 다른 친구들, 감옥에서 나온 사람, 부인들은 우리 다락방에서 기다리며 초조하고 기대하면서 이야기했다. 계단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전보가 온 것이다. 나는 그것을 뜯었다.

“리차드가 밤차로 온다고 하는군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도착한대요.”

신음소리를 내면서 특사양이 마루에 쓰러졌다. 이번에는 그녀가 기절했다. 사람들은 둘러서서 뺨을 때리고 찬 물을 얼굴에 뿌렸다. 우리는 그날 밤 한 잠도 못 잤다. 속속 새로운 석방의 소식이 들렸다.

10년, 15년 동안 볼 수 없던 사람들이 문을 통해 나오고 있었다. 마치 죽음에서 다시 살아오는 것처럼, 그 집은 온통 서로 인사하고 옛날 일을 기억하고 계획을 세우며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가득찼다. 꽃이 계속 도착했다. 여름 장미의 큰 다발들이 들어왔다. 위험 때문에 자신은 올 수 없는 친구들로부터 온 것이다.

그들은 역에 나올 수 없으므로 우리는 그들이 보낸 꽃을 그들의 사랑을 보는듯이 받았다. 나는 꽃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 특사양은 한팔 가득 글라디올라스를 안고 있었고 마리에타는 장미를 들고 갔다. 아르메뉴 부인과 알리스는 크고 흰 애스더를 가지고 있었다. 햇빛이 이른 아침의 사랑스런 신선함으로 내리쬐었다.

초조하고 기대하는 사람들 무리가 오는 기차마다 마중을 하

고 있었다. 그들이 아는 죄수가 오리라는 희망은 자꾸 시들어갔다. 그들은 소식이 없었다. 그러자 기차가 도착했다. 풍적을 울리는 큰 디젤 기관차가 지나갔고 나의 눈은 객실을 살펴보았다. 큰 목소리의 안내방송이 있었다. 군중들은 밀고 팔꿈치로 떠밀면서 동요했다.

나는 리차드를 바로 눈 앞에서 보았다. 그는 객실 창문에서 몸을 내밀고 있었다. 뻣뻣 짝은 머리를 한 야위고 창백한 모습이었다. 하나님은 그를 나에게 되돌려 보내주셨다.

그의 옷은 매우 초라했다. 신발은 끈도 없었고(그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너무 커서 발이 신발 속에서 헤엄치고 있었다. 리차드는 웃으며 나에게 천천히 다가와서 미하이와 나를 포옹했다. 그 역은 인사와 떠드는 소리들로 흔들렸다. 카메라를 가진 사람 누군가가 우리 셋을 사진 찍었다.

사람들은 리차드의 주위에 몰려 그 기차로 오지 않은 사람들의 소식을 물었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했으며 다시는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들은 감옥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말하지 말아요. 그냥 당신만 보게 해주구려” 하고 리차드가 말했다.

밤낮 그 다락방은 리차드를 다시 보러 오는 사람들로 꽉찼다. 서서, 앉아서 심지어는 열린 문 사이에 끼어서 누구나 그와 할 말들이 저마다 있었다. 비밀경찰도 그것을 체방놓지는

못했다. 그들은 뒤에서 감시하고 메모하고 있었다. 리차드는 막대기처럼 말라서 몸무게는 7 스톤 밖에 안나갔다.

그는 매를 맞고 세뇌당했다. 그는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사람들은 그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는 옮겨 다녀야 했다. 비밀경찰은 불만이었다. 그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마지막에 한때 왕실의 여름 휴양지였던 가장 아름다운 산마을인 시나이의 요양원에 정착했다. 그러나 거기에도 사람들이 오토바이와 자전거와 버스를 타고 왔다. 비밀경찰은 또 한번 경고를 했다. 그는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럴 수 밖에 댄 도리가 없었다.

부크레스트는 혼란했다. 그 해에 몇 만 명의 정치범이 석방되었다. 그들은 직업을 구하고 아내와 아이들을 찾아다녔다. 그들이 15년이나 20년 동안 모르던 생활에 뛰어들려고 해서 가끔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수도 있었다. 사람들의 마음과 집과 길가에 비극이 있었다.

경찰은 이 모든 혼란을 잘 처리하지 못했다. 그래서 리차드는 목사가 그를 초청하는 어느 교회에서나 비밀리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있었다. 우리는 아르메뉴 부인을 흑해 휴일에 콘스탄자로 내려보냈다. 그녀의 남편은 석방되지 않았다.

리차드는 설교할 수 있는 허가까지 얻으려 했다. 그러나 그것은 공식적으로 36명으로 제한된 오르소바 교회에만 한정되었다.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문제가 있을 줄 아시오. 우리가 주목해보고 있으니 그런 줄 아시오” 하고 경찰은 경고했다.

리차드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곳에서 설교할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그곳에서 설교한다는 말이 들으면 사람들이 물려올 것이요. 우리는 오르소바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뿐이요.”

그래서 우리는 당분간 가지 않기로 했다. 어떤 경우에도 부크레스트의 지하교회 일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기에는 항상 너무 바쁘다. 이곳 저곳의 비밀 집회에서 리차드는 몇 백명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고 경찰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 내가 그에게 장래의 계획을 물어보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옛날 수행자처럼 은둔자가 되어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명상으로 여생을 보내고 싶소. 그러나 현실은 그 이상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는 한번 더 교회가 얼마나 자유가 없다는 것과 밀교자에 의해 침범당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밀교자는 주교로부터 가장 미친한 회원에까지 걸쳐 있었다. 목사가 그들의 무리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폐쇄되었다.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은 예전보다 더 맹렬히 무신론을 주입당했다.

그러나 가장 리차드를 괴롭히는 것은 종교를 말살하는 공산

당들에게 서방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순진하게 넘어가는 지를 안 것이다.

이 때에 나는 말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러시아 교회의 어떤 고위층들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당의 앞잡이라고 슬퍼하면서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들은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당의 선택에 의해서 철의 장막 뒤에서 국제회의에 참가해서 공산당이 정해준 역할을 해낸 성직자들도 지하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우리는 그들의 감상을 들었다. 그들은 이 회의의 미국이나 영국 대표 몇 명은 매우 속기 쉽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그들은 남이 말하는 것을 완전히 믿어요. 진짜 공산당보다 더 공산주의에 열성적인 사람도 있어요” 하고 그들이 말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지하교회의 지도자들이 만나 리처드가 서방 세계에 손을 미치는 시도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의 의무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는 일이다.

1948년 이래로 루마니아는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을 팔고 있었다. 떠나고 싶은 우리의 희망은 수 백만 명의 유대인이 출국신청을 위해 군 사령부에 긴 줄을 서게 만들었다. 이 때

량 출국은 이미 아랍의 비위를 거슬렸고 그래서 정부는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당국에 거액의 돈을 지불함으로써 이런 장애는 없어질 수 있었다.

교섭은 우리에게 길고 지루했다. 그들이 고위 관리로부터 우리의 사전기록에 ‘출국금지’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는 정보 뿐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친구들이 미하이가 앞서 가게 하라고 제안했다. 그때 그는 커다란 위협에 처해 있는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혼자 떠나서 그들을 ‘공수해낼’ 돈을 모으라고 말했다.

이제 대 석방의 혼란이 가시자 강압적인 수단이 되돌아왔다. 리차드는 어디에서나 감시받았다. 그가 어떤 교회에 들어가든 그 교회의 목사는 경고받거나 위협받았다.

우리들의 전 교회는 폐쇄당하고 만화 제작소가 되었다. 좌석과 설교단은 남아 못쓰게 되었고 유리창은 봉쇄되었다. 한 가지 면으로 이것은 위장할 수 있어 잘된 일이다. 그것은 우리 다락방의 앞을 가로막아서 자세히 감시하기 어렵게 했다. 만화 제작 기술자, 음악가, 비서들이 하루종일 왔다갔다 해서 우리의 형제와 쉽게 구별해낼 수가 없었다.

비밀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노르웨이에 있는 친구 아누차에게 말을 전했다. 그녀는 우리의 몸값을 위해 돈을 모으는 일에 착수했다. 외국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도 그들의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떠날 수 있게 된 것은 다른 누구보다도 아누차를 통해서였다. 그녀는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게 우리에게 여권을 내줄 것을 설득시켰다. 그녀는 노르웨이 이스라엘 선교회와 히브리 크리스찬 연맹에서 7,000달러를 모금했다. 여기서 나는 단체들에 감사를 표명한다. 다른 출처에서 3,000달러를 보조했다. 나의 가족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도움받고 기부받았다. 그들은 모두 사랑이었다.

서방에서 첫번째로 온 사람은 공산주의 세제에 복음을 전파하는 기관의 회장인 스투라우 해리스 경과 미국인 목사 존 모리스로 그들은 가족을 위해 필요한 첫번째 구호기금을 가지고 밤에 몰래 도착했다. 미하이는 바깥에 경찰이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감시받고 있었다. 그 방문객들은 우리와 새벽 1시까지 기다렸다. 그때가 될 때까지 경찰들은 그것이 거짓경계였다고 생각하면서 이미 떠나 있었다.

다음 날 우리는 공원에서 그들 두 사람으로부터 몇 권의 성경을 모았다. 우리는 거기서도 감시당했다. 나중에 한 첩자가 우리 집에 와서 슬며시 떠보는 질문을 했다.

해리스와 모리스는 다음 날 침례교 신학교에 성경을 전해 주기로 되어 있었다. 그들은 나중에 나로부터 학생들이 해리스와 모리스가 떠난 후에 그 성경들을 모두 돌려주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우리의 다음번 방문자는 미국인 몇 명과 스위스인 한 명이었다. 그들은 리차드의 주소를 몰라서 관인 교회단체로 가서 물어보았다.

“범브란드 목사? 물론 알죠.”

그들은 범브란드 목사를 알았다. 그들은 부하 중 한 사람을 안내를 위해 보냈다. “아, 아닙니다. 무슨 일이 아니라 그냥 도와드리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들과 함께 우리의 다락방에 왔다. 분명히 그는 곧장 돌아가서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을 보고할 것이다. 그러나 그 만남은 우습게 되었다. 그 경비원은 붙어는 할 줄 알지만 영어는 모른다. 그래서 리차드는 방문자들과 영어로 이야기했고 나는 그 사람에게 통역해주어야 했다.

“남편은 여기서 교회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여행의 큰 가능성과 날씨에 대해서...”

리차드는 그동안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교회의 실상에 대해 줄줄이 이야기했다. 그는 생기가 있었고 총기가 빛났으며 이 우스운 일로 그들과 함께 웃었다. 그러자 한 미국인이 말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목사님,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짧고 가기 전에 범브란드 목사와 이야기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범브란드 목사입니다.”

“그럴 수가?”

“그러나 사실인 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사실임에 분명합니다만 14년 동안 감옥에 계신 분이! 우리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을 만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분을 만나다니요.”

1년간 이상의 노력과 서방에 있는 친구들로부터의 압력 끝에 우리는 드디어 “당신들의 여권이 인정되었습니다. 달려를 바꾸어 줍니다” 하는 통보를 듣게 되었다.

리차드는 비밀 경찰과의 마지막 대면을 위해 소환되었다. 그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당신은 떠나도 됩니다. 외국에서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반대하는 발언만 해보시오. 조용해 질테니까요”

우리는 그 이후로 그 경고가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다.

나도 관리와 마지막 면담을 가졌다. 그것은 압수할 물건 목록을 가지고 있는 집달리였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이번이 당신이 지불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일 오세요. 그러면 다 가져가도 됩니다” 하고 말했다.

형제와 자매들이 작별인사를 하기 위해 먼 지방에서 왔다. 부크레스트의 친구들은 우리의 안녕을 빌기 위해 속속 도착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공항에 있었다. 그날은 12월 6일로 성 니콜라스 축일이었다. 짙은 안개에 가려 건물들이 안 보이고 회색 항공기가 활주로에 나타났다. 우리가 탈 비행기는 구형 DC 7 이었고 모두 60명으로 몸값을 치른 유대인이

대반이었다.

우리는 공산권을 빠져나가는 행운에 대한 깊은 감사와 뒤에 남겨두고 오는 사람에 대한 깊은 슬픔으로 새벽부터 그곳에서 있었다. 군관과 여권 검사원과 항공 승무원들이 모두 우리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우리는 공산권의 세계에서 자유세계로 살려 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들은 공항에 모이는 군중들을 제지시키려 했다. 그러나 군중들은 여전히 우리를 보러 왔다. 뒤를 돌아보고 그들에게 창문을 통해 손을 흔들면서 우리는 젖은 회색의 아스팔트 위를 떠돌았다. 안개는 걸리고 있었다.

우리는 비행기에 앉았다. 미하이는 유일한 외국인 승객인 이탈리아 사업가 옆에 앉았는데 그는 즉시 말을 시작했다. 명랑하게 그는 미하이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그는 그들이 말하는 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었다. 공산권에서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이다. 부크레스트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호텔인 아테네 궁전 호텔에서 매우 훌륭한 식사도 했었다. 미하이는 가만히 있었다.

그들은 로마 공항에서 나란히 계단을 내려왔다. 미하이는 이렇게 물었다.

“이것이 정말 로마입니까? 동 베르린이나 다른 곳이 아니구요?”

“그럼요, 그래요” 하고 사업가가 웃었다.

“저곳의 간판을 보세요. 코카 콜라라고 썼지요. 당신은 이 태리 땅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군요” 하고 그는 울기 시작했다.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이제 루마니아 실정이 어떤가 말씀해드리죠. 그러나 당신이나 딴 사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관을 통해 나갔다. 오빠와 율케가 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랑의 힘으로 그들은 파리에서 특별히 온 것이다.

끝 맺 음

로마에서 우리는 오슬로로 갔다. 리차드는 루마니아의 학정을 보고하기 위해 제네바에 들리고 싶어했지만 루터파 세계 연맹의 한 비서가 전화걸어서 오지 말도록 했다. 그 이유는 “루마니아 사람들이 알지 모르니까”였다. 그들이 통치하는 곳에 살았던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왜 세계 교회 연맹에서 루마니아인들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

노르웨이에서 우리는 몸값의 일부분을 치워준 이스라엘 선교회의 회원들과 다른 교회 간부들을 만났다. 그러나 맨 처음 누구보다도 아누차를 만났다. 그녀는 이 재결합을 위해 15년간 수고했다. 스웨덴 이스라엘 선교회의 회장인 헤멘키스트 목사도 우리를 잊지 않았다. 그는 특별히 스톡홀름에서 왔다. 몇 년 동안 그는 우리를 위해 매일 기도했다. 우리의

몸값의 일부를 치워준 히브리 크리스찬 연맹 역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즉시 물었다.

그리고 우리는 영국으로 갔다. 여기서 친구 스트라우해리스는 대학의 문을 열고 모든 종파의 교회 사람들을 접촉하게 해주었다. 사람들은 이제까지는 모르고 있던 지하교회의 순교자들과 승리에 대해 마침내는 들었다. 영국 크리스찬들은 공산권 하에 있는 제3세계의 형제들이 압박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모든 곳에서 남편은 강연했고 나도 몇 군데는 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들이 하나님의 알려지지 않은 ‘지하세계’와 알게 되자 우리도 여기를 알게 되고 후에는 미국에서 앵글로 색슨족의 세계를 알게 되었다. 우리는 그레고리 대교황을 이해할 것 같다. 그가 부제일 때 그는 로마의 노예 시장에서 깨끗한 얼굴과 흰 몸을 가진 젊은 사람 몇 명이 묶여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저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냐?” 그들은 영국사람이었다. (English는 라틴말로는 앵글스이다.)

“그들은 앵글스가 아니라 천사들이오” 하고 그가 말했다. “저들의 왕의 이름이 무엇인고?” 대답은 “할라 왕’이었다. 그레고리는 “할렐루야가 할라의 땅에서 불려질 것이다” 하고 말했다. 그가 교황이 되었을 때 정말 그렇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지하교회에 천사같은 사랑을 보인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공산주의 세계에 행한 첫 번째 선교가 이룩되었다.

오슬로에서 사귄 친구인 스테디 목사와 크누슨 목사는 우리가 미국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리차드와 나는 다시 교회와 큰 집회와 세미나와 여성 모임에서 설교했다.

리차드는 미국 상원위원회와 나중에는 하원의 앞에서 초청 받아 간증했다. 나는 그가 간증할 때 그의 옆에 서 있었다. 의원들 뿐만 아니다. 세계의 신문사와 방송국의 대표들이 그곳에 모였다. 그가 지하교회의 수난에 대해 이야기할 때 TV 카메라의 바테리가 켜졌다.

“세계의 3분의 1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과 선물의 3분의 1이 기울여져야 합니다. 감옥에서 저는 발에 50 파운드의 쇠사슬을 하고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인 여러분들은 공산권의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사람들을 위해 설교를 들으러 교회에 좀처럼 오지도 않습니다.”

고문 자국이 있느냐는 한 의원의 물음에 그는 옷을 허리까지 벗고 18개의 흉터를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그의 다음과 같은 말에 울었다.

“나는 이 흉터를 으시대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교회와 나라의 고문당한 몸을 보았습니다. 나는 믿음을 위해 고문받아 아무 말도 못하고 죽은 청교도, 카톨릭, 정통파 교인, 유

태인 성도들과 영웅들을 대신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서 눈에 눈물을 흘렸다. 내 눈앞에는 농부여인, 수녀, 소녀들과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 신자와 하나님의 유태인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또 다른 바로식 노동을 노예로서 감수한 이스라엘 여인들이 앉아 있었다. 나는 죽은 사람을 기억한다. 나는 그들이 죽음을 통해서 백합과 카베이션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안다.

리차드는 후에 “당신의 눈물이 나의 말보다 더 큰 감명을 주었오. 눈물은 가장 큰 장벽도 침식한다오” 하고 나에게 말했다.

리차드는 그의 첫번째 책인 「Today's Martyred Church Tortured for Christ」를 읽어주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면서 그것을 들었다. 그는 울었다. 나도 역시 울었다. 그것은 매우 간단한 책이었지만 잉크로 쓰였다기보다 순교자의 눈물과 피로 쓰인 책이다. 예상 밖으로 그 책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 이 책과 각 나라와 각 대륙에서 오는 방문자들이 유럽과 아시아와 오스트리아와 미국의 자유중국에서의 전도활동 개시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지하교회에 크리스찬 문학과 각 언어로의 라디오 방송과 순교자 가족을 위한 구호기금을 위해 같이 일했다. 리차드의 펜에서 책이 하나씩 들썩 나왔다. 그는 설교하는 데 피로한 것은 아니었지만 설교하지 않았다. 어떤 이는 그

의 방법에 의문을 표시했지만 그들의 비평은 언제나 너무 늦게 왔다. 리차드는 나중에 알아줄 때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행동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행복했다. 우리는 독일 형제와 있으면 편안하게 느껴진다. 독일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피가 강이 되어 흐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대인을 위해 갈라놓은 바다를 피바다라고 부르는 것은 아마 우연이 아니리라. 사랑하는 사람은 피바다까지도 초월할 수가 있다. 증오를 고집하는 사람만이 그 속에 빠진다.

우리는 오스트레일리아인들과 마우리 형제들과 백인종과 흑인종과 아프리카의 인디안들과 함께 모두 행복했다. 우리는 남부 아프리카같은 인종 차별없이 집회를 가졌다. 모든 종족과 피부색이 함께 섞여서 지하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멧세지물 눈물로 들었다.

나는 몇년 전에 미하이가 한 슬픈 회상이 기억난다.

“아버지가 돌아오신다고 해도 더이상 우리가 아는 아버지가 아닐 거예요. 아무에게도 설교할 수 없는 유령같은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한 신문에 우리 방문의 기사가 났다. “우리는 리차드라는 태풍에 놀랐다.”

리차드의 “공산주의를 미워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사랑하고 극복하십시오”라는 가르침은 어느 곳에서나 수백만 명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이제는 지하교회를 위한 교

회와 관심과 능동적인 도움이 있다. 그곳의 학정자의 악을 배척하는 싸움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안겨졌다. 이 싸움에서 리차드는 공산주의와 타협하는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공격한다.

리차드는 리차드이고 나는 나이다. 나로 말하면 그의 그 많은 사람에 대한 그의 싸움은 너무 심하다. 나는 그가 더 진정했으면 한다. 나는 가끔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솔로몬의 아가 중에서 그리스도는 꽃에 비유가 됩니다. 그 꽃은 보는 사람을 향기가 우아함으로 즐겁게 해주는 것만으로 인생을 살며 꺾이고 시듭니다. 장미는 그것을 죽이려 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차드는 이렇게 대답한다.

“우리가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고 교회에 침범을 못하게 하지 않으면 그 압박자들이 우리를 칠 것이오.”

나는 그가 왜 이것을 걱정하는지 모르겠다. 교회는 십자가에 못박히고 침해당하도록 생겨난 것이 아닌가? 황제들과 권력을 나누는 것보다 카타콤에 묻히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은가? 우리의 지하교회는 아무도 주님의 수난에 울지 않고 그의 부활을 듣고 기쁨으로 소리치지 않는 자유세계의 교회와 비교할 바가 아니지 않은가?

남편은 그런 이론에 도달할 수 없었다. 그는 “솔로몬의 아

가 중에 예수님은 무슨 꽃에 비유되어 있으?” 하고 물었다.

“장미꽃입니다.” 그는 즉시 스스로 대답했다.

“장미는 가시를 가지고 있오. 건드리면 찢려요.”

나는 30년간 그를 알아왔다. 나는 그를 변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있기로 했다. 나는 공산국가들 드나드는 우리 선교단의 사신의 일을 관장한다. 그 일은 그들로부터 교회의 상태를 듣고 성서와 문헌서와 테이프를 공급하고 구호자금을 관리한다.

수 십만 명의 크리스찬이 공산주의 감옥에 있다. 루마니아의 감옥에는 우리의 친구들이 많이 갇혀 있다. 어디에서나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식은 나를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한다. 1969년 6월 소련 일간지는 믿음 때문에 구속한 라빈체크와 다섯 아들의 체포를 뽑내었다.

나는 라빈체크 부인의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빈 집에서 얼마나 피로울까. 알바니아에서 목사는 통에 집어넣어져서 길 위를 굴러 바다에 빠뜨려졌다. 북한에서는 1969년에 하루에 45명의 크리스찬이 죽었다. 이들의 가족과 쉼 수 없을 정도의 다른 사람들이 굶고 있었다. 그리고 각처에서 목마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다.

많은 예방책을 강구하면서 나는 사신들을 만나 이런 것들을 직접 그들로부터 들었다. 이제는 그 일이 4년째가 된다. 그렇지만 우리의 사신 누구도 아직 구속된 적이 없다.

나는 또 만나는 사람이 있었다. 자유세계로 온 목사, 세계 교회연맹의 회의에 온 목사, 침례교와 정통파의 회의에 온 목사, 공산주의 사회에도 종교의 자유가 없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서방 세계를 속이러 온 목사 등 많다. 리차드는 맨 마지막에 적은 것 같은 목사를 배반자라고 부른다.

나는 그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겠다. 내가 누구인데 심판을 하겠는가? 그들은 불행한 존재들이다. 그들은 빨갱이의 꼭두각시이다. 그러나 달리 어떻게 그들이 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의 나라가 자유롭게 되기를 20년이나 고대한 사람도 있다. 미국 대통령은 많은 것을 공약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자유진영에서부터 오는 도움을 단념하고 그들은 그 정권과 공존하는 방법을 배운 것이다.

그들 형제는 감옥에서 순교하는 길을 택했다. 그들은 몇 개의 교회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 양심의 순교의 길을 택했다. 교회는 세례와 결혼과 장례를 주관하기 위해서 필요했다. 그들은 자유진영을 돌아다니며 소련에서 충분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강요당한 열성적인 부르짖음을 통해 자유진영이 진실은 얼마나 나쁜가 하는 것을 눈치채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영국인이거나 미국인 크리스찬이 세계를 돌며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역설하는 것을 보았는가?). 그러나 서방의 교회의 교회 지도자들은 마음 속을 들여다보지 못했다. 그들은 비극을 모르고 그들이 들은 것을 퍼뜨린다.

“공산권의 수용소에도 자유가 있습니다.”

공산진영에서 온 공인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나와 나의 여자 친구들은 보통 밤에 그들의 호텔에서 만난다. 나는 이제 젊지 않다. 그러나 이들을 감시하는 공산주의 감시원들은 수염을 기르고 범복을 입은 주교들이 유혹당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우리의 방문을 해석한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기도했다. 몇 번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 공산당들은 누가 우리쪽으로 이끌림을 당했는지 추측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주교일 수도 있고 그를 감시하는 K.G.B. 요원일 수도 있다. 소련 대사일 수도 있다. 아니면 보고를 받는 정부의 관리인지도 모른다. 스페트라나 스탈린과 코시긴 부인과 가장 위대한 현 세기의 작가인 솔제니친을 구원한 지하교회는 일을 할줄 안다는 것을 입증했다.

우리의 사적인 생활도 많이 변했다. 리차드는 수년 동안 매일 질과 조롱에 익숙해지고 경멸을 당하던 죄수였었다. 이제 그는 다른 사람의 머리를 들게 할 수 있는 아침을 받는다. 그러나 그는 사나운 용광로 속을 통과했다. 그는 갈채는 그가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안다. 명성은 수치의 마찬가지로 겸손하게 지녀야 한다.

처음에 나는 미국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거대한 부를 두려워했다. 우리가 처음 가진 것은 캘리포니아 교회에 있는 가장 초라한 집이었지만 부크레스트의 다락방에 비하면 궁전이었다. 가구를 들여놓고 차를 선물로 받았다. 나는 이런 '사치품'에 대해 걱정했다. 그러나 리차드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비법을 인용했다.

“당신이 돈을 경시하면 부자가 되려고 애쓰라.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을 잘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왜 부자가 되지 않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주님은 요셉과 같이 계셨고 그는 돈을 잘버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냥 가집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요. 꿀벌이 오직 죄인들을 위해서만 벌꿀을 만든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서 나왔오? 성도들도 진미를 즐길 권리가 있다오. 우리를 낫추는 것을 알았으니 풍부한 것이 어떤 것인가 알아봅시다.”

나는 성 메레사같은 특별한 사람들의 금욕주의를 좋아한다. 나는 막중한 상납금을 내기 위해 몇 주일을 꼬박 굶는 러시아의 니나이아 타질리아 마을의 형제들을 생각한다. 그들을 생각하면 속에 음식이 안넘어간다. 리차드는 그들과 같은 많은 사람들을 그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돌본다. 감옥에서 그가 일주일에 나뭇은 굶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서 무서운 고문의 세월을 지내온 사람 모두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을 본다. 피할 수 없는 반작용의 법칙이 효력을 발생하여 그렇게 인생을 때앗기고 난 후에는 그곳에 있는 모든 기쁨을 맛보려고 하는 강한 충동을 가지게 된다. 나는 두렵지 않았다. 하나님은 불공정하지 않으시며 그의 옛적의 회생을 잊지 않으신다. 리차드는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가 느끼는 위험은 진짜 위험이 되지 않

는다.

나는 그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한다.

“당신이 돈을 경시한다는 것을 들어서 기뻐요. 처음 백만 달러가 생겨도 그만두지 않도록 유의하세요(사실 이러한 위험은 그때 없었다).”

우리는 우리의 전도 사업에 미하이와 그의 아내 유디스의 도움이 있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위안이 되었다. 그들은 미하이가 16살이고 유디스가 10살이었을 때 부크레스트에서 친구였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이스라엘로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리차드가 30년 전 인도한 여인에 의해서 개종하였다.

우리가 자유 세계에 온 후에 유디스는 우리를 방문하러 왔다. 미하이는 첫날 그녀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영원히 있어 주겠습니까?” 그녀는 “물론이요” 하고 대답해서 결혼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큰 기쁨도 가졌고 걱정거리도 있었다. 지난 해 동안 철의 장막의 나라에서 온 여섯 사람이 살해되었다. 그들은 자유세계에서 공산주의에 반대해서 싸운 독일인 네 명과 이탈리아인 한명, 스페인 사람 한 명이었다. 카톨릭 성직자인 드라가노빅 씨는 트리스트로부터 유죄당해서 지금은 유고슬라비아에 감금당해 있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날조된 서류가 믿음 때문이 아니고 교회돈을 착복했거나 동성애 때문에 감옥

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졌다.

나는 리차드와 떨어져 있을 때는 더욱 더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이 아무리 위험한 일이라도 그것을 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두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아무도 배풍을 저지할 수는 없다. 나도 리차드가 점점 더 공산당의 잔악성과 간교한 침해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그들의 도구로 만드는 것을 목로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보호해주기를 바란다.

리차드가 공격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그들은 리차드 앞길에 많은 장애물을 놓았다. 그들이 그의 성격을 먼저 연구했다면 그건 희망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리라. 장벽이 높아질수록 그는 더 높이 쏜다. 그는 거대한 외적인 장애물을 직면하면서 그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생애를 시작해 장애물을 유용한 것으로 만들었다.

나는 전도의 목적으로 이스라엘로 갔다. 나는 그곳에서 성도들을 보았다. 나는 많은 전의 집회에서와 내가 구속되던 날 나에게 Leshanah Habe - Jerushlaim!(다음 해에는 예루살렘에서 만남시다)라고 말해주던 나의 가족과 사촌을 보았다. 거의 20년이 지난 후였다.

이스라엘에서는 남자는 성스러운 땅 위를 걷는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한때 세워졌던 곳에서 참배할 때 경험하는 것을 잘못하게 하는 타당성이 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서 조용히 울었다. 그녀는 그때 그녀가 느낀 것을 아무에

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녀와 나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나도 가만히 있기로 했다.

나는 그곳 교회의 일부가 어느 한 명의 권세에 속해 있고 또한 일부는 다른 사람의 권세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슬퍼했다. 나는 복음주의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실로 하여금 다른 종파의 크리스찬과 싸우지 않는다. 장미꽃은 많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워질지언정 모든 나라에 퍼뜨린다.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자유로운 이스라엘, 자유롭지만 적들에게 둘러싸인 이스라엘을 떠났다. 체코슬로바키아 가까이에는 강력한 ‘친구’가 있지만 그것은 속박되어 있다. 그것은 나에게 우리 사업의 적들을 소중히하는 것을 가르친다.

그들은 우리 사업을 발전하게 한다. 유태 민족주의자의 꿈은 이룩되었고 나의 유태인 감옥 친구들은 헛되이 고통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꿈은 역시 나의 꿈이다. 그리스도교가 나에게 나의 민족을 더 사랑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같이 느낀다.

이 친구들이 모르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유태인 민족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다. 유태인인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그의 모든 것을 걸고 공산주의 혁명 이래도 퇴치되어온 예수님을 러시아문학에 등장시켰다.

유태인 작가들인 다니엘과 긴즈버그와 유태인 정치 전략가인 리즈비노프는 러시아의 자유를 위해 감옥에 갇혔다. 공산

주의의 반대 투쟁을 앞장서는 유태인이 많다. 두 명의 전통파 목사는 용감하게도 대주교의 소련 정부와의 협력을 반대했다. 루마니아 지하교회의 가장 위대한 영웅은 유태인 밀란 하이 모비치이다. 그는 1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고문을 당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의 부인인 모니카와 우리의 잃어버린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밤을 지냈는지 모른다. 이제는 루터파 교회가 그에게 보상하고 있다. 그는 서부 독일에 세워지고 있는 교회의 청지기이다. 그는 루마니아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이며 설교자라고 인정받았다. 그러나 독일 설교단에서 그는 '위험분자'일 수가 있다. 그가 공산주의의 잔악행위를 폭로할지도 모른다. 그는 잠자코 있어야 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유태인에게 주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위대한 사람들도 주실 것이다.

이제 나는 다시 밀수 일로 돌아가야 한다. 좋은 말은 아니다. 다만 성경을 밀수하는 것만 빼고. 크리스찬 순교자의 가족과 지하교회 목사를 돕는 일이다. 서방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공산주의의 독에 맞서 싸우는 일이다.

이 일은 매일 발전한다. 순교자의 이름은 전 세계에 알려지고 아이들은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기억하면서 잠자리에 든다.

목사의 아내로서, 나는 젊은이들에게 해변가에 서서 바다의 배에 손을 흔드는 소년의 이야기를 곧잘 한다. 그 옆의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어리석게 굴지마라. 저 증기선은 네가 손을 흔든다고 진로를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배는 방향을 돌려 해변가로 와 그 소년을 태웠다. 선상에서 그가 소리쳤다.

“아저씨, 나는 바보가 아니에요. 선장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우리는 그 진로에 따라 우주의 방향을 잡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이며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듣는다는 사실을 안다.